

# 진리의 기둥과 터

*Pillar and Ground of the Truth*

그리스도를 위한 대사들

2018년 12월 7일-12월 16일 연말기도주일

# 그리스도를 위한 대사들

세계대중회

고린도 후서 5 장에서 사도 바울은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17 절)라고 선포하고 18절에서 그는 그리스도께서 이 새로운 피조물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책을 주셨다고 선포한다. 그리고 20절에서 그는 “우리는 그리스도를 위한 대사들”이라고 말한다.

위의 말씀들을 요약해 보자:

1. 거듭남으로써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된다.
2.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어 인류와 하나님, 그리고 사람들과 이웃 사이의 화목하게 하는 일꾼이 된다.
3. 새로운 피조물들과 일꾼들로서 우리는 그리스도를 위한 대사들이다.  
그리스도를 위한 대사 곧 사신이 되는 고귀한 특권을 알 수 있는가?

대사는 자신의 나라를 다른 나라에 대표하는 정부 공직자 중 최고의 직분을 갖고 있다. 따라서 대사는 반드시 본국 정부와 주재국 모두에게서 존경받는 사람이어야 한다. 양국 간 중대한 위기가 있을 때마다 대사는 즉각적으로 협의하며, 많은 경우 두 나라 사이의 화목시키는 직분을 갖고 활동한다.

성경은 모든 진정한 기독교인들이 전 세계에서 하늘나라를 대표하는 그리스도의 대사들로 언급한다. 그들은 하늘의 언어를 알고 그것을 지구의 언어로 통역한다. 그들은 세상 앞에서 그리스도의 인격을 대변하는 화해의 장관들이다. 그들은 그리스도에게 주의를 환기시키고 죄인들을 대신하여 그리스도와 중재한다. 간단히 말해서, 그들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상 앞에서 있는 고관들이다.

기독교인들은 그들을 대사로 선언할 필요는 없다. 그러나 그들의 행동으로 볼 때, 그들은 그들의 말과 행동이 주님의 인격을 나타낸다는 것을 안다. 모든 것이 같은 능력이나 방식으로 작용하지는 않을 것이다. 그러나 하나님의 모든 자녀는 그들의 책임에 충실해야 한다. 베드로와 요한이 산헤드린 앞에 끌려갔을 때, 그들의 대답함과 두려움 없는 행동은 듣는 사람들로 하여금 “그 본래 학문 없는 범인으로 알았다가 이상히 여기며 또 그 전에 예수와 함께 있던 줄도 알”게 되었다.[행 4:13].

대사가 되는 것은 큰 특권과 책임을 수반한다. 천국을 대표하는 것은 작은 직분이 아니다. 대사의 행동은 어떠해야 하는가? 말해지거나 행해진 모든 것은 대표되는 국가를 반영해야 한다.

“승천하신 후, 그리스도께서는 택하신 자자들을 통하여 지상에 있는 당신의 사업을 진전시키셨으며, 그들을 통하여 인간 자녀들에게 말씀하시고 그들의 필요에 봉사하신다. 교회의 머리되신 그리스도께서는 당신의 대표자로 일하도록 임명하신 인간 대리자들을 통하여 당신의 사업을 감독하신다.

그분의 교회를 세우기 위하여 말과 교리를 가지고 일하도록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이들의 자리는 막중한 책임이 따르는 자리이다. 그들은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남녀들에게 하나님과 화목하도록 탄원해야 한다. 그들은 위로부터 지혜와 능력을 받을 때에만 저들의 사명을 완수할 수 있다.”<sup>1</sup>

직접 소통하는 대사들은 그들이 대표하는 정부와 지속적인 의사소통을 해야 한다. 그들은 나라에서 상사와 완벽하게 조화를 이루며 일해야 한다. 그리스도의 대사들에게도 같은 일이 일어나야 한다. 그들은 그들의 왕 예수 그리스도와 끊임없이 의사소통을 할 필요가 있다.

“말씀을 가르치는 사람들은 친히 기도하고 그분의 말씀을 연구함으로 하나님과 끊임없이 깨어 교통하는 가운데 살아야 한다. 이는 여기에 능력과 근원이 있기 때문이다... 거부할 수 없는 열심으로 그는 의무와 시련을 위하여 자신을 굳게 하고 강하게 하며 그의 입술에 숯불을 당겨 해 주시도록 하나님께 호소하여야 한다. 그리스도의 사신들이 영원한 본체를 붙잡는 일이 종종 너무도 미약하다. 만일 사람들이 그분과 동행한다면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만세 반석의 틈에 숨기실 것이다. 이같이 감추어진다면 모세가 하나님을 본 것처럼 그들도 하나님을 볼 수 있다. 하나님께서 나눠 주시는 능력과 빛으로 그들은 그들의 유한한 판단력으로 가능하다고 생각했던 것보다 더 많은 것을 깨닫고 성취할 수 있다.”<sup>2</sup>

참조

- 1 사도행적, 380.
- 2 사도행적, 362, 363.

오늘날의 정보화 시대에는 온라인에서 친구가 누구인지 검색함으로써 사람들에게 대해 알기 쉽다.

성경에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는 선포하신다: “너희가 나의 명하는 대로 행하면 곧 나의 친구라 이제부터는 너희를 중이라 하지 아니하리니 좋은 주인의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라 너희를 친구라 하였노니 내가 내 아버지께 들은 것을 다 너희에게 알게 하였음이니라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는 너희로 가서 과실을 맺게 하고 또 너희 과실이 항상 있게 하여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함이니라” [요 15:14-16].

그리스도는 그의 친구가 되는 우리에게 그를 모르는 사람들에게 적절히 소개하기를 바라신다. 우리는 이 책임을 진지하게 받아들이고 있는가? 우리가 마땅히 그래야 하는 것처럼 이 큰 특권을 인정하고 있는가? 다른 한 해가 끝나가고 있고 우리의 가장 친한 친구께서는 우리 모두에게 많은 축복을 부여하셨다. 이것은 지금 우리가 그분을 만난 적이 없는 다른 사람들과 더 자유롭게 공유해야 하는 것이며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그분을 잊어 버리게 될 것이다. 주께서는 우리에게 명하신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마 28:19, 20].

금년 연말기도주 낭독문의 주제 “그리스도를 위한 대사들”은 우리 주님께서 통치하시는 셋째 하늘인 하늘 성소의 은혜로운 정책을 올바르게 표현하는데 더 깊은 열정을 불러일으킬 수 있도록 고무시키고 동기를 불어넣는다. 우리는 주님의 사명을 보다 효과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필수적인 도구들이 되어야 한다.

이 점에 관해 우리는 기도하는 마음으로 우리의 영적 필요를 이해하고 이 기도주일 낭독문을 고립되어 있거나 집에 틀어박혀 있는 다른 사람들과 공유하고 다음과 같은 날짜를 명심하기 바란다:

금식 기도일: 12월 15일 안식일  
선교지역을 위한 연금: 12월 16일 일요일

그리스도의 영이 우리 모두의 마음을 뜨겁게 하심으로 우리의 하늘 아버지의 사업에 대해 열렬히 참여하도록 기도하는 바이다.

“하나님께서서는 세상으로부터 한 백성을 높이 들리운 영원한 진리의 토대, 곧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 믿음으로 인도하고 계신다. 그분은 그분의 백성을 훈련하시고, 준비시키신다. 그들은 의견이 일치할 것이다. 곧 이 사람은 이것을, 저 사람은 전적으로 그것과 정면으로 배치되는 신앙과 견해를 견지하고, 각자가 몸으로부터 독립하여 움직이는 불일치가 없을 것이다. 하나님께서 교회 속에 두신 다양한 은사들과 다스림을 통해서 그들은 모두 신앙의 일치에 이를 것이다.” - 목사와 복음 교역자에게 보내는 중언, 29.

책을 열며	2
2018년 연말기도주일	
12월 7일 금요일	
세상의 빛	4
12월 8일 안식일	
봉사를 위해 조직됨	8
12월 9일 일요일	
가을 낙엽처럼	12
12월 12일 수요일	
복음의 개척자 사업	16
12월 14일 금요일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함	20
12월 15일 금식안식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25
12월 16일 일요일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30
2018년 기도력	
내가 그분을 알려하여	35

# 세상의 빛

엘렌 G. 화잇 저서로부터 발췌함

그리스도를 따르는 자들은 그들의 주님과 협력하는 자들이 되어야 한다. 그들은 “어그러지고 거스리는 세대가운데서 하나님의 흠 없는 자녀로 세상에서 그들 가운데 빛들로”(빌 2:15) 나타나야 한다고 바울은 말한다. 우리는 의의 태양으로부터 밝은 빛을 받아서 우리의 착한 행실로써 결코 단속적인 것이 아니고 결코 희미해지지도 않는 분명하고 확실한 빛을 다른 사람들에게 비추어야 한다. 우리는 우리의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하늘로 인도하기 위하여 적극적인 감화를 끼치고 있지 않는 한, 우리가 그들에게 해를 끼치고 있지 않다는 것을 확신할 수 없다.<sup>1</sup>

## 이 시대의 요구

믿음이 없는 세상이 그대들의 증언을 기다리고 있다. 하나님의 자비로우심에 힘입어 일어나 그들의 기대에 부응해 주시기를 빈다. 어둠이 땅을 덮고 있고 캄캄함이 만민을 가리우고 있으나 세상에 자리를 잡고 있는 도덕적인 밤에 나는 믿는 그대들에게 구하는 바이다. 어둠과 죽음의 그늘에 앉은 자에게 빛이 비취고 있으므로 아무도 어둠 가운데 행할 필요가 없다고 증언하다.<sup>2</sup>

우리의 주위가 기만과 오류의 두터운 어둠으로 덮여 있을 때 어리석음을 떨쳐 버리고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 예수님의 면전에서 흘러나오는 신령한 빛과 영광 가운데서 살아야 한다. 어둠이 짙어 가고 오류가 증가해 갈수록 우리는 진리에 대해 보다 철저한 지식을 가져야 하고 성경을 가지고 우리의 입장을 고수할 수 있도록 준비하여야 한다.<sup>3</sup>

우리는 얼마나 쉽게 우리의 친구들과 친척들의 사랑스러운 말로 말을 할 수 있지만 그대들 가운데 십자가가 못 박히신 그리스도 안에서 펼쳐지는 사랑에 관해서는 얼마나 더디 이야기 하는지 모른다.

우리의 하늘 아버지께서 세상에 독생자를 보내신 사랑

은 모든 영혼에게 영감을 불어 넣고, 열심 있고 사랑스럽지 않은 마음을 회개와 부드러움으로 녹이기에 충분하다. 그렇지만 하늘 지적존재자들은 그리스도께서 위하여 죽으신 사람들의 그분의 사랑에 대한 무감각함, 마음의 완악함, 그리고 모든 좋은 것들을 주시는 시여자에게 왜 감사와 애정의 반응을 보이지 않는가? 사소한 중요성을 가진 일들이 모든 것을 흡수해야 하며 하나님의 사랑은 돌아보지 않을 것인가? 의의 태양은 헛되게 빛날 것인가? 하나님의 행하심에 비추어 볼 때, 그대들의 주장이 옳다고 생각하는가? 우리는 감동받을 수 있는 마음을 가지고 있는가? 마음은 거룩한 사랑에 감명을 받을 수 있는가? 기꺼이 받아들일 선택의 그릇이 되는가? 하나님이 우리를 보시고 그분의 빛의 기별을 전하라고 간구하지 않으시는가? 우리는 더 큰 믿음이 필요하다. 우리는 성령이 우리 위에 풍성하게 부어져서 세상에 빛이 될 수 있도록 기대하며 깨어 기도하고 일하며 탄원해야 한다.<sup>4</sup>

## 하나님의 성령으로 인도됨

오순절에 성령을 부어 주신 결과는 어떠하였는가? 부활하신 구주께 대한 기쁜 소식은 사람이 사는 세상 끝까지 전파되었다. 제자들의 마음은 자비심으로 너무도 완전하게, 너무도 깊게, 너무도 원대하게 충만해졌으므로 그들은 세상 끝까지 가서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갈 6:14)이라고 증거할 수밖에 없었다. 그들이 예수 안에 있는 그대로의 진리를 선포하였을 때 사람들의 마음은 그 기별의 능력에 굴복하였다. 교회는 각처에서 몰려오는 회심자들을 보았다. 뒤로 물러갔던 사람들이 다시 회개하였다. 죄인들이 값진 진주를 찾는 일에 그리스도인들과 연합하였다. 복음에 대해 가장 혹독하게 반대하던 자들이 복음의 옹호자가 되었다...

모든 그리스도인은 그의 형제에게서 사랑과 자비의 거룩한 모습을 보았다. 한 가지 관심사가 편만해졌다. 한 가지 특출한 주제가 다른 모든 것들을 삼켜 버렸다. 신자들의 유일한 포부는 그리스도와 같은 품성을 나타내고, 그분의 나라를 확장시키기 위하여 활동하는 것이었다. 성령께서 강립하신 것은 제자들이 완전한 연합을 이룬 후, 그들이 더 이상 최고의 자리를 위하여 다투지 않게 되었을 때였음을 주목하라.<sup>5</sup>

### 다른 사람들을 위한 열렬한 수고의 필요

그리스도께서는 그의 제자들에게 그 사업이 쉬울 것이라고 말씀하지 않으셨다. 그분은 그들을 대항하는 거대한 악의 연합을 보여 주셨다. 그들은 “정사와 권세와 이 어두움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엡 6:12)과 싸워야 하였다. 그러나 그들은 홀로 싸우도록 버려 둔 바 되지 않을 것이었다. 그분은 당신께서 그들과 함께 할 것이라고 보증하셨다. … 그분의 말씀을 순종하고, 그분과 연합하여 일하는 한 그들은 실패할 수 없었다. 그분은 그들에게 다음과 같이 명하셨다. 모든 나라에 가라. 사람이 사는 세상 끝까지 가라. 그리고 내가 그곳까지 그대들과 함께 하리라는 것을 확신하라. 그대들을 버리는 때는 결코 없으리니 믿음과 확신을 가지고 일하라.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하여, 의무를 수행하는 너희를 도와주고 지도하고, 위로하고 성화하게 하고, 붙잡아 주고 다른 사람들로 그들의 시선을 하늘로 향하게 할 수 있는 기별을 전하는 일에 성공하게 할 것이다.<sup>6</sup>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는 자들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기 위하여 그들의 전력을 다하도록 하나님께 대한 의무를 갖고 있다. … 그들은 죄인들에게 생명의 말씀과 그리스도의 구원의 은혜를 주기 위해 가능한 모든 수단을 다 사용하여야 한다. 그리스도께서 인간에게 완벽한 모범을 드리게 하신 희생을 기억하면서, 교인들은 불신앙과 죄 가운데서 멸망하고 있는 영혼을 구하기 위해 자기 부인과 자기 희생의 모범을 따라야 한다.

그러나 얼마나 많은 교인들이 그들의 친구들과 이웃들에게 예수를 알릴 책임을 거의 느끼지 않는가? 만일 모든 사람이 그리스도의 사랑을 마음 속에 지니고 있고, 그들의 입술에 담고 있었다면, 만일 우리가 우리에게 주신 생명의 말씀을 부지런히 살피고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무엇 인지를 보여 주면서 그들에게도 알려 주었더라면, 오늘날 수백명이 더 진리 안에서 기뻐했을 것이다. 하지만 우리는 우리 자신 안에 갇혀 있다. 우리는 그것이 우리에게 좋다고 생각하는 것 같고, 그리스도에 대해 말하는 것은 우리와 같지 않다고 생각하는 것 같다. 그리스도는 우리에게

게 전부가 아니신가? 우리가 조금이라도 승리하면, 그분의 은혜로 이루어진 것이 아닌가? 그럼 왜 우리가 그를 들어 올리지 말아야 하는가? 잃어버린 은혜와 잃어버린 양의 비유가 가장 소중한 교훈을 준다. 그들은 잃은 자와 회복된 자를 다룬다. 이 비유에서 보여지는 것처럼, 만약 그들이 열심히 노력한다면 훨씬 더 많은 사람들이 회복될 것이다.

은혜 가운데서 자라나는 것은 하나님을 위한 사업을 할 때 재능이 증가함으로 나타난다. 그리스도의 학교에서 배운 그리스도인은 기도하는 법을 알고 또 주님을 위해 말하는 법을 알 것이다. 그는 자기에게 지혜와 경험이 부족함을 깨닫고 오직 하나님을 섬기는데 완전해질 수 있다는 것을 알고 크신 교사의 지도하심 아래 자기 자신을 돌 것이다. …

선교활동을 할 과업을 감당하도록 구하라. 어떤 사람에게는 이런 방법을, 또한 다른 사람에게는 다른 방법을 제시했으나 사업은 항상 주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이루어져야 한다.

순결과 거룩의 표준인 주님의 표준을 높일 준비를 하라. 모든 영혼이 자신의 마음을 정결하게하고, 권능과 큰 영광 중에 오실 주님을 위해 준비하라. 그리스도인의 은혜로 신자를 살리면서 동료 인간을 구하기 위해 일하라. …

오, 얼마나 엄숙하고 중요한 사업이 우리에게 위탁되었는가! 이 사업의 결과가 얼마나 멀리까지 미칠 것인가! 우리는 이 사업의 성공적인 성취를 위해 필요한 힘과 지혜를 어떻게 얻어야 하는가? 다니엘이 주를 구했던 것처럼 우리도 주를 구해야 한다. 다니엘은 “내가 금식하며 배움을 입고 재를 무릅쓰고 주 하나님께 기도하며 간구하기를 결심하고”(단 9:3). 우리는 우리 자신의 죄를 고하고 서로 밀접한 연합을 이루면서 겸손하고 통회하는 심령으로 주를 구하여야 한다. 형제 자매들이여, 기도하고 또 기도하라. 그대 자신을 위하여, 그리고 다른 사람들을 위하여 기도하라.

우리들은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 그 앞에 우리의 구할 것들을 쏟아 놓아야 하며, 그분이 우리를 위하여 일하실 것이며, 또 우리가 구원하기 위해서 구하고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도 일하실 것이라는 사실을 믿어야 한다. 우리는 열렬한 기도에 더 많은 시간을 들여야 한다. 어린 아이같이 신뢰하는 믿음을 가지고서 우리들은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 나아가 우리의 모든 소원을 아뢰어야 한다. 그는 항상 용서하시고 도와주실 준비가 되어 있으시다. 하나님의 지혜는 다함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많이 가져가라고 하신다. …

우리들이 믿음의 손을 뻗치고서 우리의 의지없는 영혼을 구원하시기에 능하신 분께 내어 던지면서 경험적인 지

식으로 하나님을 알고자 하는 간절한 욕망을 가지고, 지성소로 나아 가고자 하는 애타는 마음을 가진다면 참으로 좋겠다.

만일 우리가 예수께서 복음의 씨를 뿌리기 위하여 얼마나 열렬하게 활동하셨는지를 깨달으면, 은혜의 시기 바로 끝에 살고 있는 우리도 죽어가는 영혼들에게 생명의 떡을 나누어주기 위하여 피곤을 모르고 활동할 것이다. 왜 우리는 이처럼 냉랭하고 냉담한가? 왜 우리의 마음은 이처럼 감동을 받지 못하는가? 왜 우리는 그리스도께서 생명을 바친 이 사업에 우리 자신을 그처럼 바치기 싫어하는가? 우리를 사로잡고 있는 무서운 무관심을 고치기 위하여 무엇인가가 이루어져야 한다. 우리가 진리의 씨를 뿌리기 위하여 해야 할 것보다 얼마나 적게 일을 했는지를 보게 될 때 우리는 겸손하게 머리를 숙여야 한다.

나의 사랑하는 형제 자매들이여, 나는 그대들에게 사랑과 친절의 말로 호소하는 바이다. 일어나서 흑암 속에 있는 자들에게 이 시대를 위한 진리의 빛을 비추는 사업에 스스로를 야심없이 바치라. 위대한 일꾼이신 주님의 정신을 이해하라. 죄인들의 친구가 되시는 분에게서 죄로 병든 영혼에게 봉사하는 법을 배우라. 그분을 따르는 자들의 생애는 모든 사회적인 요구, 모든 인간적인 애정에 관하여 그분의 생애에서 보인 것과 동일한 헌신, 하나님의 사업에 대한 동일한 순복을 보여야 한다는 것을 기억하라. 하나님의 요구를 언제나 최고의 것으로 삼아야 한다. 그리스도의 모본은 다른 사람들의 복리를 위하여 중단 없는 활동을 하도록 우리를 고무시킬 것이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교인들이 당신의 사업에 임하도록 요구하신다. 실천되지 않는 진리, 다른 사람들에게 나누어지지 않는 진리는 생명을 주는 그 효력을 상실한다. 각 사람은 책임을 진 자로서 일을 하고 자기 자리에서 법을 배워야 한다. 교회에 한 사람이 늘어날 때마다 위대한 구속의 계획을 수행하기 위한 힘이 하나 더 생기는 결과가 되어야 한다. 하나님처럼 행동하고, 완전한 연합으로 결속된 전체 교회는 성령으로 감동되고 지배받는 살아 있는 활동적인 선교 기관이 될 것이다.

주께 열심히 구하면 갈 길을 반드시 평탄케 해 주신다. 주위의 모든 것은 봉사를 위해 문을 열 것이다. 할 일을 기도하면서 연구하라. 그리고 믿음의 충만한 확신을 갖고 사업에 임하라. 우리 앞에 시련의 시기가 있음을 깨닫고 인간의 마음을 다루는 방법을 이해하기 위하여 항상 하늘의 은혜가 필요하다는 것을 깨달으면서 그리스도의 온유하심과 겸손하심으로 침착하고 겸허하게 일해야 한다. 인내하고 겸손하며 경건하게 일하는 사역자는 그의 수고에 무엇인가 있음을 보여주게 될 것이다. 한 백성이나 개인에게 있어서 우리의 성공은 숫자나 지위나 지적 능력에

있는 것이 아니고 그리스도와 동행하고 그분과 함께 일하는데 달려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영에 충만할수록 더욱 열성으로 우리 주위의 사람들을 위하여 일할 것이며, 우리가 다른 사람들을 위하여 일할수록 사업에 대한 우리의 사랑은 더욱 커질 것이며, 주님을 따름으로 얻는 기쁨은 더욱 커질 것이다. 우리의 마음은 하나님의 사랑으로 충만할 것이며 열성과 확신하는 능력을 가지고 십자가에 못 박힌 구주에 대해서 말할 것이다. 그리고 그분은 백성들 앞에서 높이 들림 받으실 때, 그분의 희생, 그분의 선하심, 그분의 부드러운 연민, 굴욕과 고통을 보면서 그 마음이 녹아 정복 될 것이며, 그들은 그분의 사역에 승리하게 될 것이다.”<sup>7</sup>

### 우리의 최고의 정력을 바칠 가치

하늘 궁정에서 만날 영혼들이 그들의 구원을 위하여 동정적이고 사랑에 찬 관심이 주어진 사실을 깨닫게 될 때에 그들이 우리에게 할 감사의 표시는 어떠한가! 우리의 구속을 인해 모든 찬송과 영예와 영광이 하나님과 우리의 어린양께 드러질 것이다. 그리고 죽을 수 밖에 없는 영혼의 구원을 위하여 그분께서 고용하신 인간 대리자에게 감사를 표하는 것이 결코 하나님의 영광을 축소시키는 것이 아니다.

구속받은 자들은 그들의 시선을 높이 들리신 구주께로 향하게 해 준 사람들을 만나고, 그들을 알아볼 것이다. 그들은 그 영혼들과 함께 얼마나 복된 대화를 나눌 것인가! 그 대화는 이렇 것이다. “나는 죄인이었습니다. 세상에서 하나님도 없고 소망도 없었는데 당신이 내게 왔습니다. 그리고 나의 유일한 소망이신 귀하신 구주를 주목하게 해주었습니다. 그리고 나는 그분을 믿었습니다. 죄를 회개하였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분의 성도들과 함께 하늘에 앉게 되었습니다.” 다른 이들은 말할 것이다. “나는 이방에서 이교도로 살았습니다. 당신은 친구들과 안락한 집을 버리고 내게 와서 예수를 발견하고 그분을 유일하신 참 하나님으로 믿도록 가르쳤습니다. 나는 나의 우상들을 파하고 하나님을 경배하였습니다. 지금 내가 그분을 직접 뵈고 있습니다. 나는 구원을 받았고, 영원토록 구원을 받아 내가 사랑하는 그분을 계속 볼 것입니다. 그 당시 나는 믿음의 눈으로만 그분을 보았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그분을 계신 그대로 봅니다. 나를 사랑하사 그분의 피로 나의 죄를 씻으신 그분께 나는 그분의 구속하시는 자비를 인해 감사를 드릴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주린 자를 먹이고 벗은 자를 입힌 자들에게 감사를 포함 것이다. 그들은 이렇게 말한다. “절망이 내 영혼을 불신으로 돌렸을 때 주님께서 당신을 보내 주

서서 소망과 위로의 말을 들려 주셨습니다. 당신은 나에게 육신의 필요를 위하여 음식을 가져다 주고, 나의 영적 필요를 깨우쳐 주기 위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펴 주었습니다. 당신은 나를 형제와 같이 대우해 주었습니다. 당신은 나의 슬픔을 동정하고 나의 처지고 상한 심령을 고쳐 줌으로 나를 구원하시려고 뻗으신 그리스도의 손을 붙들 수 있게 해 주었습니다. 당신은 내가 무지할 때에 나를 돌보시는 하늘 아버지가 계시다는 것을 끈기 있게 가르쳐 주었습니다. 당신은 내게 하나님의 말씀의 귀한 약속들을 읽어 주었습니다. 당신은 내 속에 그분께서 나를 구원하실 것이라는 믿음을 불러일으켰습니다.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하여 치르신 희생을 명상할 때 나의 마음은 부드러워지고, 굴복되고, 깨어졌습니다. 나는 생명의 떡에 대한 허기를 느꼈습니다. 진리는 나의 영혼에 귀중하게 되었습니다. 나는 영원히 구원받아 그분의 면전에 살며 나를 위하여 생명을 주신 그분을 찬송하게 되었습니다.”

이 구속받은 자들이 그들을 위하여 마음에 부담을 지니고 살던 사람들을 만나서 인사할 때 그 기쁨이 어떠하랴! 자기의 쾌락을 구치 아니하고 복 없는 불행한 사람들에게 축복이 되고자 살아온 사람들의 마음은 만족감으로 얼마나 떨릴 것인가!<sup>8</sup>

우리가 이 하늘의 선물을 얻을 수 있도록 진리에 순종하고 “분노와 다툼이 없이 거룩한 손을 들어” 우리 영혼을 정결하게 하며 축복받은 경험을 통해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충만하게 하시”는 사도의 말씀의 의미가 무엇인지 깨닫도록 하자.<sup>9</sup>

### 여기서 바로 지금 시작하자

하나님의 백성들은 세상에서 빛으로 서야 한다. 그들은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지 않는 사람들의 길에 빛의 광선을 반사해야 할 엄숙한 책임이 자신들에게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 그리스도 자신은 이렇게 선언하셨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마 5:14). 우리는 빛을 가진 자가 되기를 구해야 한다.

신령한 진리의 빛이 하나님의 자녀들의 말과 행동에서 두드러지게 비쳐 나갈 때, 빛을 지닌 자들 중에 말다툼이나 서로 헐뜯는 것이 보일 수 있겠는가? 세상은 하늘의 빛이 널리 퍼지는 사람들의 생애로부터 어떤 불일치도 볼 수 없을 것이다. 형제 자매들이여, 그대들이 빛을 사람들 앞에 비출 때, 그들은 “너희들의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될 것”이다. 고귀한 영향이 이 선행의 결과로 나아갈 것이며, 그것을 바라보는 자들에게 구원을 가져올 것이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계속적으로 우리 빛을 비추기를 원하신다.

밤에 하나님께서 오클랜드와 가까운 도시에 살고 있는 교인들의 영적인 형편을 내게 계시해 주셨다. 그들이 불평하고 결점을 찾으며, 서로에게 손해를 주는 말을 할 때 큰 표준이 세워졌으며, 이 표준은 그들 앞에 큰 거울로서 나타날 때까지 빙빙 돌고 있었는데, 그것을 바라보는 모든 사람은 거기에서 자신의 모든 결함과 죄를 보게 되었다. 잘못된 모든 무리들은 자신들의 행로의 죄악됨을 확신하고, 하나님 앞에 자신을 굴복시키고 즉시 자신들의 잘못을 고백하기 시작했다. 그리고 오, 거기에는 얼마나 큰 회개와 자백이 있었는가! 장막의 놀라운 정결이 뒤따랐으며, 하나님의 강력한 권세가 드러났다.

바로 이런 경험이 이곳 오클랜드와 샌프란시스코에 있는 교회에 들어올 때까지 나는 결코 만족하지 않을 것이다. 우리는 우리 하나님의 구원을 보기 원한다. 우리는 진리가 강력한 힘으로 나아가기를 원한다. 그리고 왜 우리는 계속 방해하는 길에 서 있는가? 왜 우리는 하나님의 명령을 근심하게 하는가? 우리는 왜, 이기적이고 거듭나지 않은 태도를 유지하며 모두가 그리스도인이라고 주장하면서 그분을 공개적으로 수치스럽게 만드는가? 하나님께서는, 우리 모두가 예수님을 바라보고 또한 우리의 행로가 그분의 시야에 나타날 것이라는 것과 그분이 질서와 다툼에 관여하실 것이라는 사실을 알므로 우리가 무엇을 할 수 있는지를 밝히 분별할 수 있는 시각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인정하신다. 하나님은 우리 각자의 품성의 결함을 없애도록 우리를 도우신다. 우리는 이 공동체에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것을 보기를 원한다. 이런 것이 아니라면, 나는 내 집을 떠나 그대들에게 말하기 위해 이렇게 자주 여기에 오지 않았을 것이다. 그러나 밤마다 나는 겨우 몇 시간 외에는 잘 수 없었으며, 자주 밤 시간에 나는 자신의 영적인 형편을 모르는 사람들을 위해 기도하며 침상에 앉아 있는 나를 발견하곤 했다. 그리고 나는 일어나서 방을 걸으며, 오 주님, 영원히 아주 늦기 전에 당신의 백성들을 제대로 세워 주십시오 라고 말했다.<sup>10</sup>

### [참고문헌]

1. 교회증언 5권, 366, 367.
2. 내방선교, 1892.9.1.
3. 초기문집, 104, 105.
4. 리뷰 앤드 헤럴드, 1891.12.15.
5. 리뷰 앤드 헤럴드, 1908.4.30.
6. 사도행적, 29.
7. 리뷰 앤드 헤럴드, 1909.4.29.
8. 교회증언 6권, 310-312.
9. 영문시조, 1888.2.24.
10. 리뷰 앤드 헤럴드, 1906.12.13.



# 봉사를 위해 조직됨

마르셀로 히네스, 태국

주님은 그 온전한 존재를 통하여 교회가 영혼 구원을 위해 임명된 기관이 되도록 설계하셨다. 교회가 구주가 되는 것이 아니라 단순히 복음을 전하는 도구이자 유일한 구주이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행 4:10,12)에 대한 믿음의 사람들을 데려 오는 도구이다.

“교회는 사람을 구원하기 위해 하나님께서 세우신 기관이다. 교회는 봉사를 위하여 조직되었으므로, 그 사명은 온 세상에 복음을 전하는 것이다. 태초부터 하나님은 당신의 교회를 통하여 당신의 충만과 풍족을 온 세상에 나타내시려고 계획하셨다. 하나님께서 어둠에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 가운데 들어가게 하신 교인들은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어야 한다.”<sup>1</sup>

교회는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부활하신 구주를 전파할 뿐 아니라 그분의 영광인 품성의 아름다움을 세상에 알리도록 위임 받았다. 교회가 나아가서 복음을 전파하고 그리스도의 품성의 사랑스러움을 세상에 알리면 정직한 영혼이 깨우침을 받아 예수를 믿게 된다. 이것이 교회가 어떻게 인류의 구원을 위한 하나님의 임명된 기관인지를 알려주시는 방법이다.

## 인체 - 그리스도의 교회의 구성에 대한 실례

영감 받은 사도는 고린도 교회에 보낸 편지에서 그리스도의 교회에 관해 신자들에게 심오한 설명을 했다:

“은사는 여러 가지나 성령은 같고 직임은 여러 가지나 주는 같으며 또 역사는 여러 가지나 모든 것을 모든 사람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은 같으니 각 사람에게 성령의 나타남을 주심은 유익하게 하려 하심이라 ...”

몸은 하나님께 많은 지체가 있고 몸의 지체가 많으나 한 몸임과 같이 그리스도도 그러하니라” [고전 12:4-7, 12].

인체는 기능이 다른 여러 기관과 체계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몸 전체의 이익을 위해 함께 노력하고 있다. 많은 사람들이 함께 있는 그리스도의 교회도 마찬가지로 교회와 교회의 이익을 위해 함께 노력한다. 그것의 임무 완수. 그리고 인체는 많은 부분을 가지고 있으며 각각은 특정한 기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많은 교인을 가진 교회에서 모든 사람은 할 일이 다르며 차지할 다른 위치를 가지고 있다. 모두가 목사, 선지자 또는 교사가 되는 것은 아니다. 모두가 합회장, 재무 또는 교회의 다른 직책이 되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모두는 조화로운 행동으로 몸의 다른 일원들과의 협조와 협력을 통해 그는 또한 교회에게 배정된 일을 수행해야 한다.

“각자는 그에게 맡겨진 재능을 현명하게 사용해야 하였다. 어떤 이들은 성령의 특별한 은사를 받았는데, ‘첫째는 사도요 둘째는 선지자요 셋째는 교사요 그 다음은 능력이요 그 다음은 병 고치는 은사와 서로 돕는 것과 다스리는 것과 각종 방언을 하는 것’(고전 12:28) 등이었다. 그러나 이 모든 계층의 일꾼들은 조화를 이루어 일해야 하였다.”<sup>2</sup>

##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조직하심

그리스도께서 하시는 모든 일은 순서대로이다. 광대한 공간에서 무수한 세계를 창조하는 일에서부터 우주의 모든 일과 행정에 이르기까지 그는 완벽하게 조직되어 있다. 지상에 있는 교회의 설립에서도 마찬가지이다. 그 당시에는 유아 교회에 적합한 단순한 형태의 조직을 가진 교회 조직에서 첫 번째 단계를 계획한 것은 바로 그리스도 자신이었다.

“그리스도께서는 당신의 승천 후 지상에서의 당신의 사업을 수행할 교회의 조직을 위한 제일보로써 열두 제자를 안수하셨다.”<sup>3</sup>

다음 단계는 그리스도의 승천 이후 얼마 되지 않아 사도시대에 취해진 것이다. 성령의 인도 아래 사도들은 복음 전파와 몸된 교회의 개발에 있어서 그리스도의 사업을 계속 수행했다.

예를 들어 예수님께서 열두 제자 가운데 처음으로 교회를 조직 하셨을 때, 유다만이 그 그룹의 재무로 봉사할 구체적인 책임을 받았다. 사도시대에 일곱 집사의 인수처럼 다른 책임이 다른 사람들에게 나누어졌다. 교회 교인 수가 계속해서 증가하고 책임감이 커지면서 전 세계 교회의 사역과 선교에 대한 요구를 충족시키기 위해서는 교회 조직의 발전이 필요했다.

### 교회 조직의 목적

예언의 신은 그분의 교회를 조직하는 그리스도의 목적을 다음과 같이 보여 준다.

“그리스도의 교회는 선교 사업을 위하여 조직되었으며 주님께서서는 빈부 귀천을 막론하고 누구나 다 진리의 기별을 들을 수 있도록 하는 여러 가지 수단 방법을 교회가 고안해 내기를 바라신다.”<sup>4</sup>

전 세계 교회에서 질서와 조화를 유지하기 위해서: “세계 여러 지방에서 많은 신자들의 무리가 교회를 구성했던 초대 교회 후기 역사에서 교회의 조직은 한층 더 완전하게 되어, 질서와 조화된 행동을 유지할 수가 있게 되었다.”<sup>5</sup>

거짓된 폭동을 피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보증되지 않은 주장을 논박하기 위해서: “오, 철저한 조직이 필수적으로 있어야 하며 거짓 부흥을 저지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지지하지 않는 주장들을 타파하는 데 가장 큰 힘이 되어야 할 때, 사단이 이 백성들 속에 들어와서 사업을 파괴하는 노력에 성공을 거둔다면 그는 얼마나 기뻐 날뛰겠는가!”<sup>6</sup>

“목사의 부양, 새 지역의 사업 수행, 부적절한 교인들로부터 교회와 목회직 보호, 출판소를 통한 진리의 간행, 그 외의 다른 많은 목적을 위해서 조직이 불가피해졌다.”<sup>7</sup>

### 남은 교회의 성공의 비결

엘렌 G. 화잇의 시대에 남은 교회가 조직되었을 때, 몇몇은 반대했다. 왜냐하면 그들은 결과가 교황권 같이 될 것을 두려워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주의 종은 교회 조직을 지지하고 지지함으로써 신도들을 격려했다.

“우리는 조직을 갖추기 위해 고투하였다. 주님께서 이 점에 관해 거듭거듭 증거해 주셨지만 거센 반대에 자주 부딪혔다. 그러나 우리는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끄시며 그분의 섭리로 지도하고 계심을 알았다.”<sup>8</sup>

반대에도 불구하고 개척자들이 교회를 조직하도록 이끈 것은 성령이었다. 그들은 조직 체계를 확립하기 위해 하나님의 지시를 따르겠다는 결의로 앞으로 나아갔다. 주의 종은 그들의 변영의 비밀을 다음과 같이 증언한다:

“우리의 사업은 큰 현물이나 유산으로 유지되지 않았다. 우리 가운데는 부유한 사람이 극소수였기 때문이다. 우리가 변영하게 된 비결은 무엇인가? 우리는 우리 구원의 대장의 명령에 따라 움직였기 때문이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의 단결된 노력을 축복하셨다. 진리는 널리 크게 퍼져 나갔다. 기관들은 증가되었다. 겨자씨가 한 그루의 큰 나무로 자라났다. 조직의 체계는 아주 성공적임이 입증되었다.”<sup>9</sup>

### 하나님께서 당신의 교회를 위해 계획하신 조직 체계

성서와 예언의 신은 하나님께서 당신의 교회를 위해 계획하신 조직 체계를 명확하게 제시해 주셨다. 성경은 그리스도가 “몸인 교회의 머리”라고 분명하게 선언한다. (골 1:18).

이것은 한 사람이 우주적인 교회의 머리라고 주장하는 교황제도와는 반대되는 것이다. 예언의 신은 다음과 같이 선언한다:

“하나님께서서는 당신의 말씀 가운데 어떤 사람을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다는 암시조차 하신 일이 없다. 그러므로 법왕의 최상권에 대한 교리는 성경의 교훈과 전적으로 배치된다. 법왕은 찬탈이 아니고서는 그리스도의 교회를 지배할 권세를 가질 수 없다.”<sup>10</sup>

“교회는 그 기초인 그리스도 위에 세워져 있는 바 교회는 그 머리이신 그리스도께 순종해야 한다. 교회는 사람에게 의존하거나 사람에게 의하여 지배를 받아서는 안 된다. 많은 사람들은 교회의 책임 있는 지위는 그들에게 다른 사람들이 믿거나 행하는 바를 명령할 권위를 부여한다고 주장한다. 하나님께서는 이 주장을 인정하지 않으신다. 구주께서는 ‘너희는 다 형제니라’고 언명하신다.”<sup>11</sup>

“그리스도는 교회의 머리이다. 그의 몸의 지체들은 인간의 몸이 마음의 충동에 복종하는 것처럼 머리의 지시를 따른다.”<sup>12</sup> 모든 신자들이 이것을 마음에 새기면 교인들이 인간을 그들의 머리로 의지하도록 가르친 과거보다 그리스도의 조직된 교회에 대한 더 나은 모습을 이해하게 될 것이다.

그리스도의 조직된 교회에서 지도자로 선택된 사람들은 자신의 영역에서 어느 정도의 권위를 갖고 있지만 교회에서 가장 권위 있는 사람은 아니다.

“하나님께서 땅위에 갖고 계신 최고의 권위인 대총회

의 판단이 행사될 때, 사사로운 독자성과 사사로운 판단을 유지하는 대신에 굴복시켜야 한다. 그대의 잘못된 땅위에 주님께서 갖고 계시는 최고의 권위의 음성을 대항하여 그대의 의무에 관한 그대 자신의 사사로운 판단을 고집스럽게 유지하고 있는 것이다.”<sup>13</sup>

“때때로 사업의 경영을 위임받은 소수의 사람들이 대총회의 이름을 빙자하여 어리석은 계획들을 추진함으로써 하나님의 사업을 제한하고자 할 때, 나는 두서너 명으로 대표된 대총회의 결정을 하나님의 결정으로 인정할 수 없다고 말했다. 그러나 이것은 모든 지역에서 정당하게 택함을 받은 대표자들이 모여서 구성된 대총회의 결정을 존중하지 말라는 뜻으로 하는 말이 아니다. 하나님께서는 지상의 모든 지역에서 당신의 교회의 대표자들이 대총회로 모일 때에는 권위를 가지도록 인정하셨다. 어떤 사람들이 범할 위험이 있는 잘못은 하나님께서 그분의 사업의 번영과 발전을 위한 계획들을 세우고자 모인 대총회의 판단과 결정에서 그분의 교회에 주신 권위와 영향력을 남김없이 그대로 한 사람이나 소수의 사람들의 의견과 판단에 맡겨버리는 것이다.”<sup>14</sup>

주님의 증은 분명히 그리스도의 남은 교회에서 지켜야 할 조직과 질서의 체계를 설명했다. 교회의 최고 권위자는 한 사람(대총회장)이나 소규모 그룹(총회 행정위원회 또는 총회 협의회)에게 주어서는 안 되며 오히려 모인 모든 지구의 대표자들에게 주어진다.

그들은 전 세계 교회의 일을 계획하고, 총회 직원들을 선출하고, 교리 문제들을 다루고, 조직된 다른 여러 수준에서 해결되지 않는 어려운 문제를 결정할 자들이다. 총회 위원으로 선출된 사람들은 임기 중에 총회의 결정을 집행하는 이행기구로서 행동해야 한다. 대총회 회기 사이에, 그들은 연차 대회를 대신하여 행동하며, 임기 중에 하는 일에 대한 다음 연차 대회까지 책임을 진다. 이 제도는 교회의 연합회, 합회, 각 교회에서 모든 차원에서 수행되어야 한다. 이것은 교황청이나 왕과 같은 권력과 완전히 다르다. 이것은 한 사람의 독재나 권위를 지닌 소그룹의 모임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의 음성으로서 당회에서 교회의 결정을 수행하기 위해 함께 봉사하는 종들로서 그들은 모두가 동료들과 함께 있는 사람들이다.

### 독자적인 정신에 대한 경고

주님의 증은 신자들에게 교회에 기생하는 독립심의 정신에 대해 경고했다. 사단은 속임수 이론과 사상을 교인들에게 소개함으로써 교회의 일치를 파괴하려고 노력하고 있다.

“어떤 사람들은, 우리가 시대의 종말에 가까워졌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들이 각각 어떤 종교적인 조직체에서

떠나 독자적으로 행동해야 할 것이라는 사상을 조장해 왔다. 그러나 나는 이 사업에는 각 사람이 독자적으로 행동하는 그런 일이 없어야 한다는 것을 주께로부터 교훈 받았다. 하늘의 별들은 모두가 법칙 아래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자 서로 영향을 주고, 그들의 운행을 통제하는 법칙에 순종한다. 그와 마찬가지로 주님의 사업이 건전하고 튼튼하게 발전하려면, 그분의 백성들이 함께 연합해야 한다.”<sup>15</sup>

“우리 동료 교역자들로부터 멀어지려는 정신, 조직 파괴의 정신이 바로 우리가 숨 쉬고 있는 이 대기 가운데 있다. 어떤 이들에게는 질서를 확립하려는 모든 노력이 위험한 것-개인의 자유를 제한하고, 따라서 천주교식으로 변해 버리는 것이기 때문에 두려워해야 할 것처럼 여겨지고 있다. 그들은 어떤 인간의 명령도 따를 수 없고 아무에게도 순종하지 않겠다고 선언한다. 형제들의 권면과는 관계없이 독자적으로 스스로의 길을 선택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다고 느끼도록 인간들을 이끄는 것이 사단의 특별한 노력이라는 가르침을 나는 받았다.”<sup>16</sup>

사단은 하나님의 백성의 힘이 그리스도와 그리고 다른 이들과의 연합에서 발견된다는 것을 잘 안다. 그러나 그들이 분열되고 분열되면 약해지고 쉽게 패배하게 된다.

“‘함께 의논하라’는 말은 하나님의 천사가 나에게 거듭 거듭 되풀이해 온 기별이다. 한 사람의 판단에 영향을 미침으로 사단은 일을 자기 자신에게 알맞게 지배하고자 노력할 것이다. 그는 두 사람의 마음을 그릇되게 이끄는 성공을 거둘 수 있다. 그러나 여러 사람이 함께 의논하면 더욱 안전함이 있다. 모든 계획은 더욱 철저하게 비판되고, 모든 전진의 움직임은 더욱 주의 깊게 검토되어야 한다. 그렇게 하면 혼란과 어려움과 실패를 초래할 조급하고 무분별한 움직임의 위험이 적어질 것이다. 연합에는 힘이 있고, 분열에는 허약과 실패가 있다.”<sup>17</sup>

그리스도께서 지상에 있는 교회의 조직 체계를 폐지할 시기는 없다. 오히려 그것은 끝날 때까지 계속 될 것이다. 하나님의 남은 무리들이 끝 날이 가까워질수록 더 조직되고 완벽하게 연합되어야 한다. 주님의 사자는 다음과 같이 선언했다:

“우리는 지혜와 주의를 기울여 세워진 조직과 질서의 제도를 파괴하는 일이 없도록 모든 일을 신중하게 해야 한다. 이 시대에 사업을 주관하고자 욕망하는 무질서한 요소들이 지나치게 자유롭게 허용되어서는 안 된다.”<sup>18</sup>

### 남은 무리의 마지막 부르심과 사명

성경과 예언의 신에서, 그리스도의 남은 교회의 마지막 부르심과 사명이 이사야 58:12 절에 분명하게 제시되어 있다.

“네게서 날 자들이 오래 황폐된 곳들을 다시 세울 것이며 너는 역대의 파괴된 기초를 쌓으리니 너를 일컬어 무너진 데를 수보하는 자라 할 것이며 길을 수축하여 거할 곳이 되게 하는 자라 하리라.”

### 예언의 신은 이 예언이 남은 교회를 가리킨다고 설명한다

“마지막 시대에 모든 거룩한 제도가 회복되어야 한다. 인간에 의하여 안식일이 변경되었을 때에 율법에 생긴 무너진 부분이 보수 되어야 한다. 개혁자로서 세상 앞에서 있는 하나님의 남은 백성은 하나님의 율법이 모든 영구적 개혁의 기초이며... 분명하고도 뚜렷한 한계선을 그어 놓고 그들은 십계명의 모든 계명에 순종할 필요를 나타내어야 한다. 그리스도의 사랑의 강권을 받아 그들은 황폐된 곳을 세우는 일에 그리스도와 협력하여야 한다. 그들은 무너진 데를 수보하는 자요 길을 수축하여 거할 곳이 되게 하는 자가 되어야 한다.”<sup>19</sup>

“성도들의 인내가 여기 있나니 저희는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 믿음을 지키는 자니라” [계 14:12].

이 성구는 셋째 천사의 기별의 최종 산물이 아닌 다른 그룹의 사람들을 지칭하지 않는다. 이것은 하나님과 그의 남은 무리들이 사탄에 대하여 싸우는 마지막 승리에서 승리할 수 있는 남은 교회에 대한 묘사이다.

남은 교회의 교인들은 전 세계의 모든 주민에게 경고의 마지막 기별을 전하러 나아가야 한다. 이 기별은 하나님의 품성의 의로움과 율법의 신성함과 아름다움에 대한 살아있는 예증으로서의 그리스도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그러나 이 마지막 자비의 기별은 단지 언변의 웅변에 의해서가 아니라 오히려 그리스도의 형상을 따라 변화된 품성과 거룩한 생애의 힘에 의해서 세상에 드러나야 한다.

“세상에 비칠 마지막 자비의 빛 곧 세상에 전파되어야 할 마지막 공훈의 기별은 하나님의 사랑의 품성을 드러내는 것이다. 하나님의 자녀들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야 한다. 그들은 저희의 생애와 품성을 통하여 저희를 위하여 행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나타내야 한다.”<sup>20</sup>

남은 교회가 비록 그의 모든 노력에도 불구하고 거의 성취하지 못한 이유는 교인들의 생애에서의 품성의 결함이 있기 때문이다. 성령께서 영원한 복음을 전파할 때 필요한 효율성을 우리에게 줄 수 있기 전에 우리는 먼저 품성이 변화되어야 한다. 지구의 여러 지역에 있는 그리스

도의 우리 [교회] 밖에 있는 정직한 영혼들은 하나님의 남은 무리들의 생애에서 빛이 비추는 것을 보기를 기다리고 있다.

### 결론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교회는 그리스도를 증거하기 위해 부름을 받았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품성을 세상에 드러내시고 그분 자신의 통치 체제를 대표하기 위해 교회를 세우셨다.<sup>21</sup>

하늘의 질서와 하늘의 거룩한 조화가 세상에 반사되어야 한다. 하나님의 마지막 남은 무리는 당신의 교회를 위하여 하나님의 목적을 충만하게 성취할 궁극적인 도구들이다.

이것이 대쟁투에서의 쟁점이 마침내 그리고 완전히 해결되는 방법이다. 이것이 영원한 복음의 아름다움이 모든 피조물에게 보여지고 완전히 전파되어야 하는 방법이다. 이것이 하나님의 품성과 그분의 율법이 우주의 모든 창조된 존재 앞에 온전히 증거될 방법이다. 그리스도의 자비와 그분의 은혜와 그분의 사랑의 풍성함은 온 세상 앞에서뿐만 아니라 온 우주의 모든 존재들 앞에서 그분의 이름으로 부름 받은 백성들에 의해 완전히 그리고 마침내 드러날 것이다.

### [참조문헌]

- 1 사도행적, 9.
- 2 사도행적, 92.
- 3 사도행적, 18.
- 4 교회중언 6권, 29.
- 5 사도행적, 91, 92.
- 6 목사들에게 보내는 증언, 489.
- 7 목사들에게 보내는 증언, 26.
- 8 목사들에게 보내는 증언, 26, 27.
- 9 목사들에게 보내는 증언, 27.
- 10 각 시대의 대쟁투, 51.
- 11 시대의 소망, 414.
- 12 리뷰 앤드 헤럴드, 1882.7.18.
- 13 교회중언 3권, 492.
- 14 교회중언 9권, 260, 261.
- 15 교회중언 9권, 258.
- 16 목사들에게 보내는 증언, 489.
- 17 교회중언 5권, 30.
- 18 교회중언 9권, 258.
- 19 선지자와 왕, 678.
- 20 실물교훈, 415, 416.
- 21 시대의 소망, 680.

# 가을 낙엽처럼

마리오 라이나 레스, 브라질

여러분은 가을에 얼마나 많은 나무 잎이 떨어지는지 생각해 본 적이 있는가? 나뭇잎의 양, 부드럽고 조용하게 떨어지는 방식, 땅을 덮는 방식. 이것은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이 세상에 전해져야 하고 그 놀라운 결과가 나와야 하는지를 보여 주는 훌륭한 예이다.

“비와 눈이 하늘에서 내려서는 다시 그리로 가지 않고 토지를 적시어서 싹이 나게 하며 열매가 맺게 하여 과중하는 자에게 종자를 주며 먹는 자에게 양식을 줌과 같이 내 입에서 나가는 말도 헛되이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고 나의 뜻을 이루며 나의 명하여 보낸 일에 형통하리라” [사 55:10, 11].

## 무언의 기별자들

인류 문명의 역사는 대중 매체와 매우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다. 오늘날, 현대적인 수단은 우리가 세계 어느 곳과도 거의 즉시 전자기기로 의사 소통할 수 있게 해주지만, 복음을 전하는데 여전히 가장 효과적인 매체가 있다. 인쇄된 출판물이다.

15세기에 요하네스 구텐베르크(1398-1468)는 종이에 인쇄할 기계식 가동형 활자를 발명함으로써 언론에 혁명을 일으켰다. 이 발견은 종교 개혁과 산업 혁명의 발전에 중요한 역할을 하였으며, 현대 지식 기반 경제와 대중 교육의 확산을 위한 재료 기반을 마련했다.

구텐베르크가 다수 인쇄한 첫 번째 작품은 성서였다. 현재, 미국 성서 공회 보고서 2017에 따르면, 신약 성서는 1515개 언어로 번역되었고, 완성된 성서는 674개 언어로 번역되었다. 세계에서 가장 잘 팔리는 책 속에 19세기 이후로 50억부 이상의 성경이 배포된 것으로 추정된다. 최근 몇 년간, 미국 성서 공회는 신약성서의 일부 외에도 연간 평균 3천만권의 성경을 배포했다.

유사한 사업이 우리 출판물에서도 수행되어야 한다. 주

의 증은 말한다.

“현대 진리에 관하여 세상을 깨우치기 위하여 우리의 서적과 문서에서 밝은 빛줄기들이 비쳐져야 합니다.”<sup>1</sup>

주님은 우리에게 구원의 복음을 세상에 전할 훌륭한 방법으로 인쇄된 출판물을 주셨다. 그것은 쉽게 생산되고 분배될 수 있고 실제로 땅 끝까지 모든 가정에 전달될 수 있다. 출판 사업에 관한 다음의 사실들은 인쇄물과 전자의 형태로 출판물에 적용된다.

## 우리 출판물의 시작

주의 증은 말한다: “1848년 11월 매사추세츠 도체스터에서 개최된 집회에 참석 중, 나는 인치는 기별의 선포에 대하여, 그리고 우리들의 앞길을 비춰 준 진리의 빛을 출판해야 할 신자들의 의무에 대하여 이상을 보았다.

이상에서 깨어난 후 나는 남편에게 말하였다. ‘나는 당신에게 전할 기별을 가지고 있습니다. 당신은 작은 간행물을 인쇄하여 백성들에게 보내야 합니다. 처음에는 작게 시작하지만, 사람들이 그것을 읽고 인쇄할 수 있는 재정을 당신에게 보내 줄 것이므로 그 일은 처음부터 성공할 것입니다. 이와 같은 미미한 시작이 온 세상을 뒤덮을 빛의 흐름처럼 발전될 것을 나는 보았습니다.’<sup>2</sup>

“그 귀중한 인쇄물을 집으로 들여다가 마루 위에 올려 놓고, 우리는 거기에 관심이 있는 소수의 사람들을 모으고 인쇄물 주위에 무릎을 꿇고, 주님께서 이 인쇄된 진리의 사신 위에 당신의 축복을 내려 주십시오 겸손한 마음으로 많은 눈물을 흘리며 간구하였다.

우리가 인쇄물을 접자, 나의 남편은 그것을 포장하고 그 위에 그것을 읽으리라고 생각되는 사람들의 주소와 성명을 기록해 가지고 그것을 용단으로 만든 가방에 넣어 미들타운에 있는 우체국까지 메고 걸어가서 발송하였다.”<sup>3</sup>

## 우리 출판물의 목적

“우리의 출판물들은 우리의 신앙에 관한 영적 기초를 분명하고, 단순하고, 확실하게 하는 데 있어서 해야 할 가장 거룩한 사업을 맡고 있다. 어느 곳에서도 사람들은 편을 들고 있다. 곧 모든 사람은 진리와 의의 깃발 아래 정렬하든지, 그렇지 않으면 최상권을 위해 싸우고 있는 반역의 세력의 깃발 아래 정렬하든지 한다. 이런 시대에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기별은 사람들이 진리를 직접 보고 마음으로 깨닫고 가슴으로 느끼고 전달받을 수 있도록 뚜렷하고 능력 있게 주어져야 한다. 그들은 할 수만 있으면 이 엄숙한 시대를 위한 하나님의 말씀을 찬탈하기 위하여 이 목을 끌려고 애쓰는 다수의 오류들보다 뛰어난 진리의 우월성을 볼 수 있게 되어야 한다.

우리 출판물들의 큰 목적은 하나님을 높이고, 사람들의 주의를 그분의 말씀의 산 진리로 이끄는 데 있다. 하나님은 우리 자신의 표준이나 이 세상의 표준이 아닌, 그분의 진리의 표준을 높이도록 우리에게 요구하신다.”<sup>4</sup>

“우리의 출판사들로부터 내보내는 출판물은 한 백성을 준비시켜 하나님을 만나게 해야 한다. 온 세계를 통하여 그것들은 침례 요한이 유대 백성을 위하여 한 것과 동일한 일을 해야 한다. 놀라운 경고의 기별로써, 하나님의 선지자는 사람들을 세속적인 꿈에서 깨어나게 했다. 그를 통하여 하나님께서는 뒤로 물러간 이스라엘에게 회개하도록 부르셨다. 진리를 제시함으로써 그는 보편화 되어 있던 기만들을 폭로했다. 그 시대의 거짓 이론들과는 대조적으로, 그의 가르침에 나타난 진리는 영원히 확실한 것으로 밝혀졌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마 3:2)는 것이 요한의 기별이었다. 이 동일한 기별이, 우리의 인쇄소들에서 나온 출판물을 통하여 오늘날 세상에 주어져야 한다.”<sup>5</sup>

## 우리의 건강 서적

“우리의 건강서적은 진리가 들어가서 많은 영혼들을 구원하도록 길을 열어 줌으로 복음사업을 돕는 손이 된다. 나는 이 서적처럼 마음의 문을 신속히 열어 주며, 그것을 읽고 실천할 때 영혼들로 하여금 성경을 연구하게 하고 진리를 보다 잘 이해할 수 있게 해주는 것은 없다고 본다.”<sup>6</sup>

“참다운 신앙과 건강 법칙은 꼭 같이 병행한다. 건강을 파괴하고, 영혼을 타락시키며, 신령한 진리가 마음에 감명을 주지 못하게 하는 죄악적 만족감에서 벗어날 필요를 남녀들에게 제시하지 않고 그들의 구원을 위하여 일하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다.”<sup>7</sup>

“건강개혁에 대한 출판물들이 성경의 요긴한 문제들에 관하여 어떠한 것도 보거나 읽지 못한 많은 사람들에게 전달될 것이다. 건강개혁에 관한 진리가 사람들에게 전해져야 한다. 이것은 성경 진리에 주의를 집중시키기 위하여 필요하다.”<sup>8</sup>

“희망이 없어 보일 만큼 타락한 많은 사람들도 그들이 만일 그들의 건전치 못한 습관에 대하여 올바른 가르침을 받는다면 진리에 사로잡히게 될 것이다. 그 때에 그들은 향상되고, 고상하게 되고 성화되어 주님께서 쓰시기에 합당한 그릇이 될 것이다. 적당한 독서물을 손에 가득히 들고, 그들의 영혼을 위한 그리스도의 사랑에 충만해진 마음으로 그들이 사는 곳을 찾아 가라.”<sup>9</sup>

“건강개혁은 한 계급의 사람들에게 들어갈 것이며, 이것이 아니면 결코 진리가 들어갈 수 없었던 한 계급의 사람들에게 이미 들어갔다. 현 시대에는 건강 강연과 건강 출판물들로써 신자와 불신자를 막론하고 사람들을 돕기 위하여 정력을 기울일 필요가 있다. 나는 인간의 선입감이 그와 반대라 할지라도 어찌하여 건강 서적이 다른 출판물들과 같이 항구적인 위치를 차지하지 못하는지 알 수 없다.”<sup>10</sup>

## 우리의 출판물은 모든 곳으로 가야 한다.

“그것들은 많은 나라의 말로 출판되어야 한다. 셋째 천사의 기별은 이 매체를 통하여, 그리고 살아 있는 교사를 통하여 전해져야 한다.”<sup>11</sup>

“목사의 목소리를 들을 수는 없지만 우리의 출판물들 곧 사람들이 필요로 하는 성경의 진리로 충만한 책, 잡지, 전도지로서만 들어갈 수 있는 많은 지방들이 있다. 우리 인쇄물들은 각처에 분배되어야 한다. 진리가 모든 물가에 뿌려져야 한다. 혹 이것이 잘 될는지 혹 저것이 잘 될지를 우리는 알지 못하기 때문이다. 우리의 그릇된 판단으로는 아주 쉽사리 진리를 받아들일 사람들에게 인쇄물을 주는 것은 현명하지 못한 일이라고 생각할지도 모른다. 그러나 우리는 현대 진리가 들어있는 전도지를 줌으로 어떤 결과가 생길지를 알지 못한다.”<sup>12</sup>

“영혼을 진리로 가르치고 굳게 하는 일에 있어서 출판물은 설교만으로 이룰 수 있는 일보다 더 큰일을 이룰 수 있다.”<sup>13</sup>

“우리는 빨리 종말에 이르고 있습니다. 이 시대를 위한 진리가 담겨 있는 서적과 인쇄물을 인쇄하고 보급하는 것이 우리의 사업이 되어야 합니다.”<sup>14</sup>

“출판물을 증가시켜 가을 낙엽처럼 뿌려야 한다. 이 무언의 사자들은 모든 나라와 지방에서 수 많은 사람들의 마음을 계발하고 형성시키고 있다.”<sup>15</sup>

“다른 것보다 더 중요한 한 사업이 있다면, 그것은 우리

출판물들을 대중들 앞에 가지고 가서 그들로 성경을 연구하도록 이끄는 것이다.”<sup>16</sup>

“모든 신자로서 이 때를 위한 기별을 포함한 전도지와 소책자와 서적들을 널리 배포하게 하라.”<sup>17</sup>

“중말은 가깝다. 이 책들이 배포되었어야 할 많은 시간은 이미 잃어버린 바 되었다. 책들을 원근에 판매하여 가을 낙엽처럼 뿌려라.”<sup>18</sup>

### 신성한 전략

“하나님께서서는 우리 서적 속에 담겨 있는 빛을 백성들 앞에 내어놓는 방법으로써 문서 전도 사업을 정하셨다. 문서 전도인들은 백성들의 영적 교육과 개발에 필요한 책을 가능한 한 빨리 세상에서 유포해야 하는 일의 중요성을 깊이 인식해야 한다. 이것이 바로 주님께서 당신의 백성들에게 이 때에 하게 하신 일이다. 문서 전도를 위하여 하나님께 헌신한 모든 사람들은 세상에 마지막 경고의 기별을 주는 일을 돕는 것이다. 우리가 이 일을 아무리 높이 평가하여도 지나치다 할 수 없다. 왜냐하면 문서 전도인들의 노력이 없다면 많은 이들이 결코 경고를 듣지 못하게 될 것이기 때문이다.”<sup>19</sup>

“체대로 수행된 문서 전도 사업은 최상의 선교 사업이며, 백성들 앞에 이 시대를 위한 중요한 진리들을 제시하는데 사용될 만한 좋고, 성공적인 방법이다.”<sup>20</sup>

“문서전도 사업은 부흥되어야 하고, 더욱 더 성공적으로 추진시켜 나가야 할 것에 대하여 지시하심을 받았다. 그것은 주님의 사업이며 열성과 근면으로 그 일에 종사하는 자들에게는 축복이 따를 것이다.”<sup>21</sup>

“출판 사업은 거룩한 현대진리의 빛을 세상에 신속하게 전달하는 수단이 되어야 한다.”<sup>22</sup>

“세상으로 하여금 우리의 앞에 무엇이 일어나려 하고 있는지에 관하여 깨닫도록 하기 위하여 우리의 서적을 판매하는 문서전도 사업은 조직되어야 한다.”<sup>23</sup>

“우리들이 우리 인쇄물을 배포하는 일의 중요성을 깨달을 때에 그들은 이 사업을 위해서 더 많은 시간을 바칠 것이다. 잡지, 전도지, 그리고 서적들이 사람들의 가정에 배포될 것이며 그것들은 각기 그 입장에서 복음을 전할 것이다.”<sup>24</sup>

“그 후에 우리는 장막회들과 우리 교회의 큰 집회에 참석해 있었는데, 그곳에서 목사들은 우리가 사는 시대의 위기와 우리의 문서들을 보급시키는 일을 서둘러야 할 필요성을 분명히 제시했다. 그 호소에 반응하여 형제와 자매들이 앞으로 나와서 많은 책들을 구입했다. 어떤 사람들은 적은 양을, 어떤 사람들은 많은 양을 취했다. 대부분의 구매자들은 그들이 취한 책의 값을 치렀다. 소수의 사람들만이 후불로 처리되었다.

책들이 낮은 가격으로 팔렸고, 어떤 것들은 그 기회를 위하여 특별히 가격이 할인되어서 팔리고 있었기 때문에 많은 책들이 팔렸는데, 어떤 것들은 우리의 믿음에 속하지 않는 자들에게도 팔렸다. 그들은 말했다. ‘이 책들은 우리를 위한 기별을 간직하고 있음에 틀림이 없다. 이 사람들은 우리가 그것을 소유할 수 있도록 즐겨 희생을 하고 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 책들을 우리 자신과 우리의 친구들을 위하여 가져야 할 것이다.’

그러나 백성들 중 어떤 사람들이 말했다. ‘이 일을 중단시켜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의 사업이 망쳐질 것이다.’ 한 형제가 책을 한 아름 안고 가는 것을 보고 한 문서전도자가 그의 팔에 손을 얹으면서 말했다. ‘나의 형제여, 그렇게 많은 책을 가지고 무엇을 할 작정이요?’ 그 때에 나는 우리의 고문되신 그리스도의 음성을 들었다. ‘그들을 금하지 마라. 이것이 이루어져야 할 사업이다. 끝이 가까웠다. 이 책들이 보급되었어야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미 많은 시간을 잃어버렸다. 그 책들을 원근 각지에 판매하라. 그것들을 가을 낙엽처럼 뿌려라. 이 사업은 어떤 사람의 금지 없이 계속되어야 한다. 영혼들은 그리스도 밖에서 죽어 가고 있다. 그들은 하늘 구름을 타고 미구에 나타날 그분에 관하여 경고를 받아야 한다.’

교역자들 중 어떤 사람들은 계속해서 크게 낙담한 것처럼 보였다. 한 사람은 울면서 말했다. ‘이 사람들이 책들을 너무 싼값에 팔므로 출판 사업에 손해를 주고 있다. 또한 이 일은 우리의 사업을 지원하는 수입의 한 부분을 우리에게서 빼앗고 있다.’ 음성의 주인되신 그리스도께서는 대답하셨다. “그대들은 아무런 손실을 당하고 있지 않다. 할인된 가격으로 책들을 가져가는 이 교역자들은 소위 이 같은 희생으로 주어지지 않으면 그런 즉석 판매의 기회를 그로서는 얻을 수가 없었다. 달리는 살 엄두도 낼 수 없는 그들의 친구들과 그들 자신을 위하여 많은 사람들이 지금 구입하고 있다.”<sup>25</sup>

“문서 전도인들의 수고를 통하여 가정에 놓는 말없는 사자들은 복음 사업을 다각도에서 강화시킨다. 왜냐하면 성령께서 그들이 책들을 읽을 때에, 설교를 들을 때와 마찬가지로 그들의 마음에 역사하시기 때문이다. 천사들의 봉사도 목사의 일과 마찬가지로 진리가 담긴 책들에도 동일하게 수반된다.”<sup>26</sup>

“은혜의 시기가 계속하는 한, 문서전도자가 일할 수 있는 기회는 있다... 하늘에서 ‘다 이루었다’는 말이 있기까지는 언제나 일할 장소와 기별을 받아들일 심령들이 있을 것이다.”<sup>27</sup>

“내게 주어진 빛을 통하여 현재 한 명의 문서 전도인이 있는 곳에 백 명의 문서 전도인들이 있어야 한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sup>28</sup>

## 청년들을 원하심

각 시대에 하나님은 특히 청년들을 훌륭한 책임을 지기 위해 선택하셨다. “사람이 젊었을 때에 명예를 메는 것이 좋으니” [애 3:27]

그들의 사명을 받고 충실했던 많은 사람들을 하나님께서는 특별한 위치에 두시고 세상에 전할 구원의 빛을 전하게 하셨다.

“그리스도께서는 세상에 진리를 전하기 위하여 자원하는 청년들을 부르신다. 영적 활력이 있는 사람 곧 일을 찾음으로 매우 가까운 곳에서 일을 발견할 수 있는 사람이 필요하다. 교회는 사람들에게 활기를 줄 수 있는 새로운 사람들, 오류와 싸울 수 있는 시기에 적합한 사람들, 그 마음이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뜨거운 사람들, 그리고 그 손이 주님의 사업에 착수하는데 열성적인 사람들을 필요로 한다.”<sup>29</sup>

“주님께서서는 우리의 청년들이 문서전도자로 일하며 아직 진리를 듣지 못한 많은 지방에서 집집 방문하는 일을하기를 요청하신다...”

우리에게는 하여야 할 사업이 있다. 청년들이 말씀을 전파하는 사업에 자기 자신을 바치도록 교육하고, 교육하고, 또 교육하라. 그들로 문서전도자가 되어 주님께서 성령으로 마음을 감동시켜 쓰게 하신 책들을 판매하도록 교육하라. 이 읽을거리들을 이처럼 저희 문 앞에 가지고 가지 아니하였더라면, 대중들은 결코 진리를 들어 보지 못했을 것이다. 이것이 전도자의 할 사업이다.”<sup>30</sup>

이 세상 정부가 군 복무를 청년들에게 요청하는 것처럼, 모든 젊은이는 주님께 헌신해야 하며, 적어도 일 년 동안 봉사하는데 헌신해야 한다. 그분을 섬길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을 고안해야 한다. 문서전도 봉사는 하나님께 대한 믿음을 강화하고 현재와 미래의 삶을 위해 최선의 결정을 내리는 데 도움이 되는 훌륭한 경험이 될 것이다.

“내가 또 주의 목소리를 들은즉 이르시되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꼬 그 때에 내가 가로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사 6:8].

청년의 힘과 경험 있는 어른, 어린이의 단순함 및 성령의 능력으로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거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마 24:14].

## 하나님과 협력하는 사람들의 보상

주님께서서는 세상에 복음을 전하는 일에 작은 수고에도 보상하고 변성하게 하실 것이다. 그분의 말씀은 결코 헛되지 않을 것이다. 다른 사람들을 구원하는 일에 협력하

는 것 외에도, 우리 자신의 구원에 확신을 갖게 될 것이다.

우리는 이 때를 위한 빛을 담고 있는 잡지 또는 서적을 통해 진리를 알게 된 형제자매 - 온 가족을 만나게 될 때 기뻐할 것이다. 그러나 늦은비 성령의 부으심으로 “미구에 일천 명 이상이 하루에 회개할 것인데, 이들 중의 대부분이 우리의 출판물을 읽는 데서 그들의 최초의 회심을 경험할 것이다.”<sup>31</sup>

천국에서 구속받은 사람들은 별들이 달린 아름다운 면류관을 쓰고, 주님의 보상을 영원히 누리고 그리스도의 품안에서 그들이 구세주께 인도 한 것을 보는 만족감을 얻게 될 것이다. “어떤 이들의 면류관은 많은 별들이 달려 있어서 무거워 보였고 어떤 이들의 면류관에는 별이 몇 개밖에 없었다. 그러나 모두가 자기의 면류관에 대해 아주 만족해 했다.”<sup>32</sup>

주님의 모든 약속은 완전히 성취될 것이다.

“너는 네 식물을 물 위에 던지라 여러 날 후에 도로 찾으리라” [전 11:1].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정녕 기쁨으로 그 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로다” [시 126:5,6].

### [참조문헌]

- 1 교회증언 8권, 87.
- 2 엘렌 화잇의 그리스도인 경험과 가르침, 128.
- 3 엘렌 화잇의 그리스도인 경험과 가르침, 129, 130.
- 4 교회증언 7권, 150, 151.
- 5 교회증언 7권, 139.
- 6 문서전도봉사, 137.
- 7 문서전도봉사, 131.
- 8 문서전도봉사, 132.
- 9 문서전도봉사, 132, 133.
- 10 문서전도봉사, 134.
- 11 교회증언 9권, 62.
- 12 남부 파숫꾼, 1904.1.5.
- 13 교회증언 6권, 316.
- 14 교회증언 8권, 89.
- 15 리뷰 앤드 헤럴드, 1878.11.21.
- 16 교회증언 4권, 390.
- 17 문서전도봉사, 21.
- 18 문서전도봉사, 25.
- 19 교회증언 6권, 313.
- 20 교회증언 6권, 313.
- 21 남부 파숫꾼, 1903.1.15.
- 22 교회증언 9권, 69.
- 23 문서전도봉사, 84, 85.
- 24 문서전도봉사, 7.
- 25 교회증언 9권, 71.
- 26 교회증언 6권, 316.
- 27 리뷰 앤드 헤럴드, 1902.10.7.
- 28 교회증언 6권, 315.
- 29 문서전도봉사, 19.
- 30 문서전도봉사, 19.
- 31 문서전도봉사, 151.
- 32 초기문집, 16.

# 복음의 개척자 사업

에밀 발부, 루마니아

그분의 제자들에게 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위대한 복음 사명은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마 28:19, 20].

이 사명에서 무엇이 복음인가? 복음은 기쁜 소식이다. 소식은 단어를 통해 전달된다. 그러므로 복음이나 기쁜 소식은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한 말씀이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요 1:14]. 사실,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말씀의 결과 일뿐이다. 성경은 이렇게 말한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요 1:1, 3].

요즘에도 단어는 창조의 능력을 발휘한다. 예를 들어 사도 바울이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존재하느니라” [골 1:17]라고 설명한다. 단어는 소리가 외이에 가해지고, 그 다음에 중이에 들어가고, 내이에서는 소리가 신경 자극으로 바뀐다. 청각 신경을 통해 그것은 측두엽으로 이동하며, 전두엽과 다른 대뇌 반구와의 연결 때문에 소리가 통합되고 정보가 신경계에 사물로 저장된다. 그래서 이 단어들은 우리의 뇌에서 사물로 변형된다.

이 사물은 거기 남아 있을 것이다. 우리가 듣는 말은 생각의 원천이며 우리가 반응하는 방식이다. 그들은 행동으로 이어지고 행동은 습관으로 이어지고 습관은 인격의 품성을 이룬다. 그 품성은 실제로 그 사람을 보여준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가 듣기로 선택하는 말씀이 바로 우리 자신이 된다.

복음은 인간 마음 속에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 그리스도

의 품성을 창조하는 모든 말씀이다. 이것은 죄가 우리 인류에 들어 왔을 때 인류가 잃어버린 거룩한 형상이다.

태초에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셨을 때, 모든 것이 완전했고, 완전하고 인상적인 조화로 생명을 유지하는 것을 의미하는 율법에 따라 창조주의 품성을 반사했다. 만물은 말씀으로 지어졌으며 말씀으로 유지 된다.

“주님께서서는 태초에 인간을 똑바르게 만드셨다. 인간은 완전히 균형진 정신을 갖고 창조되었으며, 그 모든 기관의 크기와 힘은 완전하게 발달되었다. 아담은 인간의 완전한 모형이다. 모든 정신적 자질은 잘 균형이 잡혔으며, 각기 구별된 기능을 담당하면서 그 중 어느 한 가지를 온전하고도 적절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모든 것이 서로 의지하였다.”<sup>1</sup>

“사람의 두뇌를 만드시고 그 법칙을 정하신 하나님께서는 그 법칙에 따라서 두뇌가 발달하도록 계획하셨다.”<sup>2</sup>

## 건강과 질병

의학에 따르면 건강은 육체적, 정신적, 사회적 및 도덕적 안녕의 완전한 상태이다.

“천연계를 유지하는 그 같은 능력이 사람 속에서도 작용하고 있다. 별들과 미생물을 인도하는 위대한 법칙이 사람의 생명을 지배하고 있다. 체내에서 생명의 유동을 조절하고 심장의 작용을 지배하는 법칙은, 심령의 재판권을 가지시고 위대한 지혜를 가지신 하나님의 법칙이다. 모든 생명은 그분에게서 나온다. 생명의 참된 활동 범위는 하나님과 조화를 이룰 때에만 찾을 수 있다. 하나님께서 만드신 만물은 그 조건이 동일하니, 곧 그 생명은 하나님

의 생명을 받음으로써 유지되고, 창조주의 뜻과 일치되는 곳에서 행사되는 것이다. 지적, 영적, 육적인 것을 무론하고 하나님의 법을 범하는 것은 자신을 우주의 조화 밖에 다 두는 것으로, 불화와 무질서와 파멸을 가져 오게 된다.”<sup>3</sup>

인간의 유기체가 어떻게 작동하고 어떻게 우리가 아픈 지를 연구하기 시작한 이래로 나는 딜레마에 빠졌다. 무엇이 먼저 아픈가? 마음을 가진 유기체인가 또는 유기체를 제어하는 마음인가?

우리가 듣는 모든 말은 우리의 생각을 창조한다. 우리는 품고 있는 생각이 행동이 될 수 있고, 반복되는 행동이 습관이 되고 반복되는 습관이 품성의 특성이 되며, 특성의 합계가 완전한 품성을 이룬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리고 그 품성이 인격을 드러낸다.

이것은 장애가 사람의 마음이나 사고방식에서 발생할 때 장애 또는 질병이 나타나는 것을 의미한다. 지혜로운 솔로몬은 “하나님이 사람을 정직하게 지으셨으나 사람은 많은 피를 낸 것이니라” [전 7:29]고 말한다.

인간의 타락은 죄 또는 죄 많은 생각으로 시작된다. 죄란 무엇인가? 거짓말이나 반쯤의 진실을 듣거나 의심을 불러 일으키거나 거짓된 말을 듣는 말을 듣는 것은 건강을 악화시키는 그릇된 행동(죄)으로 이어질 것이다.

“자연의 법칙에 대한 지속적인 위반은 하나님의 법에 대한 지속적인 유린이다. 우리가 도처에서 목격하는 현재의 고통과 고뇌의 짐과, 오늘날의 불구와 노쇠와 질병과 지금 세상에 범람하고 있는 허약함은, 그것이 그렇게 될 수도 있었고 또 하나님께서 그렇게 되도록 계획하셨던 것과 비교해 볼 때, 세상을 나병원(癩病院)이 되게 한다. 그리고 현 세대는 정신력과 도덕력과 체력에 있어서 허약하다. 이 모든 불행은 타락한 인간이 하나님의 법을 범하기 때문에 수 세대에 걸쳐 축적되었다. 가장 엄청난 죄들은 왜곡된 식욕의 방종 때문에 저질러진다.”<sup>4</sup>

왜곡된 식욕은 우리의 음식, 일 또는 휴식에 관한 부절제가 아니라 시각, 청각 및 지적 욕구를 왜곡되게 한다.

마음을 듣고 보는 것으로 바뀌므로 명상하는 것과 동일하게 된다. 신체와 마찬가지로 정신도 그가 섭취하는 음식에서 힘을 얻게 된다. 정신은 순결하고 강하게 하는 사상에 의해서 확대되고 고상하게 된다. 이 지상의 세속적인 것에 대한 생각은 정신을 웅졸하게 하고 저속하게 한다.

부모들이여, 그대들은 ... 저들의 활동적인 정신을 텅 빈 채 놓아 둘 수 없으며 불쾌한 표정으로 악을 쫓아버릴 수도 없다. 오직 바른 원칙으로 차근차근 타이름으로써만

그릇된 생각들을 배제시킬 수 있다...

오직 선하고 확고한 교훈만이 선량한 품행을 타락케 하는 악한 전염(傳染)을 예방할 수 있다. 진리는 반드시 대항해야 할 끝 없는 유혹에서 영혼을 보호할 것이다...

가치 있는 지식을 정신에 쌓도록 그대들의 자녀들에게 격려하여 선한 것이 영혼을 사로잡게 하고 정신력을 지배하게 하며 저속하고 타락한 사상을 쌓아 둘 자리가 없게 할 것이다. 정신에 좋은 양식이 되지 못하는 서적들을 바라는 마음을 제재하라...

진리를 파괴하는 내용을 가진 서적들은 아동들과 청년들의 손에 절대로 들어가게 해서는 안 된다. 우리의 자녀들로 하여금 교육을 받는 바로 그 과정에 있어서 장차 죄악의 종자로 파멸될 사상을 받아들이지 못하게 하라.”<sup>5</sup>

오늘날 마음은 악의 힘으로 쉽게 정제된 도구에 의해 왜곡된다. 그 “창”, 좋은 것 몇 가지 외에도, 악명 높고 수치스러운 것에 대한 넓은 관점을 제공한다. 하지만 자연스럽게 인간의 마음은 악을 선택한다. 사도 바울이 설교하는 동안 유두고와 같은 이 창에 앉아 있으면 사람들은 안으로 빠지지 않고 밖으로 떨어지게 되며 타락과 파멸로 이어질 것이다. 태블릿, 스마트폰, 랩톱 등 어디에서나 이 창(화면)을 찾을 수 있다. 언제든 모든 것을 보는 이 습관은 사람들이 선과 악을 구별하는 능력을 잃을 정도로 쏟아져 나온다.

뇌의 가장 중요한 기능 중 하나는 선악을 판별하는 능력이다. 정신과학에서는 이것을 의식이라고 부른다. 그것은 우리가 정신적으로 피곤할 때, 우리가 최면 상태에 있을 때(화면을 오랫동안 보게 유도될 때) 결합된다.

첫 불복종 행위는 최면 상태, 즉 말을 하는 뱀의 유혹에 의해서도 발생했다. 이 첫 번째 죄악은 무질서, 퇴화, 죽음의 문을 열었다.

“하나님께서 인간을 완전하고 거룩하게 창조하셨다. 그러나 인간은 하나님의 율법을 범하므로 말미암아 그 거룩한 상태에서부터 타락하였다. 타락 이후로 질병과 고난과 사망은 급속하게 증가하였다. 그러나 인간이 그 창조주를 모독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사랑은 인류를 위하여 아직도 펼쳐져 있다. 그분은 인간들에게 빛이 비치도록 허용하심으로써 인간이 온전한 생애를 살기 위해서 자신의 존재를 지배하는 천원 법칙과 조화되게 살아야 한다는 것을 깨닫도록 하신다. 그러므로 자신의 신체와 정신적 능력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행사되도록 시는 법을 배우는 것은 가장 중요한 일이다.”<sup>6</sup>

## 회복을 위한 개척

이 일은 놀랍다. 그것은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마음에 더 가까이 가게 하는 일들을 어떤 상황에서도 선택할 수 있는 인간의 의지의 힘을 통해 마음을 회복시키는 일이다.

복음의 활동은 마음에 질서를 되찾아 주는 것이다. 복음에 담긴 정보를 가까이 받아들이는 것은 인간의 마음과 완벽하게 조화를 이루어 몸을 질병에서 건강으로 이끌고 회복시키는 데 도움을 준다.

이 세상에서 그리스도의 사명은 비록 죄로 인해 타락했지만, 인류가 다시 돌아와서 완전한 존재로서 하늘의 보편적 조화에 통합될 수 있는 길을 열어 주는 것이었다. 마음을 치유하고 몸과 영혼을 치유하는 이 일은 최고의 기쁜 소식이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밝혀진 복음은 타락한 인류를 위한 첫 번째 치료이다. 이 세상에 건강한 사람은 없다. 도덕적 또는 정신적 퇴화는 신체의 퇴화를 가져온다. 우리가 변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삶에 변화하는 정보, 즉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마음 속에 받아들이는 것이다.

세계적으로 유명한 연구자들은 그의 완전한 품성을 지닌 예수 그리스도를 인간 역사를 측정하는 시간 축의 중심에 두어야 한다고 결정했다. 모든 사람은 그분과 관련이 있다.

그리스도께서는 역사를 유지하는 분일뿐만 아니라, 사람들을 타락 상태에서 회복시켜 천국으로 돌아오게 하는 분이기도 하다. 이 희망을 주는 것은 우리가 그분의 말을 받아들이는 순간부터 시작된다.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한다: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로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또 너희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강림하실 때에 흠 없게 보전되기를 원하노라” [살전 5:23].

## 이 복음은 무엇이며 인류의 회복의 첫 걸음을 나타내는가?

“그는 두루 다니시며 선을 행하시고 사단에게 눌린 모든 자를 고쳐 주셨다. 병자의 신음 소리가 아무 집에서도 들리지 않는 촌락들도 있었나니 이는 예수께서 그 가운데로 지나시며 그들이 병을 고쳐주신 까닭이었다. 그의 사업은 그가 기름 부음을 받은 증거가 되었다. 사랑, 자비, 긍휼은 그의 생애의 온갖 행동에 나타났나니 그의 마음은 인류에게 부드러운 동정을 나타냈다.”<sup>7</sup>

모든 사람들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형상을 나타내는 인간의 회복이다. 이러한 회복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의해 받아들여진 하늘의 원칙들을 받아들임으로써 시작된다. 어떤 기적적인 약이나 어떤 복잡한 외과적 수술도 죄 있는 사람을 좋은 사람으로 바꾸거나 질병과 죽음의 흔적을 파괴하는 특별한 변화를 만들어 낼 수 없다.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사고의 근간으로 받아들이고, 우리의 모든 생각을 위한 씨앗으로 받아들임으로써 시작된다.

만약 우리가 자연 속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손이 우리의 존재를 지배하도록 허락한다면, 질병은 사라질 것이고 건강은 회복될 것이다.

“지구가 해마다 그 풍성한 산물을 내고 태양의 주위를 계속해서 운행하는 것은 고유(古有)의 힘에 의한 것이 아니다. 무한하신 분의 손이 이 유성을 영원히 지도하고 계신다. 지구가 제 위치에서 계속하여 자전(自轉)하게 해주는 것은 하나님의 능력이다. 태양이 하늘에 떠오르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다. 그분께서는 하늘의 창문을 열고 비를 내려 주신다.”<sup>8</sup>

“하나님의 자녀들은 그분의 품성에 참여하는 자들이다. 우리가 하나님의 가족이라는 것을 입증하는 것은 세속적 계급도, 혈통(血統)도, 국적도, 종교적 특권도 아니다. 그것은 사랑, 곧 온 인류를 품에 안는 사랑이다. 비록 죄인이라 할지라도 마음이 하나님의 영에 대하여 완전히 닫혀 있지 않으면 친절에 반응을 보이게 될 것이다. 미움에 대해서는 미움을 나타낼지라도, 사랑에 대해서는 사랑을 나타낼 것이다. 그러나 증오에 대하여 사랑을 나타내는 것은 오직 하나님의 영에 의해서만 가능하다. 감사할 줄을 모르는 자와 악한 자에게 친절하게 하고, 보수를 전혀 바라지 않고 선을 행하는 것은 하늘 왕국의 표 곧 지극히 높으신 분의 자녀들이 그들의 고상한 신분을 알려 주는 분명한 표이다.”<sup>9</sup>

우리가 그것을 받아들이든 받아들이지 않든, 우리의 존재는 축복, 이웃을 위한 치유책이거나, 반대로 독약, 사망에 이르는 죽음의 향기이다. 이 차이점은 우리가 마음 속에 계시면, 이것이 보일 것이다. 예수님이 계시다면, 이것은 분명히 보일 것이다. 그분이 안 계시면 우리와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 모두 실망하게 될 것이다.

초기 교회에서 사도들의 사업은 광범위하고 심오했다. 모든 선교 활동의 시작은 사실 질병과 고통으로 파괴된

몸을 회복하는 일이다. 이러한 고통이 완화된 후에야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삶을 경험할 수 있었다. 그리스도를 받아들임으로써, 그들의 온 몸이 그의 존재로 가득 찼고, 그들은 이웃들의 빛의 통로가 되었다. 그들을 채워 주고 다른 사람들에게 영향을 준 이 삶의 정신은 우리가 자유롭게 마실 수 있는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에서 나왔다.

### 실용적인 과학

복음은 이론이 아니다. 그것은 실제 생활이다. 내가 프랑스에서 인턴 의사로 일하고 있을 때, 외과 의사 동료가 아침 식사를 하면서 나에게 물었다: “왜 당신은 채식 주의자인가요?” 나는 “성경에 나오는 정보 때문에 창세기 1장 29절”이라고 대답했다. 식물성 식품의 요소들이 얼마나 효율적으로 우리 시스템에 동화되는지에 대한 화학적인 설명. 이것은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그에게 이상적인 “췌기를 박는” 것으로 밝혀졌다. 그는 대답했다: “와! 난 이것에 대해 생각해 본 적이 없어! 정말 놀랍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에 대한 완벽한 화학적 반응은 그의 신성한 지혜와 창조 전에 만들어진 계획의 위대함을 나타낸다. 그것은 또한 시간이 지나면서 인류가 수세기 전에 복음이 알려진 사실을 발견하는 이유이기도 하다.

어떤 치료법의 힘도 그 자신이나 그것을 사용하는 사람에게서 찾을 수 없다. 예수 그리스도는 치료자이시다. 만약 약이 진실을 복음의 전도자들뿐만 아니라 의학계에서도 이해한다면, 구원의 손길은 초대교회의 시작과 마찬가지로 곧 전 세계를 포함할 것이다. 아무도 자신들이 치유할 수 있다고 자랑스럽게 믿을 수 없다. 의사들은 오직 도울 수 있을 뿐이지만, 치유는 영원한 생명의 샘에서 온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들의 몸에 부주의하다. 그들은 이유 없이 먹고 그들의 삶은 질서 없이 지배된다. 그들은 탐욕스럽다. 그들은 단지 자신의 존재가 희생에 기인한다는 것을 깨닫지 못하고 식욕과 정욕을 만족시키고 싶어 한다. 그들은 단지 부주의하거나 무관심할 뿐이다. 그들은 그들의 몸에 무엇을 소개하는지 신경 쓰지 않는다. 그들이 다음과 같은 진술을 이해할 수 있다면 그들의 삶은 바뀔 것이다:

“우리 주께서는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요 6:53-55)고 말씀하셨다. 이것은 우리의 육체적 생활에도 참되다. 우리는 이 세상 생애에 있어서도 그리스도의 죽으심의 은혜를 입고 있다. 우리가 먹는 떡도 그분의 찢어진 육체로 산 것이다. 우리가 마시는 물도 그분의 흘리신 보혈로 산 것이다. 날마다 자기의 음식을 먹는 자는 그가 성자이건 죄인이건 간에 그리스도의 몸과 피로 양육을 받지 않는 자는 하나도 없다. 모든 떡덩이마다 갈바리의 십자가의 인이 찍혀있다. 모든 샘물에도 십자가가 반사되어 있다. 그리스도께서는 이 모든 것이 당신의 큰 희생의 상징을 가리키는 것이라고 가르치셨다. 다락방에서 거행된 성만찬에서 비취는 빛이 매일의 생활 양식을 거룩하게 한다. 가족 식탁은 주님의 식탁처럼 되며 끼니마다 식사는 성만찬과 같이 된다.”<sup>10</sup>

### 결론

모든 진정한 제자는 선교사로서 하나님의 나라에 태어난다. 우리의 존재는 하나의 향기이며 축복이다. 주 예수님의 자비를 통해 구원받은 모든 인간 존재는 생명이 넘치는 생애이다. “주께 힘을 얻고 그 마음에 시온의 대로가 있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저희는 눈물 골짜기로 통행할 때에 그 곳으로 많은 샘의 곳이 되게 하며 이른 비도 은택을 입히나이다 저희는 힘을 얻고 더 얻어 나아가 시온에서 하나님 앞에 각기 나타나리이다”(시 84 : 5-7).

모두가 이 행복을 누리길 바란다!

### [참고문헌]

- 1 교회증언 3권, 72.
- 2 교육, 41.
- 3 교육, 99, 100.
- 4 교회증언 4권, 30.
- 5 재림신도의 가정, 410, 411, 413.
- 6 교회증언 3권, 162, 163.
- 7 정로의 계단, 11, 12.
- 8 치료봉사, 416.
- 9 산상보훈, 75.
- 10 시대의 소망, 660.

#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함



호세 A.우수가 고에즈, 과테말라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막 16:15].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행 1:8].

이 성경절에 따르면, 복음기별이 땅 끝까지 이르는 것이 분명하다.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의 기쁜 소식은 지구의 가장 먼 구석에 도달하기 위해 국경과 바다를 가로질러 나아가야 한다. 이것은 주님의 명령이고 그것은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사람들의 사명이다. 만약 세상이 하나님의 영광으로 밝게 비춰 진다면, 우리는 이 일에서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다.

의심할 여지없이, 우리는 때때로 구세주께서 모든 사람에게 복음을 전파하라고 명하셨을 때 제자들이 분명히 느꼈던 것과 동일한 한계를 느끼게 된다. 그 도전은 우리에게 너무나 큰 것이었다. 그러나 그들에게 주어진 약속은 세상 끝날 때까지 그분의 임재가 그들에게 함께 하신 것과 같이 또한 우리에게도 함께 하신다는 것이다. (요 17:18, 20.)

성경과 예언의 신에서 우리는 짧은 시간 내에 이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개척지 전체를 꼼꼼하게 다루어야 할 책임을 발견할 뿐만 아니라 주께서는 우리에게 복음전도 계획을 알려 주시고 성공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방법도 알려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린다.

## 의료 선교 사업

“너희가 어찌하여 매를 더 맞으려고 더욱 더욱 패역하느냐 온 머리는 병들었고 온 마음은 피곤하였으며 발바닥에서 머리까지 성한 곳이 없이 상한 것과 터진 것과 새로

맞은 흔적뿐이어늘 그것을 짜며 짜매며 기름으로 유하게 함을 받지 못하였도다”[사 1:5, 6]

“너희가 어찌하여 매를 더 맞으려고 더욱 더욱 패역하느냐 온 머리는 병들었고 온 마음은 피곤하였으며 발바닥에서 머리까지 성한 곳이 없이 상한 것과 터진 것과 새로 맞은 흔적뿐이어늘 그것을 짜며 짜매며 기름으로 유하게 함을 받지 못하였도다”[사 24:5, 6].

“우리는 모든 교인이 의료 선교 사업을 담당해야 할 시대를 맞이했다. 세상은 육체적, 영적 질병의 희생자들로 가득 찬 나(癩) 병원이다. 어느 곳에서나 사람들은 우리에게 맡겨진 진리의 지식의 부족으로 멸망해 가고 있다. 교인들은 이 진리들을 나누어 줄 책임을 깨닫기 위하여 각성할 필요가 있다.”<sup>1</sup>

“예수께서는 당신의 공생애(公生涯) 동안에 복음을 전파하는 것보다 병든 자를 고치시는 일에 더 많은 시간을 바치셨다. 예수의 이적은 그가 멸하러 오신 것이 아니요 구원하기 위하여 오셨다는 당신의 말씀이 진실임을 증거하였다.…”

그리스도를 따르는 자들은 그리스도가 일하신 것처럼 일해야 한다. 우리는 주린 자를 먹이고 벗은 자를 입히며 고통받는 자와 슬퍼하는 자들을 위로해야 한다. 우리는 절망하는 자들을 위하여 봉사하고 소망이 없는 자들에게 소망을 고취시켜 주어야 한다.”<sup>2</sup>

의료 선교사의 섬세한 손길이 닿음으로 지금 닫혀 있는 많은 문들이 열릴 것이다. 우리가 들어가지 않는 한 도달할 수 없는 수천명의 영혼들에게 접근할 수 있는 쉼기가 있는데 그것은 바로 건강 개혁의 빛이다. 세계와 기독교의 다양한 종교적 모임의 많은 영혼들이 몸과 혼과 영의 건강 회복을 기다리고 있다. 고통이 있는 곳에서, 우리는 손에 쥐고 있는 열쇠를 이용하여 많은 마음의 문을 진리로 향하도록 열 수 있다. 용기를 주는 한마디의 말, 음식에 대한 사랑이 가득한 권면, 환자를 위한 열렬한 기도, 자연을 이용한 간단한 치료, 찬양의 노래,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가족들을 위한 기도—이 모든 것이 복음으로 사람들에게

도달하는 길을 열 것이다. 우리의 큰 필요는 하나님의 기회이기 때문이다. (눅 4:18).

### 개인적인 가정 방문

사도 바울은 증언한다: “유익한 것은 무엇이든지 공중 앞에서나 각 집에서나 꺼림이 없이 너희에게 전하여 가르치고... 그러므로 너희가 일깨어 내가 삼 년이나 밤낮 쉬지 않고 눈물로 각 사람을 훈계하던 것을 기억하라” [행 20:20, 31].

“그대의 성공은 그대의 지식이나 학력보다도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일 수 있는 그대의 능력에 달려있다.”<sup>3</sup>

“그대가 다른 사람을 방문할 때에 갖는 태도는 매우 중요하다. 친절히 인사함으로 그 주인에게 신임을 받기도 하고, 냉담하게 인사함으로 그대가 그에게 아무 관심이 없다는 생각을 품게도 하는 것이다.”<sup>4</sup>

“영혼들을 찾고 잃은 양을 찾기 위한 집집방문 사업은 무엇보다 가장 요긴한 사업이다.”<sup>5</sup>

“할 수 있는 모든 자들은 개인 활동을 해야 한다. 저들이 집집마다 방문하며 분명하고 단순한 방법으로 사람들에게 성경 말씀을 설명할 때 하나님께서는 영혼들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진리를 힘 있게 해 주실 것이다. 구주께서는 이런 활동을 하는 자들을 축복하신다.”<sup>6</sup>

“특별한 공중활동과 똑같이 중요한 것은 주택지에서 집집을 방문하는 사업이다. 대도시에는 공중집회로 접촉할 수 없는 특정한 계층들이 있다. 이런 부류의 사람들은 목자가 잃은 양을 찾는 것처럼 찾아내어야 한다. 부지런한 개인 활동이 그들을 위해 이루어져야 한다. 개인적인 사업이 등한해질 때 귀중한 많은 기회들을 잃어버리게 되는데, 만일 그 기회들이 이용된다면 사업은 결정적으로 발전될 것이다.”<sup>7</sup>

“안식일을 지키는 가정들이 [새로운 지역으로] 이사하여 진리를 알지 못하는 자들 앞에서 진리대로 살게 하라. 이런 가정들은 피차간에 도움이 될 수 있다. 그러나 그들은 그들의 길을 방해하는 것을 전혀 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그들은 그리스도인의 구제 사업을 실행하여 주린 자들을 먹이고 벗은 자들을 입혀야 한다. 이 일은 설교하는 것보다 선을 위하여 훨씬 더 강한 감화를 끼칠 것이다. 동정의 말은 물론이요 동정의 행동이 필요하다. 그리스도께서는 사랑과 자선의 행동으로 당신의 기별을 전하는 일을 시작하셨다. 이 일꾼들이 집집을 찾아다니고, 도움이 필요한 곳을 도와주고, 그리고 기회가 주어지는 대로 십자가의 이야기를 하게 하라. 그리스도가 그들의 주제가 되어야 한다. 그들은 교리적인 문제들을 강조할 필요가 없다. 그들은 그리스도의 사업과 희생을 이야기해야

한다. 그들은 그분의 의를 붙들고 그들의 생애를 통하여 그분의 순결을 드러내야 한다.”<sup>8</sup>

“우리 교회의 신자들 사이에서 집집을 방문하여 [우리에게 준비된 “성경연구 23과제”를 주제로] 성경을 가르치고 문서를 보급하는 일이 더 많아져야 한다.”<sup>9</sup>

“주님께서는 사람들이 진리를 알지 못하는 곳에서 능력을 발휘할 수 있는 과단성 있는 노력을 요구하신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사는 가정에는 찬미하고 기도하며 성경을 읽는 것이 필요하다... 이 일을 하는 사람들은 성경에 대한 사전 지식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 ‘기록되었으되’가 저들의 방어 무기가 되어야 한다.”<sup>10</sup>

### 찬미 사역

“그러면 어떻게 할꼬 내가 영으로 기도하고 또 마음으로 기도하며 내가 영으로 찬미하고 또 마음으로 찬미하리라” [고전 14:15].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에 새기는 데에는 그것을 노래로 반복하여 부르는 방법보다 더 효과적인 것은 별로 없다. 그런 노래는 기이한 힘을 가지고 있다. 그것은 거칠고 교양 없는 성질을 진정시키며, 생각에 활기를 불어넣고 동정심을 일깨우고, 행동의 조화를 촉진하며, 용기를 잃게 하고 노력을 약하게 하는 어둡고 불길한 생각을 없애는 힘을 가지고 있다.”<sup>11</sup>

하나님의 영광을 노래하는 것은 적을 쫓아내고 그를 찬양하는 것은 그를 패배시키고 우리에게 승리를 안겨 준다.

“그리스도께서 목수 일을 하는 자리에서 일하고 계실 때에 사람들은 때때로 둘러싸고 조급하게 만들어 보려고 노력하곤 했다. 그러나 예수께서는 어떤 아름다운 송가들을 노래하기 시작하시고 그들도 저들이 무엇을 하고 있는지를 알지 못하는 사이에, 말하자면 그 곳에 계셨던 성령의 능력에 감화함을 받아 노래하시는 그분과 함께 노래를 불렀다.”<sup>12</sup>

영혼은 음악 사역을 통해 그리스도와 그분의 교회에 이끌리게 된다. 영감을 주는 찬미가가 심장 박동에 닿을 수 있고, 영혼은 부드럽게 되고 정복되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구원의 진리를 받아 들일 수 있게 된다.

### 문서전도 봉사

“너는 네 식물을 물 위에 던지라 여러 날 후에 도로 찾으리라 일곱에게나 여덟에게 나눠줄지어다 무슨 재앙이

땅에 임할는지 내가 알지 못함이나

너는 아침에 씨를 뿌리고 저녁에도 손을 거두지 말라 이것이 잘 될는지, 저것이 잘 될는지, 혹 둘이 다 잘 될는지 알지 못함이나” [전 11:1, 2, 6].

문서전도 사역에 있어 훈련을 제공하는 것은 교회가 간과해서는 안 되는 일이다.

“청년들이 사람들을 구원하려는 열망을 가지고 문서전도 사업에 종사하면, 그들의 노력으로 얻은 수확을 주님께 드릴 수 있을 것이다. 그러므로 청년들로 선교인으로 나아가서 현대 진리를 전파하며, 또 세상의 피곤한 모든 자들에게 그 때에 적합한 말을 할 수 있기 위해 빛과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기를 끊임없이 기도하게 하라. 그들이 자신이 주의 사명을 가지고 보내심을 받은 자임을 기억하고 모든 기회를 이용하여 선한 행실을 하도록 하라.”<sup>13</sup>

“우리의 출판물들은 지금 복음의 씨를 뿌리고 있다. 그것들은 설교의 말씀과 마찬가지로 많은 영혼들을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기구이다. 온 교회는 출판물을 배포한 결과로 자라나게 되었다.”<sup>14</sup>

서적과 잡지의 판매는 유익 할 수 있지만 진리에 대한 관심은 설문 조사, 종교 의견 조사 및 건강 및 가족 주제에 관한 설문 조사를 통해 제기 될 수도 있다. 이러한 질문은 대화를 위한 길을 열어 주며 성경 공부는 관심사에 대해 후속 조치를 취할 수 있어야 한다.

예수님은 여론 조사의 몇 가지 예를 우리에게 알려 주셨다. “예수께서 가이사라 빌립보 지방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물어 가라사대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가로되 더러는 침례 요한, 더러는 엘리야, 어떤 이는 예레미야나 선지자 중의 하나라 하나이다 가라사대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가로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 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바요나 시몬아 네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마 16:13-16]. [이 대화는 제자들의 모임에서 이루어졌지만 일반인들에게 제기된 유사한 사례는 마 11:7 - 11에서 발견된다.]

하나님의 간청은 수세기를 통해 울려 퍼지고 있다. “너희는 예루살렘 거리로 빨리 왕래하며 그 넓은 거리에서 찾아보고 알라 너희가 만일 공의를 행하며 진리를 구하는 자를 한 사람이라도 찾으면 내가 이 성을 사하리라” [렘 5:1]

### 공중 전도회들

예수님은 성경에 등장하는 가장 위대한 연설가이다. 그

의 연설은 종종 탁 트인 들판에서 많은 군중들의 귀에 들려 왔다. [참조: 마 5:1, 2; 14:14; 눅 21:37, 38].

사도들도 복음을 전할 때 이런 접근 방식을 채택했다. 오순절 이후, 그들의 메시지는 수천명의 청중들의 마음을 감동시키기 위해 높은 곳에서부터 권세와 지혜를 동반했다. [참조: 행 2:41; 4:4].

윌리엄 밀러가 그리스도의 재림에 대해 강연했을 때, 그것은 군중을 끌어 모았고 큰 반향을 일으켰다. “집회에 열광적인 흥분감은 없었지만 깊은 엄숙함이 청중들의 마음에 가득하였다.”<sup>15</sup>

엘렌 하몬은 이 집회에 참석했고 그들에 의해 깊은 감동을 받았다.

“매력적이고 마음을 즐겁게 하는 것이 너무 많은 오늘날의 도시에서 사람들은 비범한 노력에 의해서 흥미로워질 수 있다. 하나님의 택함 받은 목사들은 무리의 주목을 끌기 위해서 비상한 노력을 할 필요가 있다는 것을 발견할 것이다. 그리고 일단 많은 수의 사람들을 함께 모으는 일에 성공을 거두면 그들은 사람들을 각성시켜 경고를 받게 할 보통 수준을 능가한 성격의 기별을 전해야 한다.”<sup>16</sup>

### 장막집회들

“여러 지역에서 장막집회를 열어야 하며 장막집회가 끝난 후에 공중전도 사업을 완수해야 한다. 그리하여 곡식단을 모아들여야 한다.”<sup>17</sup>

“이 성읍 거민이 저 성읍에 가서 이르기를 우리가 속히 가서 만군의 여호와를 찾고 여호와께 은혜를 구하자 할 것이면 나도 가겠노라 하겠으며” [슥 8:21].

“장막집회는 우리 사업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활동 가운데 하나이다. 그것은 사람들의 주의를 끄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다. 우리가 사는 시대는 심한 흥분의 시대이다. 야망과 전쟁, 쾌락과 돈 버는 일 등이 사람들의 생각을 장악한다. 사단은 시간이 얼마 남지 않은 것을 안다. 그리고 그는 모든 수단을 통하여 일하고자 준비하였으며, 유예의 기간이 끝나 자비의 문이 영원히 닫힐 때까지 사람들이 속고, 기만당하고, 정신이 빠지고, 몰두하게 한다.”<sup>18</sup>

“만일 우리 장막 집회가 제대로 집행된다면 그것은 참으로 세상의 빛이 될 것이다. 그것은 진리의 기별이 전파되지 아니한 대도시들과 도회지들에서 개척되어야 한다. 그리고 적어도 두 세 주일간 계속해야 한다. 같은 장소에서 연이은 집회들을 계속하는 것이 때로는 바람직할 수도 있다. 그러나 대개 집회 장소를 해에 따라 바꾸어야 한다.

몇 군데에서 대규모 집회를 개최하기보다는 더 많은 곳에서 작은 집회를 많이 가짐으로 효과가 더 클 수 있다. 그리하여 사업은 계속해서 새 지역으로 확장될 것이다.”<sup>19</sup>

### 장막집회에 왜 참석해야 하는가?

“형제자매들이여, 이 거룩한 모임에 참석하여 예수를 발견하라. 예수께서 그 잔치에 참여하실 것이다. 그분이 오셔서 그대가 반드시 이루어야 할 일을 해주실 것이다. 영혼에 대한 깊은 관심보다도 그대의 농장을 더 귀중하게 여겨서는 안 된다.”<sup>20</sup>

“우리 교인들이 장막회에 참석하는 것은 중요한 일이다. 진리의 원수들은 많고 우리 교인들은 적기 때문에, 우리는 할 수 있는 대로 강한 전선을 구축해야 한다. 그대들은 집회에서 개인적으로 유익을 얻어야 한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대들이 진리의 대열에 가담하기를 요구하신다.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말할 것이다. “여행하는 데는 돈이 많이 든다. 우리가 그 돈을 절약하여 돈이 매우 필요한 사업의 발전을 위하여 바치는 것이 더 유익할 것이다.” 이와 같은 방법으로 변명하지 말라. 하나님께서는 그대들이 그분의 백성들의 대열에 속해 있기를 바라신다. 그대들은 가족들과 함께 참석함으로써 할 수 있는 대로 힘껏 그 집회에 힘을 주라. 하나님의 백성들이 모이는 집회에 참석하기 위하여 특별한 힘을 쓰라.

형제 자매들이여, 하나님께서 그대들에게 주시는 기별을 듣는 기회를 등한히 하는 것보다 그대들의 사업이 손해를 보게 되는 것이 훨씬 더 나을 것이다. 가능한 한 모든 영적 유익을 얻을 수 없는 구실을 만들지 말라. 그대들은 모든 빛의 광선이 필요하다. 그대들은 온유하고 두려움으로 그대들 속에 있는 소망의 까닭을 설명할 자격을 갖추어야 한다. 그대들은 이런 특권을 한 번이라도 놓쳐서는 안 된다.”<sup>21</sup>

### 새 지역으로 이사함

“여호와께서 아브람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본토 친척 아버지를 떠나 내가 네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창 12:1].

때때로 우리 백성들이 한 도시나 나라에서 다른 곳으로 이사할 때, 그들은 쉽게 존재감을 잃고 교회와의 관계를 끊으며 영적으로 죽게 된다. 그러나 하나님의 계획은 이것 대신에 아브라함이 갔던 것처럼 우리는 예수를 어디든지 모시고 가야 한다는 것이다. 아브라함이 주님께 제단을 떠나는 것과 마찬가지로, 우리가 캠프를 세우는 곳마

다 새로운 선교지가 생겨야 한다.

“하나님께서서는 흑암과 오류에 묻혀 있는 지역 사회로 들어가서 주님을 위해 지혜롭고 끈기 있게 일할 그리스도인 가정을 부르신다. 이 부름에 응하기 위해서는 희생이 요구된다.”<sup>22</sup>

“우리 교회의 평신도들은 그들이 아직 시작조차 하지 않은 사업을 성취할 수가 있다. 아무도 단순한 세속적인 이익 때문에 새로운 지역으로 들어가지 말고, 진리 안에 확고하게 서 있는 가정들이 생계의 길이 열려 있는 곳으로 한 지역에 한 가정 혹은 두 가정씩 들어가서 선교사로 일을 하도록 하라. 그들은 영혼들에 대한 사랑을, 그들을 위해 일할 부담을 느껴야 하고, 그들을 진리로 인도하는 길을 연구해야 한다. 그들은 우리의 출판물을 보급하고, 그들의 가정에서 집회를 열고, 그들의 이웃과 친해져서 그들을 이 집회에 오도록 초청할 수가 있다. 이렇게 그들은 선한 행실로 그들의 빛을 비출 수가 있다.”<sup>23</sup>

### 인쇄물 및 시청각 자료

인쇄물을 전하는 것 외에도, 복음을 전하는 효과적인 방법 중 하나는 시청각 자료를 사용하는 것이다. 오디오나 비디오에 기록된 짧은 메시지들은 현대진리에서 그 위치를 차지하기 위해 온 많은 영혼들의 관심을 불러일으키는데 특별한 영향을 미쳤다. 이 방법을 시험해 본 적이 있다면, 우리는 그것이 효과가 있다는 것을 알고 있다. 다양한 국가의 신도들은 우리가 말하는 것이 사실이라는 것을 증명할 수 있다.

“새로운 방법들이 소개되어야 한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저희가 살고 있는 그 시대의 필요성에 대하여 각성이 있어야 한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사업에 부르실 인물들이 있는데, 그들은 과거에 해 온 것처럼 활기가 없는 방법으로 사업을 추진하지 않을 것이다.”<sup>24</sup>

“많은 사람들을 접촉하기 위하여 여러 가지 방법들이 구상되어야 한다. 이 사업에 적용된 어떤 방법들은 과거에 사용된 방법과 달라야 할 것이다. 그러나 아무도 이 문제를 가지고 비판하므로 진로를 막아서는 안 된다.

지혜를 구하기 위하여 하나님께 기도하며 하나님의 지도를 따라 옛날의 사업방식에 새로운 생명을 불어 넣을 수 있는 인물들이 요구된다. 교인들의 관심을 불러 일으키며 세상의 남녀들을 접촉하는 새로운 계획과 방법들을 창안해 낼 수 있는 인물들이 필요하다.”<sup>25</sup>

라디오 및 텔레비전 프로그램

"종말로 형제들아 너희는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주의 말씀이 너희 가운데서와 같이 달음질하여 영광스럽게 되고"[살후 3:1].

대중 매체를 이용하여 복음을 전파하지 않는 것은 큰 잘못일 것이다. 라디오와 텔레비전 프로그램과 선택적인 형태의 대중 매체를 통해 우리는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신 그리스도의 기별로 수백, 수천의 사람들에게 이를 수 있다.

예수께서는 선언하셨다: "내가 너희에게 어두운 데서 이르는 것을 광명한 데서 말하며 너희가 귓속으로 듣는 것을 집 위에서 전파하라"[마 10:27].

의심의 여지없이 이것은 진리의 기별로 많은 사람들에게 다가가는 또 다른 효과적인 방법이다. 더 많은 사역자들이 전문적인 방식으로 이 작업을 수행 할 수 있도록 교육 받고 올바르게 훈련 받아야 한다. 우리 중 많은 사람들이 이 직업을 갖고 있으며 라디오나 TV 채널의 마이크를 통해 이 아름다운 재능을 완벽하게 지혜롭게 말하도록 교육받을 수 있다.

복음 전파에 사용되는 모든 매체를 하나님께서 축복 해주시기를 바란다. 아멘!

[참조문헌]

- 1 교회중언 7권, 62.
- 2 시대의 소망, 350.
- 3 복음전도, 437.
- 4 복음사역자, 189.
- 5 복음전도, 431.
- 6 복음전도, 442.
- 7 교회중언 9권, 111.
- 8 교회중언 7권, 227, 228.
- 9 교회중언 9권, 127.
- 10 하늘을 바라보며, 58.
- 11 교육, 167, 168.
- 12 재림신도의 가정, 443.
- 13 복음사역자, 96.
- 14 리뷰 앤드 헤럴드, 1880.6.10.
- 15 그리스도인 경험과 가르침, 16.
- 16 교회중언 9권, 109.
- 17 복음전도, 399.
- 18 교회중언 6권, 31.
- 19 교회중언 6권, 33.
- 20 교회중언 2권, 575, 576.
- 21 교회중언 6권, 39.
- 22 교회중언 9권, 33.
- 23 교회중언 8권, 245.
- 24 복음전도, 70.
- 25 복음전도, 105.



#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세르게이 칼바스키, 러시아

그리스도께서는 승천하실 때 그의 추종자들에게 모든 나라에 하나님의 복음을 선포하는 거룩한 의무를 말씀하셨다. 그것은 지상에 있는 모든 살아있는 영혼이 그들의 죄가 용서받을 수 있다는 가장 소중한 기별을 듣고, 예수 그리스도의 자비를 통하여 영원토록 구원받을 수 있고, 이 세상의 종말이 다가오고 있으며 임하리라는 것을 의미한다. 하나님의 나라가 오고 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계획은 그의 영광으로 땅을 밝게 하는 것이다.

“온 세상이 하나님의 진리의 영광으로 환하게 비쳐져야 한다. 이 빛은 모든 나라와 모든 백성에게 비쳐져야 한다.”<sup>1</sup>

“그리스도의 임박한 재림의 기별이 온 세상에 전해져야 할 때가 왔다.”<sup>2</sup>

“시간은 빠르고 매초마다 어떤 사람의 생명이 갑자기 끊어진다. 매 분마다 누군가가 인생을 마감한다. ... 그리스도께 소중한 이 영혼들을 모두 창조주와 화해시켰는가? 죽은 사람들 모두 주님을 만나기 위해 스스로 준비할 수 있었는가? 얼마나 많은 친지, 친척 및 당신의 마음을 쓰라리게 한 사람들이 영원을 위하여 준비되지 않은 삶을 끝냈는가? 주님은 다음과 같이 명령하셨다: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범사에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 [딤후 4:2].

“세상에 비칠 마지막 자비의 빛 곧 세상에 전파되어야 할 마지막 공훈의 기별은 하나님의 사랑의 품성을 드러내는 것이다. 하나님의 자녀들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야 한다.”<sup>3</sup>

“우리는 하나님의 선하심을 선포하고 사람들 앞에 그분의 진정한 품성을 분명히 드러내기 위해 나아가야 한다.”<sup>4</sup>

## 하나님의 도구로서 봉사함

친애하는 친구들이여, 그리스도께서는 당신 자신이 복음을 전하실 수 없었기 때문에 제자들에게 사람들을 그의 왕국에 모이게 하는 사명을 주신 것은 아니었다. 그리스도 자신은 모든 인간보다 빠르고 효과적으로 진리를 전파할 수 있었다.

“하나님께서서는 우리의 도움 없이도 죄인을 구원하시는 당신의 목적을 이루실 수 있으셨다.”<sup>5</sup> 주님은 자신의 구원의 기별을 그분 자신이 전하실 수도 있었고, 짧은 시간 안에 천사들을 통해서도 복음을 전파하실 수 있었다. 그렇다.

“하나님께서서는 무죄한 천사들을 통하여 당신의 진리를 선포하실 수 있으시나 이것은 그분의 계획이 아니다. 하나님께서는 많은 결점들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을 당신의 계획을 수행하는 도구로 선택하신다.”<sup>6</sup>

천사들은 그 사명을 즐겁고 절대적으로 성취했을 것이다. 예를 들어,

“빌립에게로 보내심을 받은 천사 자신이 에디오피아 사람을 위해 일할 수도 있었다.”<sup>7</sup> 천사는 사명을 갖고 하늘에서 내려 왔지만 에티오피아 사람에게 오는 대신 필립을 찾으러 갔다. 왜 그는 그 사람을 찾을 시간을 낭비 했는가? 왜 그가 직접 일하지 않았는가?

그 선교 사업은 사람들에게 맡겨졌으며 그들이 그리스도를 섬김으로써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성장할 수 있었다! 봉사는 그리스도교 성장을 위한 하나님의 도구이다! 우리의 이웃을 도움으로써 우리는 영적으로 성장하게 된다!

## 우리는 어떻게 효과적인 선교사가 될 수 있는가?

그리스도께서 제자들에게 확실한 사명을 주셨을 때 “너

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막 16:15]고 말씀하셨으며 이 작은 무리의 제자들은 부자도, 권력도, 교육도 없었다. 그들은 어떻게 그리스도의 사명을 수행할 수 있었는가? 요한복음 20장 19절에 우리는 그리스도께서 다락방에 있는 그의 제자들에게 나타나시는 모습을 읽게 된다. 그들은 그 곳에서 그들의 생명에 대한 두려움으로 모였다. 문과 창문들은 닫혀 있었고, 소리가 날 때마다 큰 걱정을 했다.

제자들은 그들이 사랑하는 주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것을 보고 낙담했다. 그런데 갑자기 예수께서 다락방에 나타나셨고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요 20:21]. 다락방에서 나가는 것조차 두려워하는 제자들이 어떻게 임무를 완수할 수 있었는가? 그는 그들의 걱정과 필요를 아시고 즉시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다. “가라사대 성령을 받으라”[요 20:22].

구주께서는 사십 일 후에 제자들에게 성령의 특별한 권능이 필요하다고 말씀하셨으며 또한 그들이 구하면 이 권능을 충만하게 부여 주시겠다고 약속하셨다. [행 1:4, 5, 8 참조]

“눈에 보이는 그리스도의 임재는 제자들에게서 떠나고 있었으나, 새로운 능력이 그들에게 부여될 것이었다. 성령이 그들에게 충만히 임하여 그 사업을 위해 그들을 인칠 것이었다. 구주는 ‘볼지어다 내가 내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너희에게 보내리니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을 입히울 때까지 이 성에 유하라’(눅 24:49)고 말씀하셨다.”<sup>8</sup>

이 약속은 그리스도의 추종자들을 강화시켜 그들에게 맡겨진 복음사역을 완수할 수 있게 했다. 하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성령의 권능을 보내실 것이라고 약속하셨다.

“그들은 복음이 세상에 전파되어야 할 것을 깨닫고 그리스도께서 약속하신 능력을 간구하였다.”<sup>9</sup>

오순절 날에 제자들은 확신과 용기를 얻었다. 용기는 구원사업에 필요한 자질이다.

“성령은 기다리며 기도하는 제자들에게 충만히 임했다.”<sup>10</sup> 주님께서서는 위대한 사명을 완수할 수 있는 재능을 교회에 주셨고, 그 시대에 존재하는 모든 언어로 이해하고 설교할 수 있는 능력을 주셨으며 (사도 행전 2:4~12 참조) 그분이 예언하신 것처럼 (마가 복음 16:17, 18 참조) 병든 자를 고치고 죽은 자를 부활시킬 수 있는 힘을 주셨다.

### 성령을 부여하신 결과

진리를 선포하고자하는 욕망에 힘입어 제자들은 온 세상을 돌아다녔다. 약 30년 동안 그리스도의 설교는 팔레

스틴, 소아시아 및 아시아 대륙 전체에, 북부 아프리카 및 유럽 전체에 퍼져서 낙타의 정착지에 까지 이르렀다. 구원의 기별은 그 당시 세계의 거의 모든 문명화된 지역으로 전해졌다. 그 당시의 알려진 세상의 가장 먼 곳으로 진리의 목소리가 뚫고 들어갔다. 수천 명이 구원의 기별에 주의를 기울였다. 그리스, 마케도니아, 인도, 그리고 가이사 가정은 포함하여 기독교인들을 미워하고 박해한 잔인한 로마에서 많은 기독교 교회가 조직되었다.

그리스도의 진실한 추종자들은 구세주를 알게 되자마자 선교사가 되었다.

“모든 참된 제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선교사로서 태어난다. 생수를 마시는 자는 생명의 샘물이 된다. 받는 자는 주는 자가 된다. 영혼 안에 있는 그리스도의 은혜는 광야에 솟아나는 샘과 같아서, 모든 것을 소성시키고 멸망하여 가는 자들로 하여금 생명을 마시기를 열망하도록 만든다.”<sup>11</sup>

선교사는 임무를 수행하는 사람이다. 그는 예수를 찾아서 침묵할 수 없는 사람이다. 그는 받은 계시를 다른 사람들과 나누고 싶어 한다.

“그리스도의 정신은 전도의 정신이다. 거듭난 마음속에 제일 먼저 생기는 충동은 다른 사람들 또한 구주께로 인도하고자 하는 충동이다.”<sup>12</sup>

친애하는 친구들이여, 그대들은 그런 경험을 가지고 있는가? 아마도 그대들은 그대들 대신 다른 누군가가 그 일을 할 때까지 앉아서 기다리고 있을 것이다.

우리는 종종 우리가 성공할지 안 할지에 대해 의심을 갖는다. 우리는 울창한 숲 속의 나무만큼이나 많은 사람들이 모여 앉아서, 계획하고, 세미나를 열고 있다. 하지만 마케도니아에서 얼마나 많은 곳과 큰 도시들이 부르짖고 있는가?

### 행군 명령

“예전에 영국의 웰링톤 공작이 어떤 그리스도인들이 모여서 이방선교 사업 문제를 둘러싸고 그것의 가능 여부를 논의하고 있는 한 회합에 참석한 일이 있었다. 그 때, 공작은 그 사업이 거기에 소요되는 비용에 비해서 얼마만한 성공을 가져올 수 있을는지 그의 의견을 말해 달라는 청탁을 받고 다음과 같이 대답하였다.

‘여러분들! 여러분들은 어떤 행군 명령을 받았습니까? 승패 여부는 이 자리에서 논의할 문제가 못 됩니다. 제가 알기로는 여러분들이 받은 명령은,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는 것입니다 만일, 이러한 명령을 여러분이 받으셨다면, 여러분은 그 명령을 좇아 나아가십시오.’<sup>13</sup>

그대들이 그리스도의 일을 하러 나가면, 하나님의 천사

들이 그대들 앞에서 길을 열고, 마음이 복음을 받아들일 준비를 하게 할 것이다. 그대들 모두가 살아 있는 선교사라면, 이 때의 기별은 여러 나라와 족속과 방언과 백성에게 신속히 전파될 것이다. 이것은 그리스도가 권능과 큰 영광으로 재림하시기 전에 행해져야 할 일이다. 나는 그대들이 그대들의 책임을 이해할 수 있기를 기도한다. 그대들은 하나님과 함께 개별적으로 일하는 사람인가? 그렇지 않다면, 왜 아닌가? 그대들은 언제 그대들에게 지정된 일을 할 작정인가?

“낙담한 모든 이들에게 한 가지 치료제가 있다면 그것은 믿음, 기도, 활동이다.”<sup>14</sup>

### 시간이 지나고 있다

우리는 주님의 위임을 성취 할 수 있는 시간이 거의 없다. 우리는 어둠의 세력이 깨어난 상태가 아니라는 것을 기억해야 한다. 적과 그의 지지자들은 매일 24 시간 동안 일하는 반면, 우리는 하나님을 위해 일을 해야 할지 말아야 할지를 심사숙고하며 망설이고 있다! 우리는 주님의 재림이 가까워지면서 어둠의 힘이 영혼을 파멸로 이끄는 그들의 교활한 의도를 실행하기 위해 모든 노력을 기울이고 있음을 깨달아야 한다.

원수의 분노는 그의 종말이 다가옴에 따라 더욱 증폭되고 있지만 [계 12:12], 우리는 놀라지 않을 것이다. 예수께서는 미리 이것에 대해 말씀하셨다. [마 24:21; 요 15:20; 16:2; 딤후 3:1, 12].

하나님의 자녀들이 수세기 동안 겪어 온 박해를 말로 표현하기란 어렵다. 그리스도의 추종자들에 대한 원수들의 증오는 끝이 없다. 그리스도의 시대 이후로 교회는 오직 주님의 도움으로 어둠의 힘의 공격에 저항해 왔다. 수백만명의 사람들이 고문을 당하고 죽었다. 그러나 그들의 죽음은 이미 알려진 대로였다. 많은 사형 집행인들이 나중에 그리스도께 와서, 감옥에서 처형된 많은 증인들과 그리스도를 그들의 개인의 구주로 받아들였다.

이 진정한 하나님의 자녀들의 믿음은 대대로 빛나며, 예수의 추종자들에게 영감을 주고 용기를 준다. 사탄이 아무리 열심히 하나님의 교회에 대항하려 할지라도, 그는 결코 궁극적인 승리를 얻지 못할 것이다. 그리스도는 이미 십자가에서 원수를 정복하셨고 이것은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확실히 승리의 맹세가 되었다. 예수의 추종자들이여! 또 어떤 일꾼들은 원수의 손에 넘어가지만, 다른 사람들은 그리스도의 표준을 들고, 가시를 뚫고, 구주의 손을 꼭 잡으면서 올라간다. 곧 주님은 지상에서 그분의 일을 끝내실 것이다.

친애하는 친구들이여, 그대들의 길에 어떤 장애물이 있더라도, 우리는 그리스도에 대한 분명한 명령을 가지고 있다. “가서 전하라!” 우리는 낭비할 시간이 없으며 중요하지 않은 현세적인 일들, 물질적인 필요들, 우리를 위한 준비에 대해 회피할 시간이 없다. 우리는 주된 목표에서 벗어날 시간이 없다! 마귀가 하는 일은 중요하지 않다.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다!

제자들은 로마 가톨릭에 대해 초조해 하고 걱정하지 않았다. 금지령과 협박은 그들을 멈추게 하거나 놀라게 할 수 없었다. 가장 끔찍한 박해도 그들로 하여금 그리스도에 대해 설교하는 것을 멈추게 하지 않았다. 모든 어려움은 단지 그들의 믿음을 시험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강화시켰다!

그리스도께서 당신의 교회를 조직하신 즉시, 유대인들은 그리스도인들에 대해 더욱 분노하게 되었다. 끔찍한 박해와 순교가 시작되었다. 그러나 노래와 찬미와 기도로 그들의 신앙의 용감한 영웅들은 복음의 권세를 이해하지 못하는 폭군들의 손에 죽음을 당했다. 그러나 한 그리스도인이 죽었을 때 수천 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생애하기 위해 태어났다!

후에 사탄은 교회를 그렇게 파괴 할 수 없다는 것을 이해했을 때 그는 전술을 바꾸었다. 전쟁의 형태가 바뀌었다. 콘스탄티누스 시대에는 박해가 끝났고 이교도의 의식이 교회에 들어 왔고 인간의 권위는 하나님의 권위를 대신했으며 하나님의 계명은 인간의 법으로 대체되었다. 이제 충실하게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진정한 그리스도인들은 실제로 국가의 이익에 봉사하고 있는 공인된 기독교 교회에 의해 박해를 받았다.

그 후에, 위대한 개혁자들은 생명의 말씀을 수백만명의 사람들에게 그들의 목숨을 희생시키면서 전달하는 대단한 일을 성취했다. 그들은 위험한 시기에 한 가지 일을 하였다. 그것은 그리스도의 명령을 이행하기 위한 것이었다.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거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마 24:14)

예레미야에 관해서는 다음과 같이 기록되어 있다: “투옥되어 수갑이 채워졌음에도 불구하고 선지자는 계속 곁에서 있는 사람들에게 하늘의 기별을 말하였다. 박해도 그의 음성을 침묵시킬 수 없었다. 그는 이렇게 선언하였다. 마음속에 있는 진리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나의 중심이 불붙는 것 같아서 골수에 사무치니 답답하여 견딜 수 없나이다.”(렘 20:9).<sup>15</sup>

쟁투는 계속되고 있으며 격렬해질 것이지만 우리는 용기를 주는 이전 세대들의 경험을 거울로 삼아야 한다. 원수가 어떤 종류의 박해를 하든, 그가 어떻게 기별을 진압하든 상관없다. 그는 성공하지 못할 것이다. 진리는 전파될 것이다.

그리스도는 이 쟁투에서 이기셨고 그분의 승리는 우리에게 승리의 길을 열어 주었다. 낙심하지 말고, 낙담하지 말라. 이미 승리하신 분의 이름으로 담대하게 나아가서 우리에게 정복할 힘을 달라고 구해야 한다.

### 그리스도의 손에 있는 도구들

조각가가 평범한 화강암 조각으로 시작해서 아름다운 조각품을 만들기 위해 디자인된 도구를 사용하는 것처럼 우리는 창조주의 손에 있는 도구들이 될 수 있다.

“빛을 받지 못한 자들을 위하여 일을 시작하라...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산 믿음, 우리 앞서 가시고 우리와 함께 일하시는 살아 계신 구주가 있다는 사실을 갈라진 요셉의 무덤을 향하여 선포하는 믿음이다. 우리가 활동 수단을 하나님께 바치면 그분께서 그 사업을 하실 것이다. 우리에게는 기도가 더 많아지고 불신은 더 적어져야 한다. 우리는 사람들 앞에서 깃발을 높이 더욱 더 높이 쳐들어야 한다. 우리가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선포하고 굶주린 영혼들에게 생명의 떡을 나누어 줄 때 그리스도께서는 항상 우리의 우편에 계시다는 것을 기억해야 한다. 우리의 사업이 긴급하고 중요하다는 것을 명심할 때 하나님의 구원이 현저한 방법으로 나타날 것이다.

하나님께서서는 우리가 갑옷을 입고, 열렬하게 행동하고 사람들의 영혼이 구원받을 가치가 있는 것처럼 행동하도록 우리를 도와주신다. 우리는 새로운 회심을 구해야 한다. 우리는 마음이 부드러워지고, 거친 정신이 사업에 나타나지 않도록 하나님의 성령의 임재가 우리와 함께 할 필요가 있다.”<sup>16</sup>

지구의 거주민들은 교육을 받고, 깨우침을 받으며 호소를 받아야 한다. 그리고 이것은 사람들을 그의 도구로 사용할 성령에 의해 행해져야 한다. 그렇다면 선교사의 성공을 의심할 수 있을까? - 아니, 절대로 그럴 수 없다.

### 명예와 특권

주님은 우리에게 큰 영광을 주셨다. 우리는 구원의 사업에 있어서 주님의 동역자가 될 수 있다. 그것은 큰 부담이 되지 않는다. 그것은 큰 특권이다! “내가 복음을 전할 지라도 자랑할 것이 없음은 내가 부득불 할 일임이라 만일 복음을 전하지 아니하면 내게 화가 있을 것임이라” [고전 9:16].

친애하는 친구들이여, 멸망의 세계에 구원의 기별을 전

하는 것이 그대들에게 주어진 특권이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느냐, 아니면 받지 않느냐 결정은 그대가 할 일이다!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거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마 24:14]. 우리가 있건 없건 간에 그 일은 끝날 것이다!

그리스도께서 이 말씀을 하셨을 때, 그는 갈릴리 어부들의 작은 무리에 둘러싸여 있었다. 그분 자신이 유대인들에게 거부당했다. 그 작은 시작부터 위대한 일은 완성되어야 한다. 이 기별은 전 세계에 퍼질 때까지 들릴 것이다. 어떠한 박해도 그것을 막을 수 없다. 반대로 박해는 복음의 전파를 용이하게 하는 경향이 있다.

모든 사람은 복음사업을 마치는 데 있어 그리스도와 동역자가 될 것인지 아닌지를 결정해야 한다. 그대는 말할 수 있다. “내가 무엇을 할 수 있나?” 그대가 앉아 있다면, 그대는 아무 것도 하지 않을 것이다. 그러나 그대가 있는 곳에서 일을 하면 곧 결과를 볼 것이다.



### 모본의 능력

큰 해안 폭풍우가 닥친 후 수 천 마리의 불가사리가 해변에서 말라 가고 있었고, 촉수를 염려하면서 움직였지만 바다로 돌아갈 수는 없었다. 구경꾼과 사진사는 아름답지만 끔찍한 광경을 포착했다. 그들은 죽어가는 생물을 지켜 봤지만 아무 것도 하지 않았다.

한 소년이 그 장면을 보고 견딜 수 없었다. 그는 빨리 몇

몇 불가사리를 잡고 물로 옮겼다. 한 남자가 물었다. "네가 하는 일이 무엇인지 물어봐도 될까?"

어린 소년은 멈추고, 올려다 보고 불가사리를 바다에 던지면서 대답했다. "조수가 해변으로 그들을 쓸어 왔고 스스로 바다로 돌아갈 수 없어요. 해가 뜨면 물에 던져 넣지 않으면 죽을 것입니다."

그 사람은 말했다. "그러나 이 해변에 수만 마리의 불가사리가 있는데" 그러자 그 소년은 허리를 굽혀 "또 다른 불가사리를 집어 들고 그가 바다에 던질 수 있는 한 멀리 던졌다."

곧 그 남자는 그 일에 합류했고, 다른 사람들이 왔고, 많은 사람들이 같은 일을 따라 했다. 그래서 이 작은 소년의 고집 덕분에, 비록 불가사리들이 죽게 되어 있었지만 거의 모든 불가사리가 구조되었다.

친애하는 친구들이여! 그대들이 모든 사람을 도울 수 없다는 것은 사실이지만, 그대들과 가까운 사람들을 도울 수는 있다! 그렇다면, 구원의 길을 찾기 위해 적어도 한명의 용감한 영혼을 도와 주라!

그대들의 인생이 오늘 갑자기 끝난다면, 그대들은 "내가 개인적으로 주님을 위해 무엇을 해야 하는가?" 생각하게 될 것이다.

"하나님 앞과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그의 나타나실 것과 그의 나라를 두고 엄히 명하노니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범사에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 [딤후 4:1, 2].

"마치 밤중에 도둑이 소리 없이 접근하듯이 부지불식간(不知不識間)에 끝이 우리에게 다가와 있다. 우리는 다른 사람들과 같이 더 이상 졸지 말고 깨어서 정신을 차리고 있는 자들이 되게 해 주시기를 주께 기원한다. 진리는 미구에 영광스럽게 승리할 것이며, 지금 하나님의 동역자들이 되기로 택하는 모든 자들도 진리와 함께 승리할 것이다. 시간은 짧다. 미구에 아무도 일할 수 없는 밤이 올 것이다. 현대 진리의 빛 가운데서 즐거워하는 자들은 그 진리를 다른 사람들에게 나누어주기 위하여 서둘러야 한다."<sup>17</sup>

진리는 곧 승리할 것이다. 구원의 사업은 끝날 것이다. 이 승리의 참여자가 되라!

[참고문헌]

- 1 복음전도, 407.
- 2 교회증언 9권, 24.
- 3 실물교훈, 415, 416.
- 4 믿음과 행위, 61.
- 5 시대의 소망, 142.
- 6 사도행적, 330.
- 7 사도행적, 109.
- 8 사도행적, 30.
- 9 사도행적, 37.
- 10 사도행적, 38.
- 11 시대의 소망, 195.
- 12 각 시대의 대쟁투, 70.
- 13 복음사역자, 115.
- 14 교회증언 6권, 438.
- 15 선지자와 왕, 432.
- 16 교회증언 9권, 107.
- 17 교회증언 9권, 135.

#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오비디우 나스이, 독일

예수께서는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마 28:20]는 보증을 주시고 모든 나라를 다니며 가르치기 위한 위대한 사명을 주셨다.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들의 거룩한 역사를 살펴볼 때, 우리의 관심을 끄는 한 가지가 있다. 그는 모든 인간의 이해와 해석을 넘어서는 그의 사랑, 관용, 공의, 충성심을 이꼐었다. 그의 존재, 그의 창조 능력, 그의 주권, 그의 본성, 그리고 그의 법의 모든 표명은 우리에게 하나님은 사랑이시며 그는 항상 그랬으며 앞으로도 그럴 것이라는 확신을 준다. 하나님의 사랑은 창조된 모든 생명체의 행복과 축복으로 구성되어 있다. 하나님께서는 자녀들과 함께 계시고, 경건하게 인도하시고, 그들을 버리지 않겠다고 약속하셨다. 이 약속은 그가 약속한 대로 정확히 이행되어 왔다.

## 독수리로부터 배울 교훈

모세는 주께서 그들의 광야 길에서 히브리 사람들을 인도하신 방법을 설명한다. “마치 독수리가 그 보금자리를 어지럽게 하며 그 새끼 위에 너풀거리며 그 날개를 퍼서 새끼를 받으며 그 날개 위에 그것을 업는 것같이 여호와께서 홀로 그들을 인도하셨고 함께한 다른 신이 없었다” [신 32:11, 12].

정말 멋진 묘사이다! 독수리 새끼들에게 둥지는 안전, 편안함, 안락함을 의미한다. 모든 것을 이용할 수 있고 그들의 먹이도 제공된다. 새끼들은 집에서 둥지에서 안전하게 느낀다. 만약 어린 독수리가 둥지에서 일생을 보낸다면 어떻게 될까? 그는 조화롭게 성장할 수 있을까? 그가 결국 멋지게 성장한 독수리가 될까? 물론 아니다. 그는 날

지 못하는 독수리가 되고, 그의 날개를 사용할 수 없고, 게을러지고, 이기적이 되고, 항상 보살핌을 기대하며, 그의 동기를 잃은 독수리로 남게 된다. 헛되이 사는 것이다. 하지만 보라, 어린 독수리의 어미가 둥지를 떠나 그에게 나는 법을 가르치는 순간이 오고 있다. 이 작은 독수리 새끼는 마침내 다 자라서, 넓은 날개를 가지고 하늘을 날아다니고, 폭풍을 만나고, 그 자신의 음식을 마련하는 인상적인 독수리가 될 것이다. 우리의 독수리는 지금부터 삶을 마주 할 수 있고, 스스로 둥지를 지을 수 있고 그 자신의 독수리 가족을 만들 수 있다.

모세가 그의 광야에서의 경험의 노래 구절에서 독수리의 모습을 제시했을 때, 그는 자신의 개인적인 경험과 그의 백성의 경험을 제시했을 뿐이다. 그것들은 평생 동안 하나님과 함께 했던 경험의 노래이었다. 그것은 하나님의 보살핌에 대한 무한한 사랑과 하나님이 사랑하는 백성을 인도하고 치료하시는 섬세하고 현명한 길을 정확하게 묘사한 것이었다.

이에 대한 몇 가지 측면을 언급할 필요가 있다.

### 1. 하나님은 그들의 “둥지”를 휘저어 놓으셨다.

아브라함의 시대 이후로, 하나님은 그가 선택한 사람들의 둥지를 “휘저어” 놓으셨다. 종종 그들은 더 나은 조국을 찾기 위해 그들의 집과 조국에서 그들에게 소중한 가족들과 떨어져 지내야 했다. 그들은 편안하게 살지 않았고, 편안한 삶을 살지 못 했다. 그들은 하나님의 원수들에게 박해를 받았고, 또한 그들은 부정과 우상 숭배, 불복종과 반란으로 주님을 자주 원망했다.

## 2. 하나님이 그들을 돌보셨다.

그들은 동안에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돌보시고, 그들을 돌보아 주셨다. 하나님의 눈은 밤낮으로 그들을 돌아보시고, 그들에게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게 하셨다.

## 3. 그는 날개를 펴고 그들을 업었다.

그들이 넘어질 위험에 처했을 때에, 주께서 개입하셔서, 큰 손을 뻗어 도와 주셨다. 그의 날개의 그들 아래에서, 그들은 계속해서 보호를 받았다. 그는 그들이 돌에 발을 걸리도록 내버려두지 않으셨다. 다윗은 모세가 말한 그 모습을 기억하면서, 나중에 그의 시편 가운데 한 편에서 이렇게 말하였다. “저가 너를 그 것으로 덮으시리니 네가 그 날개 아래 피하리로다 그의 진실함은 방패와 손방패가 되나니” [시 91:4].

## 4. 하나님은 안전하게 그의 백성을 인도하셨다.

이스라엘의 자손들이 집에서나 장막이나 나라에서 안전을 발견한 것은 “땅지”에 있는 것이 아니었다. 오히려 그들의 안전은 하나님이셨다. 그들과 함께 한 그의 현실이 그들의安危를 위한 이유였다. 충실한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아버지, 어머니, 자매, 형제, 피난처, 안전을 지켜 주셨다. 그런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은 얼마나 놀라운가!

우리가 이 주제를 더 가까이 다가가면 주님의 백성들, 특히 그분의 백성들을 인도하기로 선택한 사람들, 즉 족장, 선지자 및 모든 신앙인들과 함께하시는 주님의 약속이 확실히 성취되었음을 알게 될 것이다.

### 이삭에 대한 약속

“나는 네 아비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니 두려워 말라 네 종 아브라함을 위하여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네게 복을 주어 네 자손으로 번성케 하리라” [창 26:24].

### 야곱에 대한 약속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네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네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창 28:15].

### 여호수아에 대한 약속

“나의 평생에 너를 능히 당할 자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던 것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임이라 내가 너를 떠

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니” [수 1:5].

## 다윗이 위기에서 용기를 얻음

“다윗은 모든 인간의 지지로부터 끊어진 것처럼 보였다. 그가 이 땅에서 애착을 가졌던 모든 것이 그에게서 사라져 버렸다. 사울은 그를 그의 나라에서 추방했고 블레셋 사람들은 그를 진영에서 몰아냈고 아말렉 사람은 그의 성읍을 약탈해 갔다. 그의 아내들과 자녀들은 포로가 되고 그의 친한 친구들은 단결하여 그를 대적하고 그를 죽이겠다고 위협하였다. 이같은 극도의 궁지에 몰린 이 시간에 다윗은 그의 마음을 이 고통스러운 환경에 집착시키지 않고 그 대신 도움을 구하기 위하여 하나님을 열렬히 바라보았다. 다윗이 ‘그 하나님 여호와를 힘입고 용기를 얻었더라.’ 그는 다사다난했던 과거의 생애를 회고하였다. 여호와께서 그를 버리신 적이 있었던가? 그의 마음은 수많은 하나님의 은총의 증거들을 회상하고 활기를 띠었다.”<sup>1</sup>

## 다윗은 솔로몬을 격려한다.

“너는 강하고 담대하게 이 일을 행하고 두려워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여호와와 전 역사의 모든 일을 마칠 동안에 여호와 하나님 나의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사 네게서 떠나지 아니하시고 너를 버리지 아니하시리라” [대상 28:20].

## 약속들이 성취됨

지금까지 언급된 모든 약속은 하나님의 백성들의 생애에서 훌륭하게 성취되었다. 주님은 그분의 백성을 택하여 그분의 사랑과 그 은혜를 말과 행동으로, 그들이 어디에 있든지 간에 그들이 증거하도록 인도하셨다. 모세는 이 사실을 관찰했다: “나와 주의 백성이 주의 목전에 은총 입은 줄을 무엇으로 알리이까 주께서 우리와 함께 행하심으로 나와 주의 백성을 천하 만민 중에 구별하심이 아니이까” [출 33:16].

이것은 모세의 갈망이었으며 하나님의 임재가 그들을 여러 민족들로부터 분리시키고 주께서는 이 일에서 그들을 보호하실 준비가 되어 있었다. 그리스도교 시대에 이 약속들은 성취되었다: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마 1:23].

“예수께서 우리와 함께 거하시기 위해 이 세상에 오셨으므로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괴로움을 잘 아시고 우리의 슬픔을 동정하신다는 것을 안다. 아담의 모든 자손들은 우리의 창조주께서 죄인들의 친구가 되심을 알 수 있다. 이는 그리스도께서 이 세상에서 지내신 생애 가운데 나타난 모든 은혜의 교환과 모든 기쁨의 약속과 모든 사랑의 행위와 사람을 하나님께로 이끄시는 모든 일들 가운데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는 것을 우리가 보기 때문이다.”<sup>2</sup>

### 일찍이 알려진 가장 훌륭한 선교사

“구주께서는 사람들의 유익을 소원하는 분이로서 그들과 섞이셨다. 그분께서는 그들에 대한 당신의 동정심을 보여 주시고, 그들의 필요를 따라 봉사하시고, 그들의 신임을 얻으셨다. 그 후에 그분께서는 ‘나를 따라오라’고 그들에게 명령하셨다.”<sup>3</sup>

### 제자들을 내보내시고 하신 그리스도의 약속들

그리스도께서는 제자들에게 그들의 사명을 주셨고 그들과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하셨다. 인자는 세상에서 경멸과 모욕과 조롱을 견디며 천국으로 다시 올라 가시려고 하셨다. “이제 당신의 영광의 보좌로 올라가시려는 이 시간에 그분이 구원하러 오신 백성들의 배은망덕을 회고하시면서 그분의 동정과 사랑을 그들에게서 거두시지는 않으실까? 그분을 인정하시는 세계 끝 죄없는 천사들이 그분의 명령을 수행하고자 기다리는 그 곳으로 그분의 애정이 집중되지는 않을까? 아니다. 그분은 세상에 두고 떠나는 당신의 사랑하는 자들에게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마 28:20)고 약속하셨다.”<sup>4</sup>

“성전의 봉사가 지상에서 하늘의 성전으로 옮기워지고, 성소와 우리의 크신 대제사장이 인간의 눈에 보이지 않을 지라도 제자들은 그것으로 말미암아 조금도 손실을 당하지 않을 것이었다. 그들은 구주의 부재(不在)로 말미암아 그들의 교통이 단절되거나 능력이 감퇴되는 일이 없음을 깨닫게 될 것이었다. 예수께서는 하늘 성소에서 봉사하시는 한편 그의 성령으로 여전히 지상의 교회를 섬기는 자가 되신다. 그는 육안에서는 사라지셨으나 그가 떠나가실 때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 때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마 28:20) 하신 약속은 성취되었다. 예수께서는 당신보다 열등한 교역자들에게 당신의 능력을 위임하시지만 활력을 주는 그의 임재하심은 아직도 그의 교회에 함께 하신다.”<sup>5</sup>

### 그대와 함께하시는 하나님의 특별하신 사업

“하나님께서서는 품성 면에 인간적 요소가 있는 그대로 취하셔서 만일 그들이 단련을 받고 예수에게서 배운다면 당신의 사업을 위하여 훈련시키신다. 그들은 완전하기 때문에 택함을 받은 것이 아니요 불완전함에도 불구하고 진리에 대한 지식과 실천을 통하여, 그리고 그리스도의 은혜를 통하여 당신의 형상으로 변화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택함을 받았다.”<sup>6</sup>

인류에게 구원을 가져 오기 위해 그리스도는 인성이 필요하셨다. 그는 인성을 취하시고 그것에 참여하셨다. 그는 우리와 마찬가지로 모든 것에 유혹을 받으셨지만 여전히 죄가 없으셨다. 다른 한편으로 우리는 어떠한가? 우리는 인간으로서 신성이 필요하다. 우리 속에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기 위하여 우리에게는 없는 능력이 필요하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품성을 더 많이 반사하도록 우리에게 힘을 주실 그분이 필요하다. 우리 속에 예수님이 거하시도록 하여 우리에게 위탁된 사업을 성취할 수 있도록 하셨다. 다시 말해서, 우리 각자는 신성에 참여해야 할 필요가 있다. 이 연합이나 융합이 일어날 때, 우리 마음에는 천국이 있으며, 허약한 인성은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고 더 이상 죄를 짓지 않게 된다. 이 얼마나 위대한 성취인가!

“그리스도를 따르는 자들은 그리스도가 일하신 것처럼 일해야 한다. 우리는 주린 자를 먹이고 벗은 자를 입히며 고통 받는 자와 슬퍼하는 자들을 위로해야 한다. 우리는 절망하는 자들을 위하여 봉사하고 소망이 없는 자들에게 소망을 고취시켜 주어야 한다. 그리하면 우리에게도 또한 ‘네 의가 네 앞에 행하고 여호와와 영광이 네 뒤에 호위하리’(사 58:8)라는 약속이 성취될 것이다.”<sup>7</sup>

사랑하는 친구들이여, 성도들의 의로운 일이 우리 삶에서 보여 지고 느껴져야 한다. 그것들은 우리가 매일 의존하고 있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의에 대한 간증이 될 것이다. 이 의는 마음의 순결과 생애의 단정함, 영혼에 그리스도의 내주하심을 통해 거룩한 율법에 대한 마음과 생명의 연관됨을 가리킨다. 우리는 골고다에 대한 우리의 보상의 대가를 지불하여 그리스도께서 죽으셨다는 단순한 생각에 만족하지 않을 것이다. 그러나 오히려 우리는 예수님의 의를 열렬히 갈망하게 되며 그것이 매일 우리에게 삶의 일부가 될 수 있도록 기꺼이 나누어 주려고 할 것이다. 우리가 믿음의 삶에서 매일 나아가면서 이 의를 적극적으로 믿음으로, 사랑의 행위가 나타나도록 하자. 오직 이렇게 하므로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마 28:20)고 하신 약속이 우리와 함께 할 것이다.

사람들은 우리가 그리스도의 제자라는 것을 어떻게 알

수 있는가? 모세가 하나님께 진술한 것을 기억 하자: “나와 주의 백성이 주의 목전에 은총 입을 줄을 무엇으로 알리까 주께서 우리와 함께 행하심으로 나와 주의 백성을 천하 만민 중에 구별하심이 아니이까” [출 33:16].

사랑하는 친구들이여,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특별한 백성이 되고 겸손한 사람들이 되어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그에게 영광을 돌리고 땅에서 그분의 품성을 존중하며 그분을 실망시키지 않도록 축복 해 주시기를 빈다.

### 충성된 기별자들의 증언

#### 데이비드 리빙스턴

1856년, 강렬하고도 끊임없는 15년의 노력으로 리빙스턴은 영국으로 돌아와 4년간 자신의 아내와 자녀들을 보았다. 영국의 고향으로 돌아가면서 그는 지금 큰 존경심을 받았다. 그는 아프리카에서의 경험에 대해 모든 곳에서 말하도록 요청 받았다. 글래스고 대학 (University of Glasgow)은 그에게 특별 명예 박사 학위를 수여했다. 믿을 수 없는 학생들은 그를 칭찬할 것에 동의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를 조롱하고 무대에서 쫓아 낼 계획이었다. 그러나 그가 아프리카 태양에 의해 뺨을 때리고 사자의 치아가 찢어진 어깨로 그들을 보았을 때 모두가 크게 감동함을 받았다. 그들은 이제 모든 것을 포기한 남자를 바라 보았다. 자기 회생과 고통은 그의 얼굴에 새겨져 있었다. 그들의 눈 앞에는 하나님의 한 성도가 있었다. 아무도 한마디도 하지 않았다. 엄숙함은 묘지에서 나타났다.

리빙스턴은 아프리카인들의 큰 필요와 그가 가진 경험에 대해 이야기했다. 끝으로 그는 말했다. “이제 나는 돌아옵니다. 그러나 모든 어려움, 시련, 외로움 속에서 나를 지탱 해 준 한 약속이 있었습니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 허드슨 테일러

“오! 하나님의 뜻에 대한 지식과 예수님의 임재의 느낌에 대한 충만함과 동시에 그분과 하나가 되어 그의 삶이 당신의 혈관에 흘러넘치도록 그분은 당신의 입술을 빌어 그분의 말씀을 빌며 당신의 얼굴을 우리에게 보여 주십니다. 참을성 있고 사랑스러운 외모, 그를 위해 일하는 당신의 손을 보여 주십니다.”

테일러의 생각이 적혀있는 한 장의 종이, 그가 여러 날 동안 연속적으로 들고 다니던 노란 종이는 자신의 신앙생활의 비밀을 보여준다. 글의 내용은 이렇다.

“주 예수님, 살아 계신 분명한 현실로, 모든 이 세상의 선보다 가깝고 눈에 보이는 것보다 내 믿음의 표정에 더 많이 나타나십시오!”

#### 엘렌 G. 화잇

1915년 1월 25일에 가진 데이비드 폴슨 의사와의 대화 중에서 화잇 여사는 이렇게 말하였다. “주님께서서는 나의 조력자시요 하나님이셨습니다. 이에 대해 추후의 의심도 없습니다. 만일, 그분께서 나의 안내자요 지주이셨음을 깨닫지 못했다면 무엇을 신뢰할 수 있었겠습니까? 내가 살아서 숨쉬는 것이 틀림없는 사실인 것처럼, 나는 하나님께서 내 발을 시온산에 세우실 것을 굳게 믿고 있으며, 죽을 때까지 그 믿음을 계속 유지할 작정입니다.”<sup>8</sup>

화잇 여사는 사고로 무력하게 된 지 얼마 후, 구세주에 대하여 이렇게 간증하였다. “예수님은 나의 복스러운 구속자시며, 나는 전심으로 그분을 사랑합니다.” 그리고는 또다시 “나는 주의 광명 중에 광명을 봅니다. 나는 그분의 기쁨 안에 기쁨을, 평화 중에 평화를 가지고 있습니다. 또 그분의 자비 중에 자비를, 사랑 중에 사랑을 봅니다.”

그는 다른 사람과의 대화에서 다음과 같이 말하였다. “내가 가진 용기는 나의 구세주에 의거한 것이다. 나의 사업은 거의 끝나가고 있다. 과거를 돌이켜보면서 나는 조급의 낙담이나 실망도 느끼지 않는다. 주님께서 절망과 낙담 가운데서 나를 붙들어 주심과, 아직도 깃발을 잡을 수 있게 하신 데 대하여 오로지 감사를 드릴 따름이다. 나는 내가 사랑하는 자를, 내 영혼이 의뢰하는 자를 알고 있다.”<sup>9</sup>

임종 전 여러 날 동안 그는 대부분 의식 불명 상태였고, 점차 마지막에 가까워지면서 언어와 청각 기능을 상실한 것 같았다. 그의 아들에게 한 마지막 말은 “나는 내가 믿는 분을 안다”였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우리 모두는 잠시 후 곧 하늘 본향에 있게 될 것이다.”<sup>10</sup>

그의 생애의 초기에 기록한 증언을 보라. “오늘 우리가 서 있는 여기까지 전진한 모든 발자국을 따라 여행해 온 우리의 과거 역사를 돌이켜 볼 때에 나는 ‘하나님을 찬양하라!’고 말할 수 있다. 나는 하나님께서 이루신 것을 보면서 놀라움과 인도자로서의 그리스도에 대한 신뢰로 가득 찬다.”<sup>11</sup>

#### 환영!

“제자들은 그리스도의 제림의 약속을 항상 새롭게 마음에 간직해야 하였다. 그들이 본, 하늘로 승천하신 그 예수는 이 땅에서 그분의 사업에 헌신한 사람들을 당신께로 데려가시려고 다시 오실 것이다.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마 28:20) 고 말씀하셨던 바로 그 같은 음성으로 그분은 그들을 하늘 왕국에

있는 그분께로 환영한다고 말씀하실 것이다.”<sup>12</sup>

친애하는 그리스도의 제자들, 그리스도의 선교사들이여, 끝까지 충실하십시오. 도중에 피로해지지 마시오, 믿음으로 올려다보면 “환영합니다!”라고 말씀하시는 예수님의 부드러운 음성이 들려 올 것이다.

### 얼마나 영광스러운 모임인가!

#### 결론

예수님안에 있는 사랑하는 형제들이여, 우리는 우리가 곧 들어가고 우리 주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까지 우리 마음 속에 새롭게 생각해야 할 다음과 같은 생각들을 지켜 주기 바란다: “우리는 주님께서 우리를 인도해 오신 길과 우리의 과거 역사를 통하여 주신 그분의 가르침을 잊어버리는 것 외에는 미래를 위하여 두려워할 것이 전혀 없다.”<sup>13</sup>

주님께서 우리 백성들의 역사를 기억에 되새기고 잊어버리지 않도록 도와 주시기를 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우리의 과거의 역사와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믿음의 기초를 잊지 않도록 도와주시기를 빈다. 우리의 믿음의 선조

들의 희생과 함께 우리 주 예수님의 은혜와 도움의 손길로 쌓아 올린 기초를 잊지 않도록 도와주시기를 빈다. 우리는 모든 확신을 가지고 말할 수 있다: “에벤에셀”-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우리는 매일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분의 약속을 인하여 주님께 다시 감사를 드리며 그것이 우리 삶의 닻으로 남아 있기를 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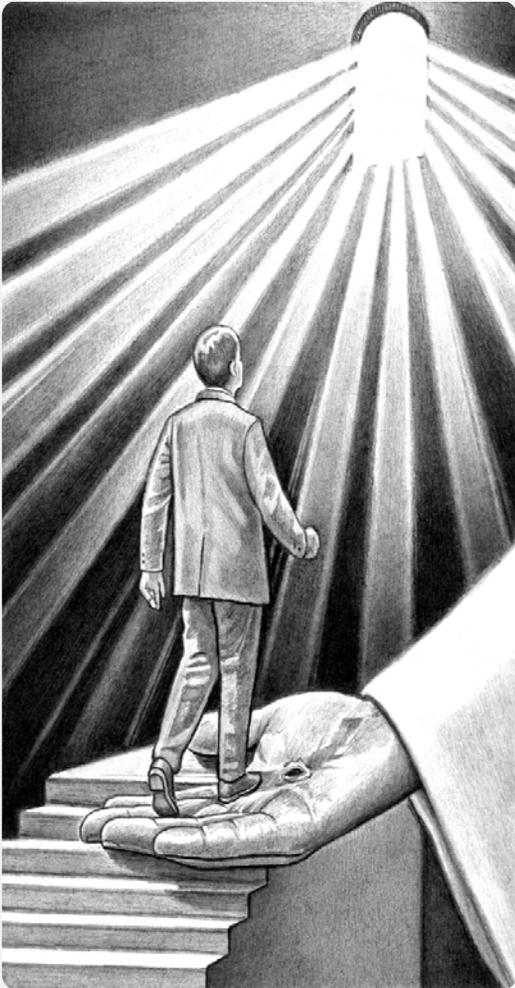
“불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 [참고문헌]

- 1 부조와 선지자, 692.
- 2 시대의 소망, 24.
- 3 치료봉사, 143.
- 4 시대의 소망, 830.
- 5 시대의 소망, 166.
- 6 시대의 소망, 294.
- 7 시대의 소망, 350.
- 8 자서전, 442.
- 9 자서전, 443, 444.
- 10 자서전, 449.
- 11 자서전, 196.
- 12 사도행적, 33.
- 13 자서전, 196.

2018년 기도력

# 내가 그분을 알려 하여



엘렌 G. 화잇

“너희가 자기를 위하여 의를 심고 긍휼을 거두라  
 지금이 곧 여호와를 찾을 때니 너희 묵은 땅을 기경  
 하라 마침내 여호와께서 임하시 의를 비쳐림 너희  
 에게 내리시리라” (호 10:12).

모든 교인들은 묵은 땅을 기경하며 주의 깊이 흙  
 을 고루어 씨를 심고 그것을 다시 씨래로 매끈하게  
 함에 대해서 생각하라. 이것은 농부가 행하는 고생  
 스러운 일이다. 또한 이것은 쓰라리고 면밀한 과정  
 을 통과케 된다. 씨(복음의 씨)를 뿌릴 때에 그것을  
 받는 자가 언제나 기뻐하는 것은 아니다. 때때로 그  
 것은 그에게 손해를 끼치는 바 이는 그가 주의 말씀  
 의 가치를 인식하지 못하며 또한 영적 생애에 있어  
 서 경작하는 과정에 자신을 복종시키지 않는 까닭  
 이다. 범하여진 죄는 회개할 것이 없는 참다운 회개  
 가 요구된다. 그러나 굳은 땅이 기경되고 딱딱한 흙  
 덩어리가 부서질 때에 귀중한 씨는 심어 질 수 있으  
 며 그 흙은 잘 고루어 질 수 있다. 이것은 하나님의  
 혹독한 훈련을 표상 한다. 종종 반역의 정신이 나타  
 나나 하나님의 훈련은 굳은 의지가 부서져서 목적  
 이 달성될 때까지 계속되어야만 한다.

자연계에서와 마찬가지로 영적 사물에 있어서도  
 이 일이 행해져야만 한다. 때때로 영적 수확을 가져  
 오기 위하여 혹독함이 필요하다. 씨를 적절히 심지  
 않고, 땅을 경작함이 없이는 수확의 단을 거뒀을  
 수 없음이 하나님의 위대한 법칙이다.

사람은 심은 대로 거두게 될 것이다. 생애의 모든  
 죄에서 깨끗함을 받기 위한 충만한 목적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하는 자들과 또한 진리가 무  
 엇인지를 배우기 위하여 성경을 상고하는 모든 이  
 들은 “주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라는 진리의 말씀  
 을 환영할 것이다. 그들은 성경의 예리한 견책아래  
 회개한다. 만일 사람이 참된 회개를 심으면 그는 확  
 실한 선행의 보상을 거둘 것이다. 만일 그가 믿음을  
 계속한다면 평강을 거둘 것이다. 만일 그가 거룩한  
 자가 되고 저속하고 어리석은 것에 대한 욕망으로  
 부터 정결하게 되면 의와 완전한 사랑을 거둘 것이  
 다. ... 승리를 위해서 선행을 계속한다면 그는 날마  
 다 승리자가 된다. 왜냐하면 그는 그의 앞에 있는 그  
 리스도의 완전성의 표를 간직하고 있기 때문이다.  
 (서신, 291, 1903)

## 영적 근육과 힘줄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도다 이것에 옳다 인정 하심을 받은 후에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을 얻을 것임이니라”(약 1:12).

시험을 당할 때에 있어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믿음이 단련을 받아 예수께서 나타나실 때에 찬양과 존경과 영광에 이르게 하도록 하기 위하여 우리를 시험하신다는 사실을 망각하는 듯하다. 주님께서서는 우리를 개발시키기 위하여 갖지 않은 위치에 놓으신다. 만일 우리가 의식하지 못하는 품성의 결합을 가지고 있다면 주께서는 우리가 그 결합들을 깨닫게 하기 위하여 우리에게 훈련을 주신다. 그렇게 함으로써 우리는 그것들을 능히 정복할 수 있게 된다. 우리로 하여금 갖지 않은 여러 환경에 처하게 하는 것은 하나님의 섭리이다. 우리가 새로운 위치에 처할 때마다 여러 종류의 시험들을 만나게 된다. 우리가 어떤 시련에 처했을 때에 얼마나 자주 “나는 크게 잘못했다. 내가 이전에 있던 곳에 그대로 머물러 있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라고 생각한다. 그러나 그대가 왜 만족하지 아니하는가? 그것은 그대가 처한 환경이 그대로 하여금 그대의 품성에 있는 새로운 결합들을 깨닫게 한 까닭이지만 그러나 사실에 있어서는 그대 속에 있는 것 외에 나타나는 것이란 아무 것도 없기 때문이다. … 그대는 난관들과 접촉함으로써 영적 근육과 힘줄을 얻게 될 것이다. 만일 그대가 시험하는 과정들을 참고 하나님에게서 인정을 받는다면 그대는 그리스도 안에서 강해될 것이다. … 시련들이 이르러 올 때에 그대는 천사들과 사람들에게 구경거리가 되며 또한 그대가 주님에게서 인정하심을 얻지 못할 때마다 그대의 영적 힘을 감소시키고 있음을 기억하라.

불평하지 말고 평안을 붙잡아야 하며, 그대의 짐을 예수께 맡기라. 그대의 영혼의 모든 것을 주님 앞에 열어 놓으라. 무거운 짐을 제 삼자에게 가져가지 말라. 그대의 짐을 인간 앞에 내려 놓지 말라. “나는 불평함으로 원수를 기쁘게 하는 일을 하지 않겠다. 나는 예수님의 발 앞에 가져가겠다. 나는 믿음으로 이것을 그분께 이야기 하겠다”고 말하라. 만일 그대가 이렇게 한다면 하늘로부터 도우심을 받을 것이다. 그대는 “내가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심이어 그가 내 우편에 계시므로 내가 요동치 아니하리로다”(시 16:8)라고 하신 약속의 성취를 보게 될 것이다. (리뷰 앤드 헤럴드, 1889, 8.6).

시련을 참는 자만이 생명의 면류관을 받을 것이다. (실물교훈, 155)

## “내 은혜가 네게 족하도다”

“내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네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데서 온전하여짐이라 하신지라 이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내게 머물게 하려함이라”(고후 12:9).

지난 여덟 달 동안 내가 병으로 인하여 앓고 있을 때에 잠을 이루지 못하는 여러 시간 동안 나는 멸망에서 인생을 구원하기 위하여 이루어진 놀라운 희생 가운데 나타난 인류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에 관하여 가장 귀중한 명상의 시간을 갖게 되었다. 나는 예수의 이름을 여러 번 반복하기를 좋아하였다. 그 이름이야말로 아름다움과 빛과 사랑이 얼마나 충만하였는가! 그의 의가 우리에게 부여되도록 하기 위하여 우리의 죄를 담당하신 가운데 비애와 고난을 참으신 십자가를 바라볼 때에 나의 마음은 부드러워지고 나의 심령은 그의 사랑으로써 가득 차게 되었다. … 내가 아픔을 거의 견딜 수 없는 것처럼 보일 때에 나는 예수님을 바라보고 가장 열심히 기도하였다. 그 때에 그는 나의 곁에 계셨는데 어두움은 사라지고 모든 것은 빛으로 환한 듯 싶었다. 그곳에 공기까지라도 귀한 향기와 같았다. 진리가 얼마나 영광스럽게 보였는가! 그리고 얼마나 향상적이었던가! 나는 예수님의 사랑 가운데서 쉴 수가 있었다. 나는 여전히 아픔을 느꼈으나 “내 은혜가 네게 족하도다”라는 허락의 말씀은 나를 위로하기에 충분하였다. 가장 날카로운 쓰라림이 화평과 안식으로 변하는 듯하였다. 나는 밤중에 여러 시간 동안 하나님과 더불어 아름다운 교통을 하였다. 나의 마음은 빛으로 환하여 진 듯이 보였다. 나는 불만이나 혹은 불평할 마음이 없었다.

예수님은 나의 소망과 나의 기쁨과 용기의 샘이었다. 하늘이 매우 가까이 있는 것처럼 보였으며 그리스도께서는 위대하신 의사, 나의 회복자, 나의 모든 병을 치료하시는 분처럼 보였다. 그분 안에는 모든 충만이 거하신다. 예수님은 나의 귀에 음악이시고 고난의 잔을 마실 때도 생명을 내게 있어서 감증을 풀어주는 것이었다. 그리스도는 우리의 의, 우리의 거룩함, 우리의 구속함이 되신다. 이 고난의 몇 개월을 통해 나는 장래에도 결코 비판하지 아니할 예수님의 선하심의 매우 귀중한 생각을 갖게 되었다. 지금 나는 이 외국에서의 나의 질병이 하나님의 계획의 일부분임을 믿고 있다. 나의 마음은 하늘이 부여해 주신 것에 대하여 얼마나 열심히 탄원해 왔던가. 나는 스스로 아무 것도 할 수 없다. 능력과 영광은 모두 하나님께 있다. (서신, 29, 1892)

## 주님은 나의 조력자이심

“그가 친히 말씀하시기를 내가 과연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고 과연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담대히 가로되 주는 나를 돕는 자시니 내가 무서워 아니하겠노라 사람이 내게 어찌하리요 하노라” (히 13:5,6).

우리는 날마다 시간마다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워야만 한다. 그대는 많은 시련들을 만나게 될 것인 바 그대 가 이것들을 인내로써 참는다면 그 시련들은 그대를 영적으로 단련시키고 정결케 하며 고상케 하고 향상시킬 것이다. … 매우 큰 환난이 세상에 임하고 있으며 또한 사단의 권세는 격렬하게 고난과 재난과 파괴를 일으키기 위하여 땅에서 나는 권세를 맹렬하게 격동시키고 있다. 그의 사업은 가능한 한 인류에게 모든 비애를 조작해 내는 것이다. 이 세상은 그의 활동의 무대이다. 그러나 그는 감혀 있다. 그는 주님께서 허락하시는 것 이상으로 더 멀리 갈 수 없다.

우리의 주님이야말로 얼마나 자비스러운가! 그는 말씀하시기를 “내가 과연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고 과연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히 13:5). “내가 너를 내 손바닥에 새겼고” (사 49:16).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 (요 14:18) 신다고 말씀하신다. 성령은 구하는 자에게 주어진다. 다만 그것만을 생각하라. 그는 부모가 자녀에게 좋은 선물을 주고 싶어하는 것보다도 당신께 구하는 자에게 성령 주시기를 더욱 기뻐하신다. 그렇다면 우리는 기뻐하고 즐거워하자. 우리는 소망과 용기가 없어질 때까지 흑암의 권세에 속한 악마의 일을 바라보지 말자. 예수께서는 살아 계시므로 우리는 우리의 믿음이 흑암을 뚫고 빛 가운데서 안식처를 발견할 수 있도록 의의 태양 빛 가운데서 기쁨을 찾아야만 한다.

예수께서는 우리를 위해 중보하시기 위하여 살아 계시다. 어둠과 캄캄함이 이 세상에 접근하고 있는 동안 우리의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어질 때만이 안전함을 얻게 된다. 귀하신 구주! 영생에 대한 우리의 소망은 주님 안에 집중되어야 한다. 그때에 우리는 믿음을 이야기하고 소망을 이야기하고 용기를 이야기하고 사망에 빛을 반사하게 될 것이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고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신다.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기우지 못할 것이요… 이같이 너희 빛을 사람 앞에 비취게 하여 저희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마 5:14-16). 믿음은 가장 짙은 구름을 뚫고 나가야 한다. 하나님을 단순하게 또한 열심히 의존함은 주의 성호를 영화롭게 할 것이다. 그리고 이렇게 의존함으로 그대는 주안에서 모든 빛이 될 수 있을 것이다. 주님을 찬양하라. 그분을 찬양하고 비할 데 없는 그분의 사랑을 인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서신, 133, 1894)

## 기분은 우리가 거절을 당한 증거가 아님

“여호와께서는 자기에게 간구하는 모든 자 곧 진실하게 간구하는 모든 자에게 가까이 하시는데도 저는 자기를 경외하는 자의 소원을 이루시며 또 저희 부르짖음을 들으사 구원 하시리로다” (시 145:18,19).

나는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있는 귀중한 허락들에 대하여 그대의 주의를 환기시키고자 한다. 하나님의 자녀들은 다 동일한 힘과 동일한 성질과 동일한 확신과 동일한 담대함을 가진 것이 아니다. 나는 진실로 우리의 기분으로 인하여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못 되는 것이 아님을 인하여 기뻐하는 바이다. 원수는 그대가 하나님께로부터 분리될 수밖에 없는 어떤 일들을 행하였으므로 하나님께서는 그대를 다시는 더 사랑할 수 없다고 생각하게 하도록 그대를 유혹할 것이다. 그러나 우리 주님은 우리를 여전히 사랑하시며 또한 우리는 우리의 입장과 동일한 경우를 위하여 언질이 주어진 것을 당신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알 수 있다. ‘만일 누가 죄를 범하면 아버지 앞에서 우리에게 대언자가 있으니 곧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시라’ (요일 2:1).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저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케 하실 것이요’ (요일 1:9).

하나님께서서는 그대를 사랑하시며 그대를 위하여 자신을 바친 보배로운 구주께서는 그대가 시험을 받아 연약함 가운데서 정복을 당한 까닭에 그대를 내어쫓지 않으실 것이다. 그는 그대를 여전히 사랑하신다.

베드로는 시련의 때에 주님을 부인하였다. 그러나 예수께서는 그 가련한 제자를 버리지 않으셨다. 비록 베드로가 자신을 미워하였을지라도 주님께서서는 그를 사랑하셨다. 주께서 부활하신 후에 그의 이름을 불렀고 그에게 사랑의 기별을 보내셨다. 오, 우리는 얼마나 친절하고 사랑스러우며 동정심이 많으신 구주를 모시고 있는가! 그는 우리가 잘못 할지라도 우리를 사랑하신다.

지금 구주의 팔에 안기고 두려워해서는 안된다. 믿음으로 의지하고 섬을 얻으라. 주께서는 그대를 사랑하시고 돌보신다. 주께서는 그대를 복 주시고 평강과 은혜를 주신다. 주께서는 그대에게 “네 죄사함을 받았느니라”고 말씀하신다. 그대가 신체적인 질병으로 고통을 당해도 그것이 매일 하나님께서 그대를 위하여 역사하고 계시지 않는다고 할 수는 없다. 주께서는 그대를 용서하시되 넉넉히 용서하신다. 하나님의 사랑스런 약속에 그대 영혼을 맡기라. 주께서는 그대가 당신께 의존하기를 바라신다. … 자신으로부터 눈을 돌려 그리스도의 완전하심을 바라보라. (서신, 99, 1896)

## “내가 너를 위하여… 기도하였노니”

“그러나 내가 너를 위하여 네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노니 너는 돌이킨 후에 네 형제를 굳게 하라”(눅 22:32).

모든 그리스도인에게는 베드로에게 말씀한 다음의 말씀이 이르러 온다. “사단이 밀 까부르듯 하려고 너희를 청구하였으나 그러나 내가 너를 위하여 네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노니”(눅 22:31,32). 우리가 홀로 남아있지 않음에 대하여 하나님께 감사하자. 이것은 우리의 안전이다. 그리스도께서 이전(以前)에 당신의 중보사업으로 시험을 대처하도록 준비시킨 사람을 사단이 영원한 파멸로 인도하도록 내버려두실 수는 없다. 왜냐하면 그리스도 안에는 모든 영혼을 위하여 은혜가 준비되어 있고 또한 피할 길이 준비되어 있으므로 아무도 원수의 권세에서 넘어질 필요가 없기 때문이다.

사단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공격하기 위하여 강렬한 유혹들을 많이 준비하고 있다. 그는 간교한 계획으로써 방비하고 있지 않은 영혼들을 속여 마지막으로 그들을 멸망시키는 데 성공하기 위하여 노력하고 분주히 왕래하는 우는 사자로서 표상되었다. 우리는 단 한 발자국이라도 그리스도 없이는 안전하지 못하다. 그러나 “내가 너를 위하여 네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다는 그 말씀 가운데 우리를 위한 위로의 말씀이 얼마나 잘 간직되어 있는가! 사단은 쪽정이를 까불지 아니한다. 그가 갖기를 원하는 것은 알맹이다. 그렇다면 우리는 용기를 가지고 언제나 기도하자.

그리스도께서는 우리의 기도를 그의 희생의 공로와 더불어 뒤섞어 하나님께 올려 보낸다. 그대의 기도들은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향기로써 상달한다. … 그대가 죄를 짓고자 하는 유혹을 받을 때마다 그리스도의 눈은 그대에게 있으며 또한 사단은 그대를 알곡으로서 키질하기 위하여 그대를 소유하기를 원하고 있음을 기억하라. … 그대는 “주님이여, 나를 구원하소서.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멸망하리이다”라는 열렬한 부르짖음을 하나님께 올려보내라. 그러면 그대는 정복당하지 않을 것이며 죄에 빠지지 않을 것이다. 바울의 말 위에 그대의 입장을 확고히 세우고, 예수의 능력으로 다음과 같이 말하라,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 일이나 장래 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아무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롬 8:37-39](청년 지도자, 1896.12.20)

## 완전함의 대가

“만물이 인하고 만물이 말미암은 자에게는 많은 아들을 이끌어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는 일에 저희 구원의 주를 고난으로 말미암아 온전케 하심이 합당하도다”(히 2:10).

우리 모든 사람에 대한 그리스도의 초청은 평안과 안식 곧 자유와 사랑의 생애로 나아오며 또한 내세에는 썩지 않을 생명으로써 풍성한 기업을 누리라는 부르심이다. … 우리는 이 자유의 길이 투쟁과 고난들을 통과해 나아가도록 놓여졌다 할지라도 놀랄 필요가 없다. 우리가 장차 누릴 자유는 우리가 그것을 누리기 위하여 희생한 까닭에 더욱 가치 있는 것이 될 것이다. 지식을 초월하는 그 평화는 흑암의 권세에 대항해 싸움, 곧 이기심과 마음속에 있는 죄들을 대적하여 싸울 치열한 투쟁의 값을 지불할 것이다. … 우리는 죄인들을 당신 자신과 교통할 수 있도록 구원하시고 높이기 위하여 당신의 신성한 능력을 사용하시지 않으시고 고통을 당하시지 않으면 안될 인성을 취하시고 인간으로서의 고난을 당하시며 인간의 처참한 상태의 밑바닥까지 내려오셨던 주님을 믿음의 눈으로 보기까지는 우리가 구주를 최고의 의미로 평가하고 있다고 말할 수 없다.

오, 어찌하여 우리가 죄에 대하여 그처럼 무감각한가? 우리는 어찌하여 그처럼 조금한가? 이는 우리가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점점 가까이 나아가지 않는 까닭이다. 우리가 그리스도에게서 멀리 떠나간 채 그대로 남아 있기 때문에 우리의 양심은 죄의 기만으로 인하여 완고해졌다. 우리 구원의 대장을 생각하라. 그는 우리가 영원한 수치와 멸시를 당하지 않도록 하기 위하여 우리를 위해 수치를 당하셨다. 또한 타락한 인류에게 자비가 임하도록 하기 위하여 그는 십자가에서 고난을 당하셨다. 하나님의 공의로우심은 보전함을 받았고 죄를 지은 인간은 용서함을 받았다. 예수님께서서는 죄인이 살도록 하기 위하여 돌아가셨다. 가련한 죄인들이 속량함을 받고 영원한 영광으로써 관복을 받도록 하기 위하여 지극히 높으신 분의 아들은 그들을 위하여 수치를 당하셨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자신을 숨기고 우리의 말과 품성 가운데는 예수님이 가장 아름답게 또는 만인 중에서 가장 으뜸 되는 분으로서 나타나게 해야만 한다. 우리의 대화나 품성에 있어서 주님을 사랑하시는 분으로, 만인 가운데 머리로서 나타나야 한다. 우리의 생애나 태도는 당신 자신을 희생 제물로 드려 우리를 위해 대가를 지불하신 그리스도와 그 구원을 얼마나 높이 찬양하고 있는가를 증거하는 것이 되어야 한다. 우리 죄를 짊어지시고 슬픔을 담당하신 주님을 끊임없이 바라볼 때 주님과 같이 되고자 하는 능력을 구하게 된다. 우리는 자기 자신을 예수 그리스도께 대한 소망스럽고 복된 포로가 되게 할 것이다. (리뷰 앤드 헤럴드, 1881. 8. 2)

## 하나님의 율법을 따라 생애함

“내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내게 주셨으니 아버지 외에는 아들을 아는 자가 없고 아들과 또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는 자 외에는 아버지를 아는 자가 없느니라” (마 11:27).

예수께서는 여호와와의 거룩한 율법을 따라 생애 함으로써 하나님의 품성을 나타내기 위하여 이 세상에 오셨다. 예수께서 그의 제자들과 백성들에게 주신 모든 교훈 가운데서 율법의 원칙들을 명백히 밝히기를 노력하셨다. 율법을 몸소 순종하십시오 그는 생애의 평범한 의무들이 거룩하며 의미심장한 것이 되게 하셨다. 그는 사람들 가운데서 사람으로서 생애 하셨으며... 백성들 가운데서 생애 하셨고 그들의 빈곤과 슬픔에 참여하셨다. 그는 사람들 앞에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 보이고 모든 것을 그의 아버지의 뜻에 복종시킴으로써 모든 생애의 세밀한 부분에 있어서까지 생애를 고귀하게 하셨다. 그의 생애는 하나님께 대한 최고의 사랑과 동료에 대한 열렬한 사랑으로써 특징지어졌다. 그의 생애는 시작부터 끝까지 극기와 자아희생의 생애였다. 갈바리의 십자가 상에서 그는 온 세상이 원하기만 한다면 구원을 얻을 수 있도록 모든 사람들을 대신하여 위대한 희생을 하시었다. 그리스도는 하나님 안에 감추어져 있었으며 하나님은 그의 아들의 품성 가운데서 세상에 나타난 바 되었다. 잃어버린 세상에 대한 사랑은 날마다 그의 생애의 모든 행동 가운데서 나타난 바 되었다. 그의 영으로 채움 받은 자들은 그리스도께서 일하신 동일한 분야 가운데서 일하게 될 것이다.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빛과 사랑이 인간의 성정(性情)으로써 나타난 바 되었다. 그리스도를 그들의 개인의 구주로 믿는 자들에게는 그의 공로를 힘입게 되며 그의 권능을 부여받게 된다. 슬픔과 낙담과 시련의 짐을 가지고 그에게 나오는 자들에게 예수께서는 안식과 평안을 주실 것이다. 영혼이 하나님께 대한 회개의 필요를 알게되는 것은 그리스도의 은혜를 통해서이며 그리스도의 공로는 그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나오는 모든 자를 구원할 능력이 있음을 깨달아 믿음으로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한다. ... 우리가 하나님의 계명을 따르기 위하여 배양하는데 그렇게도 필수적인 사랑을 받도록 우리 마음을 열라. (청년 지도자, 1894, 8, 16)

## 하나님의 율법은 변함이 없고 영원함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나 폐하러 온 줄로 생각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케 하려 함이로다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일점 일획이라도 반드시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 (마 5:17,18).

만일 사단의 사업이 하늘에서 성공했다면 하나님의 율법은 변했을 것이었다. 그러나 그렇게 될 수 없었다. 왜냐하면 그의 율법은 그의 품성의 사본이며 그의 품성처럼 변할 수 없는 까닭이었다. 만일 하나님의 율법 가운데 어떤 변경이 가능했다면 그것은 그때 거기서 변하였을 것이요 그와 같이 함으로써 하늘의 반역자들을 구원했을 것이다. 그러나 그 율법이 사단의 요구에 응하도록 변하지 않은 까닭에 그는... 하늘 조정에서 높고 거룩한 지위를 잃어버렸다.

그가 타락한 후에 아담과 하와의 마음에서 일하여 그들로 하여금 충성심에서 떠나가도록 유혹하였다. ... 만일 하나님의 율법이 변할 수 있어 그의 타락한 상태에서 그에게 만족을 줄 수 있다면 아담은 그대에 용서함을 받아 에덴에서 그의 가족을 보존하였을 것이었다. 그러나 범죄에 대한 형벌은 사망이었으며 그리스도께서는 인간의 대치물과 담보물이 되었다. 하나님의 율법이 변할 수 있다면 타락한 인류를 구원하기 위하여 이루어진 위대한 희생을 피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이때야말로 그 율법을 변경시켜 그리스도를 하늘 조정에 남아 있도록 했어야 할 때였다. 그러나 그렇지 않았다. 하나님의 율법은 그 성질에 있어서 변할 수가 없었으며 그런 까닭에 그리스도께서는 타락한 인류를 위하여 자신을 희생 제물로 주시었고 또한 아담은 에덴을 잃어버려 그의 모든 후손들과 더불어 시련의 기간에 놓이게 되었다.

사단이 하늘에서 쫓겨난 이후 하나님의 율법이란 조목이라도 변경되었다면 그는 타락하기 전에 하늘에서 얻을 수 없었던 것을 그가 타락한 후에 이 땅에서 얻었을 것이다. 그가 요구한 모든 것을 받았을 것이다. 우리는 그가 받지 못했음을 안다. 율법은 하나님의 보좌, 그리고 모든 영혼의 구원이 순종이나 불순종에 의해 결정되는 것처럼 지금도 변하지 않았다. 예수께서는 동정적인 사랑의 율법에 의해 우리의 죄를 담당하시고 우리의 형벌을 받으시고 또한 범법자에게 주어지는 하나님의 진노의 잔을 마셨다. 예수님은 우리가 생명 곧 영원한 생명을 얻도록 하기 위하여 극기와 희생의 십자가를 지시었다. 우리도 그리스도를 위하여 십자가를 질 것인가? (서신, 110, 1896)

## 우리의 행동에 대한 시금석

“너의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라 그리하면 너의 경영 하는 것이 이루어리라”(잠 16:3).

우리는 우리의 행사를 하나님께 맡길 수 있는 특권을 가진 것에 대하여 감사하게 생각하자. 우리는 생명이 없는 기계의 조각들이 아니요 명확한 양심과 순결한 목적을 가지고 옳은 것을 선택하며 악한 것을 거절할 수 있는 지성적 존재됨을 기억해야만 한다. 우리는 우리의 모든 행사에 있어서 일치하도록 목표를 정해야 한다.

우리는 하나님의 감찰하시는 율법들로 길을 시험함으로써 우리의 길을 주님께 맡겨야만 한다. “너의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저를 의지하면 저가 이루시고”(시 37:5). 우리가 공정치 못한 행위를 한다면 우리의 길을 하나님께 맡길 수 없다. 시편 기자는 “내 마음에 죄악을 품으면 주께서 듣지 아니하시리라”(시 66:18)고 부르짖었다. 우리의 길을 주님께 맡길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마음에 당신의 의로써 채우시도록 하기 위하여 모든 악을 버리고 우리의 마음을 살살이 살피야만 한다. 우리가 기도를 시작할 때에 죄를 회개하면서 주님을 찾아야만 한다. … 하나님의 율법은 우리의 행동에 대한 시금석이다. 그의 눈은 우리의 모든 행동을 보시며 마음의 모든 부분을 살피시며 감추어 있는 자아 기만과 모든 의식을 찾아내신다. 우리가 관계를 맺어야 할 그분께는 모든 것이 드러나 다 펼쳐져 있다. 그러나 그는 모든 악한 것을 버리기 위하여 애통하는 마음과 참된 목적을 가지고 그에게 나오는 자들을 다 받으실 것이다. … 우리의 모든 상업적 거래에 있어서 우리의 모든 말과 행실에 있어서 우리는 순결한 목적과 깨끗한 양심을 유지해야만 한다. 우리의 행사를 하나님께 의탁하고 손에 맡겨야 한다. 하늘 궁정에 갖고 가지 못할 것을 중요하게 생각해서는 안된다. 일할 때에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라. 이것만이 우리의 일을 이기주의로부터 자유롭게 해 준다는 것을 기억하자. … 깨어 위를 바라보라. 왜냐하면 그대는 하늘의 신령한 공기를 끊임없이 필요로 하고 있기 때문이다. 끊임없이 하늘 아버지와 교통하고 생애함이 필요하다. … 그대의 의무를 기록하신 하나님 앞에 있는 것처럼 수행하라. (서신, 406, 1906)

## 순종함의 행복

“우리로 하여금 빛 가운데서 성도의 기업의 부분을 얻기에 합당하게 하신 아버지께 감사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골 1:12,13).

우리의 미래의 행복은 우리의 인성으로 하여금 그 인성의 모든 재간들과 능력들을 하나님께 복종시켜 신성의 지배 아래 있도록 함에 달려 있다. 많은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믿음을 갖지 못하였다. “그리스도께서는 신성이시기 때문에 그의 아버지의 뜻에 순종하는 것이 쉬운 일이라”고 그들은 말한다. 그러나 당신의 말씀은 “그는 모든 일에 우리와 한결같이 시험을 받은 자”(히 4:15)라고 말씀하셨다. 그는 그의 고상한 마음에 비례해서 시험을 받으셨다. 그러나 그는 시험에 복종함으로써 거룩한 능력을 약화시키거나 또는 무능하게 만드시지 않으셨다. 예수님의 지상 생애 가운데서 그는 인류가 당신 안에서 허락된 특권과 기회들을 이용할 때에 무엇이 될 수 있는지에 관한 대표자였다. … 사단이 우리의 첫 조상을 유혹했을 때… 그는 그들이 인간의 영역 밖을 벗어나 나갈 수 있다는 것을 믿게 하려고 아첨하는데 힘썼다. 그러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 앞에 두신 그의 모본으로서 인간 가족으로 하여금 인간의 영역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사람들이 되도록 격려하셨다. 예수님 자신이 사단의 속성을 내어쫓기 위하여 사단의 노예가 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품성의 사본인 하나님의 율법을 순종하는 도덕적 힘을 소유한 사람이 되셨다. 하나님께로부터 나오는 지혜롭고 선한 율법에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들은 배교의 권세의 종이 될 것이다. 예수님은 인간과 하나님 사이에 중재하시기 위하여 또한 인간이 사단의 기만적인 유혹을 통하여 에덴에서 잃어버린 본래의 마음을 우리 인간에게 다시 회복시키기 위하여 인간이 되셨다. … 불순종은 하나님이 에덴에서 인간에게 주셨던 본성과는 일치하지 않는다.

그리스도께서는 인간에게 도덕적 능력을 주셨다. 우리를 빛의 성도들의 유업을 받을 후사가 되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한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모든 인간은 자기 자신을 위하여 그리고 자기 자신의 능력으로 승리할 수가 있고 자기 자신의 개인적인 품성으로 설 수가 있는 것이다. (서신, 121, 1897)

## 순종을 위한 힘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요 15:10).

예수 그리스도를 개인의 구주로 믿는다고 주장하는 어떤 사람들은 “아무도 율법을 지킬 수 없다”고 말하였다. 이 점에 관하여 그리스도의 말씀은 명확하다. 그는 “내가 아버지의 율법을 지켰”다고 말씀하신다. 그는 범사에 있어서 우리의 모범이시다. 산상 수훈 가운데서 그리스도께서는 그의 사명에 관하여 명백히 말씀하셨다. 그는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나 폐하러 온 줄로 생각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케 하러 함이로다”(마 5:17)고 말씀하셨다. 그는 선지자들이 증거한 것에 관하여 문자 그대로 설명하시기 위하여 오셨다. 세상을 창조하기 전에 아버지와 같이 계셨던 그는 이 땅에 오신 후에 성취시킬 모든 예언들을 거룩한 사람들로 하여금 기록하도록 친히 주시었다.

하늘 아버지와 그리스도의 지위는 동등한 것이었다. 이 때문에 그는 범법자들을 위한 속죄물이 되실 수 있으셨다. 그는 율법을 크게 하고 존귀하게 하는데 충분하셨다. 그는 사람들의 격언과 유전으로부터 여호와와의 교훈을 분리시켰다. 그는 진리의 모든 순결함 가운데서 십계명을 진리의 표현으로서 높이 드셨다. 사람이 지킬 수 없는 율법을 하나님께서 만드셨다는 사단의 거짓말을 반박하기 위하여 그리스도께서 이 세상에 오시었다. 품소 인성을 쓰시고 이 세상에 오시어 순종의 생애를 사심으로써 하나님께서는 사람이 순종할 수 없는 율법을 만드시지 않으셨다는 것을 나타내 보이셨다. 그는 사람이 율법을 완전히 순종할 수 있는 가능성을 보여주셨다. 그리스도를 개인의 구주로 영접하여 신성의 참여자가 된 자들은 율법의 모든 계명에 순종하여 생애 하신 그분의 모범을 따를 수 있다. 그리스도의 공로를 통하여 인간은 하늘에서 신뢰할 수 있고 반역하지 않을 것임을 그의 순종으로 말미암아 보여 주어야 한다.

그리스도께서는 인간이 소유한 동일한 인성을 소유하셨다. 그는 모든 일에 인간과 한결같이 시험을 받으셨다. 그분이 순종한 동일한 능력이 인간에게 주어졌다. (원고, 48, 1893)

## 우리의 충성에 대한 증거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요 14:15).

이 말씀이 모든 사람의 마음에 충분히 자리잡도록 하라. 우리가 그리스도를 구주로서 받아들인다면 우리는 그를 통치자로서 받아 들여야만 한다. 우리는 그리스도가 우리의 구주가 되신다는 확신과 완전하고도 확고한 신뢰심을 가질 때만이 비로소 그를 받아들이고 그의 계명에 순종하게 된다. 이와 같이 함으로 우리는 충성심을 하나님께 나타내 보인다. 그 때에 우리는 믿음 가운데 참된 고리를 갖게 될 것이다. 믿음은 사랑으로 말미암아 역사한다. 그것을 그대의 마음에 이야기하라. “주님여, 나는 당신께서 내 영혼을 구속하기 위하여 돌아가신 것을 믿나이다. 만일 당신께서 나의 생명을 위하여 당신의 생명을 주시리 만큼 내 영혼을 가치 있게 여기신다면 나도 미약하나마 나의 생애와 또한 생애의 모든 가능성들을 당신이 지켜주시도록 바치겠나이다”(원고, 24, 1890).

우리의 의지는 하나님의 의지와 완전히 일치하도록 해야 한다. 오늘날 다음과 같은 초청이 주어졌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러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마 11:28,29). 그리스도께서는 그의 멍에를 메고 마음의 온유와 겸손을 배우는 모든 자들을 위한 평안이 있다. 여기서 우리는 자제와 순종을 배우게 되며 또한 이 가운데서 평안히 쉼을 발견하게 된다.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요 15:10). 이것이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메도록 초청하시는 멍에 곧 순종의 멍에이다. “주여 나는 당신의 말씀을 그대로 취합니다. 나는 당신의 약속을 받아 드립니다. 나는 개인의 구주로서 필요하기 때문에 당신께 옵니다. 나는 임재하시는 그리스도를 가져야 합니다. 나는 당신께 의존하고 있습니다. 당신은 나의 것입니다”라고 우리는 말할 수 없는가? 그리스도께서는 말씀하신다, 거짓이 없이 온 마음과 뜻과 목숨과 힘을 다하여 “나의 계명을 가지고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요 14:21)라. 이것이 품성의 참된 시금석이다. 우리는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어야 한다. (서신, 66, 1898)

## 기이하고 단순한 율법

“여호와와의 율법은 완전하여 영혼을 소성케 하고 여호와와의 증거는 확실하여 우둔한 자로 지혜롭게 하며”(시 19:7).

여호와와의 율법은 그 단순함과 그 넓이와 그 완전함이 얼마나 기이한가! 하나님의 목적과 취급하심에는 유한한 사람이 이해할 수 없는 오묘가 있다. 그러나 하나님의 율법에는 (이해하지 못할) 오묘가 없다. 가장 나약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거룩한 모본에 따라 생애를 조절하며 품성을 형성하기 위하여 이 원칙들을 붙잡을 수 있다. 사람의 자녀들이 그들의 재능을 다하여 최선껏 이 율법을 순종한다면 그들은 하나님의 목적과 계획들을 좀 더 잘 이해하도록 지능과 식별력을 얻게 될 것이다. ... 율법을 확대하고 높이기 위하여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무한한 희생은 범법자에 대한 율법의 요구는 일점 일획이라도 철회할 수 없음을 증거 한다. 그리스도께서는 죄인이 범법함으로 만들어 놓은 빛을 갠으며 또한 자신의 모범으로서 사람에게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는 방법을 가르쳐 주시기 위하여 이 땅에 오시었다. 그리스도께서는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켰”(요 15:10)다고 말씀하셨다. 하나님의 종이 되었다고 자처하는 것처럼 많은 사람들이 당신의 율법을 제쳐 놓고 다른 죄인들에게 그 교훈에 복종할 의무가 없다고 가르치는 것은 전혀 생각조차 할 수 없는 일이다. 그것이야말로 얼마나 무서운 기만인가! ... 우리는 노예와 죽음의 땅에 살고 있다. 많은 사람들은 쫓겨난 풍습과 사악한 습관으로 말미암아 노예가 되어 그들이 그 사슬을 끊는 것은 어려운 일이다. 불의는 홍수와 같이 이 지상에 크게 범람하고 있다. 너무나 무서워 형언하기 곤란한 정도의 범죄 사건들이 날마다 일어나고 있다. 이 모든 것은 사람이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여 생애한 까닭이라고 말할 것인가, 그렇지 않으면 목사들과 백성들이 율법의 교훈은 엄매는 힘을 잃어버렸다고 주장하며 가르치는 까닭인가? (리뷰 앤드 헤럴드, 1886.9.14)

하나님께서 잃어버린 자들을 도로 찾으시기 위하여 독생자를 주시리만큼 세상을 사랑하셨다. 주님의 선하심을 맛보아 안 자들은 범법의 길을 따르려고 하는 생각을 품을 수 없다. 자신을 것처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율법을 범하는 것은 그에게는 고통이 된다. (리뷰 앤드 헤럴드, 1888.1.24)

## 하나님의 도덕적인 거울

“자유하게 하는 온전한 율법을 들여다보고 있는 자는 듣고 잊어버리는 자가 아니요 실행하는 자니 이 사람이 그 행하는 일에 복을 받으리라”(약 1:25).

우리는 “도셀 돌프”에서 차를 갈아타기 위하여 정거장에서 두시간 동안 기다릴 수밖에 없었다. 여기서 우리는 인간의 성정을 연구할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되었다. 숙녀들이 들어오더니 외투를 바꾸어 입고 그들의 옷에 더러운 것이 없나 확인하기 위하여 사면을 둘러보았다. 그 다음 분이 얼굴에 좀 더 분을 발랐다. 그들은 인간의 눈들이 바라볼 때에 가장 잘 나타내 보임으로써 만족감을 얻도록 그들의 외부를 단장하기 위하여 거울 앞에 서서 오랫동안 머뭇거렸다. 나는 죄인들이 그의 품성의 결함을 발견하기 위하여 들여다보아야만 할 위대한 도덕적 거울인 하나님의 율법에 대하여 생각하였다. 마치 많은 사람들이 거울로 외모를 살피는 것처럼 품성의 모든 결함들을 고치고 수정하기 위하여 부지런히 그리고 비판적으로 품성의 도덕적 표준인 하나님의 율법을 연구한다면 얼마나 위대한 변화가 그들 가운데 틀림없이 일어나겠는가. “누구든지 도를 듣고 행하지 아니하면 그는 거울로 자기의 생긴 얼굴을 보는 사람과 같으니 제 자신을 보고 가서 그 모양이 어떠한 것을 곧 잊어버리거니와”(약 1:23,24). ...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의 도덕적 거울인 당신의 율법을 바라볼 때에 자신의 품성 속에 결함이 있음을 보게 된다. 그러나 그들은 “그대가 행하여야 할 모든 것은 믿는 것뿐이다”라는 말을 너무나 많이 들어왔다. ... 곧 그들은 거울을 들여다보고서 “예수께서는 이 모든 것을 없이 하셨다”고 입술로 말하면서 그들의 모든 결함을 그대로 지닌 채 가버리고 만다. 이런 일을 야고보서는 지적하려고 했던 것이다. 인간은 자기 자신을 바라보고 가서 자신의 모습이 어떠한지를 잊어버리는 것이다. ... 믿음과 행함은 세속적인 조류와 교만과 허영의 물결을 거슬러 올라가는데 있어서 반드시 사용해야 할 두 개의 노이다. 만일 이것들이 사용되지 않는다면 배는 물결을 따라 내려가서 멸망에 이르르게 된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외모를 꾸미는데 주의하면서 마음을 쏟는 것처럼 내적 단장에 관심을 갖도록 우리를 도와주신다. (리뷰 앤드 헤럴드, 1887.11.11)

## 순종하는 자의 특권들

“너희가 나의 명하는 대로 행하면 곧 나의 친구라”  
(요 15:14).

그리스도와 더불어 밀접한 우정을 맺고 사는 자들은 우리의 그리스도로써 신용할 수 있는 위치로 승진될 것이다. 예수님을 위하여 힘이 미칠 수 있는 한 최선을 다하는 종은 그가 순종하기를 좋아하는 그분(예수님)과 더불어 친밀히 교제하도록 허락을 받게 된다. 의무를 충실히 수행하는 데 있어서 우리는 그리스도와 더불어 하나가 될 수 있는 바 이는 하나님의 계명을 순종하는 자들은 그에게 자유 자제로 말할 수 있는 까닭이다. 거룩한 지도자와 더불어 가장 친밀하게 이야기하는 자는 그의 위대하심에 관한 가장 고상한 관념을 가졌으며 또한 그의 계명들을 가장 잘 순종하는 자이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너희가 나의 명하는 대로 행하면 곧 나의 친구라 이제부터는 너희를 종이라 하지 아니하리니 종은 주인의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라 너희를 친구라 하였노니 내가 내 아버지께 들은 것을 다 너희에게 알게 하였음이니라”... 믿을 가운데서 하나님께 나오는 자의 품성은 구주께서 그의 생애 가운데 들어오사 모든 것을 증거케 될 것이다. 이러한 자들은 끊임없이 “오 나의 구주여 이것이 당신의 뜻이며 길이이니이까”라고 질문하고 있다. 그는 끊임없이 그의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예수를 바라본다. 그는 그의 모든 행동에 관하여 거룩하신 친구(예수님)의 뜻을 타진하는 바 이는 그가 이 확신 가운데 그의 힘이 놓여 있음을 아는 까닭이다. 그는 모든 역경 가운데서 마음을 하나님께 쳐드는 것이 습관화되었다. ... 하나님을 최고의 분으로 받아들이는 자는 그에게 충성하기로 서약하여야만 한다. 그는 그리스도인의 제복을 입고 그가 누구의 군대에 속하였다는 것을 나타내 보이는 것발을 높이 들어야만 한다. 그리스도께 대한 충성을 공공연히 나타내야 한다. 감추는 것은 불가능하다. 순종의 표는 생애를 정결하게 하는데 나타나야 한다.

“나는 너희를 만민 중에서 구별한 너희 하나님 여호와라 너희는 내게 거룩할지어다 이는 나 여호와가 거룩하고 내가 또 너희로 나의 소유를 삼으려고 너희를 만민 중에서 구별하였음이니라”(레 20:24,26). ...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의 찬송을 부르게 하려 함이니라”(사 43:21)  
(원고, 96, 1900)

## 순종을 위한 동기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이것이니 우리가 그의 계명들을 지키는 것이라 그의 계명들은 무거운 것이 아니로다”(요일 5:3).

하나님의 성민들이 하나님을 높이고 영화롭게 하는 것은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므로써이다. 그러므로 하나님에게서 이성의 힘을 받은 모든 영혼은 하나님의 말씀을 상고하며 그가 사신 소유로서 우리에게 명하신 모든 것을 확실히 해야 할 의무 아래 놓여 있다. 우리는 주의 말씀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모든 것을 이해하도록 노력해야만 한다. ... 하나님의 왕국을 다스리는 법칙들인 당신의 모든 계명들을 부지런히 청종한다는 것을 하늘 거민들과 타락하지 않은 세계들과 타락한 사람들에게 나타내는 것보다 더 크게 창조와 구속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소유주가 되시는 하나님께 존경을 나타내 보일 수 있는 길이란 없다.

우리는 하나님의 율법에 관한 지식을 얻기 위하여 부지런히 연구할 필요가 있다. 만일 우리가 하나님의 왕국을 다스리는 법칙들을 이해하지 못한다면 우리가 어떻게 순종하는 백성이 될 수 있겠는가? 그렇다면 성경을 펴고 하나님의 교훈에 관하여 그대에게 빛을 줄 수 있는 모든 것을 상고하라. 그대가 “주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라는 말씀을 발견하거나 사람의 의견을 묻지 말고 어떤 대가를 지불하게 될지라도 즐겨 순종하라. 그때에 하나님의 축복은 그대에게 임할 것이다. ... 종종 엄숙한 마음으로 다 음과 같이 기도하라. “오, 주님여 나로 무엇을 하도록 하시겠나이까? 내가 조금이라도 거룩한 교훈을 경히 여겼나이까? 내가 운수의 편에서 감화를 끼치는 일을 하고 있나이까? 내가 하나님의 계명에 대하여 조심성 없는 경솔함을 나타내고 있나이까? 나는 그리스도와 명어를 함께 하고 짐을 지고 주와 동역자가 되고 있습니까? 주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니 라는 그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려고 변명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나는 세상에서 나오기를 기뻐하지 않음으로 확실히 밝혀진 여호와와 계명에 순종하지 않을 위험은 없습니까? 사람을 두려워하는 것이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보다 더 큰 두려움을 갖고 있지는 않습니까?” “주여 내가 내 자신을 버리나이다. 이것이 내가 할 수 있는 전부입니다” “나를 원수의 편에 두려고 할지라도 나는 당신의 율법에 불순종하는 일을 하지 않겠습니다”라고 말하면서 그대 자신을 하나님께 바치라. (서신, 82, 1895)

## 하나님의 율법의 기초

“사랑은 이웃에게 악을 행치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니라”(롬 13:10).

각 사람에게 있어서 가장 심오한 관심사가 되는 질문은 나는 하나님의 율법의 요구에 응하고 있는가이다. 율법은 거룩하고 의롭고 선한 것으로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이 날마다 당신의 의의 위대한 표준인 이 율법과 더불어 우리의 행동을 비교하기를 원하신다. 하나님의 말씀의 빛 가운데서 자신을 면밀히 살핌으로써만 우리가 그분의 올바른 거룩한 통치에서 이탈하였음을 발견할 수 있게 된다. … 사랑은 하늘과 땅에 있는 하나님의 정부를 기초한 원칙으로서 이 사랑은 그리스도인의 생활 속에 짜여져야만 한다. 그리스도의 사랑은 발작적인 사랑이 아니요 그것은 깊고 넓고 충만한 사랑이다. 그것을 소유한 자는 “나는 나를 사랑하는 자들만을 사랑할 것이다”라고 말하지 않을 것이다. 이 거룩한 원칙으로 말미암아 감화를 받은 마음은 이기적인 성질에 속한 모든 것 위에 뛰어나게 될 것이다.

그리스도인이라 자처하는 자들 가운데라도 항상 무슨 일에 대하여 성을 낼 어떤 자세를 갖추고 있는 자들이 있다. 만일 그들의 친구가 그들의 하는 일에 만 열중하고 자기들을 위하여 시간을 내지 않을 때에는 그들은 상심하여 기분이 상한다. … 그들의 생애는 마치 향기가 없는 화려한 꽃들과 흡사하다. 이것보다는 접촉하는 자들에게 아름다운 향기로서 축복해 주는 단순하고도 가식이 없는 꽃이 훨씬 더 낫다.

다른 사람의 결점을 찾는 대신에 이런 사람들은 그리스도를 옷입고 사랑 받는 편에 서려고 힘쓸 것이다. … 그리스도의 품성은 그리스도인이 지켜야 할 표준이다. 그의 목표는 인성을 쓰신 그리스도의 생애 가운데 예시된 은혜를 소유하는 것이 되어야 한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교는 우리로 하여금 미래의 찌지 않을 생명을 위하여 준비시킬 뿐 아니라 우리로 하여금 이 지상에서 그리스도의 생애를 살도록 해 줄 수 있다. 예수께서는 우리의 모범이 되실 뿐만 아니라 또한 우리의 친구가 되시고 안내자가 되신다. 주님의 강한 팔을 붙잡고 그분의 성령의 참여자가 됨으로 우리는 “그의 행하시는 대로” 우리도 행할 수 있다. (청년 지도자, 1897. 6.10)

## 마음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율법

“또 주께서 가라사대 그 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으로 세울 언약이 이것이니 내 법을 저희 생각에 두고 저희 마음에 이것을 기록하리라 나는 저희에게 하나님이 되고 저희는 내게 백성이 되리라”(히 8:10).

새 언약의 축복들은 불의와 죄를 사유해 주는 자비 가운데 전적으로 기초되었다. 주께서는 죄악을 버리고 의를 선택하여 나에게 돌아오는 모든 자에게 어떻게 하시겠다고 세밀하게 기입하셨다. “내가 저희 불의를 공홀히 여기고 저희 죄를 다시 기억하지 아니 하리라 하셨느니라”(히 8:12). 마음을 겸비케 하고 죄를 자복 하는 자들은 자비와 은혜와 보증을 찾을 것이다.

하나님께서서는 죄인에게 자비를 베푸시므로 공의를 중단하셨는가? 그는 당신의 거룩한 율법을 무시하고 이제부터 그것을 범하는 것을 경히 여기실 것인가? 하나님은 참되시며 그는 변함이 없으시다. 구원의 조건은 언제나 동일하다. 생명 곧 영원한 생명은 하나님의 율법을 순종할 모든 사람을 위하여 있는 것이다. 생각과 말과 행동 가운데 표시된 완전한 순종은 어떤 율법사가 그리스도께 나아와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라고 질문하였을 때에 예수께서 “율법에 무엇이라 기록되었으며 네가 어떻게 읽느냐… 이를 행하라 그러면 살리라”(눅 10:25-28)고 대답하신 때와 같이 오늘날도 중요하다.

새 언약에 있어서도 영생을 얻을 수 있는 조건은 옛 언약의 때와 같은데 그것은 곧 완전한 순종이다. 옛 언약 아래는 뻔뻔스러우며 참람된 품성을 소유한 썩된 사람들이 많이 있었는데 그들을 위하여는 율법으로 명시된 속죄가 없었다. 보다 나은 새 언약 가운데서는 율법을 어긴 자들이 믿음으로써 그리스도를 개인의 구주로 받아들이기만 하면 그리스도께서는 그들을 위하여 율법을 만족시키신다. 공홀과 죄사함은 저들의 죄를 없이 하시는 주님의 공로를 의지하여 그리스도께 나오는 모든 자들에게 보상으로 주어진다. 더 좋은 언약에 있어서 우리는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죄로부터 정결하게 된다. … 죄인은 자신으로서는 단 하나의 죄도 속할 수 없다. 그리스도의 거저 주시는 선물 가운데 힘이 있다. 약속은 자신의 죄를 알고 그 죄를 버리고 무력한 영혼을 죄를 용서하시는 구주 예수님께 맡기는 자들만이 그 약속이 이해된다. 주께서는 “거룩하고 의롭고 선한”(롬 7:12) 그분의 완전한 율법, 하나님 자신의 본성을 나타내는 율법을 저들의 마음에 두실 것이다. (서신, 276, 1904)

## 품성의 참된 표준

“마땅히 율법과 증거의 말씀을 좇을지니 그들의 말하는 바가 이 말씀에 맞지 아니하면 그들이 정녕히 아침 빛을 보지 못하고” (사 8:20).

거룩한 은혜를 받아들이는 자에게는 거룩한 은혜가 있다. 그러나 우리가 하여야 할 일이 있다. … 우리 자신들을 천사들의 사회에 적응시키려면 우리가 행해야 할 일이 있다. 우리는 죄의 더러움에서 벗어나 예수님과 같이 되어야 한다. 예수님은 우리가 되기를 원하는 것의 전부였다. 그는 어린이와 젊은이와 어른들을 위한 완전한 모범이었다. 우리는 그 모범을 면밀히 연구해야만 한다.

예수님은 하늘의 존엄자였으나 어린아이들을 팔에 안고 축복하리 만큼 겸비하셨다. 천사들도 존경하는 그분께서는 어린아이들의 서투른 혀로써 재갈 거리는 찬양의 소리를 가장 친절한 사랑을 가지고 들으셨다. 우리의 마음이 그리스도의 마음 안에 거하는 거룩한 사랑으로 말미암아 부드러워지고 굴복하는 반면, 우리는 숭고한 위엄 가운데서 예수님과 같이 되어야만 한다. … 우리는 거룩한 모형에 따라 품성을 형성하기 위하여 하여야 할 일이 있다. 나쁜 모든 습관들은 버려야만 한다. 불경건한 자는 그의 마음이 정결해져야만 하며 이기적인 사람은 이기심을 버려야 하며 교만한 자는 교만을 제거해야 하며 스스로 자족하는 자는 그의 자아 확신을 버려야 하며 그리스도 없이는 아무 것도 아님을 인식해야만 한다. …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 맞을 내리고 믿음 가운데 뿌리를 박으며 기초를 놓을 필요가 있다. 사단은 그의 대리자들을 통하여 일하고 있다. 그는 무엇인가 새롭고 이상한 것을 갈망하면서도 생수를 마시지 못한 사람들을 택한다. “보라 그리스도가 여기 있다” 혹은 “저기 있다”는 음성이 들릴 것이다. 그러나 우리는 그런 음성을 믿어서는 안된다. 우리는 주께서 우리를 부르실 참된 목자의 음성을 듣는데 잘못이 없도록 할 것이다. 주께서는 “내 아버지의 계명을 지켰다”고 말씀하셨다. 주께서는 당신의 양떼들을 하나님의 계명에 겸손히 순종하는 길로 인도하고 계시며 결코 율법을 범하도록 인도하지 않는다. … 아무도 기만을 당할 필요가 없다. 하나님의 율법은 그의 보좌처럼 거룩하므로 세상에 태어나는 모든 사람은 이 율법으로 말미암아 심판을 받게 될 것이다. 품성을 시험할 다른 표준이 없다. (리뷰 앤드 헤럴드, 1885. 11.17)

## 생애의 “게임”

“깨어 믿음에 굳게 서서 남자답게 강건하여라” (고전 16:13).

하나님의 진리를 순종하고 하나님의 모든 말씀대로 생애 하는 것만이 우리 각자로 하여금 이 악한 때에 있어서 능히 설 수 있기에 충분하게 한다. 사단은 영혼을 사로잡고자 생애의 게임을 전개하고 있다. … 도덕적 또는 영적 힘을 강화하기 위하여 모든 사람이 도달할 수 있는 유리한 기회들이 있다. 정신은 넓어지고 고상해질 수 있으며 또한 하늘 사물들만을 숙고해야만 한다. … 마음이 하늘로 향한 방향으로 흐르지 않는 한 그것은 하나님과 더불어 특별한 관련을 맺지 않은 세속적인 사업에 종사하도록 하는 사단의 유혹에 빠지기 쉬운 미끼가 되고 만다. 열성과 헌신과 다함이 없는 힘과 열렬한 욕망이 이 세속적 사업에 기울일 때에 마귀는 곁에 서서 인간이 결코 얻거나 붙들 수도 없는 목적을 이루기 위하여 그처럼 꾸준한 노력으로 싸우고 있는 것을 보고 조소한다. … 사단이 발명한 피와 그가 하는 일은 영혼을 울무에 잡아넣음으로써 속임을 당한 가련한 인간들이 눈이 가려진 채 자신들의 멸망을 향하여 나아가도록 하는 것이다. … 사단의 기만과 울무에 대한 유일한 안전책이 있는데 그것은 곧 예수 안에 있는 그대로의 진리이다. 마음에 심어지고 깨어 기도함으로써 키워지며 그리스도의 은혜로써 자라난 진리는 우리에게 식별력을 줄 것이다. 사단의 피와 유혹에도 불구하고 진리는 마음에 거해야만 하며 진리의 힘이 느껴져야만 한다. 또한 그대의 경험과 나의 경험은 그 진리가 영혼을 정결케 하고 지도하고 축복할 수 있도록 되어야 한다. … 원수는 우리들 한사람 한사람의 과거를 알고 있다. 그래서 안팎으로 공격해 오는 유혹에 저항하기 위해서는 주님의 진리가 우리 마음에 거하고 영혼을 지키며 모든 원수의 공격에 경계와 민첩한 행동을 취하도록 확실히 주님 편에 있을 필요가 있다. 눈에 보이지 않는 원수 가운데서 이런 방비 없이는 우리는 바람에 흔들리는 갈대와 같이 바람에 날아가 버릴 것이다. 그러나 만일 그리스도가 우리 영혼 속에 거한다면 우리는 주와 그의 강하신 권능 안에서 튼튼해 질 수 있다. (서신, 17, 1896)

## 그의 충만하심으로 충만하여짐

“그 넓이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엡 3:19).

죄의 세력에서 벗어나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생각하는 자들이 많이 있으나 우리는 하나님의 충만하심으로 충만하게 될 수 있다는 허락이 있다. 우리는 목적을 너무나 낮게 세운다. 표준은 그보다 훨씬 높다. 우리가 하나님의 섭리의 의미심장함을 깨닫기 위하여는 우리 마음이 넓어질 필요가 있다. 우리는 하나님의 품성의 가장 고상한 속성들을 반사해야만 한다. 우리는 홀로 남아 있지 않음에 대하여 감사해야만 한다. 하나님의 율법은 높임을 받는 표준으로서 우리는 거기에 도달해야 한다. 우리는 자신의 사상을 따라 행하여서는 안된다. 오히려 우리는 그리스도의 발자취를 따라가야만 한다. (리뷰 앤드 헤럴드, 1892.7.12).

승리하는 일은 우리 손 안에 있다. 그러나 우리는 자신의 이름으로나 혹은 힘을 가지고서는 승리하지 못한다. 왜냐하면 우리 스스로는 하나님의 계명을 지킬 수 없는 까닭이다. 하나님의 영은 반드시 우리의 연약함을 도와주실 것이다. 그리스도께서는 우리의 희생제물과 담보물이 되셨다. 그는 우리가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도록 하시기 위하여 우리를 위해 죄가 되셨다. 당신의 이름을 믿을 때에 그는 우리에게 그의 의를 주신다. 그때에 그것은 우리 생애에 산 원칙이 된다. 그리스도께서는 우리에게 그의 죄없는 품성을 주시며 자신의 순결 가운데서 우리를 아버지 앞에 나타내신다. (상게서).

우리는 스스로 의의 옷을 장만할 수 없다. 왜냐하면 선지자는 “우리의 의는 다 더러운 옷 같으며”(사 64:6)라고 말한 까닭이다. 우리의 벌거벗은 것을 보이지 않도록 하기 위하여 영혼을 가릴만한 것이 우리 속에는 없다. 우리는 하늘의 베틀로써 짜여진 의의 옷 곧 그리스도의 흠 없는 의의 옷을 받아야만 한다. 우리는 다음과 같이 말해야 한다, “주님은 나를 위하여 돌아가셨다. 그분은 나의 영혼의 치욕을 짊어지셨다. 그것은 주님의 이름으로 내가 승리자가 되고 보좌에까지 높임을 받을 수 있게 하시기 위함이었다.” 하나님의 모든 충만으로 충만하게 되는 것이 하나님의 자녀들의 특권이다.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우리의 온갖 구하는 것이나 생각하는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실 이에게 교회 안에서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이 대대로 영원 무궁하기를 원하노라”(엡 3:20,21) (리뷰 앤드 헤럴드, 1892.7.19)

## 명백하고 구별된 길들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이가 적음이라”(마 7:13,14).

이 길들은 명백하고 구별되어 있으며 정 반대 방향으로 향하고 있다. 한 길은 영원한 죽음으로 인도하고 다른 길은 영생으로 인도한다. 한 길은 넓고 평탄하며 다른 길은 좁고 험하다. 이 길들을 여행하는 우리들도 이와 마찬가지로 끝 그들은 품성과 생애와 의복과 말이 정 반대된다. 좁은 길을 여행하는 자들은 그들의 여행이 끝나는 때에 얻게 될 즐거움에 관하여 말하고 있다. 그들은 넓은 길을 걷고 있는 우리들처럼 말하거나 행동하지 않는다. 그들은 한 모범이 주어졌다. 곧 슬픔과 질고를 아신 한 분이 그들을 위하여 길을 열어 놓으셨으며 그가 몸소 그 길을 여행하셨다. 그의 추종자들은 그의 발자취를 보고 위안과 격려를 받는다. 그는 안전하게 걸어가셨으므로 그의 추종자들이 그 발자취를 따르기만 한다면 그들도 안전하게 걸어가갈 수 있다.

넓은 길에서는 모든 사람들이 자신의 용모와 의복과 그 길에서 얻는 쾌락 등에 몰두한다. 그들은 마음 놓고 쾌락에 몰두하고 그 길 끝에 있는 분명한 멸망에 대하여는 생각하지 않는다. 매일 그들은 그들의 멸망에 접근해 가고 있다. 그러나 그들은 미친 듯이 점점 더 빨리 달려가고 있다. 그리하여 그들은 너무 늦게 사실상 아무것도 얻은 것이 없음을 깨닫게 된다. 그들은 실체가 없는 그림자를 붙잡았으나 영생을 잃어버렸다.

경건의 모양은 아무도 구원하지 못할 것이다. 모든 사람은 깊고도 산 경험을 가져야만 한다. 이것만이 우리 앞에 있는 환난의 때에 우리를 구원할 것이다. 그때에 우리의 사업은 어떤 종류에 속하였는지 시험을 받게 될 것이다. 만일 그것이 금과 은과 보석이라면 그것들은 주의 은밀한 장막 가운데 숨겨질 것이다. 그러나 우리의 사업이 나무와 풀과 덩굴이라면 아무 것이라도 우리를 여호와의 맹렬한 진노에서 보호할 수 없게 된다. 영생을 얻기 위하여 어떤 희생이나 또는 모든 희생을 즐겨 감수하고자 하는 자들은 영생을 얻게 될 것이다. 영생은 또한 그것을 위하여 고생을 당할만한 가치가 있으며 자아를 십자가에 못 박고 모든 우상을 희생시킬만한 가치가 있는 것이다.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의 중한 것이 땅의 모든 보화보다 가치가 있고 또한 세상의 온갖 유혹을 가리워 버릴 것이다. (리뷰 앤드 헤럴드, 1882.12.12)

## 어려움에 대한 도전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들어가기를 구하여도 못하는 자가 많으리라”(눅 13:24).

좁은 문은 들어가기에 어려운 문임을 의미한다. 그리스도께서는 이 예증을 통하여 남녀들이 세상과 세상이 붙들고 있는 애증들을 버리는 것이 얼마나 힘든 일이며 또한 온 마음과 사랑으로써 하나님의 계명을 순종하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것임을 보여 주셨다. 넓은 길은 들어가기가 쉽다. 그것을 통하여 들어가는 데는 인간의 마음에 쓰라림을 주는 제재가 필요치 아니하다. 넓은 길에는 극기와 자아 희생이 보이지 않는다. 거기에는 타락한 식욕과 본래 타고난 경향이 넓은 자리를 차지한다. 또한 거기에는 자아 방종과 교만과 질투와 악한 생각과 돈을 사랑함과 자기를 높이는 것들이 나타날 수 있다. (원고, 165, 1899).

그리스도께서는 “들어가기” “힘쓰라” 곧 필사적으로 노력하라고 말씀하셨다. 우리는 끊임없이 하나님께 의존하고 있음과 또한 우리 자신의 지혜와 판단과 힘은 매우 연약함을 느껴야만 한다. 그리하여 우리를 대신하여 원수를 대적하신 그분을 온전히 신뢰해야 한다. 왜냐하면 그는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시며 또한 그가 우리를 도우시지 않는다면 정복을 당하여 멸망할 것을 아시는 까닭이다. … 그대는 어떤 안일하며 평범한 노력으로써 영원한 상급을 얻을 수 있으리라 생각지 말라. 그대의 길에는 간교한 원수가 있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내 보좌에 함께 앉게 하여 주기를 내가 이기고 아버지 보좌에 함께 앉은 것과 같이 하리라”(계 3:21). 여기에 그리스도께서 승리하신 것처럼 승리해야 할 싸움이 있다. 그의 시험과 시련과 수고와 투쟁의 생애는 우리가 본받도록 하기 위하여 우리 앞에 놓여 있다. 주님의 겪으신 유혹과 시련과 고난과 투쟁의 생애는 그것을 모방하도록 우리 앞에 제시되어 있다. 우리는 자기 자신의 힘으로 노력할 수 있을지도 모르나 성공은 없다. 위대한 승리자이신 주님의 특별한 도우심 없이 행하여지는 모든 노력은 무익하며 승리는 주님의 공로에 의한 것임을 마음 깊이 느끼고 무력한 그대로 또한 고통과 필요한 가운데 반석 되신 그리스도께 떨어질 때 그리스도께서는 우리가 넘어지는 것보다는 원수의 권세로부터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모든 천사들을 보내실 것이다. (서신 1b, 1873).

우리는 길이 협착하고 문도 좁은 것을 알아야 한다. 그러나 우리가 이 좁은 문으로 들어갈 때에 그 넓은 무한하게 된다. (서신, 138, 1897)

## 뚜렷한 구별

“내가 비옵는 것은 저희를 세상에서 데려가시기를 위함이 아니요 오직 악에 빠지지 않게 보전하시기를 위함이니이다”(요 17:15).

그리스도인들은 그들의 생애 가운데 그리스도의 변화시키는 은혜의 감화를 나타내 보이면서 하나님의 깃발을 든 자들로서 세상과는 구별되어야만 한다. 그들은 세상과 천사들과 사람들 앞에 영원한 세계에 대한 항구적인 대표자로서 나타내 보이며 하늘에서 그리스도와 더불어 함께 앉기 위하여 일으킴을 받았다. 그들은 생명의 말씀을 붙들고 구속력 있는 하나님의 율법의 요구에 관하여 사람들을 경고해야만 한다. 하나님께서는 그의 종들이 높은 부류에 속하기를 원하신다. 또한 그는 그들이 세상의 율법보다도 더욱 높은 명령에서 오는 율법 곧 그의 품성의 사본인 율법을 순종하기 원하신다.

하나님의 사업은 지상(至上)의 사업이다. 그는 사람들의 지적 힘과 모든 정신적 재능을 요구하신다. 그것들은 하나님과 또한 인류를 봉사하기 위하여 바쳐져야만 한다. 그는 신성에 참여할 일꾼들을 요구하신다. 예수를 진심으로 믿는 자들은 타락치 않은 세상과 타락한 세상에 거룩한 품성과 흡사한 품성을 나타내 보이면서 그와 더불어 동역자들이 될 것이다. 그들은 세상이 부여할 수 있는 것보다 더욱 고상하며 더욱 거룩한 즐거움을 누리라는 것을 나타내 보여야만 한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성품과 재능을 계발하는 데 있어서 당신과 더불어 협력하는 모든 자들이 유리한 입장에 서도록 하시기를 위하여 그들에게 성령의 능력을 주실 것이다. … 그리스도의 추종자들은 하나님의 성령이 나누어주시는 감화력에 따라 이 세상의 도덕적 풍조를 개선하도록 구하여야 한다. 그들은 자신의 행위에 의해 그것을 높일 수가 있음을 생각하고 이 세상 수준까지 내려가서는 안된다. 말과 의복과 정신과 모든 일에 있어서 그리스도인과 세상 사람들 사이에는 뚜렷한 구별이 있어야만 한다. 이 구별은 세상 사람들을 설복시킬 수 있는 감화를 가지고 있다. 그들은 주님의 자녀들이 주님과 연결되어 세상으로부터 분리되어 있음을 알게 될 것이다. … “하나님이 주를 다시 살리셨고 또한 그의 권능으로 우리를 다시 살리시리라”(고전 6:14). 자원하여 이 최고의 수준까지 높임을 받을 자는 누구인가? (서신, 199, 1899)

## 세상에 있어서 그리스도의 대표자들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 같이 저희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였삽나이다 저희를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니이다” (요 17:16,17).

예수께서는 “내가 나를 거룩하게 하오니 이는 저희도 진리로 거룩함을 얻게 하려 함이니이다”(요 17:19) 고 말씀하셨다.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니이다.” 그렇다면 우리는 아버지의 말씀을 잘 알며 그것을 연구하고 그것을 생애에 실천할 필요가 있다. … 만일 우리가 진리를 받은 후에 우리 자신의 품성 가운데 있는 진리의 성화 시키는 힘을 세상에 나타내 보이지 않는다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가 세상 죄를 지고 가신 분이심을 부인하는 것이다. 만일 우리가 보다 더 나은 남녀가 되지 아니하며 또한 보다 더 친절함과 동정심과 예절과 자애심과 사랑으로써 충만하지 않는다면 그리고 자비의 사랑을 띠고 이 세상에 오시도록 인도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남에게 나타내지 않는다면 우리는 그리스도의 권능에 관하여 세상 사람들에게 증거하지 않고 있는 것이다.

예수께서는 자신을 기쁘게 하시려고 생애하지 않으셨다. 그는 남의 유익을 위하여 자신을 없이하는 산 희생 제물로 바치셨다. 그는 자기와 접촉하는 모든 사람들을 향상시키고 고상하게 하며 행복을 가져다주기 위하여 오시었다. 그리스도를 받아들이는 자들은 무례하고 사나우며 성품이 거친 모든 것을 다 내어버리고 예수님 안에 거하는 명랑함과 친절함을 나타낼 것인 바 이는 그리스도가 믿음으로써 그 마음속에 거하시는 까닭이다. 그리스도는 여두움에서 비추는 빛이셨다. 그러므로 그의 추종자들은 또한 세상의 빛이 되어야만 한다. 그들은 거룩한 제단으로부터 심지에 불을 붙여야만 한다. 진리로 말미암아 성화된 품성은 완전한 세련을 더하여 준다.

그리스도께서는 우리의 모범이시다. 그러나 우리가 주님을 바라보지 않고 또한 그분의 품성을 명상하지 않는 한 우리의 실제적인 생애에 주님의 품성을 반영하지 못한다. 주께서는 온유하시고 마음이 겸손하셨다. 그분은 결코 거친 행동을 하시거나 무례한 말을 하지 않으셨다. 주께서는 우리가 다른 사람들에게 대하여 거칠고 가혹하며 냉담한 태도를 취하는 것을 기뻐하지 않으신다. 이와 같은 이기주의는 모두 우리의 품성으로부터 추방하지 않으면 안된다. 그리고 그리스도의 멍에를 짊어지지 아니하면 안된다. 그 때에 우리는… 하늘 천사들과 교제하기에 적합한 사람들이 될 것이다. 우리는 이 세상에 있어야 하지만 세상에 속해서는 안된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대표자들이 되어야 한다. 생명과 영광의 주님께서 아버지를 대표하시려고 우리 세상에 오셨던 것처럼 우리는 예수님을 대표하기 위하여 세상에 나아가야 한다. (서신, 60, 1894)

## 그대는 어디에 천막을 치고 있는가?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엿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위엿 것을 생각하고 땅엿 것을 생각지 말라” (골 3:1,2).

가나안 땅 가까이에서 천막들을 쳐야만 할 많은 사람들이 애굽 가까이에서 천막을 치고 있다. 그들은 의의 태양의 빛 가운데서 생애하지 않고 있다. 많은 사람들은 기호를 만족시키기 위하여 오락장에 다니고 있다. 그러나 그렇게 함으로써 영적 힘은 얻지 못하며 또한 그대는 패배하는 편에 자신을 두고 있음을 발견케 될 것이다. 오락을 사랑하는 것에 용기를 낼 때에는 신앙적인 활동에 대한 사랑은 용기를 잃게 될 것이다. 왜냐하면 타고난 본래의 마음이 것처럼 가득할 때에는 예수님을 위한 자리가 없게 되는 까닭이다. … 하나님의 마음과 연합하기 위하여는 사랑으로 역사하고 영혼을 정결케 하는 믿음이 요구된다.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이 있으니 그들은 그리스도를 사기꾼으로 생각지 아니한다. 그들은 성경이야말로 그의 거룩한 품성의 계시임을 믿고 있다. 그들은 성경의 거룩한 교리들을 칭찬하며 또한 천하 인간에 사람이 구원받도록 주어진 유일의 이름인 그 이름을 존경한다. 그러나 이 모든 지식을 가지고도 그들은 순전한 죄인처럼 하나님의 은혜에 관하여는 전적으로 무식할 수가 있다.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모시기 위하여 마음을 열지 않는다.

내가 청년들의 유익을 위하여 무엇을 말하랴. 그대는 예수의 사랑과 자비가 그대의 심령의 방들을 채움으로써 그대의 마음에 하나님을 향하여 노래를 부르며 선율을 이루도록 그 마음을 예수님께 열지 않았는가? 오! 그대의 모든 애정이 예수님께 바쳐진다면 그대는 가나안의 언어와 노래들을 배우게 될 것이다.

세속적인 것에서 그대는 경솔하고 경박하고 공허하고 부도덕하고 희롱과 농담 등을 보게된다고 생각하지만 오히려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아난 그대의 이름이 그 가운데서 발견되지 않도록 하라. … 지금 우리는 자신의 사상을 고결하게 하고 또한 주님의 학교에서 배우기 위하여 나와야 한다.

종말이 가까움에 따라 악의 조류는 더욱 더 결정적으로 멸망을 향해 달려갈 것이다. 우리는 예수님의 손을 굳게 붙잡고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분을 바라봄으로써만 안전할 수 있다. 그분은 우리의 전능하신 조력자이시다. (리뷰 앤드 헤럴드, 1890.10.7)

## 누가 우리의 우정을 소유하는가?

“간음하는 여자들이여 세상과 벗된 것이 하나님의 원수임을 알지 못하느뇨 그런즉 누구든지 세상과 벗이 되고자 하는 자는 스스로 하나님과 원수되게 하는 것이니라” (약 4:4).

우리가 호의(好意)와 도움을 얻기 위하여 세상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을 망각하는 것보다는 주님께 가담하여 세상의 호의와 우정을 잃어버리는 것이 더욱 안전하다는 충분한 증거를 성경은 제시하고 있다.… 주께서는 친히 세속적인 사물과 또한 주께서 이 세상에서 선택하여 스스로 성결케 한 사물 사이에 분리시키는 벽을 만드셨다. 세상은 이 분리점을 인정하지 않을 것이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것을 분리하셨으므로 반드시 존속토록 할 것이다. 구약과 신약에서 주님께서는 그의 백성들이 거룩한 나라와 독특한 백성이 되어 그들을 어둠 가운데서 불러내어 기이한 빛 가운데로 들어가게 하신 자의 영광을 나타내 보이도록 하시기 위하여 정신과 직업과 행실에 있어서 세상과 구별되도록 당신의 백성들에게 확실히 명하셨다. 빛의 아들들이 습관과 행실과 정신에 있어서 흑암의 자녀들에게 먼 것은 마치 동이 서에서 먼 것보다 더욱 먼 것이다. 우리가 종말에 가까이 이름에 따라 그 구별의 선은 더욱 뚜렷하며 확실해질 것이다.… 사랑이라 불리는 요소가 있는데 그것은 우리로 하여금 우리의 친구들을 칭찬하고 아첨하며 위협에 대하여 참되게 말하지 아니하며 또한 그들의 유익을 위하여 경고하거나 권면하지 않도록 가르친다.… 이러한 사랑은 하늘에서 온 사랑이 아니다. 우리의 말과 행실은 열심이 있고 심각하되 특히 자기 영혼의 구원을 등한히 여기는 자들 앞에서 더욱 그러할 것이다.… 만일 우리가 함께 하여 경박한 쾌락을 찾아 구하거나 혹은 마음으로부터 성실함을 추방할 어떤 연구에 가담한다면 우리는 자신의 모본으로 항상 그들에게 “평안하다, 평안하다, 염려하지 말라. 그대는 경고를 받지 않아도 된다”고 계속 말하는 것이 된다. 이것은 죄인에게 “그대는 괜찮을 것이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다

만일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과 딸들이라고 공언하고 있다면 최후의 큰 심판날에 그들과 만났을 때 불신자들에 대한 이러한 태도를 취한 것에 대하여 그들의 죄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할 것이다. (리뷰 앤드 헤럴드, 1884, 1. 8).

## 하나님이나 혹은 재물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며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며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마 6:24).

그대는 한 개인으로서 그대에게는 구원하거나 혹은 잃어버릴 영혼이 있다. 노아, 욥, 다니엘이 비록 이 땅에 있을지라도 그들은 그들의 의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을 수 있을 것이다. 그대가 이것을 생각한다면 이것은 그대가 날마다 유익한 결과를 얻기 위하여 마음과 힘을 열심히 사용해야 함을 인식케 하는데 도와 줄 것이다.

세상의 숭배자들은 재물을 그들의 하나님으로 만듦과 그 외 다른 모든 것은 이것을 숭배하는데 예속시킨다. 그리스도인들은 쾌락을 사랑하는 것이나 예수 그리스도의 유익과 배치되는 모든 것에 대한 사랑을 그리스도의 유익에 예속화시켜야 하지 않겠는가? 아무 가치 없고 또한 허영심에 불과한 것에 낭비하도록 귀중한 시간이 주어진 것이 아니다. 이와 같이 함으로써 우리는 이 생에서 현재 누리는 화평과 내세에서 누릴 영원한 행복에서 떠나 자신들을 속이고 있는 것이다.… 그대의 표준은 낮게 정하지 말고 높게 정하라. 하나님의 영의 역사 하심을 없이하고자 애쓰는 사람들의 큰 원수의 편에서 결코 일하는 일이 없도록 하라. 예수 그리스도의 힘과 은혜 가운데서 주저하지 말고 굳세게 행하라.… 그대는 창조와 구속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의 소유가 되었으며 하나님의 영광은 그대 개인의 성공에 내포되어 있다.… 그대는 세상과 천사들과 사람들 앞에 구경거리가 되었다. 하나님 안에서 담대하라.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그대의 믿지 않는 아버지에게 그대의 생애가 제칠일 안식일 예수 재림교회 교인으로서 하나님의 모든 계명에 충실하고 성실하기 위하여 흠이 없는 자임을 보이라. 그대는 하나님의 결정적인 증인이 되어야 하고 하나님께서는 그대가 그렇게 되기를 바라신다. 조금이라도 의문시되는 사단의 편에서 일하지 말라. 은혜의 시간은 귀중하다. 황금과 같은 시간을 하나님께서 주신 재능을 활용하는 일에 사용하라. 그러면 그대는 주를 위해 좋은 것을 쌓고 그대 주위의 모든 사람들에게 축복이 될 것이다. 그대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 충성되고 진실함을 하늘 천사들이 보고 기뻐하게 하라. (서신, 71, 1893)

## 아들이 되는 조건

“그러므로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저희 중에서 나와서 따로 있고 부정한 것을 만지지 말라 내가 너희를 영접하여 너희에게 아버지가 되고 너희는 내게 자녀가 되리라 전능하신 주의 말씀이니라 하셨느니라” (고후 6:17,18).

그대는 지극히 높으신 자의 아들과 딸들이 되기를 원하는가? 여기에 이 위대한 특권의 조건이 진술되어 있다. 나와서 따로 있고 부정한 것을 만지지 말라. 그대는 세상과 우정을 맺고 세상의 쾌락에 참여하며 또한 세상의 유익을 추구하는데 행동을 같이 하면서 여전히 하나님의 아들이 될 수 없다. 요한은 “세상이 우리를 알지 못함은 그를 알지 못함이니라”(요일 3:1)고 말하였다. 그러나 우리들이 구원의 조건을 받아들이는 것보다 주의 원수를 유리하게 하는 저울이 더욱 무거워지도록 할 것인가?... 하나님의 아들과 딸들에 대한 기대는 자못 크다. 내가 오늘날의 청년들을 바라보는 때에 내 마음 가운데는 그들에 대한 동정심이 일어나게 된다. 그들이 진심으로 그리스도를 배우기를 노력한다면 그리스도께서는 옛날 다니엘에게 지혜를 주셨던 것처럼 그들에게 지혜를 주실 것이다. ... 청년들은 과오가 없는 하나님의 지혜로 말미암아 지도함을 받으며 그들이 소유할 수 있는 특권에 관하여 인식하도록 노력하라. ... 이 지상의 왕 앞으로 초대함을 받는 것은 큰 특권으로 생각한다. 그러나 우리에게 제공된 놀라운 특권에 관하여 생각해 보자. 우리가 하나님의 요구에 순종한다면 우주의 왕의 아들과 딸들이 될 수 있는 것이다. 십자가에 못박히시고 부활하신 구주로 말미암아 우리는 의의 열매로써 가득 채움을 받을 수 있으며 무궁한 세대를 통하여 만왕의 왕의 궁전에서 빛을 발할 자격을 얻을 수 있게 된다. 이 세상은 지극히 높으신 분의 아들과 딸들의 고귀한 위치를 모르고 있다. 그들 주위에 있는 사람들은 겸손하고 극기의 정신과 오래 참는 온유한 마음을 가지고 있는 큰 가치를 알지 못한다. 그들은 그리스도를 모르고 있으며 평가도 하지 못한다. 그들은 주님을 이해할 수 없다. 그리고 우리가 더욱 주님의 거룩한 품성을 닮으면 그럴수록 세상으로부터 오해를 받게 된다. 우리가 그리스도와 또한 하늘과 가까이 하면 그럴수록 우리는 이 세상과 가까이 하는 일이 적어진다. 왜냐하면 우리는 이 세상에 속한 사람이 아니기 때문이다. (리뷰 앤드 헤럴드, 1888.2.28)

## 세상의 쾌락을 피함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치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속에 있지 아니하니”(요일 2:15).

참된 그리스도인은 어떠한 오락장에 들어가거나 혹은 하나님의 축복을 구할 수 없는 어떠한 오락에도 참가하기를 원치 않을 것이다. 그는 극장이나 당구장이나 혹은 볼링을 하는 곳에 가지 않을 것이다. 그는 흥겨워 춤추는 자들과 연합하지 않을 것이며 또한 그리스도를 마음에서 쫓아내는 어떠한 매혹적인 쾌락에도 빠지지 않을 것이다.

이러한 오락을 사모하는 자들에게 우리가 대답하노니 우리는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그러한 오락에 몰두할 수 없다. ... 그대는 갯세마네를 생각하고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참으신 고민을 바라보라. 온 세상 죄가 그의 심령 위에 놓여졌을 때에 초인간적인 고민 가운데서 씨름하신 세상의 구세주를 바라보라.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마 26:39)라고 호소하는 모습으로 드리는 그의 기도를 들어보라. 어두움이 덮이고 그리스도께서는 십자가의 그늘에 들어가셨다. 혼자서 쓴잔을 마시지 않으면 안된다. 주께서 축복과 위로를 베푸신 땅의 자녀들의 한 사람으로서 이 두려운 흑암에 그분을 위로할 것이란 없었다. 피곤하고 연약해진 주께서는 이 재판정에서 저 재판정으로 끌려 다니셨다. 죄의 오점을 알지 못하시는 그가 갈바리 산상에서 죄인으로서 당신의 생명을 쏟아 놓으셨다. 이러한 역사는 모든 사람의 심령을 깊이 격동시켜야만 할 것이다. 하나님의 아들이 슬픔의 사람이 되고 질고를 아신 까닭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함이었다. 우리를 구속하기 위하여 이루어진 무한한 희생에 대해 언제나 기억하라. 그리하면 오락장은 그 매력을 상실하게 될 것이다.

그리스도께서는 우리의 희생제물로서 돌아가셨을 뿐 아니라 우리의 모범으로써 생애 하셨다. 주께서는 인성을 입으시고 충분하고 완전하셨으며 더러움이 없으셨다.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은 그리스도와 같이 되는 것이다. 우리의 전 존재, 곧 혼과 몸과 영이 주님의 형상을 반사하고 그분의 모본을 따른다면 순결하고 고귀하며 정결해진다. 우리가 이 일에 도움을 줄 어떤 일이나 즐거움에 대해서는 이를 추구하는 것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 그러나 우리의 관심을 돌리고 열심을 빼앗는 것과 같은 일은 무엇이든 피하지 않으면 안된다. (리뷰 앤드 헤럴드, 1882.2.28)

## 결코 시들지 않는 것으로 장식함

“너희 단장은 머리를 꾸미고 금을 차고 아름다운 옷을 입는 외모로 하지 말고 오직 마음에 숨은 사람을 온유하고 안정한 심령의 썩지 아니할 것으로 하라 이는 하나님 앞에 값진 것이니라” (벧전 3:3,4).

외모의 단장에서만 오는 매력은 천박하고 변하기 쉬운 것이다. 이와 같은 매력에는 결코 신용을 둘 수 없다. 그리스도께서 그의 추종자들에게 명하신 단장은 결코 시들지 않는 것이다. 만일 청년들이 외모를 매력 있게 하는데 바치는 시간의 절반을 심령을 배양시키고 내부를 단장하는데 바친다면 그들의 태도와 말과 행동은 얼마나 달라질 것인가! 그리스도를 따르고자 진정으로 노력하는 자들은 그들이 입는 옷에 양심의 가책을 느낄 것이다. 그들은 주님께서 것처럼 명백히 하신... 그 요구에 응하고자 노력할 것이다. (청년 지도자, 1896, 11.6).

많은 사람들이 위세를 떨치기 위하여 세상 사람들처럼 옷 입는다. 그들은 차라리 내버리는 것만도 못한 시간들을 소비하며 또한 가련하고 썩은 육체를 단장하기 위하여 이러 저러한 유행들을 연구하고 있다. 그러나 그들은 여기에서 슬프고도 치명적인 과오를 범하고 있다. 만일 그들이 구원하는 감화를 얻기 원한다면 또는 그들의 생애가 진리를 유리하게 나타내기를 원한다면 겸손한 모범이 되시는 분을 본받도록 하라. 의로운 행실로써 믿음을 나타내며 그들 자신과 세상 사이에 뚜렷한 차이점을 나타내 보이라. 그들의 말과 의복과 행동은 하나님을 위하여 말해야만 한다. 그때에 거룩한 감화는 모든 사람에게 미치게 될 것이며 또한 모든 사람들은 그들이 예수님과 함께 있었던 것을 알게 될 것이다. 또한 불신자들은 그리스도의 재림에 대한 신앙이 그들의 품성에 영향을 미치는 것을 보게 될 것이다. ... 외모는 마음을 표시하는 것이다. 마음이 진리로 말미암아 감동을 받을 때 마음은 세상에 대하여는 죽고, 세상에 대해 죽은 자는 믿지 않는 자들의 조소나 조롱이나 경멸히 여김으로 동요되는 일이 없다. 그들은 세상에서 나와 주님과 같이 되기를 충심으로 원한다. 그들은 유행이나 습관에 따르려고 하지 않는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불멸의 유산을 상속받는다고 하는 고귀한 일이 그들 앞에 전개되고 세속적인 모든 일은 무가치하게 보일 것이다. (리뷰 앤드 헤럴드, 1884, 9.9)

## 날마다의 극기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라 이는 너희의 드릴 영적 예배니라” (롬 12:1).

어찌하여 청년들이 아담의 경우에서 한 교훈을 배우지 않을 것인가? 그가 하나님의 조그마한 시험을 견디지 못하였을 때 무서운 보응이 따르게 되었다. 우리 앞에 이러한 경고의 지침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단은 많은 사람들로 자유를 부르짖게 하며 또한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요구에 대하여 것처럼 엄격하지 않을 것이라고 그들의 마음을 달래는데 힘을 쓰고 있다. ... 우리가 하늘 아버지께 드릴 수 있는 것은 최선을 다했다 하더라도 아주 작은 예물에 지나지 않는다. 하나님께 대한 우리의 빛을 생각할 때에 우리는 다 식욕과 정욕을 지성적인 의지에 복종시킬 가장 엄격한 의무아래 있다. 미각은 어떤 다른 것보다도 우리의 이해력을 흐리게 영적 세계를 어둡게 한다. 사단은 식욕의 방종을 통하여 많은 사람들의 지능을 마비시키며 또한 이 부절제한 사람들을 시험의 대상으로 삼아 순종과 거룩함의 길에서 더욱 더 멀리 떠나가게 한다. 귀중한 달란트들을 위탁받은 자들이 날마다의 극기의 필요성과 또한 승리자가 된다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깨닫지 못한다면 영생을 잃어버릴 것이다. ... 많은 사람들은 당연히 가져야 할 활력의 절반도 갖고 있지 못하다. 그들은 식욕에 실패하고 비열한 습관에 지배되고 있음으로 쇠약해져 있기 때문이다. 만일 청년들이 다니엘이나 그의 세 동무들과 같이 건강의 법칙을 굳게 지킨다고 하면 얼마나 명석한 두뇌의 소유자들이 될 것인가! 고통에서 해방되어 얼마나 쉽게 의무를 수행할 수 있을 것인가! 그들의 영적 열성은 얼마나 더 위대했을 것인가! 또한 그들은 다른 사람들에게 교훈과 모범으로 얼마나 더 많은 선을 행했을 것인가! ... 하나님께서는 그대를 위하여 모든 은혜를 풍족하게 주실 수 있다. 우리는 그의 말씀 가운데 나타난바 된 조건들에 일치하기까지는 하나님의 허락들을 주장할 권리가 없다. “너희는 저희 중에서 나와서 따로 있고 부정한 것을 만지지 말라 내가 너희를 영접하여”(고후 6:17). 그대는 이것을 행할 것인가? (원고, 6, 1878)

## 부절제를 대적하여 싸움

“포도주는 거만케 하는 것이요 독주는 떠들게 하는 것이라 무릇 이에 미혹되는 자에게는 지혜가 없느니라”(잠 20:1).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절제하는 일에 굳게 서야만 한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신앙의 청년보다 이 목적을 더욱 잘 이룩하고 효과 있게 할 수 있는 부류의 사람들은 달리 없다. 이 시대에 있어서 도시의 젊은이들은 이기적이며 건강을 해치는 여러 종류의 방종을 대적하는 부싷돌과 같이 확고하고 단호한 군대 속에 연합해야만 한다. 그들이 선을 위하여 얼마나 큰 힘을 낼 수 있겠는가! 그들은 청년들을 꺾이는 음악과 매력적인 모든 것으로 가득찬 “홀”이나 유원지 등을 출입함으로 타락하게 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구원할 수 있겠는가! 부절제와 방탕과 불경(不敬)은 서로 밀접한 관계가 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모든 청년들은 투구를 입고 일선으로 전진하라. 모든 서약서에 그대의 이름을 기록하라. … 절제 서약서에 그대의 이름을 기록하지 않기 위하여 미미하고 보잘것없는 핑계를 말하지 말라. … 아담과 하와는 부절제한 식욕을 통하여 에덴을 잃어버렸다. 우리가 하나님의 낙원을 얻고자하면 모든 일에 절제해야만 한다. 한잔의 술이나 혹은 거품을 뿜는 한잔의 맥주를 거절할 때에 부끄러워 얼굴이 붉어질 것인가? 이것이 수치스러운 일이 되는 대신에 그들은 식욕에 방종하기를 거절하고 또한 유혹을 대항함으로써 하나님께 봉사하고 있는 것이다. 천사들은 시험하는 자와 시험 당하는 자를 바라보고 있다. 죄란 떼뺄수 없는 것이므로 식욕의 방종은 연약하며 겁이 많으며 가치를 떨어뜨리는 것이다. 그러나 식욕을 극복함은 존경을 받을만한 것이다. 하늘의 주민들은 유혹하는 자와 유혹 당하는 자 사이에 전개되고 있는 투쟁을 주시하고 있다. 만일 유혹을 당하는 자가 그 시험에서 돌이켜 예수님의 권능으로 승리한다면 천사들은 기뻐하고 사단은 그 투쟁에서 실패할 것이다. … 그리스도의 큰 투쟁이 식욕의 문제에 있었다는 것을 이해하는 모든 사람들은 부절제를 초래하는 일점 일획이라도 피할 것이다.

예수께서는 우리를 위하여 고통스러운 금식에 견디셨다. 그리고 여러 시험에 있어서 사단에 승리하셨다. 그것은 주께서 인간의 대치물과 담보물로써 이 큰 시험에 승리하심으로 말미암아 그 능력을 인간에게 주시고 인간 자신이 승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었다. (리뷰 앤드 헤럴드, 1887.4.19)

## 그리스도인의 경쟁

“운동장에서 달음질하는 자들이 다 달아날지라도 오직 상 얻는 자는 하나인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너희도 얻도록 이와 같이 달음질하라 이기기를 다투는 자마다 모든 일에 절제하나니 저희는 썩을 면류관을 얻고자 하되 우리는 썩지 아니할 것을 얻고자 하노라”(고전 9:24,25).

여기서 사도 바울은 자칭 그리스도인이라 하는 자들이 성공적인 승리를 이룩할 태세 가운데서 극기하며 엄격히 절제하지 아니함과 또한 자아방종을 사모하는 그들의 미미한 노력을 날카롭게 비교하면서 그것을 부끄럽게 하고 있다. 일반적인 “게임”에 이름을 올린 모든 사람들은 그들이 성공한다면 상을 얻으리라는 희망으로 활기를 얻으며 자극을 받게 된다. 이와 같은 방법으로 그리스도인 앞에는 한상이 놓여져 있는데 이것은 경쟁이 끝나는 때에 충실한 자들에게 주어질 보상이다. … 많은 사람이 경주하나 상을 받는 사람은 단 한사람뿐이다. 썩어질 월계관을 얻기 위하여 투쟁하는 세상 사람들은 그들이 아무리 철저하게 준비했고 또한 그들의 노력이 아무리 확고했다 하더라도 실패할 운명에 처해 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의 경쟁은 이와 같지 아니하다. … 가장 강한 성도는 물론 가장 약한 성도라 할지라도 그리스도를 위하여 열성을 가지며 빈곤과 손실을 당한다면 썩지 않을 영광의 면류관을 얻을 수 있다. … 우리가 자연법칙에 어긋나는 식욕을 조작해내어 조그마한 범위 안에서라도 그 식욕에 방종 한다면 우리는 자연법칙을 어기게 되므로 육체와 정신과 도덕적 상태가 쇠약해지는 결과를 초래케 될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자연법칙에 충실하였더라면 능히 이룩할 수 있었던 꾸준하고 정력적이며 희망으로 가득 찬 노작(勞作)을 얻을 자격이 없게 될 것이다. 우리가 육체의 한 기관이라도 해하면 하나님께 돌릴 수 있는 봉사를 당신에게서 빼앗고 마는 것이다.

사도는 고대 경기의 승리를 쟁취하기 위하여 노력했던 사람들의 주의 깊음과 근면성에 우리의 관심을 돌리게 한다. 그는 그리스도인 경기에 임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경기의 마지막까지 충실한 자에게는 의의 심판자가 보상으로서 의의 면류관을 주신다는 것을 말하고 그들을 격려하며 승리할 수 있도록 근면할 것을 권하고 있다. 이 면류관은 결국 시들어 없어질 꽃의 화관이 아니고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그리스도인 면류관 경기를 완성한 자에게 주어지는 영원한 생명이라고 하는 영광의 면류관이다. (리뷰 앤드 헤럴드, 1881.10.18)

## 믿는 자들의 모범

“모든 사람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 우리를 양육하시되 경건치 않은 것과 이 세상 정욕을 다 버리고 근신함과 의로움과 경건함으로 이 세상에 살고”(딤후 2:11,12).

우리가 영생을 유업으로 받고자 한다면 행하여야 할 지대한 일이 있다. 우리는 경건하지 못함과 세속적인 정욕을 버리고 의의 생애를 살아야 한다.… 예수님 이외에는 우리를 위한 구원이 없다. 왜냐하면 우리가 그를 믿음으로써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권세를 받는 까닭이다. 그러나 그것은 단순한 일시적인 믿음이 아니요 그리스도의 사업을 행하는 믿음이다.… 산 믿음은 하나님의 사업에 대하여 희생과 헌신의 정신을 발휘함으로 나타나게 된다. 그것을 소유한 자들은 임마누엘 왕의 깃발아래 서서 흑암의 권세를 대적하고 성공적인 싸움을 전개할 것이다. 그들은 그들의 대장이 명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행하고자 준비하고 있다. 각 사람은 “오직 말과 행실과 사랑과 믿음과 정절에 대하여 믿는 자에게 본이 되”(딤후 4:12)라는 권면을 받았다. 왜냐하면 우리는 그리스도의 품성을 나타내며 그의 영을 나타내는 가운데 현대의 이 악한 세상에서 “근신함과 의로움과 경건함으로 살”아야 하는 까닭이다.… 예수님과 연결된 자들은 만물의 창조주이시며 만물을 붙들고 계시는 그분과 더불어 연합하게 된다. 그들은 세상이 주거나 빼앗아갈 수 없는 힘을 소유하였다. 그러나 이처럼 위대하고 고상한 특권들이 그들에게 주어졌다하여 그 축복들 가운데서 단순히 기뻐할 것만이 아니다. 하나님이 각양 은혜에 대한 청지기로서 그들은 남에게 축복이 되어야만 한다.… 그들은 다른 사람들을 하나님의 말씀의 빛으로 이끌 수 있는 감화를 발휘해야만 한다.… 우리는 형제들을 지키는 자들이다.… 만일 우리가 예수님의 참된 신자라면 우리는 영광에서 광선을 모으고 우리 주위에 있는 사람들의 어두운 길에 빛을 발할 것이다. 우리는 구주의 탁월한 품성을 나타내고 많은 사람은 우리의 감화로 말미암아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양”(요 1:29)께 이끌리게 될 것이다. (리뷰 앤드 헤럴드, 1888.3.6)

## 하나님의 친 백성

“그가 우리를 대신하여 자신을 주심은 모든 불법에서 우리를 구속하시고 우리를 깨끗하게 하사 선한 일에 열심하는 친 백성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딤후 2:14).

일반 종교단체로부터 하나님이 백성들을 특별히 구별하는 것은 단순히 그들이 부르짖는 것만이 아니요 그들의 모범적인 품성과 이기심 없는 사랑의 원칙들이다. 우리의 심령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영의 힘있고 정결케 하는 감화를 우리가 말과 행실로 실천에 옮긴다면 그들은 세상에서 분리될 것이며 또한 그들은 하나님의 친 백성이라는 일컬음을 받게 될 것이다. 그리스도의 추종자들의 품성과 성질은 주님과 같이 될 것이다. 그는 그리스도인들의 본보기로 주어진 거룩하고 완전한 모본이시다.… 의인들에게 요구된 극기와 겸비와 절제는… 이 타락한 세대에 살고 있는 백성들의 낭비하고 건강을 해치는 습관들과 대조를 이루고 있다. 하나님께서는 건강개혁이 마치 우리의 손이 몸에 연결된 것처럼 셋째천사의 기별과 더불어 밀접히 연결된 것임을 보여주셨다. 이 중요한 문제를 등한시하는 것만큼 육체와 도덕적 타락의 큰 원인이 되는 것은 없다.… 누구든지 먹고 옷 입는 일에 있어서 도덕적인 의무를 어기는 자들은 영원한 이익에 관한 하나님의 요구를 어기는 길을 준비하고 있는 것이다. 우리의 몸은 우리의 것이 아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몸을 거룩한 산 제사로 드려 가납되도록 하기 위하여 우리에게 주신 거처를 돌보라고 요구 하신다. 우리의 몸은 그것을 지은 분에게 속하였으며 또한 우리는 당신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거처가 찌지 않게 보존되는 가장 좋은 방법들에 관해서 알아야 할 의무를 지고 있다. 만일 우리가 자만과 식욕에 방종하고 또한 세상에 동조하기 위하여 건강을 해치는 것과 같은 유행의 옷을 입고 몸을 약하게 한다면 하나님의 원수가 된다.

하나님께서서는 우리에게 주신 은혜를 따라 우리에게 요구하신다. 우리가 책임을 다하기 위해서는 우리에게 주어진 거룩하고 존귀한 질서와 향상시키는 진리 위에 서지 않으면 안된다. (리뷰 앤드 헤럴드, 1886.5.18)

## 용감하게 구별되라!

“이는 너희가 흠이 없고 순전하여 어그러지고 거스리는 세대 가운데서 하나님의 흠 없는 자녀로 세상에서 그들 가운데 빛들로 나타내며”(빌 2:15).

각 사람은 그리스도와 자신을 위하여 세상과 세상의 풍습과 허영과 유행을 따르는 것을 피하도록 하라. 주의 거룩한 계명을 흐리게 하는 인간의 계명들을 삼가라. 쾌락을 사랑하는 자들은 언제나 불만 가운데서 끊임없이 무도장이나 극장이나 혹은 오락 “파티”에서 오는 흥분을 얻기 위하여 사모하고 있다. 영원한 세상을 위하여 준비하도록 하나님께서 주신 그 시간들을 허다한 사람들은 소설의 이야기들을 정독하는데 소비한다. 하나님께서 주신 지능은 악용되고 하나님의 말씀은 등한시되며 마음과 심령은 단점과 오류의 습관과 행습들을 대적해서 싸우는데 필요 되는 도덕적인 힘을 빼앗기게 되는 바 그것이 그 영혼으로 하여금 그리스도의 임재 하심에 대한 기쁨을 얻을만한 자격을 갖지 못하게 한다. … “내 영혼은 어떠한가? 나는 습관과 행습으로 나의 구주를 대적해서 일하고 있지는 않는가?”라고 심각하고도 열렬한 관심을 가지고 질문해 보라. “나는 그리스도께 영광을 돌리고 있는가? 불순종하며 어그러진 세대를 향해 내가 예수님을 위하여 비난을 받고자 선택하였다는 것을 나타내 보이는가?”고 질문해 보라. … 그리스도의 추종자라 자처하는 자들이 목표를 높이 세우고 거룩함의 표준에 도달할 것인가? 평범하고 값싸며 말로만 부르짖는 그리스도인 보다는 세상 사람이 더욱 낫다. 그대는 세상에서 용감히 나아와 그들과 구별 되라. 그대는 세상에서도 그리스도를 사랑하고 있기 때문에 다른 사람과는 다르다는 것과 세상의 부귀를 위해서 불순종하기보다는 용감하게 의를 위해서 핍박을 받는 편으로 따로 서라. 주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함으로 말미암는 거룩하고 온전한 순종은 그 영혼으로 하여금 믿음과 복음의 소망 가운데서 견고하여지도록 힘을 줄 것이다.

예수께서는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 것도 할 수 없음이라”(요 15:5)고 말씀하셨다. 그리스도와의 결합은 죄에 승리하는 유일한 수단이다. 그리스도 안에 살고 그리스도로부터 떠나지 않고 그리스도에 의존하고 그리스도로부터 영양분을 공급받고 있을 때 우리는 그리스도와 같은 열매를 맺는다. 우리는 그분 안에서 살고 또한 움직인다. 우리는 주님과 하나가 되고 아버지와 하나가 된다. 그리스도의 이름은 하나님을 믿는 자녀들에게 있어서 영화롭게 된다. 이것이 성경의 종교이다. (서신, 82, 1895)

## 제한이 없는 특권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좇지 아니하며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시 1:1).

주의 축복을 받는 자들은 크게 은총을 입는 것이다. … 그렇다면 그대는 악인들을 친구로 선택하지 않도록 하라. 왜냐하면 그들은 그대로 하여금 하나님을 슬프게 하며 또한 그대가 그의 축복들을 받을 수 없게 하는 바로 그러한 일들을 행하도록 그대에게 감화를 주는 까닭이다. … 어느 누구나 이러한 길 가운데서 악한 일을 행하도록 충고하는 자에게 마음과 정신을 열어 놓는다면 그때에 그들은 악인의 꾀를 좇는 것이다. … 그들은 죄인들의 길에서 있는 것이다. … 그다음 계단에서는 그들이 자기도 모르게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아 있는 것을 발견할 것이다. … 자비와 사랑과 평화의 기별은 조롱을 받게 되고 이 부류의 사람과 접촉하는 자들은 그들과 같이 하나님의 자비를 멸시하는 자들이 될 것이다. 악을 행하는 한 청년의 감화가 얼마나 널리 퍼지며 사단의 손안에서 그는 악을 위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귀를 기울이게 되고 또한 그가 얼마나 많은 슬픔과 비애와 근심을 가져올 수 있는지를 깨닫는다면 놀라게 될 것이다. …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허락된 특권은 제한이 없다. 타락하지 않은 하늘과 땅의 세계를 통치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와 연결되고 마음으로 경외하고 입술로 찬양하게 될 것이다. 또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주님의 이름을 갖고 주님의 가족의 일원이 되고 임마누엘 대왕, 왕 중 왕, 주의 주의 깃발아래 서게 될 것이다. 주님의 말씀은 최고의 지적 존재자들에 의해 지켜진다. … 예수님을 위하여 행해진 가장 천한 봉사라 할지라도 그것은 죽을 수 밖에 없는 인간이 누릴 수 있는 가장 큰 영예이다. 순결하고 거룩한 천사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순종하였거든 하물며 우리들이 속임을 받아 사단을 봉사할 것인가? 우리가 예수님의 요구를 순종하기를 거절할 것인가? 우리에게 대하여 개인적으로 다음과 같은 말이 발해지지 않을 것인가? “오직 여호와와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 다 저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시절을 좇아 과실을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 행사가 다 형통하리로다”(청년 지도자, 1886.10.26)

## 예수님과 더불어 즐겁게 동행함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시므로 세상에 있지 아니하였더라”(창 5:24).

에녹은 도덕적 힘이 매우 약한 부패한 세대에 살았다. 그의 주위는 더러움으로 만연하였으나 그는 하나님과 더불어 동행하였다. 그는 마음을 하나님께 바치도록 교육하고 순결하고 거룩한 사물들을 생각하였다. 그러므로 그는 거룩하고 신성한 사물에 관하여 이야기 하였다. 그는 하나님의 동료가 되었다.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 그의 권면을 받았다. 그는 우리와 마찬가지로 우리가 만나는 동일한 시험들과 더불어 싸우지 않으면 안되었다. 그를 둘러싸던 사회는 현재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사회보다 더 의롭지 못하였다. 그가 숨을 쉬는 분위기는 우리의 분위기와 마찬가지로 죄와 부패로 더럽혀져 있었다. 그러나 그는 그가 살았던 세대의 만연된 죄로 인하여 더럽혀지지 않았다. 그러므로 우리들도 충실한 에녹이 행한 것처럼 순결하고 부패되지 않은 채 남아 있을 수 있다. (리뷰 앤드 헤럴드, 1881.8.23).

우리는 악이 성행하는 시대에 살고 있다. 마지막 날의 위험들은 우리를 질게 둘러싸고 있으며 또한 악한 것이 성하므로 많은 사람들의 사랑은 식어가고 있다. … 시간이 짧다고 하는 것은 우리가 의를 구하고 그리스도를 친구로 하는 자극이 된다. 그러나 그것은 훌륭한 동기는 되지 못한다. 이기주의가 팽배하다. 하나님의 날의 공포가 우리를 바른 행위로 이끌 것인가? 그렇게 되어서는 안된다. 그는 사랑, 긍휼, 동정에 충만하시다. 주께서는 인생의 험악한 길을 함께 동행하는 친구가 되시겠다고 말씀하신다. 주님께서는 그대에게 말씀하신다. 나는 여호와 너의 하나님이라. 나와 함께 동행하라. 나는 그대에게 빛을 비추리라. 하늘의 존엄자 예수께서는 무거운 짐과 연약함과 근심을 가지고 당신께 나아오는 자들을 당신의 친구로 삼겠다고 제안하신다. 그는 그들을 그의 사랑하는 자녀로 삼으실 것이며 드디어 그들에게는 열왕들의 제국보다 더욱 가치 있는 기업과 또는 세상에서 가장 높임을 받는 군주의 이마에 놓여졌던 것보다 더욱 부요한 영광의 면류관, 제국의 여러 부요함보다도 더욱 값진 부(富)의 유산을 주실 것이다. … 우리가 사는 매일의 생애에 있어서 그리스도와 더불어 침착하고 친밀하며 행복스럽게 동행하는 것은 우리의 특권이다. (리뷰 앤드 헤럴드, 1881.8.2)

## 값을 계산하라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코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와 복음을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제 목숨을 바꾸겠느냐”(막 8:35-37).

주 예수께서는… 그의 음성을 발하사 인간의 마음을 매혹하고 있는 애정을 깨치시고 중대한 질문을 발하시었다.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이 세상에는 질병과 사망이 있으므로 우리 각자의 은혜의 기간이 언제 끝날는지 우리는 거의 아무 것도 알지 못한다. … 만일 지금 당장에 계산하라는 부르심을 받는다면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의 시간을 온전히 자신을 섬기는 데만 사용했기 때문에 얼마나 많은 사람이 슬픔과 후회와 비탄으로 그 계산을 하게 될 것인가? 그 영혼의 영원한 유익은 세상의 대수롭지 않은 일로 인하여 무섭게도 등한시 되어 왔다. 우리 마음은 사단이 계획한 그대로 이기적인 유익을 추구하며 또한 전혀 중요하지 않은 일에 분주하므로 하늘을 위하여는 조금도 자력을 갖추지 못한 채 시간은 영원히 흘러갈 수 있다.

사람의 영혼을 잃어버리는 것을 무엇과 비교할 수 있겠는가? 이것은 영생의 보화를 얻든지 혹은 하나님과 그의 의를 첫째 일로 삼기를 등한시 한 까닭에 모든 것을 잃어 버리든지 모든 영혼이 결정해야 할 문제이다. 세상의 구세주이신 예수님은 그리스도인이 되었다고 자처하나 당신을 섬기지 아니하고 자신들만을 섬기는 많은 사람들을 슬픔으로 바라보신다. 그들은 분산되지 않은 애정으로 당신을 섬기는 충실한 자들을 기다리고 있는 풍성한 상급에 주의를 기울이라는 예수님의 부르심에도 불구하고 영원한 실체에 관하여 좀처럼 생각지 않는다. 그분은 충실히 순종하는 추종자들이 되기 위하여 지불할 대가를 배우도록 명하시며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마 6:24)리라고 말씀하셨다.

주께서는 각 사람에게 이 세상에서 자기의 귀한 시간을 사용해서 매일이 선행을 위한 충실한 날이 되기를 요구하신다. 이것이 결국 죽을 운명에 처한 인간이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신 능력을 무한대로 사용해서 성취해야 할 가치 있는 유일한 목표이다. (원고, 45, 1890)

## 모든 우상을 버리라

“예수께서 홀로 계실 때에 함께 한 사람들이 열 두 제자로 더불어 그 비유들을 묻자오니”(막 4:10).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있게 말지니라”(출 20:3).… 하나님의 존재를 부인하거나 혹은 나무나 돌로 된 우상에게 절함으로써만이 첫째 계명을 범하는 것이 아니다. 그리스도의 추종자가 되었다고 자처하는 많은 사람들로 말미암아 계명의 원칙들이 범해지고 있다. 그러나 하늘에 계신 주님께서서는 마음 가운데 하나님만이 차지해야 할 자리를 어떤 다른 것이 차지하도록 하는 자들은 당신의 자녀로 인정하지 않으신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식욕을 만족시키는 것이 으뜸이 되고 있으며 또 다른 사람에게 있어서는 의복과 세상을 사랑하는 것이 마음의 첫 자리를 차지하고 있다.… 하나님께서는 현세에 있어서 우리의 애정을 둘 만한 많은 것들을 우리에게 주셨으나 우리가 합법적인 범위를 벗어날 때에는 우상 숭배자들이 되는 것이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애정을 분리시키며 또한 영원한 사물에 있어서 우리의 흥미를 감소시키는 것은 어떤 것이라도 그것은 우상이 되는 것이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귀중한 시간 곧 무한한 값으로 사신 바 된 그 시간을 사용하는 우리가 남에게 보이기 위하여 집을 단장하고 세상의 유행과 풍습을 따라간다면 자신의 영혼에서 영적 양식을 빼앗는 것뿐만 아니라 하나님께 마땅히 바쳐야 할 것을 바치지 않는 것이 된다. 이와 같이 이기적인 욕망을 만족시키기 위하여 소비되는 시간은 하나님의 말씀의 지식을 얻고 우리의 달란트를 계발하는데 있어서 사용될 수 있다. 이와 같이 함으로써 우리는 조물주께 지적인 봉사를 드릴 수 있는 것이다.… 하나님께서는 두 마음을 가진 사람들에게는 아무것도 주지 않으신다. 우리의 관심이 세상에 있는 것에만 향한다면 그분께서는 우리를 다스리실 수가 없으시다. 만일 이것이 하나님께 대한 우리의 헌신을 저하시킨다면 그것은 그분이 보시기에 우상인 것이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요 4:24). 우리 마음이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뿐만 아니라 우리의 생애로 우리의 창조주를 찬양하도록 돌이키게 된다면 우리는 하늘과 교통하면서 살게 될 것이다.… 공중 예배 때는 물론 마음과 가정과 개인 속에 감사가 넘칠 것이다. 이것이 하나님께 대한 참된 예배를 구성하는 것이다. (청년 지도자, 1896.12.31)

## 인류라는 직물 가운데 있는 실

“가령 사람이 집을 떠나 타국으로 갈 때에 그 종들에게 권한을 주어 각각 사무를 맡기며 문지기에게 깨어 있으라 명함과 같으니”(막 13:34).

하나님께서 광야에 성막을 지으라고 명하셨을 때에 각 사람의 일이 할당되었다.… 성막을 치고 걷는데 있어서 또는 광야에서 성막을 이곳으로부터 저곳으로 옮기는데 있어서 각 사람이 맡은 위치가 명백히 명세 되어 있었다.

그리스도께서는 백만명 이상이나 되는 부대의 보이지 않는 대장이시었다. 거기에는 되는데로 행하는 일이란 아무것도 없었으며 무질서한 움직임도 없었다. 각 자에게 맡겨진 의무가 수행되기 위하여는 질서와 민활함과 정확함이 요구되었다. 이것은 교회에게 중요한 교훈이었으며 또한 이 큰 사업에 있어서 한 몫을 담당하기 위하여 하나님에게서 선택함을 받은 모든 사람에게 중요한 교훈이었다. 아무도 다른 사람의 일을 행하도록 요구되지 않았다. 각자는 자기에게 할당된 사업을 정확하고 성실하게 행해야만 하였다. 광야의 여행에 있어서 그 큰 교회의 운영 방법은 지상 역사가 끝날 때까지 또는 우리가 하늘 가나안을 소유할 때까지 이 교회의 운영 방법이 됨을 상징한다.… 주님께서서는 모든 부류의 재간 있는 일꾼들을 필요로 하신다. “그가 혹은 사도로, 혹은 선지자로, 혹은 복음 전하는 자로, 혹은 목사와 교사로 주셨으니 이는 성도를 온전케 하며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엡 4:11,12).… 일꾼들이 하나님께 헌신할 때에 그들은 보이지 않으며 기록하신 가장 큰 일꾼(예수님)아래서 일하는 그들의 형제들을 위하여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낼 것이다. “우리는 하나님의 동역자들이요”(고전 3:9)우리는 하나 하나의 실로 짜여져서 전체가 되는 인류라는 거대한 직물의 각 부분이다.…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기 위한 하나님의 실이 되라. 그대는 그대자신을 결코 조종할 수 없다. (서신, 86a, 1893)

## 하나님의 선물을 가지고 장사함

“각각 그 재능대로 하나에게는 금 다섯 달란트를, 하나에게는 두 달란트를, 하나에게는 한 달란트를 주고 떠났더니”(마 25:15).

달란트의 비유는... 이성의 힘을 소유한 모든 남자와 여자와 어린아이들에게 개인적으로 적용된다. 그대의 의무와 책임은 하나님께서 그대에게 부여하신 달란트와 비례된다. ... 집 주인이 그의 종들을 불러서 각자에게 할 일을 주었다. 하나님의 온 가족은 주의 재물을 사용하는 책임 하에 놓여 있다. 가장 낮은 자와 가장 비천한 자로부터 가장 높은 자와 가장 위대한 자에 이르기까지 모든 사람들은 도덕적인 인간으로 하나님께 돌려야 할 재능들을 부여받았다. ... 영적, 정신적, 육체적 재능과 감화와 신분과 재산과 애정과 동정심, 이 모든 것들은 주님의 사업에 있어서 사용 되어야 할 귀중한 달란트들이다. ... 실업가들은 그의 충실성으로 인하여 예수님을 영화롭게 할 방법으로 사업을 행하라. 그가 행하는 모든 일에 있어서 그의 신앙을 실천하며 사람들에게 그리스도의 영을 나타내라. 기계 기술자들은 “유대” 도성에 있어서 보잘 것 없는 직업으로 수고하신 부지런하고 충성된 그분의 대표자가 되라.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사람은 사람들이 그의 착한 행실을 보고 조물주와 구주께 영광을 돌리게 되도록 행하라. ... 보다 더 탁월한 달란트로 복을 받은 자들은 그들 자신보다 달란트를 덜 받은 자들의 봉사의 가치를 과소평가하지 말라. 가장 적은 위탁물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위탁하신 것이다.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 사용된 하나의 달란트는 두 배가 되고 그리스도의 봉사에 사용된 두 개의 달란트는 네 배로 증가한다. 이와 같이 가장 천한 그릇도 유력하고 유용한 자로 성장한다. 열렬한 노력과 극기의 정신은 하나님께서 인정하시고 평가하시며 받으시는 바 된다. 하나님만이 봉사의 가치를 평가할 수 있으며 조물주를 영화롭게 하기 위하여 일하는 자의 널리 미치는 감화를 보실 수 있다. (리뷰 앤드 헤럴드, 1888. 5. 1)

## 작은 일에 대한 신앙

“그 주인이 이르되 잘 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네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으매 내가 많은 것으로 네게 맡기리니 네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하고”(마 25:23).

그리스도께서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된 자는 큰 것에도 충성되고 지극히 작은 것에 불의한 자는 큰 것에도 불의하니라”(눅 16:10)고 말씀하셨다. 어떤 이들은 작은 일에 있어서는 것처럼 매우 엄격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하나 이것은 사단의 기만이다.

이기심은 모든 공정치 못함과 충실성이 부족한 것의 근원이 되고 있다. ... 진리를 믿는다고 공언하는 많은 청년에게 있어서 허영심과 교만과 방탕과 부주의는 그들로 앞뒤를 헤아리지 못하게 하며 또한 이 세상에서 고상하고 높은 생애를 위한 자격을 갖추지 못하게 하며 내세에 있어서 미래의 생활을 위하여 자격을 얻지 못하게 한다. ... 그들은 값이 지불된 시간을 주의깊이 사용하지 않는다. 시간을 낭비하거나 혹은 그것을 최대한도로 사용하지 않는 자들은 하나님에게서 도둑질하는 것이다. 어떤 이들은... 돈이나 시간에 대하여 무관심하고 부주의하는 것을 찬성하는 견해를 가지고 있으나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것들을 바른 견해로 고찰하시는 바 곧 그것을 속임수로 여겨 이에 대하여 그는 보응하실 것이다.

시간과 달란트와 재간은 사용되어야만 하며 최대한으로 이용되어야만 한다. ... 각 사람은 무한하신 자의 눈이 자기를 쳐다보는 것처럼 원칙에 참여해야 한다. 청년 남녀들이여, 그대들은 열렬한 노력과 단호한 의지를 하나님의 은혜에 결합시킴으로 말미암아 방종에 지배되지 않도록 그것에 대항할 수가 있다. ... 그리스도께서는 완전한 모범을 인간에게 주셨다. 그러나 그들이 자유주의라고 부르는 것에 마음을 둔다면 적은 일에 부주의한 자가 되고 유일의 참된 모범되시는 그리스도의 모범으로부터 돌아설 것이다. 청년 남녀들이여, 그대들은 더욱 그리스도의 생애를 세밀히, 기도하면서 배우지 않겠는가? 그리스도의 생애를 그대들의 기준과 표준으로 하지 않겠는가? (원고 6, 1878).

경험적인 신앙은 매일의 생애의 비천한 의무 가운데 실천되어야 하며 이 의무들을 수행하는데 있어서 그대는 심판대에 능히 설 수 있는 품성을 형성하고 있는 것이다. 그렇다면 그대가 어떠한 위치에 놓일지라도 또는 그대의 의무가 무엇이든 온 하늘은 그대의 일을 주목하고 있음을 인식하면서 그것들을 고상하고 충성되게 행하라. (청년 지도자, 1897.1.28)

## 계산하는 날

“무릇 있는 자는 받아 풍족하게 되고 없는 자는 그 있는 것까지 빼앗기리라” (마 25:29)

만일 달란트들이 잘 이용된다면 그 달란트들은 증가될 것이다. “무릇 있는 자는 받아 풍족하게 되고”... 만일 하늘이 부여한 선물들이 하나님께서 위탁한 자본으로서 평가되지 아니하고 이용되지 않는다면, 만일 그것들이 세속적인 일에 또는 이기심 가운데서 파묻혀 버린다면 인간을 축복할 수 있는 이 능력들은 감소될 것이며 또한 하늘에 계신 하나님은 이 귀중한 모든 것들을 부여하신 근원으로서 사람들이 찾지도 아니하며 영화롭게도 하지 않는 까닭에 수치를 당하시게 되어 그가 공급하던 것을 끊어버리시게 된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 가운데서 증가되고 자라나기 위하여 우리는 인간의 노력으로 육체적, 지적 능력들을 사용해야만 한다. (리뷰 앤드 헤럴드, 1887. 4. 12).

달란트를 쌓아둠으로 녹슬게 하고 사용하지 않고 이용하지 않는 자들은 이러한 행동이 조금이라도 의무에서 그들을 벗어나게 해준다고 생각해서는 안 된다. 왜냐하면 우리가 그리스도와 더불어 멍에를 메고 그의 짐을 지며 날마다 그의 온유와 겸손을 더욱 배운다면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선을 행할 능력을 주실 것이기 때문이다. 우리의 달란트를 파묻는 것은 우리의 책임을 감소시키는 대신에 우리의 의무를 증가시키고 심각하게 할뿐이다.

사람들은 계산하는 날이 우리들의 바로 앞에 놓여 있다는 것과 또한 우리의 영원한 운명이 어떻게 될 것인가를 날마다 결정하고 있다는 엄숙한 사실을 생각해야 한다. 주님께서는 당신이 위탁한 달란트에 대하여 개인적으로 거래하시면서 모든 사람의 입장을 조사하신다. 계산의 엄숙한 날에 많은 사람은 안색을 잃게 될 것이다. 그 날에 많은 사람은 영원한 운명이 어떻게 될까? 곧 “그대를 저울에 달아 보니 부족함이 보였다”는 말을 듣게 될 것이다. 원장(元帳)이 그 큰 날에 열려졌을 때 “부족함이 보였다”는 말은 두려운 것이다. 그 날에 선언된 결정으로 말미암아 모든 영혼의 장래, 영원에 관한 것이 결정된다. 우리는 말할 수 없는 기쁨 아니면 말할 수 없는 고통과 슬픔을 갖게 될 것이다. 예수님은 참된 일꾼에게 상급을 주시려고 하신다. 충성되게 행해진 의무는 주님의 축복을 받는다. 주께서는 “잘 하였도다”고 하는 축복의 말씀을 하실 것이다. (원고, 13, 1899)

## 우리의 선물들을 활용함

“나는 모든 사람이 나와 같기를 원하노라 그러나 각각 하나님께 받은 자기의 은사가 있으니 하나는 이러하고 하나는 저러하니라” (고전 7:7).

하나님께서서는 그의 청지기에게 돈 이상의 것을 주신다. 그대가 나누어주는 달란트는 선물이다. 그대의 말과 부드러운 동정심 가운데서 그대는 하나님의 선물들을 어떻게 전달하고 있는가?... 진리의 지식은 하나의 달란트이다. 그대가 말하는 참되고 진실한 말로 인하여 개발될 수 있는 많은 영혼들이 흑암 가운데 놓여있다. 동정심에 굶주린 마음들이 있는데 그들은 하나님에게서 떠나 멸망하고 있다. 그대의 동정심은 그들을 도울 수 있다. 주님께서서는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지배를 받는 그대의 말을 필요로 하고 계시다.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행하여야 할 첫째 일은 사랑으로 역사 하는 믿음을 가지며 이기심의 모든 실오라기로부터 영혼을 정결케하기 위하여 가장 열렬한 기도로써 성경을 상고하는 것이다. 만일 진리가 마음에 받아들여진다면 그것은 마치 좋은 누룩과 같아서 모든 능력이 하나님의 뜻에 복종될 때까지 일할 것이다. 그때에 그대는 태양이 빛을 발하지 않을 수 없음 같이 빛을 발할 것이다... 모든 선천적인 선물은 귀하게 위탁된 것으로서 정결해지지 않으면 안된다. 그것들은 하나님께 바쳐져야 한다. 그렇게 되면 그것들은 주님을 위해 봉사할 수가 있다. 모든 사회적인 이점(利点)도 달란트이다. 그것들은 자기쾌락이나 오락이나 혹은 자만을 위해 사용되어서는 안된다. 올바른 모본의 선물은 큰 것이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영혼을 해로운 분위기에 싸이게 한다... 언어와 지식과 동정과 사랑의 선물들은 그리스도에 관한 지식을 전달한다. 이 모든 선물들은 하나님께 바쳐져야만 한다. 주님께서서는 그것들을 필요로 하시며 그것들을 요구하신다. 모든 사람들은 자신의 영혼을 준비시키며 다른 사람들로 하여금 그들의 달란트를 하나님께 재 헌신하도록 하기 위하여 한 몫을 행해야만 한다. 모든 영혼과 모든 선물은 하나님께 바쳐져야 한다. 모든 사람은 영혼을 구원하는 사업에 하나님과 더불어 협력하여야만 한다. 그대가 소유하고 있는 달란트는 그대가 그리스도와 더불어 유능한 동역자가 되게 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다. (리뷰 앤드 헤럴드 부록, 1898. 6. 21)

## 의의 병기

“또한 너희 지체를 불의의 병기로 죄에게 드리지 말고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산 자 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너의 지체를 의의 병기로 하나님께 드리라”(롬 6:13).

주님께서는 그대가 사용하도록 달란트를 주셨는데 이 달란트들을 주께서 사용하시도록 뜻하신 그대로 사용하였다면 그대는 그의 사업을 이해하리 만큼 능란한 솜씨와 지혜와 명철한 영적 통찰력을 증진시킬 수 있었을 것이다. 그대의 마음과 눈은 그리스도의 나타나심에 대하여 감시해야만 하며 그대의 귀는 그의 음성의 가장 작은 속삭임까지라도 들을 수 있도록 열려져야만 한다. 주께서 그대의 무릎을 만드셨으니 기도할 때 그 무릎을 사용하라. 그는 그대의 힘이다. 믿음으로 보이지 않는 분을 붙들라. 그대의 발은 그의 계명들을 순종하기 위하여 달음박질 하도록 복음의 예비한 것으로 신을 신게 하라. 그대의 혀와 음성은 그리스도의 생애와 교훈과 사망과 부활과 승천에 관한 이야기를 말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그대에게 주신 달란트이다. 그대의 육체적 힘은 “기록하였으되”라는 말로써 원수들을 정복하면서 전쟁터에서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는데 주님께 바쳐져야만 한다. 그대의 동정과 정력은 하나님께 속하였다. 그대의 구주를 영화롭게 하기 위하여 그것들을 사용하라. … 그대가 홀로 있지 않다는 그 생각을 배양하라. 주님께서는 그대의 모든 발자취를 감시하신다. 그대는 언제나 깨어 있는 천사들에 의하여 둘러 싸여 있다. … 천사들이 야곱에게 수종 하였던 것처럼 그들은 분명히 주의 겸비하고 통회하는 모든 자에게 수종들 것이다.

보다 높이 도달하라. 믿음에서 믿음으로 전진하라. 하나님과 가련한 놀림을 받고 있는 자를 사랑하고 같이 걷고 같이 일하라. 주께서는 그대를 돕는 자가 되실 것이다. “또 가라사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사자들이 인자 위에 오르락 내리락하는 것을 보리라 하시니라”(요 1:51). 예수, 귀하신 구주, 하나님의 독생자께서는 하늘과 땅을 연결시키는 사다리이다. 주님의 신성은 하나님의 보좌를 붙드시고 그분의 인성은 땅에 내디디셨다. 그분의 인성의 팔은 전 인류를 안고 계시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사랑과 위로, 책망과 빛에 의한 천사의 봉사는 우리에게 도달하고 있다.

오! 주님께 감사하라. 이는 그가 선택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다. (서신, 152, 1896)

## 주님께서 사용하시도록 하기 위하여

“큰 집에는 금과 은의 그릇이 있을 뿐 아니요 나무와 질그릇도 있어 귀히 쓰는 것도 있고 천히 쓰는 것도 있나니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런 것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귀히 쓰는 그릇이 되어 거룩하고 주인의 쓰심에 합당하며 모든 선한 일에 예비함이 되리라”(딤후 2:20,21).

주께서는 모든 사람에게 할 일을 주셨다. 그는 모든 사람에게 그의 재능에 따라서 일을 주셨으며 또한 그가 위탁 받은 것은 그의 역량에 비례한다. … 아무도 주님을 위하여 사용할 수 있는 보다 더 큰 달란트를 갖지 못했기 때문에 슬퍼하지 말라. … 꾸준한 인내심을 가지고 일하라 나아가라. 그리고 남이 어떠한 일을 하든지 상관할 것 없이 그대의 최선을 다하라. “우리 각인이 자기 일을 하나님께 직고하리라”(롬 14:12). 그대의 생각과 말은 “오! 내가 더욱 큰 일을 하였으면 얼마나 좋을까! 내가 이러 저러한 위치에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라고 하지 않도록 하라. 그대가 있는 곳에서 의무를 수행하라. 그대의 사업이 하나님 앞에서 가장 귀하게 여겨질 바로 그 장소에서 그대에게 위탁된 선물을 가지고 가능한 한 최선을 다하여 투자하라. … 남의 달란트를 부러워하지 말라. 왜냐하면 그렇게 함으로써 선하거나 혹은 위대한 사업을 행하는데 있어서 그대의 재능을 증가시키지 못할 것이다. 온유와 겸손과 신뢰하는 믿음 가운데서 그대의 선물을 사용하라. 그리고 계산하는 날까지 기다리라. 그대는 슬퍼하거나 혹은 부끄러워할 이유를 찾지 못할 것이다. … 오늘의 의무가 충성을 나타낼 만큼 행해지지 않았다고 하여 무엇인가 큰 일을 하려고 갈망하지 말라. 평범한 마음으로 행하라. 그리고 그대의 책임이 엄숙한 것임을 생각하고 하나님께서 그대에게 부여하신 사상을 바르게 갖기 위하여 변변치 못한 재능을 사용하라. 하나님께서는 가장 뛰어난 자에게도 가장 비천한 자에게도 요구하신다. 각자는 그리스도의 선물의 분량에 따라 즐거운 마음으로 그의 지정된 일을 해야 한다. … 하나님의 교회는 같지 않은 재능들을 가진 사람들로 구성되었다. 면(面)이 다른 여러 그릇들과 마찬가지로 우리는 주님의 집 가운데 놓여진 바 되었다. 그러나 보다 작은 그릇들은 보다 큰 그릇들이 담는 모든 것들을 다 담도록 되어 있지 못하다. 모든 그릇은 그 그릇에 따라 채워질 만큼만이 요구된다. 그대가 그대의 길에 놓인 의무들을 충실히 이행한다면 받으실만한 종 곧 귀히 쓰이는 그릇이 될 것이다. (리뷰 앤드 헤럴드, 1888.5.1)

## 그대가 있는 곳에서 일하라

“저희에게 이르되 너희도 포도원에 들어가라 내가 너희에게 상당하게 주리라 하니 저희가 가고”(마 20:4)

이 세상에서는 추수장에 나아가서 샅을 받을 것으로 기대함이 없이 일할 자들이 반드시 있을 것이다. 이러한 자들은 내세에서 풍성한 보상을 받게 될 것이다. 활동하지 않으므로 달란트들을 녹슬게 하는 남녀들이 있는데... 그들은 그들이 있는 바로 그곳에서 일을 수락하여 최선을 다함으로써 가장 귀중한 사업을 행할 수 있는 자들이다. 그들은 개인 곧 그들의 이웃들에게 개인적인 도움을 줄 수 있다... 주님께서서는 우리에게 위탁하신 달란트에 대해서 우리가 사용한 것을 조사하실 것이다. 그는 각 사람이 하나님과 더불어 동역자로서 그들의 자원하는 봉사를 받기 위하여 자신의 피값을 지불하셨으며 극기와 희생과 고난을 당하셨다. 만일 모든 사람이 그들에게 위탁된 달란트의 선물들을 지혜롭게 사용해야 할 하나님께 대한 책임을 느끼기만 한다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얼마나 훌륭한 수입이 하나님께 드러질 것인가? 한 달란트라도 사용하므로 증가될 수 있고 또한 증가될 것이다. 가장 미천하다고 생각되는 선물, 즉 가장 천한 봉사일지라도 사람들의 마음에 접근하여 보다 큰 달란트를 가진 자들이 접촉할 수 없는 그러한 자들의 마음에 감화를 일으킬 수 있다.

지금이야말로 일하기 위하여 가장 좋은 시간이다. 개인적인 방문은 매우 가치가 있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사랑, 인간의 영혼에 대한 사랑 때문에 진리를 각 가정에 가져가서 접근이 가능한 사람들에게 화롯가에서 이야기하라... 성령은 일군이심을 명심하라. 하나님을 위하여 일하는 인간 대리자는 홀로 있는 것이 아니다... 인내하며 친절과 동정과 기도하는 마음으로 일하라. 그렇게 하면 사랑은 설교 이상의 일을 할 것이다. 죄의 저주로부터 세상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당신 자신의 생명을 주신 주 예수께서는 우리 눈이 아직까지 본 일도 없었던 큰 것을 계획하고 계시다. 성령께서는 그가 들어가 일할 통로를 기다리고 계시다... 사단은 결코 승리할 수 없다. 그릇들이 받아들이 준비가 되자마자 하나님의 신은 교회에 부여될 것이다. (서신, 171, 1897)

##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됨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된 자는 큰 것에도 충성되고 지극히 작은 것에 불의한 자는 큰 것에도 불의하니라”(눅 16:10).

하나님께 대한 활동적인 봉사는 그 일이 아무리 미천하다 할지라도 생애의 평범한 의무와 더불어 직접적으로 연결되어 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두신 바로 그곳에서 그를 위해 봉사하여야만 한다. 하나님께서 우리들 각자를 배치하는 것이요 우리들 스스로 하는 것이 아니다. 언제나 그렇지는 않을지라도 얼마동안 우리의 일은 가정에서 봉사하는 것이 될지도 모른다. 그때에는 우리가 주를 봉사하는 일에 최선을 다하기 위하여 그 일을 위한 준비를 해야만 한다.

주님께서서는 우리가 어떠한 종류의 재목들 곧 속성들을 우리의 품성 건설에 가져가는지를 보시기 위하여 우리를 시험하고 계시다. 만일 매일의 작은 의무에 있어서 우리가 맥이 풀리거나 무관심하거나 게으르거나 나태하다면 우리는 하나님을 위하여 어떤 다른 봉사사업을 위하여도 결코 자격을 갖추지 않게 될 것이다... 작은 것에 불의한 자는 믿음직한 보다 더 높은 지위에 놓여 보다 더 큰 책임들이 주어진다 할지라도 분명히 이러한 불의를 되풀이하게 될 것이다... 하나님께 대한 봉사는 무모한 방법으로 행해질 것이다... 작은 것에 대한 중요성은 단순히 그것들이 작은 까닭에 업신여김을 받으나 그러나 선이나 혹은 악에 대한 작은 감화는 지대한 것이다. 그 작은 것들은 모든 인류를 위하여 생애의 실제적인 훈련의 대부분을 공급해 준다. 그것들은 우리에게 위탁된 모든 달란트들을 하나님께 성별케 하는데 있어서 영혼을 훈련시키는 일부분인 것이다. 의무를 수행하는데 있어서 작은 일에 충성하는 것은 하나님의 봉사 사업 가운데서 그 일꾼으로 하여금 그리스도의 형상을 더욱 더 반사하도록 하는 것이다.

우리 구주께서는 전 인격을 완전케 하시는 구주이시다. 그분은 그 일부분만의 하나님이 아니시다. 그리스도의 은혜는 인간의 전 인격의 구성을 위해 역사한다. 그분은 모든 것을 만드셨다. 그리고 모든 것을 구속하셨다. 주께서는 신성에 참여하는 영혼은 물론, 마음과 힘과 몸도 만드셨다. 그리고 그 모든 것은 대가를 지불하고 사신 바 된 것이다. 그분은 마음과 뜻과 영과 힘을 다해 섬김을 받으셔야 한다. 그 때에 주께서는 당신의 성도들이 접촉하는 세속적인 일에서라도 영광을 받으실 것이다. 그들에게는 “여호와께 성결”이라는 이름이 기록될 것이다. (청년 지도자, 1898.4.14)

## 게으름뱅이를 위한 자리가 없음

“여호와와 사자의 말씀에 메로스를 저주하라 너희가 거듭 거듭 그 거민을 저주할 것은 그들이 와서 여호와를 돕지 아니하며 여호와를 도와 용사를 치지 아니함이니라 하시도다”(삿 5:23).

하나님과 더불어 관련을 맺은 모든 사람들은 일선에 가서 그들의 깃발을 나타내 보여야 할 때가 아닌가? 도움이 필요되고 있는 때에 남녀들이 뒤로 물러나서 아무 흥미나 열성이나 열렬한 노력을 나타내 보이지 않고 있는 것이 드러나고 있는가? 자동차가 무거운 짐을 끌 때에는 그때야말로 모든 사람이 바퀴에 어깨를 대고 그것을 밀어야 할 때이요 멍하니 서서 명령만 하거나 혹은 그들의 방법과 이상대로 행하지 않는 까닭에 그 차를 밀고자 애쓰는 자들을 욕하거나 또한 그들이 행하는 모든 일을 비평해서는 안된다. … 각자는 온 힘을 다해서 그 차를 움직이기 위하여 자기의 정도에 알맞은 범위 내에서 최선을 다하도록 해야 한다. … 만일 주께서 그리스도인이라 주장하는 어떤 사람들이 다른 사람들을 취급하듯이 우리를 취급하신다면 우리는 쓰라리고 곤란한 처지에 놓이게 될 것이 틀림없다. 만일 그분이 이기적이며 과오를 저지르며 혹은 마음이 구부러진 자들이 상호간 바라보고 취급하듯이 우리를 취급하신다면 우리는 어찌될 것인가? 그러나 나는 주님께서 사람이 아니심을 인하여 기뻐하는 바이다. 그는 우리의 구부러진 길들과 이기심과 당신에게서 이탈함과 품성의 결함들을 참으시며 우리가 그의 사랑과 돌보심과 축복을 받도록 하기 위하여 우리를 가르쳐 주시고자 하시며 또한 당신 앞에 올바른 자세로 인도하기 위하여 자비와 용기와 경고와 책망과 교정의 기별을 계속적으로 보내신다. … 우리들 각자는 주님을 위하여 할 일이 있다. 우리는 이 일을 하려고 하고 있는가? 자아를 버리고 헌신적인 관심을 갖고 주님을 위해 또한 주님의 사업을 전진시키기 위하여 일하려고 하는가? 나는 주님의 뜻을 이루고 발을 저는 자가 길에서 벗어나지 않도록 내 발을 곧은 길로 걷도록 결심하고 있다. 영적 절름발이들이 너무도 많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업에 대한 지식과 경험을 가진 자가 그들 곁에 있어 그들을 데려다 주기를 하나님께서는 원하지 않으신다. 그들은 스스로 사람을 돕는 자가 되어야 하고 하늘 아버지의 뜻을 이루므로 영적으로 강한 자가 되어야 하며 오히려 옆에서 발을 저는 자를 도와주어야 한다. … 우리는 축복을 받고 또한 다른 사람을 축복하기 위하여 결심과 적극성을 갖고 두뇌를 써서 힘껏 일해야 한다. (서신, 30, 1888)

## 충심으로 여호와를 섬기라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주께 하듯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라 이는 유업의 상을 주께 받을 줄 앞이니 너희는 주 그리스도를 섬기느니라”(골 3:23,24).

주께서는 육체적 힘을 요구하시는 바 그대는 행하여야 할 필요성이 있는 바로 그 일을 행하는 가운데 그대의 육체적 힘을 올바르게 사용함으로 주께 대한 그대의 사랑을 나타낼 수 있다.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외모로 보시지 않으신다. … 가장 미친한 종류의 일에도 과학이 있는바 만일 모든 사람이 이같이 생각한다면 그들은 노동 가운데 있는 숭고함을 볼 것이다. 어떤 종류의 일에도 마음과 심령을 기울여야 한다. 그 때에야 기쁨과 효율이 있게 된다. 농업에 종사하는 자들은 정신적 기능은 물론 육체적 힘에 대한 하나님의 선물을 감사하고 있다는 증거를 보일 수 있다. 교육받은 재능들은 사업에 대한 개선된 방법을 고안하는데 사용하도록 하라. 이것이 바로 주께서 원하시는 것이다. 수행하여야 할 필요성이 있는 모든 종류의 일에는 존귀함이 있다. … “네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신 것이요”(막 12:30). 하나님께서는 마음의 봉사와 심령의 봉사와 육체적 힘의 봉사가 가운데서 사랑이 표현되기를 바라신다. 우리는 하나님을 위한 어떠한 종류의 봉사사업에 있어서도 난쟁이가 되어서는 안된다. 그가 우리에게 무엇을 빌려 주셨던 간에 우리는 이 모든 것을 그분을 위하여 지혜 있게 사용해야만 한다. … 노작이나 건축이나 혹은 다른 어떤 분야에 있어서도 일꾼의 수고가 헛되지 않도록 최선의 방법을 계획하기 위하여 지력과 잘 교육받은 능력이 필요하다. … 단순히 힘만 바칠 뿐 아니라 그가 착수한 일에 마음과 지능을 바치는 것이 모든 일꾼들의 의무이다. … 그대는 자신을 훈련하고 개선하려고 하지 않기 때문에 그릇된 행동을 몇 번이고 반복할 수 있다. 그러나 반대로 최선의 봉사를 하기 위하여 그대의 능력을 개발하고 어떤 장소에서도 모든 곳에서 그대가 사람들이 필요로 하는 인물이 될 수도 있다. 그대는 그 정도의 가치가 있다고 평가 받을 것이다. “무릇 네 손이 일을 당하는 대로 힘을 다하여 할지어다”(전 9:10).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롬 12:11) (성경주석 5권, 1112)

## 남의 짐을 나누어 지라

“만일 형제나 자매가 헐벗고 일용할 양식이 없는데 너희 중에 누구든지 그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더웁게 하라, 배 부르게 하라 하며 그 몸에 쓸것을 주지 아니하면 무슨 이익이 있으리요”(약 2:15,16).

가난한 자와 고난 당하는 자에 대하여 조금이라도 의무를 등한시하는 것은 그의 성도로서 그리스도께 대하여 의무를 등한시하는 것이다. 모든 사람의 사건이 하나님 앞에 전개될 때에 그들이 무엇을 공언했는가라고 질문할 것이 아니요 그들이 무엇을 행하였는가 또는 그들이 성경 말씀대로 행하였는가 그렇지 않으면 자신들을 위하여 행하였는가 혹은 자신들보다 남을 더욱 사랑하며 남을 축복하기 위하여 자신들을 부인하는 가운데 자선 사업과 친절 한 행위를 하였는가라고 질문할 것이다. 만일 그들이 이와 같이 생애 하였고 그들의 품성은 친절하며 극기와 자선심을 가졌다는 것이 기록상으로 나타난다면 그들은 “잘하였도다”라는 복스러운 보증과 칭찬의 말씀을 그리스도에게서 듣게 될 것이다. … 우리의 영적 힘과 축복은 사랑으로 하는 수고와 또는 우리가 행하는 선한 사업과 비례될 것이다. 사도는 “너희가 짐을 서로 지라 그리하여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라”(갈 6:2)고 가르쳤다.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것은 우리에게 선행, 자아 부정, 자기희생, 타인의 유익을 위한 헌신을 요구한다. 우리의 선행만이 우리를 구원할 수는 없지만, 선행 없이 우리는 분명히 구원받을 수 없다. 우리가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행한 후에 우리는 “마땅히 해야 할 의무를 했을 뿐 기껏해야 무익한 중이요, 하나님의 지극히 작은 은총도 받을 자격이 없는 자”라고 말할 것이다. 그리스도는 우리의 의가 되셔야 한다. … 우리 주위에는 심령의 굶주린 자들이 있으며 말과 행동 가운데 표현된 사랑을 갈급하는 자들이 있다. 친절함 동정 또는 남을 위한 친절함 관심에 대한 참된 감각은 우리가 과거에 결코 경험하지 못했던 축복들을 우리의 심령에 가져다 줄 것이며 또한 우리로 하여금 신을 행하기 위하여 이 세상에 오신 구주와 더불어 밀접한 관계를 맺도록 도와줄 것이다. 우리는 예수님의 생애를 모방해야만 한다. 우리는 그리스도를 위해서 무엇을 하고 있는가? (리뷰 앤드 헤럴드, 1886.7.13)

## 하늘의 아름다운 음악

“임금이 대답하여 가라사대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하시고”(마 25:40).

그리스도께서는 구속받은 백성들에게 다음과 같이 말씀하십니다. “그 때에 임금이 그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 복 받을 자들이여 나와와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하라 내가 주릴 때에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에 마시게 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에 영접하였고 벗었을 때에 옷을 입혔고 병들었을 때에 돌아보았고 옥에 갇혔을 때에 와서 보았느니라”(마 25:34-36).

기도와 권면과 말은 값싼 열매들로서 이것들은 종종 엮어 매인 바 되어 자라나지 못하나 선한 행실과 가난한 자와 고아와 과부를 돌보는 일에 나타난바 된 열매들은 참된 열매들로서 자연적으로 좋은 나무에서 자라난다. … 우리의 마음이 실망과 근심으로 눌린 바 된 사람들의 마음들을 동정할 때에 또는 우리의 손을 가난한 사람을 향해 내밀고 벗은 자를 입히며 낫선 사람을 향해 내밀고 벗은 자를 입히며 낫선 사람을 환영하여 그대의 화롯가와 그대의 마음속에 앉힐 때에 천사들은 그대에게 매우 가까이 오게 되며 이에 응답하는 선율이 하늘에서 반응될 것이다. 공의와 자비와 자애심에 대한 모든 행동은 하늘의 아름다운 음악을 울리게 한다. 보좌에 앉으신 아버지께서는 그들을 바라보시고 그들을 그의 가장 귀중한 보화로 여기실 것이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내가… 그들로 나의 특별한 소유를 삼을 것이요.” … 우리 하늘 아버지께서는 우리의 행로에 외관상 불행처럼 보이는 축복들을 놓아 두신다. 그러나 어떤 사람들은 그들의 향락을 감소시킬까 두려워 그것들과 상관하지 않을 것이다. 천사들은 우리가 선행을 할 수 있는 범위에서 기회를 포착하는 여부를 보려고 기다리고 우리가 다른 사람을 복되게 하는 것을 보면 우리에게 다시 축복을 돌려 주려고 기다리고 있다. 주님께서 친히 우리를 다르게 만드셨다 어떤 이는 가난하고, 혹 부하고, 혹 고통을 당하고 그래서 모두가 품성을 개발하도록 하셨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목적이 있기에 가난한 자를 우리 중에 두셨다. 우리가 시험을 받고, 입증 받고, 우리 마음에 있는 바를 개발시키도록 하셨다.

가난한 자와 고통 당하는 자를 위하여 행해진 모든 자비의 행실은 그것이 마치 예수님 자신에게 행한 것처럼 여겨진다. 그대가 가난한 자를 구원하고 고난 당하는 자와 눌린 자들을 동정하며 고아에게 친구가 될 때에 그대는 예수님과 더불어 한층 더 가까운 관계에 들어가는 것이다. (리뷰 앤드 헤럴드, 1886.4.20)

## 빛과 축복의 통로

“저희가 베드로와 요한이 기탄없이 말함을 보고 그 본래 학문 없는 범인으로 알았다가 이상히 여기며 또 그 전에 예수와 함께 있던 줄도 알고”(행 4:13).

세상은 하나님의 진리의 아름다움과 우아함과 선량함과 거룩함을 볼 수 없다. 사람들이 그것을 이해하기 위하여는 세상으로 통하는 한 통로가 있어야만 한다. 구주께서는 교회를 그 통로로 제정하셨다. 그리스도께서는 우리가 남에게 당신을 나타내도록 하기 위하여 자신을 우리에게 나타내셨다. 그리스도인이 되었다고 주장하는 자들이 그리스도의 말씀에 유의한다면 그들과 접촉하는 모든 자들은 그들이 예수님과 함께 있었고 예수님에게서 배웠다는 것을 시인할 것이다. 속죄의 피에 대한 단순한 믿음이 나의 영혼을 구원할 수 있다. 그리고 요한과 함께 나는 세상 죄를 지고가는 하나님의 어린양께 모든 관심을 두어야 한다. 예수님이 나를 구원해 주셨으니 비록 내게는 주님께 드릴 아무 것도 없지만 다음과 같이 말할 수는 있다. “내 손에는 가지고 갈 아무 대가도 없습니다. 다만 주님의 십자가에 매달릴 뿐이옵니다.” 죄인은 전심으로 구주를 찾지 않았을지라도 구주께서는 그를 찾고 계셨던 것이다. 우리는 다음과 같은 복된 보증의 말씀을 주장할 수 있다. “내가 네 허물을 뻔뻔한 구름이 사라짐 같이 네 죄를… 도말하였으니”(사 44:22).

“저의 많은 죄가 사하여졌도다”(눅 7:47). 하나님의 사랑의 햇빛은 얼마나 귀중하고 얼마나 신성한가? 죄인은 죄로 인하여 더럽혀진 그의 생애를 바라보고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롬 5:20)라고 말하게 된다. 회복자 되시는 그리스도께서는 우리의 심령 속에 생명에 대한 새로운 원칙을 심으셨는바 그 식물은 자라나서 열매를 맺고 있다. 그리스도의 은혜는 죄를 용서해주는 것은 물론 사람을 정결하게 하며 또한 사람들로 거룩한 하늘을 위한 자격을 갖추게 한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분량의 남녀가 될 때까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지식 가운데서 자라나야만 한다. 오! 하나님께서 우리 앞에 세우신 높은 표준에 모두 도달하여 믿음의 생애에 있어서 이 이상 난쟁이로 남아있지 않았으면 얼마나 좋겠는가! (리뷰 앤드 헤럴드, 1891.7.14)

## 그리스도의 초청의 말씀을 반복해야 함

“성령과 신부가 말씀하시기를 오라 하시는도다 듣는 자도 오라 할 것이요 목마른 자도 올 것이요 또 원하는 자는 값없이 생명수를 받으라 하시더라”(계 22:17).

예수께서는 “듣는 자도 오라”고 말씀하신다. …

통회하는 마음을 가진 자들은 하늘의 기별을 받아들일 것이며 천사의 말을 할 것이다. 이것이 바로 거룩한 초청의 말씀을 들은 모든 사람이 할 일이다. 예수께서는 우리 모든 사람에게 하시는 그 말씀을 들은 모든 사람이 할 일이다. 예수께서는 우리 모든 사람에게 하시는 그 말씀을 사마리아 여인에게도 말씀하셨다. “네가 만일 하나님의 선물과 또 내게 물좀 달라 하는 이가 누구인줄 알았다면 네가 그에게 구하였을 것이요 그가 생수를 내게 주었으리라… 나의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요 4:10-14).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신 말씀은 그 말씀을 믿는 자들로 말미암아 반복되어야만 한다. 참된 믿음을 가진 자들은 흑암 가운데 있는 영혼들을 위하여 일함으로써 그 믿음을 증거로 삼을 것이다. 그들은 경고와 권면의 말을 하며 또한 이 세상 골짜기의 낮은 냇물에서 갈증을 없이하고자 애쓰는 자들에게 레바논의 찬물을 가리킬 것이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피뎀은 깃발아래 모인 군사들을 일하러 나가도록 부르신다. 그는 그의 사자들이 멸망하는 자들에게 접근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거룩한 권능으로써 옷 입히신다. (서신, 84, 1895).

그리스도께서는 죄 많은 인생과 고통 당하는 세상을 위하여 샘을 열어 놓으셨다. 거룩한 자비의 음성이 들린다. “목마른 자들아 다 이리로 와서 마시라.” 그대들은 생명수를 값없이 마실 수 있다. 듣는 자도 오라 할 것이요 원하는 자는 누구나 다 오라고 하라. 남녀를 불문하고 모든 영혼이 이 기별을 울리게 하라. 그리하면 이 일은 이 땅의 황무지로 퍼져 나갈 것이다. 성경 말씀은 성취될 것이다. 그 날에 여호와께서 골짜기들에 샘들을 여실 것이다. “사막에 강들이 생기고 “기쁨으로 구원의 우물에서 물을” 긴게 될 것이다. (사 41:18; 43:19,20; 12:3) (교회증언 6권, 86).

산 증언의 사슬은 이 세상에 하나님의 초청을 전달해 주어야 한다. 그대는 이 위대한 사업에서 그대의 몫을 행하겠는가? (문서전도봉사, 18)

## 다함이 없는 창고

“이는 저희로 마음에 위안을 받고 사랑 안에서 연합하여 원만한 이해의 모든 부요에 이르러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를 깨닫게 하려 함이라 그 안에 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춰여 있느니라”(골 2:2,3).

그리스도께서는 “아버지께 있는 것은 다 내 것이 라”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니라”(요 16:15; 10:30)고 말씀하셨다. “내 아버지께서 나라를 내게 맡기신 것 같이 나도 너희에게 맡겨”(눅 22:29). 주 예수께서는 당신의 머리 위에 거룩한 면류관을 쓰시면서 통치하고 다스리는 자의 안도감과 보증을 가지고서 하나님의 영원한 보좌를 붙드신다. 그는 하나님의 오른편에 앉으사 하나님으로서 세상이 창조되기 전에 그가 가지셨던 영광과 또는 최고의 존경을 받으신다. 그는 믿음으로 당신의 선물을 요구하는 모든 자에게 그것들을 나누어 주신다. … 우리는 구원의 하나님 안에서 다함이 없는 창고 곧 바다처럼 넓은 사랑을 가지고 있다. 그는 하늘 자원의 모든 보화를 그리스도의 손안에 두시고서 “이 모든 것은 사람을 위하여 있으며 또한 타락하고 죄가 많은 사람에게 나의 사랑에 관하여 깨닫게 하여 나는 사람의 행복을 위하여 일하며 또 계속 일할 것이다”고 말씀하신다. 사람의 행복은 하나님을 아는 것이며 또한 그가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다. 모든 선한 것에 대한 이 거대한 보물 창고를 사람들이 사용하도록 하기 위하여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셨다. 그는 구원의 선물에 당신의 피를 친히 뿌리셨다. … 예수를 우리의 세상에 보내신 그 선물이야말로 하나님 자신도 그 이상 능가할 수 없는 당신의 은혜의 표현이다. … 그러나 하나님께서 하실 수 없는 것 한가지가 있는데 그것은 곧 타락한 인간을 위하여 당신의 사랑을 나타냄에 있어서 그의 선물의 위대함을 무색(無色)하게 하는 힘이다. …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에 오셔서 스스로 낮추시고 우리 가운데 사시고 인간이 그분을 볼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그분의 영광을 감추셨다고 하는 그리스도의 생애에 대해 우리가 알고 있는 역사는 변하지 않았다. … 예수님의 모든 행위에 그분의 가르치신 모든 교훈에 우리는 하나님을 보고 듣고 인정해야 한다. 보고 듣고 느끼는 가운데 그것은 아버지의 음성이요 태도이다.

그러나 말은 그것을 표현하기에 너무도 빈약하다. 나는 다만 요한과 더불어 “보라 아버지께서 어떠한 사랑을 우리에게 주사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얻게 하셨는고”라고 외친다. (서신, 84, 1895)

## 그리스도는 우리의 기별임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 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음이라”(고전 2:2).

우리 기별의 중심은 예수 그리스도의 사명과 생애가 되어야만 한다. 교만한 자들과 이기적인 마음을 가진 자들이 그들 자신과 우리의 모범 되시는 분 사이의 차이점을 보고 겸비하게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의 비애와 극기와 온유와 겸손에 관하여 깊이 생각해야 한다. … 인간의 언어가 묘사할 수 있는 한 하나님의 아들의 비애를 묘사해 보라. 그리고 그가 아버지와 함께 가지셨던 빛과 영광의 보좌를 인성과 바꾸시는 것을 그대가 바라볼 때에라도 아직 “크라이막스”에 도달했다고 생각지 말라. 그는 하늘에서 이 땅으로 내려오셨으며 또한 이 땅에 계신 동안 타락한 인류의 대리자로서 하나님의 저주를 받으셨다. 그는 이렇게 할 의무가 없었다. 그는 인간이 초래한 하나님의 진노를 받기로 선택하셨다. … 그는 잔인한 조롱과 냉소와 채찍과 십자가에 못박히심을 견디기로 선택하셨다. … “그는 죽기까지 순종하셨다.” 그러나 그의 죽으심의 방법이 온 우주에 놀라움을 주었다. 왜냐하면 그것은 십자가의 죽음이었기 때문이다.

그리스도께서는 치욕과 수치에 관해서 무감각하셨던 것은 아니었다. 그는 그 모든 것을 가장 쓰라리게 느끼셨다. 그의 성품은 그가 위하여 고난을 받은 죄가 많은 인류의 성품보다 더욱 고상하고 순결하고 거룩하기 때문에 우리가 아픈 것을 느낄 수 있는 것보다 더욱 깊고 날카롭게 그 쓰라림을 느끼셨다. 그는 하늘의 존엄자이셨으며 아버지와 동등이셨으며 천군의 사령관이셨다. 그러나 그는 어떤 사람보다도 치욕과 비난으로 옷입혀진 사망을 우리 인류를 위하여 당하셨다. 오! 그들이 구속의 의미를 알고 예수님의 온유하고 겸비하심을 배우기를 바란다! …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갖고 계신 주님의 선물은 하나님의 자녀들을 위해 저장되어 있다. 선물은 구주의 고귀한 희생으로 우리에게 주어졌기 때문에 그렇게 귀하고 그 선물은 마음의 가장 깊은 곳에 있는 소원을 채우고 영원히 영속되며 어린아이처럼 하나님께 나오는 모든 자들에게 주어지고 기뻐할 수 있는 것이다. (리뷰 앤드 헤럴드, 1888, 9.11)

## 신성의 충만함

“내가 또 들으니 하늘 위에와 땅 위에와 땅 아래와 바다 위에와 또 그 가운데 모든 만물이 가로되 보좌에 앉으신 이와 어린양에게 찬송과 존귀와 영광과 능력을 세세토록 돌릴찌어다 하니”(계 5:13).

요한은 밧모섬에서 하나님께서 백성들에게 보여 주기를 원하시는 것들을 보았다. 여기에 우리가 평상할 가치가 있는 한 주제가 있다. 여기에 크고도 포괄적인 교훈들이 있는데 이것으로 말하면 온 천군들이 지금 사람에게 전달하고자 노력하고 있는 것이다. 무한한 지혜, 무한한 사랑, 무한한 공의, 무한한 자비, 이것들은 얼마나 깊고 높고 길고 넓은 것인가! 그리스도의 생애와 품성과 중보의 사업을 나타내기 위하여 헤아릴 수 없는 펜들이 사용되어 왔으나 아직도 성령께서 역사 하는 모든 사람의 마음에는 이 주제들이 인간의 마음과 정신에 일치된 가운데서 선명하고도 새롭게 나타나고 있다. 주 예수께서는 그가 보내실 성령은 당신의 말씀을 받아들이도록 준비된 자의 마음에 그 말씀이 기억나게 하시겠다고 약속하셨다. 그가 부활하신 후에 그들이 성경을 이해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그는 그들의 두뇌를 열으셨다. 그때까지 제자들은 그것을 이해하지 못하였는데 이는 랍비의 유전의 쓰레기가 그들의 눈으로부터 진리를 가리운 까닭이었다.

진리는 받아들이기만 하면 거기에는 끊임없이 팽창함과 새롭게 발전하는 힘이 있다. 우리가 진리를 바라볼 때에 그것은 점점 더 광명해 질 것이요 또한 우리가 그것을 붙잡고자 열망할 때에 그것은 높고 깊게 자라날 것이다. 이와 같이 진리는 우리를 완전함의 표준에까지 향상시키며 또한 우리 앞에 놓인 사업을 위하여 하나님을 우리의 힘으로써 믿고 의지하도록 할 것이다. 우리는 예수 안에 있는 그대로의 진리가 필요하다.

우리는 그의 대표자와 증인들로 구원하는 진리를 충만히 이해할 필요가 있는데 이것은 우리가 경험적인 지식으로 말미암아 알아야만 한다.

“그 아들 안에서 우리가 구속 곧 죄사함을 얻었도다”(골 1:14). 이것은 우리의 심령에 인 찍혀져야 할 실제적인 위대한 진리이다. 진리를 받아들이는 모든 자들이 그 진리의 위대함과 능력을 이해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그 안에는 신성의 모든 충만이 육체로 거하시요”(골 2:9) (원고, 153, 1898)

## 갈바리의 사람을 높임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요 3:14,15).

나는 그대를 갈바리의 십자가로 향하게 하는 바이다. 나는 그대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도록 그대를 대신하여 치르신 무한한 희생을 생각하라고 요청하는 바이다. … 나는 그대를 예수님께로 향하게 한다. 그대는 마음 속 깊은 곳에서 역사 하시는 주님께 의탁함으로써 안전함을 얻을 수 있다. 주 예수께서는 그대를 무한한 값으로 사셨다. 그대는 심령을 지켜주시도록 예수님께 의탁할 수 있다. 그대는 예수님을 그대의 상담자로 신뢰할 수 있다. … 끊임없이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라. 하나님께서는 그대를 도우실 것이다.

오! 그대는 모든 빛의 근원 되신 분에게서 그대의 빛을 받는다는 것을 분명히 하라. 주님께서서는 온 우주의 중심 되는 가장 큰 빛이시며 세상의 큰 빛이시다. 그분은 세상에 태어나는 모든 사람들을 빛나게 하실 것이다. 값싸고 낮은 표준에 도달하지 말라. 그리스도의 온유함을 계발시키라. 가장 높은 지식을 얻으며 또한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그대의 영감을 얻도록 하라. 그분은 그대의 친구이시다. 그대는 언제나 그분을 신뢰할 수 있으며 또한 그는 충실하고 참되심을 발견할 수 있을 것이다. 그대가 말할 수 없는 곤고함에 빠지고 상처를 입고 타박상을 입어 그의 동정이 필요되는 때에 예수께서는 그대를 피하지 않으실 것이다. 그대는 어린아이의 단순성을 가지고 그분께 나아갈 수 있다. 그대는 기쁨과 즐거움으로 그분께 나아갈 수 있다. 그대의 소망을 만족시키는 모든 것, 또한 주님 안에서 수고할 때 얻어지는 모든 성공을 감사하고 주님을 바라보며 모든 영광을 그분의 발 앞에 두라. 모든 것은 오로지 겸손한 마음으로 행하는데 달려있다. 그리스도의 이름을 그대의 깃발에 새기고 그대의 군기를 결코 더럽혀서는 안된다.

온 하늘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주어진 바 되었다. … 오, 마음을 다하여 거룩히 섬김으로 예수님을 영화롭게 하라! 그분은 그대를 위하여 그의 생명을 주셨다. 이렇게 행하신 그분은 누구이신가? 하나님의 독생자, 세상이 창조되기 전부터 아버지와 하나이셨던 그분이다. (서신, 147, 1896)

## 지금이야말로 빛을 발할 때임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는 네 빛이 이르렀고 여호와의 영광이 네 위에 임하였음이니라” (사 60:1).

우리는 지금 일어나 빛을 발할 필요가 있는데 이는 우리의 빛이 이르렀고 여호와의 영광이 우리 위에 임한 까닭이다. 우리는 자신에 관하여 말할 시간이 없으며 조금만 닿아도 오그라드는 예민한 식물과 같이 될 시간이 없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는 우리의 충만함이 있다. 우리가 믿음을 이야기 할 것인가? 우리가 모든 영혼들을 위하여 제공된 예수 그리스도의 충만하고 풍성한 의(義)의, 영광의 소망에 관하여 말할 것인가?… 하늘의 온 우주는 관심을 나타내고 있으며 하나님의 사랑은 충실하고 계명을 지키는 사람을 위하여 역사하고 있다. 우리가 신뢰해야 할 분은 하나님이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손 안에 이 세상을 가지고 계시다. 우리는 우리 편에 하나님을 모시고 있다.… 온 하늘은 우리의 협력을 위하여 기다리고 사모하고 있다. 주께서는 지극히 높으신 분이시다. 그렇다면 어찌하여 우리가 두려워 할 것인가? 과거에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백성을 구원하셨으니 만일 우리가 당신의 힘으로 일어나 앞으로 나아간다면 당신은 우리의 조력자가 되실 것이다.

성경, 성경만이 우리의 유일한 피난처가 되어야 한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말씀 가운데 계시다. “그가 자기 영혼의 수고한 것을 보고 만족히 여길 것이다.” 이것으로 우리에게 충분하다. “나의 의로운 종이 자기 지식으로 많은 사람을 의롭게 하며 또 그들의 죄악을 친히 담당하리라” (사 53:11). 만일 하나님의 위대하고 사랑스러운 마음이 영혼을 구원하는 당신의 사명의 결과로 만족함을 얻는다면 우리도 기뻐하자. 우리는 과거 어느 때보다 열심히 일하도록 하자. 자신을 비우고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으라. 예수님을 그 전체가 사랑스러우시고 만 사람에게 뛰어난 분으로서 세상에 나타나게 하라.

“이 일 후에 내가 보니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라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흰 옷을 입고 손에 종려 가지를 들고 보좌 앞과 어린 양 앞에 서서 큰 소리로 외쳐 가로되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양에게 있도다 하니” (서신, 138, 1897)

## 어두움 속에 있는 세상을 위한 빛

“보라 어두움이 땅을 덮을 것이며 캄캄함이 만민을 가리우려니와 오직 여호와께서 네 위에 임하실 것이며 그 영광이 네 위에 나타나리니 열방은 네 빛으로, 열왕은 비취는 네 광명으로 나아오리라” (사 60:2,3).

어두움이 땅을 덮었고 캄캄함이 만민을 가리웠으나 우리는 진리와 의의 길로 인도함을 받기 위하여 거룩하신 교사의 임재 하심을 얼마나 열렬히 사모해야 할 것인가! 하나님께서는 이미 같지 않은 시기에 같지 않은 장소에서 같지 않은 방법으로 사람에게 말씀하셨으나 세상의 무지(無知)는 점점 증가해가고 있다. 우리는 사람에게 하나님을 알게 하기 위하여 진리에 관한 보다 더 명백한 말을 해야 한다. 그리스도인과 세상 사람 사이의 구분점은 좀더 뚜렷해야만 한다. 성경은 우리들 가운데서 좀더 눈에 띄는 책이 되어야만 하며 또한 정중하고 부지런한 탐구자들은 감추인 보화를 찾기 위하여 정성어린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하나님의 말씀의 해석자라고 자처하는 자들이 아무리 내세운다 할지라도 사람의 격언이나 오류의 교리는 버려져야만 한다. 왜냐하면 이것들은 진리를 가리우는 역할을 하는 까닭이다.… 유대인들은 선지자들이 장차 오실 메시아라고 예언한 주 예수님에게서 돌아섰으므로 그들은 폐한 바 된 것의 종말을 볼 수 없게 되었다. 하나님의 율법을 무시하고 중오심을 가지고 진리에서 돌아섬으로써 그리스도교회는 그리스도에게서 돌아섰으며 그들은 하늘에서 온 진리를 바라보지 않았다는 사실을 나타내었다. 어두움은 마치 관을 덮는 어두운 천과 같이 온 땅을 덮었다. 지금이야말로 나약해지고 믿음에 병들 때가 아니다. 지금이야말로 세상이 하나님의 교회를 변화시키도록 허락할 때가 아니다. 빛을 가진 자들은 지금 일어나서 빛을 비추도록 하자.… 우리 주,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나타나심을 기다리고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보다 쾌락을 더 사랑하고 경거나 쾌락을 위해 모이는 오락을 추구하는 자들과 섞일 수 없다. 그들은 충실한 파수군으로서 “아침이 오나니 밤도 오리라”고 경고해야 한다. (서신, 84, 1895)

## 거룩한 능력의 보증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행 1:8).

오순절 날에 무한하신 분께서는 교회에게 능력으로 자신을 나타내시었다.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는 강한 돌풍과 같이 하늘에서 내려와 제자들이 모인 방에 임하게 되었다. 회개와 자복의 말이 죄사함으로 인한 찬양의 노래와 더불어 뒤섞이게 되었다. 감사와 예언의 말들이 들려졌다. 온 하늘은 비할 데 없고 가히 이해할 수 없는 사랑의 지혜를 바라보고 존경하기 위하여 내려다보았다.

사도들과 제자들은 놀라 정신을 잃고 “여기에 사랑이 있다”고 부르짖었다. 그들은 부여된 선물을 붙잡았다. 그들의 마음은 너무나 충만하고 너무나 깊고 너무나 원대한 자애심으로 가득 찼으므로 그들은 땅 끝까지 나아가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밖에는 사랑할 것이 없다는 것을 증거하지 않을 수 없었으며, 하나님께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구원하심으로 우리가 영광을 받는 것을 금하신다. 그들은 구원받을 자들을 교회에 인도하기 위한 열렬한 열망으로 가득 찼다. … 제자들이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 복음을 전파하기 위하여 나아가는 것과 같이 오늘날 하나님의 종들은 나아가야만 한다. 우리들 주위에 있는 들의 곡식이 희어져 추수하게 되었다. 이 곡식들은 추수되어야만 한다. 오류와 불신의 어두움 속에 있는 자들에게 자비의 기별을 전달하기 위하여 우리는 우리의 마음을 이기심 없는 욕망으로 가득 채운 후, 일에 착수해야만 한다. 하나님께서는 신자들의 마음을 감동하게 하사 원방에 까지 당신의 사업을 수행해 나아가도록 하셨다. … 주 하나님께서는 영원한 계약에 의하여 진리에 순종함으로 거룩하게 된 각 사람에게 능력과 은혜를 공급하실 것이다.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받으신 그리스도께서는 “하늘에서 내려”(요 6:33) 온 산 떼에 매일 참여하는, 열심 있는 당신의 인간 도구들을 동정하시고 협력하신다. 하늘의 교회와 연합한 지상의 교회는 모든 것을 성취할 수 있다. (원고, 62, 1902)

## 위기 가운데서 그리스도를 나타냄

“하나님이여 위엄을 성소에서 나타내시나이다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그 백성에게 힘과 능을 주시나니 하나님을 찬송할지어다” (시 68:35).

지금이야말로 우리가 위로부터 권능을 부여받아야 할 때이다. 사단과 악의 모든 동맹군들은 선을 대적하기 위하여 끈기 있는 경계태세로써 일하고 있다. 그리스도의 교훈과 가르침을 무효화하고 성경의 영감에 관한 불신의 씨를 심기 위하여 이보다 강한 연합이 형성된 적은 일찍이 없었다. … 사단은 빛과 하나님의 말씀을 대적하여 악의 동맹군을 형성하는 데 있어서 사람들을 고무하기 위하여 땅에 속한 그의 세력을 가지고 움직이고 있다. 불신앙, 교황권, 준교황권이 소위 그리스도교계와 밀접하고도 힘있는 동맹에 가담하고 있다. 영감에 대한 저급한 견해, 소위 지혜 있는 사람이라 일컬음을 받는 인간의 사상을 높이는 것 등은 인간의 재간을 하나님의 지혜와 방법 위에 두며 또한 소위 과학이라고 일컫는 것을 중요한 경건의 능력 위에 두고 있다. 이러한 것들은 마지막 날의 징조들이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자들은… 예수님을 높이고 또한 하나님의 말씀을 확대하고 존경하며 경애하는 증언들을 나타내는 데 있어서 음성의 재능을 사용해야만 한다. …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듣고 행하는 자들의 일관성 있고 거룩하며 순결한 생애 가운데서 복음은 스스로 그 복음의 권능을 나타내게 된다.

그리스도께서는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으며 그대가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음을 그대에게 입증하셨다는 인상을 세상에 주지 말라. 그리스도를 그대로 나타내라. 곧 “사랑스러운” 자로서 또는 “만 사람에게 뛰어난 자”로서(아 5:16,10) 나타내라. 주님의 추종자들이라고 공언하는 자들이 세상에 마음을 빼앗기고 불순종하고 감사하지 아니하고 사악하기 때문에 주님의 영광이 얼마나 희미하게 나타나는가! 예수님을 높이 들라. 예수님의 사랑을 말하고 그분의 능력을 이야기하라. 그리고 주님의 영광과 갈바리의 십자가의 전능한 능력이 나타나게 함으로 자신을 나타내지 않게 하라. (서신, 110, 1893)

## 영혼의 요새

“종말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엡 6:10).

이 말씀은 모든 시대에 있어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언제나 적용되어 왔다. 그러나 이 마지막 때에 있어서 끊임없이 가장 교묘하게 일하는 어두움의 권세를 대면해야 할 남은 교회에게는 이 말씀이 얼마나 더 적용되어야 하겠는가! 그 사도의 말은 전해 내려와 이 시대에까지 미치고 있다. “마귀의 계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요 정사와 권세와 이 어두움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에게 대함이라”(엡 6:11,12).

하나님께서로부터 영감을 받은 이 말씀은 우리에게 적절한 말씀이다. 이 말씀들은 이 세상에서 빛을 비추고, 어그러지고 패역한 나라 가운데서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고자 노력하는 자들에게 특별한 방법으로 적용되어야 한다. 이 시대는 큰 빛을 가진 우리 청년들에게 있어서 얼마나 엄숙하고 얼마나 두렵고 엄숙한 시대인가! 그들의 말과 정신과 품성은 그들이 교체하는 자들을 잘못 인도해서는 안된다.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엡 6:13). 이 말씀을 그대의 안내자로 삼으라. 그것을 취하라. 성경 가운데서 그대에게 제공된 전신갑주를 그대가 취하도록 모두 준비되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그런즉 서서 진리로 너희 허리 띠를 띠고 의의 흉배를 붙이고”(엡 6:13,14).

소설, 성경에 대한 거짓 해석, 우화 등은 그대가 받아들이도록 사면에서 제시되고 있다. 그러나 진리의 금사슬이 허리의 띠가 되기 위하여는 큰 식별력이 필요하다. “의의 흉배를 붙이고” 그대 자신의 의가 아니요, 그리스도의 의의 흉배이다. 이것이 영혼의 요새이다. 우리는 우리 앞에 앞서 가는 그리스도의 의로 말미암아 도덕적인 어두움을 물리치고 악마의 계계를 능히 깨뜨릴 수 있다. (서신, 60, 1893)

## 계속해서 더 밝아짐

“의인의 길은 돋는 햇볕 같아서 점점 빛나서 원만한 광명에 이르거니와”(잠 4:18).

모든 시대에 있어서 교회의 큰 과오는 성경의 진리에 관하여 어떤 점을 이해한 다음엔 거기서 멈추는 그것이다. 거기에서 그들은 닳을 내린다. “우리는 충분한 빛을 가졌다. 이제는 더 필요 없다”는 뜻이 “앞으로 더 나아가기를” 중지한다. … 주님께서는 당신의 백성을 사랑하시며 또한 셋째천사의 기별인 진리의 깃발 아래로 한 걸음, 한 걸음씩 인도하실 것이다. … 이 마지막 날에 있어서 우리는 과거 시대의 지혜와 경험의 혜택을 받고 있다. 하나님의 사람들, 곧 성도와 순교자들은 그들의 신앙을 고백하였으며 또한 하나님을 위한 그들의 경험과 불타는 열정에 관한 지식은 생생한 말씀으로서 이 세상에 전달되고 있다. … 전달되어 온 이 책임은 이 마지막 시대에 살고 있는 자들을 비추는 하나님의 진리로서, 또한 그들에게 환하게 비출 빛으로서 충실한 증인들에 의해 모아지고 있으며 그들이 이 빛의 진가를 인정할수록 그들은 더 큰 빛으로 전진할 것이다. … 모든 빛의 근원 되시는 분께서는 우리에게 그 빛으로 나아와 빛 줄기를 모으라고 여전히 초청하고 계시다. 그리스도의 추종자들이 빛의 혜택을 받을 수 없는 곳에 빛이 놓여지지 않았다. 하나님에게서 받은 빛을 이용하는 모든 자에게 보다 더 명확하고 보다 더 풍성한 빛이 계속 비치일 수 없도록 세상으로부터 그 빛이 끊어진 것이 아니다.

이 마지막 때에 있어서 하나님의 백성들은 빛보다 어두움을 택하여서는 안된다. 그들은 빛을 사모해야 하며 빛을 기대해야 한다. … 그 빛은 끊임없이 점점 더 밝은 빛줄기 가운데서 빛나게 될 것이며 또한 예수 안에 있는 그대로의 진리를 더욱 더 명확히 나타냄으로써 인간의 마음과 인간의 품성은 향상되고 사단이 하나님의 백성 위에 가져오고자 애쓰는 도덕적 어두움은 사라지게 될 것이다. 우리가 시대의 종말에 접근할 수록 하나님을 섬기기 위하여 보다 깊고 보다 명확한 식별력이 요구되며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더욱 확고한 지식, 산 경험, 그리고 거룩한 마음과 생애가 요구될 것이다. (원고, 37, 1893)

## 주께서 다시 오신다!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의 일한 대로 갚아 주리라” (계 22:12).

그리스도께서 이 말씀을 하셨을 때에 그는 거짓 선지자였는가? 요한이 이 위대한 진리를 들은지 이미 1,800여년이 지나갔으나 주께서는 통치하시기 위하여 아직도 오시지 않으셨다. 그러나 우리는 그분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일을 그만둘 것인가? 우리는 “내 주께서 더디 오시리라”고 말할 것인가?

“아담의 칠세 손 에녹이 사람들에게 대하여도 예언하여 이르되 보라 주께서 그 수만의 거룩한 자와 함께 임하셨나니”(유 14).… 그리스도의 재림에 관한 교리는 하나님과 더불어 끊임없이 교통한 그 사람에게 이처럼 일찍이 알려 졌다. 이 선지자의 경건한 품성은 하늘에 승천하고자 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소유해야 할 거룩한 상태를 표상 한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임박한 재림의 교리에 관하여 기만을 당하였다고 말할 것인가?… 우리가 그의 오심을 위하여 백성들을 준비시키는 우리의 모든 사업이 헛되었다고 말할 것인가? 결코 아니다.… “우리가 믿는 도리의 소망을 움직이지 말고 굳게 잡아 서로 돌아보아”… 우리가 의심과 불신과 배교를 일으키도록 서로 자극할 것인가? 아니다.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모이기를 폐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 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히 10:23-25).

우리는 예언의 흐름을 관찰할 수 있도록, 또한… 그 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열심과 노력을 더 하여 충실하도록 서로 권하고, 성경의 지식을 가져야 한다.… 우리의 믿음을 포기할 것인가? 우리의 확신을 저버릴 것인가? 더 이상 인내하지 않을 것인가? 아니다, 아니다. 우리는 이렇게 생각해서는 안된다.… 과거에 있어서 예언은 얼마나 정확히 이루어졌고 또한 지금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를 알아야 한다. 머리를 들고 기뻐하라. 이는 우리의 구속이 가까운 까닭이다. 구원은 우리가 처음 믿을 때보다 더욱 가까워졌다. 우리는 용기와 믿음이 충만한 가운데 인내심을 가지고 기다리지 않으려는가? 우리는 마지막 계산하는 날에 백성들이 능히 설 수 있도록 그들을 준비시키지 않으려는가? (리뷰 앤드 헤럴드, 1888. 7. 31)

## 어찌하여 주께서 지체하시는가?

“볼지어다 내가 네 앞에 열린 문을 두었으되 능히 닫을 사람이 없으리라 내가 네 행위를 아노니 네가 적은 능력을 가지고도 내 말을 지키며 내 이름을 배반치 아니하였도다 보라 사단의 회 곧 자칭 유대인이라 하나 그렇지 않고 거짓말하는 자들 중에서 몇을 내게 주어 저희로 와서 네 발 앞에 절하게 하고 내가 너를 사랑하는 줄을 알게 하리라” (벧후 3:8,9).

내가 1843년과 1844년 후 계속 일해오면서 우리의 도시를 경고하기 위하여 행하여야 할 필요성이 있는 선교사업을 보다 더 원만히 수행해 나가도록 주께서 시간을 허락하여 주심에 대하여 나는 진심으로 감사한 마음을 가졌다. 오! 지혜로우신 우리의 하늘 아버지께서는 당신의 독생자의 무한한 희생을 치르셨다. 그는 이 세상 사람들이 자비가 많은 당신의 섭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 곧 성경의 진리를 받아들여 재림의 큰 사건을 준비할 수 있도록 그리스도를 세상에 보내셨다.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실 시기에 관해서 신자들이 크게 실망하였던 바로 그것이 지체함에 대하여 우리가 감사해야 할 이유가 되어 왔다. 이제 하나님의 천사들은 진리가 온 열방에 이르도록 길을 준비하고 있다.

도시와 대로와 소로에는 경고의 기별을 들을 자들이 허다하다. 우리는 깨어 있는가? 우리는 경고해야 할 한 세상이 있음을 이해하는가? 우리는 모든 도시에서 열심히 일해야만 한다. 우리는 각성하여 큰 일을 해야만 한다. 멸망하는 세상에 전할 마지막 경고의 기별을 들을 자들은 더욱 많이 있다. 우리는 지체할 시간이 없다. 왜냐하면 사단은 영혼들을 멸망시키기 위하여 그의 최선을 다하고 있는 까닭이다.

나는 이제 하나님의 자비하시고 오래 참으시는 것에 대하여 그를 찬양하는 바이다. 기별이 많은 나라에 전해지고 있다. 이 기별은 세계적인 기별이다. 우리의 도시들을 경고하기 위하여는 가장 부지런히 일해야만 한다. 우리는 수많은 사람들에게 빛을 전할 기회를 가지고 있다. 그들은 진리를 기뻐하고 있다. 그리고 그들은 미국 여러 곳에 요양소와 교회들을 세우기 위하여 그들의 시간과 재물을 바치고 있다. 학교는 세워지고 있으며 개척지가 열리고 많은 새로운 일이 시작되었다. 현재는 사업의 속도가 느리지만 그것은 마지막 경고의 기별이 전하여지지 않은 많은 곳에서 성령을 필요로 하기 때문이다. 천사들은 마음과 뜻과 영혼을 다하여 이 사업에 투신하려고 하는 남녀들을 돕기 위해 기다리고 있다. 우리에게 잃어버릴 시간이 없다. (원고, 62, 1896)

12월 9일(일)

## 품성이 드러남

“저희가 사러 간 동안에 신랑이 오므로 예비하였던 자들은 함께 혼인 잔치에 들어가고 문은 닫힌지라”(마 25:10).

아무도 어리석은 처녀의 본을 따르지 말 것이며 위기에 능히 설 수 있는 품성을 준비하지 않으면서 그 위기가 올 때까지 기다리는 것이 안전할 것이라고 생각지 말라. 손님들을 불러들여 조사하는 일이 진행될 때에 그리스도의 의를 찾고자 한다면 그것은 너무나 늦어 그렇게 할 수 없을 것이다. 지금이야말로 그리스도의 의 곧 그대로 하여금 어린양의 혼인잔치에 들어가도록 자격을 갖추어 줄 예복을 입어야 할 때이다. 그 비유 가운데는 어리석은 처녀들이 기름을 얻기 위하여 애걸하였으나 얻지 못한 것이 나타난 바 되었다. 이것은 위기에 능히 설 수 있는 품성을 개발시킴으로써 자신을 준비시키지 못한 자들을 상징한다. 이것은 마치 그들이 이웃에게 가서 “나에게 당신의 품성을 좀 나누어주십시오 그렇지 않으면 내가 잃어버린 바 되겠습니다”라고 말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지혜 있는 자들은 어리석은 처녀들의 꺼져가는 등잔에 그들의 기름을 나누어 줄 수 없었다. 품성은 남에게 전가시킬 수 없다. 그것은 사거나 팔 수 없으며 다만 스스로 얻어야만 한다. 주님께서는 각 사람에게 의로운 품성을 소유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셨다. 그러나 주께서는 어떤 사람이 자기가 개발시킨 그 품성을 다른 사람에게 나누어 줄 수 있도록 길을 준비하지는 않으셨다. 품성의 모든 면이 특별한 시험으로 말미암아 나타나게 될 그 날은 이르러 오고 있으며 또한 매우 임박하였다. 원칙에 충실하고 마지막까지 믿음을 행사하는 자들은 그들의 은혜의 기간의 귀중한 시간에 시련과 시험 아래서도 진실함을 나타내고 그리스도의 형상을 따라 품성을 형성한 자들이다. 주님의 지혜와 은혜를 통하여 신성에 참여한 자들은 그리스도를 더욱 면밀히 알려고 한 자들이다. 그러나 어떠한 인간도 마음의 헌신과 고상한 정신을 다른 사람에게 나누어 줄 수 없으며 그의 결함들을 도덕적인 힘으로써 채워줄 수도 없다.

누구도 “신랑을 맞으러 나오라”는 음성을 들을 때까지 준비의 날을 지체시키지 말라. 그렇지 않으면 어리석은 처녀와 같이 그대의 등에 기름을 갖지 않은 자가 될 것이다. (청년 지도자, 1896.1.16)

12월 10일(월)

## 깨어라 깨어라 깨어라

“그러므로 깨어 있으라 집 주인이 언제 올는지 혹 저물 때엘는지 밤중엘는지 닭 울 때엘는지 새벽엘는지 너희가 알지 못함이라 그가 홀연히 와서 너희의 자는 것을 보지 않도록 하라 깨어 있으라 내가 너희에게 하는 이 말이 모든 사람에게 하는 말이니라 하시니라”(막 13:35-37).

지금이야말로 우리들이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일순간이라도 영적 눈을 돌릴 수 없는 때이다. 그는 우리에게 “내가 너희에게 하는 이 말이 모든 사람에게 하는 말이니라”고 권면 하신다. 경고를 필요로 하지 아니하며 그의 마음이 깨어 있을 필요가 없다고 하는 자칭 그리스도인이 한 사람이라도 있는가? 마음은 언제나 깨어 있는 가운데서 부지런히 지켜져야만 한다. 원수가 몰래 침입하는 것에 대하여 깨어 있어서 옛 습관과 본래 타고난 경향이 힘을 발휘하지 못하도록 깨어 있으라. 그것들을 물리치고 깨어 있으라. 백번 물리칠 필요가 생길지라도 그것들을 물리치라. 사상과 계획들이 이기적이며 자신을 중심으로 하지 않기 위하여 깨어 있으라. 그대가 시험에 들지 않도록 깨어 기도하라. 그리스도께서 당신의 보혈로 사신 그 영혼들을 깨어 돌보라. 그들에게 선을 행할 수 있는 기회를 위하여 깨어 있으라.

우리는 원수의 나라에 살고 있다. 하늘에서 내려 쫓긴 원수는 큰 권세를 가지고 내려왔다. 그는 고안해 낼 수 있는 모든 수단과 꾀술로써 영혼들을 사로잡기 위하여 애쓰고 있다. 우리가 계속적으로 경계하고 있지 않는 한 그의 무수한 기만에 용이한 희생물이 되고 말 것이다.

우리는 섬기기 위하여 이 세상에 오신 주님께서 하늘에 오르사 이곳에 계시지 않는 동안 그분의 가재(家財)와 이익을 관리하도록 부르심을 받은 청지기들이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책임을 맡기시고 하늘로 올라가셨다. 그분은 우리가 깨어 기다리며 당신의 오심을 준비하기를 바라신다. 예수께서 갑자기 임하실 때에 우리가 자고 있는 것이 드러나지 않도록 우리에게 맡겨진 일에 충실하라. (서신, 5, 1903)

## 위기의 때에 굳게 섬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벧전 4:7).

때의 징조들은 만물의 종말이 가까웠음을 우리에게 말해준다. 성취된 예언들은 역사의 사실이 되어 우리의 입장을 명확하게 묘사하고 있다. 우리는 영원한 세상의 경계선에 와 있다. … 우리의 주님께서서는 당신의 백성에게 마지막 날에는 불의가 성행하며 참된 경건을 마비시키는 감화가 있을 것을 미리 경고하셨다. 우리는 사면에서 악한 것들을 보고 듣고 느끼고 있다. 그것은 마치 공기 자체에 스며들어 하나님의 백성이라 자처하는 자들의 믿음과 사랑에 영향을 미치는 듯 싶다. 그리스도인의 성실함을 굳게 붙드는 것은 어려운 일이다. 우리 시대의 흐름은 기독교적 신앙이 박해가 없기 때문에 존재하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맹렬한 시련의 시험이 올 때 믿음을 공언하는 이런 사람들의 대다수는 그들의 종교가 공허한 형식주의였다는 것을 보여줄 것이다.

우리가 살고있는 시대는 위험한 시대이다. 부주의와 경솔함과 쾌락과 사랑함과 자만은 그리스도인이라 공언하는 많은 사람들의 생애에서도 나타나고 있다. 이 때에 있어서 제철일 안식일 예수재림교인들이 그들의 신앙을 버리고 냉랭하고 형식화해질 것인가? 결단코 아니다! 우리가 원칙에 확고히 섬으로써 하나님께서 가장 큰 영광을 받으실 수 있는 바로 그 순간에 우리가 반역자로 돌아설 것인가? 이제 우리들이 지경 저편에서 거의 영광을 볼 수 있는 때에 하늘의 매력 있는 것들로부터 돌이킬 것인가? 우리는 지상역사의 가장 중대한 시기에 살고 있다. 하나님께 대한 우리의 충성을 유지하므로 우리는 그리스도와 진리를 위하여 가장 고상한 증언을 할 수 있다.

참된 그리스도인은 과거 어느 때보다도 하나님의 허락들에 좀더 굳게 매달릴 것이다. 그의 마음은 그가 보물을 쌓아둔 곳 곧 하늘에 있다. 바른 원칙이 경멸을 당하고 무시될 때 참되고 충성된 자는 저들의 가장 뜨거운 열성과 깊은 사랑을 보여줄 것이다. 진리가 아무리 인기가 없을지라도 그들은 진리를 위해 굳게 설 것이다. … 주님께서서는 오신다. … 우리는 일관성 있게, 또한 우리 사업이 우리가 주장하는 믿음과 일치되도록 하자. (리뷰 앤드 헤럴드, 1881, 11, 29)

## 하늘 시민의 자격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들은 복이 있으니 이는 저희가 생명 나무에 나아가며 문들을 통하여 성에 들어갈 권세를 얻으려 함이로다” (계 22:14).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갈 6:7). 나는 현세와 영원한 세상을 위하여 씨를 심기 원한다. 나의 마음은 의를 위하여 주리고 목마르다. 나의 씨뿌리는 것이 올바른 종류의 수확을 거둬들일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내 자신의 생명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숨겨지기를 원한다. 나는 날마다 말과 행실에 있어서 내 자신에 관하여 심각하게 생각하는 바이다. 나는 가라지나 알곡 둘 중에 하나를 심고 있다. 나는 현세나 그렇지 않으면 영원한 내세를 위하여 심기를 원한다. 나는 나에게 할당된 시간을 거의 살았는데 이제 그 수확은 어찌 될 것인가? 나는 지극히 높으신 자에 대하여 침착하고도 요동하지 않는 신뢰심을 갖기 원한다. 내가 나의 의무를 수행할 때에 뚜렷한 방법으로써 그분의 돌보심을 경험하였다. 나는 충분히 익은 알곡으로서 무덤으로 내려가고 싶다. 나의 마음에는 불평함이 없고 다만 감사함이 있을 뿐이다. 하나님의 은혜와 그의 친절한 사랑은 마음에서 잊어버려질 것으로써가 아니요 결코 잊어버릴 수 없는 귀중한 것으로써 간직되어야만 한다. 하나님의 존엄하심에 대한 증인으로서 우리는 그의 거룩한 이름을 높이고 찬양할 수 있다. 우리는 성산에서 그분과 함께 있는 자들이다.

매 순간이 귀중하며 영원한 결과라고 하는 의미를 갖고 있다. 우리는 소돔의 사파와 같은 거짓과 허위로 가득찬 걸모양을 중시하는 세상에 살고 있다. 오, 주께서는 얼마나 이 세상의 이중적이고 위선적인 것을 보고 계시는가! 만일 하늘을 볼 수 없다면 또한 구름 저편에 계신 의의 태양(주님)의 빛나는 광선을 볼 수 없다면 우리는 죽는 편이 나을 것이다. 그러나 예수님은 살아 계시다.

그리스도의 학교에서의 훈련은 교회로 하여금 그의 사랑하는 자의 팔에 기대게 할 것이다. 주님의 구속받은 자들은 승리적인 개신 가운데서 노래와 영원한 기쁨을 가지고 마침내 시온으로 돌아오게 될 것이다. 모든 천군들은 그들로 인하여 노래로써 화답할 것이다. (원고, 7a 1896)

## 시대의 위기

“슬프다 그 날이여 비할 데 없이 크니 이는 야곱의 환난의 때가 됨이로다 마는 그가 이에서 구하여 너를 얻으리로다”(렘 30:7).

때의 징조들의 성취는 주의 날이 가까왔다는 증거를 제시한다. … 위기는 점점 우리에게 임하고 있다. 태양은 하늘에서 빛을 비추고 있고 여전히 그 궤도를 따라 돌고 있으며 하늘은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있다. 사람들은 여전히 먹고 마시고 씨를 심고 집을 지으며 시집가고 장가든다. 상인들은 여전히 팔고 사고 있다. … 쾌락을 사랑하는 자들은 여전히 극장과 경마장과 도박장에 밀려든다. 최고의 흥분이 유행되나 은혜의 시간은 빠르게 끝나가고 있으며 모든 사람의 운명은 영원히 결정되려 하고 있다. 사단은 그의 때가 짧은 것을 알고 있다. 그는 모든 사람이 은혜의 시기가 끝나 자비의 문이 영원히 닫힐 때까지 기만을 당하고 마음이 사로잡히며 얽어 매인 바 되게 하기 위하여 그의 모든 대리자들을 일하도록 하였다. … “개국 이래로 그때까지 없던 환난”(단 12:1)의 때가 곧 우리 앞에 전개될 것인 바 우리는 많은 사람들이 너무나 나태하여 얻을 수 없는 한 경험이 필요될 것이다. … 이제 우리의 대제사장께서 우리를 위하여 속죄하고 계시는 지금,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하여 지고자 노력해야 한다. 우리 구주께서는 비록 생각으로라도 유혹의 힘에 굴복 당하지 않으셨다. 사단은 사람의 마음 가운데 그가 받을 불일 어떤 곳이 있는지 찾는다. 그러던 중 어떤 죄된 욕망을 품게 되면 그것을 발판으로 삼아 유혹의 힘을 발휘한다. 그러나 그리스도께서는 “이 세상 임금이 오겠음이라 그러나 저는 내게 관계할 것이 없으니”(요 14:30)라고 친히 말씀하셨다. 사단은 하나님의 아들에게 승리를 얻을 수 있는 길을 전혀 발견할 수 없었다. 예수께서는 당신의 아버지의 계명을 지키셨다. 그러므로 그분에게는 사단이 이용할 수 있는 죄가 전혀 없었다. 이것이 환난의 때에 서게 될 사람들에게 반드시 나타나야 할 상태이다.

“우리 하나님이 임하시 잠잠치 아니하시니… 하나님이 그 백성을 판단하시려고 윗 하늘과 아래 땅에 반포하여 이르시되 나의 성도를 네 앞에 모으라 곧 제사로 나와 언약한 자니라 하시도다”(시 50:3-5) (리뷰 앤드 헤럴드, 1912, 3.14)

## 안전히 숨을 장소

“네가 나의 인내의 말씀을 지켰은즉 내가 또한 너를 지키어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하리니 이는 장차 온 세상에 임하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시험할 때라”(계 3:10).

하나님께서서는 열국에 대하여 기록해 두신다. … 이 시대에 있어서는 보통 이상의 멸시가 하나님께 보여지고 있다. 사람들은 오만과 불순종에 있어서 한 지점에 이르렀는데 그것은 곧 그들의 불의의 잔이 거의 가득 찼음을 나타내 보이는 것이다. … 주의 영은 지상에서 떠나가고 있다. 자비의 천사가 날개를 덮고 떠나갈 때에 사단은 그가 오랫동안 하기를 원했던 악한 일을 행할 것이다. 그는 태풍과 폭풍과 전쟁과 유혈 등을 기뻐하므로 그러한 것을 수확으로 거두게 될 것이다. 사람들은 그에게 너무나 완전히 기만을 당하므로 그들은 이러한 재앙들이 주일 중 첫째 날을 모독한 결과라고 부르짖을 것이다. 유명한 교회의 설교단에서는 일요일이 마땅히 높임을 받아야 할만큼 높임을 받지 못한 까닭에 세상이 별을 받고 있다는 말이 들려질 것이다. … 사단은 진리를 사랑하지 않는 모든 사람의 마음을 얻기 위하여 귀를 즐겁게 하는 이야기를 가져 올 것이다. 그는 심히 노하여 계명을 지키는 자들을 숭상할 것이다. … 사단은 세상을 자기의 것이라고 주장하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의 계략에 저항하여 성도에게 단번에 주신 믿음을 위하여 열렬히 싸우는 적은 무리가 있다. 사단은 계명을 지키는 이 무리들을 멸하는 그 일에 몹소 착수한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들을 지키시는 망대이시며 그들을 위하여 원수에 대항하는 깃발을 높이 쳐드실 것이다. 그는 그들에게 “광풍을 피하는 곳 폭우를 가리우는 곳… 곧비한 땅에 큰 바위 그늘”(사 32:2)이 되실 것이다. “내 백성이 같지어다 네 밀실에 들어가서 네 문을 닫고 분노가 지나기까지 잠깐 숨을지어다 보라 여호와께서 그 처소에서 나오사 땅의 거민의 죄악을 벌하실 것이라 땅이 그 위에 잦았던 피를 드러내고 그 살해당한 자를 다시는 가리우지 아니하리라”(사 26:20,21) “여호와와 속량함을 얻은 자들이 돌아오되 노래하며 시온에 이르러 그 머리 위에 영영한 희락을 띠고 기쁨과 즐거움을 얻으리니 슬픔과 탄식이 달아나리로다”(사 35:10) (리뷰 앤드 헤럴드, 1901, 9.17)

## 멀지 않음

“내 백성이 같지어다 네 밀실에 들어가서 네 문을 닫고 분노가 지나기까지 잠깐 숨을지어다”(사 26:20).

죄 가운데서 것처럼 깊이 잠들고 있는 세상에 폭풍이 이르러 올 시간은 멀지 않을 것이다. … 땅이 술취한 사람처럼 이리저리 비틀거리고 있을 때, 하늘들이 흔들리며 여호와와 큰 날이 왔을 때, 누가 능히 설 수 있을 것인가? 그들은 무서운 고민 가운데서 그들이 피하고자 헛되이 노력하는 하나의 대상을 바라본다. “불지어다 구름을 타고 오시리라 각인의 눈이 그를 보겠고”(계 1:7). 구원받지 못한 자들은 말 못하는 천연계 족, 그들의 신을 향하여 거친 저주의 말을 퍼붓는다. 곧 그들은 “산과 바위에게 이르되 우리 위에 떨어져 보좌에 앉으신 이의 낮에서와 어린양의 진노에서 우리를 가리우라”(계 6:16)고 말할 것이다.

만물은 그의 하나님께 충성하고 있으며 격분한 부르짖음에 무감각하고 있다. 보답 받지 못하는 그 사랑은 이제 진노로 변하였다. 예수님이 자기의 죄악들을 제거해 버리도록 허락 받지 못한 죄인들은 숨을 자리를 찾기 위하여 이곳저곳을 뛰어 다니면서 추수할 때는 지나고 여름은 다하였으나 우리의 영혼은 구원을 받지 못한다고 부르짖을 것이다.

그의 은혜를 멸시하는 자에게 것처럼 무서웠던 어린양의 진노는 그분을 영접하는 모든 사람에게는 은혜와 의와 사랑과 축복이 될 것이다. 애굽 사람에게 공포와 복수의 진노가 되었던 흑암의 구름기둥은 하나님의 백성에게는 광명한 불기둥이었다. 이 마지막 날에 있어서 주의 백성에게도 그러할 것이다. 당신의 계명을 지키는 백성들에게는 하나님의 빛과 영광이 되는 그것이 믿지 않는 자에게는 어두움이 되는 것이다. 그들은 그것이 하나님의 손에 떨어지는 두려운 것임을 안다. 펼쳐진 강한 팔은 주께 오는 자에게는 구원의 팔이 되지만 생명을 얻을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주님께 나오지 않았던 자에게 있어서는 주님의 심판의 강한 집행의 팔이 된다. 하나님께서 또한 아직 자비가 머물러 있고, 아직 초창의 음성이 들려지고 있는 동안, 주님께 돌아와야 한다. 확실한 은혜로 모든 영혼의 피난처, 그리고 분노가 지나기까지 계명을 지키는 자들에게 피난처가 제공되고 있다. (서신, 137, 1896)

## 우리가 가질 수 있는 최고의 특권

“복스러운 소망과 우리의 크신 하나님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이 나타나심을 기다리게 하셨으니”(딤후 2:13).

우리는 재림교인들이다. 우리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나타나심을 사모하고 있으며 또한 그것에 대하여 생각하기를 좋아한다. 우리는 우리가 믿고 있는 자를 알고 있으며 그날에 우리의 영혼을 지켜 주시도록 그분께 의탁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아니한다. 우리는 우리 자신이 재림교인이 되었다고 시인함으로 인하여 조금이라도 면목을 잃지 아니한다. … 우리는 넷째 계명에 안식일이 명백히 기록되어 있으며 또한 우리의 종교적인 신앙의 기초가 되기 때문에 그것을 믿고 있다. 우리들 중 아무도 이것을 부끄러워하지 말자. … 우리는 사람의 뜻에서 난 권면을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요 한 걸음 더 나아가 하늘의 권면을 받아들이고 있다. 우리는 여기에 굳게 서 있다. “주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라고 말하지 않은 교리를 온 세상이 받아들인다 할지라도 그것이 진리가 되지 못한다. … 우리가 하늘로 가는 길을 알기 원한다면 성경을 연구할 것이요 사람이 만든 이론이나 혹은 사람의 생각을 연구하지 말 것이다. … 우리는 우리의 신앙 곧 제칠일 재림주의에 관하여 절대 부끄러워하지 말 것인 바 이는 그것이 우리가 가질 수 있는 최상의 특권인 까닭이다. 우리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사모하고 있다. 사람들이 우리의 신앙에 대해서 비웃고 조롱할지라도 그것이 우리를 격노케 하거나 혹은 놀라게 하여서는 안된다. 그러한 모든 표현은 진리를 오류로 만들지도 못하고 오류를 진리로 만들지도 못한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의 강령에서 확고하고 요동함이 없이 설 것이다.

영원한 실재가 언제나 정신적 안목에 머물고 있어야 한다. 그리하면 세상에 대한 매력은 사실 그대로 무익한 허영으로 드러날 것이다. … 우리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스러운 재림에 대한 복스러운 소망을 위하여 기다리고 바라며 기도하고 있는 순례자들이요 나그네들이다. 만일 우리가 이 사실을 믿고 실제적인 생활에 적용한다면 얼마나 활기찬 행동이 이 믿음과 소망을 고무시킬 것인가! 또한 얼마나 서로 열렬히 사랑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성화된 생애를 살리고 얼마나 신중한 노력을 기울일 것인가! 또한… 우리들과 세상 사람들과의 사이를 뚜렷하게 구분하는 경계선을 얼마나 확실히 그어 놓았을 것인가! (원고, 39, 1893)

## 언제나 예비하고 있음

“이러므로 너희도 예비하고 있으라 생각지 않은 때에 인자가 오리라”(마 24:44).

우리는 때때로 우리를 불안하고 불행하게 하는 미래를 내다 볼 수가 없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친절한 사랑을 받고 있다는 가장 큰 증거 가운데 하나는 하나님께서 내일의 사건들을 감추시는 그것이다. 내일에 관하여 우리가 아무것도 알지 못하는은 우리로 하여금 오늘 더욱 깨어 있고 열심을 내게 한다. 우리는 우리 앞에 무엇이 있는지를 깨달을 수 없다. 우리가 가장 잘 고안한 계획이라 할지라도 때때로 지혜롭지 못하며 흠이 있는 듯이 보인다. 우리는 “미래를 알기만 한다면 얼마나 좋을까”라고 생각한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의 자녀들이 당신을 의뢰하며 그가 그들을 인도하는 곳으로 가기를 원하신다. 우리는 주께서 하늘 구름을 타고 나타나실 정확한 시간은 알지 못하나 그는 우리에게 우리의 유일한 안전은 언제나 준비하는 상태 곧 깨어 기다리는 것이라고 말씀하셨다. 우리 앞에 1년이 있든지 혹은 5년, 10년이 있든지 상관할 것 없이 우리는 우리에게 위탁된 오늘에 충실해야만 한다. 우리는 마치 이날이 우리에게 마지막 날인 것처럼 매일의 의무를 충실히 수행해야만 한다.

만일 우리가 나태한 가운데 기다리고 있다면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 있지 않는 것이다. 그분은 각자에게 할 일을 주셨으며 각자는 그의 몫을 충실하게 수행하기를 기대하신다. … 과거 어느 때보다도 지금이야말로 죄를 대적해야 하며 흑암의 권세를 대적해야만 한다. 현대진리를 믿는 자들에게는 정력적이며 확고한 활동을 행하도록 시간이 요구되고 있다. 그들은 교훈과 모본으로 진리를 가르쳐야만 한다.

우리 구주의 오심을 기다리기가 썩 지루해 보이고 고통에 눌리고 노고에 시달려서 우리의 임무가 끝나는 때와 자랑스럽게 싸움에서 농임을 받을 때에 대하여 초조하게 느껴질 때에 다음의 것들을 기억하고 또 그것을 통해서 모든 불평을 억제하라. 즉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지상에서 폭풍과 투쟁을 겪게 하시는 것은 그리스도인 품성을 완성시키며 우리 아버지이신 하나님과 또 우리의 만형님이신 그리스도와 좀더 친숙해지게 하기 위해서이며 주님을 위해 일하여 많은 영혼들을 그리스도께로 인도하고 또한 우리가 기쁜 마음으로 “잘 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네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라는 말을 듣게 하기 위함임을 기억하여야 한다. (리뷰 앤드 헤럴드, 1881.10.25)

## 마지막 결산의 날

“또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무론 대소하고 그 보좌 앞에 섰는데 책들이 펴 있고 또 다른 책이 펴졌으니 곧 생명책이라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으시니”(계 20:12).

성경은 “하나님은 모든 행위와 모든 은밀한 일을 선악간에 심판하시리라”(전 12:14)고 선포한다. 이 문제에 관하여는 추호의 의심도 있을 수 없다. … 죄는 아버지와 어머니와 아내와 자녀들과 동료들에게서 가리워질 수 있고 부인될 수 있고 감춰어질 수 있다. 실제적으로 죄를 범한 그 사람 이외에는 그 잘못에 대하여 조그마한 의심도 품을 수 없으나 그것이 하늘의 주민들 앞에는 환히 펼쳐진 바 된다. 가장 어두운 밤과 모든 기만적인 피의 비밀이 영원하신 분이 알지 못하도록 하나의 생각이라도 가리우기에는 충분하지 못하다. … 주께서는 아담과 하와가 금단의 과일을 따먹었을 때에 그들을 바라 보셨다. 그들은 죄악감에서 당신의 임재 하심에서 도망하여 자신들을 숨기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보시었다. 그들은 당신의 눈으로부터 그들의 수치를 가리울 수 없었다. 가인이 그의 동생을 죽였을 때에 그는 그 행위를 부인하므로 자기의 범죄를 숨기려고 생각하였다. 그러나 주께서는 “네 아우의 핏소리가 땅에서부터 내게 호소하느니라”(창 4:10)고 말씀하셨다. … 회개하지 않고 자복하지 않은 모든 죄는 기록책에 남게 될 것이다. 그것은 도말되지도 아니할 것이며 또한 예수의 속죄의 피로써 말살되기 위하여 심판대 앞에 먼저 나타나지도 않을 것이다. 각 사람의 축적된 죄는 정확하게 기록될 것이며 또한 하나님의 율법의 깨뜨리는 빛은 어두움의 모든 비밀을 시험할 것이다.

마지막 결산의 날은 방금 우리 앞에 와 있다. …

성경은 생애와 품성을 형성하는 완전한 표준으로서 하나님의 율법을 제시한다. 이 교훈에 부합되는 순종의 완전한 유일의 모본은 하나님의 아들, 잃어버린 바 된 인류의 구주 안에서만 발견된다. 그분에게는 불의의 흔적이 전혀 없었는 바 우리는 그분의 발자취를 따르라는 명령이 주어졌다. (리뷰 앤드 헤럴드, 1888.3.27)

## 하나님의 자녀여, 두려워 말라

“내가 볼 때에 그 발 앞에 엎드려져 죽은 자같이 되매 그가 오른손을 내게 얹고 가라사대 두려워 말라 나는 처음이요 나중이니 곧 산 자라 내가 전에 죽었었노라 볼지어다 이제 세세토록 살아있어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가졌노니”(계 1:17,18).

밭모퉁에 추방당한 요한은…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나중이라”(계 1:11)고 말씀하시는 그 목소리에 놀라서 죽은 자처럼 넘어졌다. 그는 거룩한 영광을 차마 볼 수가 없었다. 그러나 한 손이 요한을 일으켰는데 그가 들은 음성은 그의 주님의 음성임을 기억하였다. 그는 힘을 얻어 주 예수님과 더불어 능히 말할 수 있었다.

흠어진 하나님의 남은 백성들도 이와 같은 터인데 어떤 이들은 산간 벽지에 숨고 어떤 이들은 추방을 당하고 어떤 이들은 쫓김을 당하고 어떤 이들은 핍박을 받을 것이다.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고 영광의 빛이 나타나며 시련이 지나갈 때에 더러움은 제거되어서 그들은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그들을 구속하신 그분 앞에 있음을 알게 될 것이다. 그리스도와 추방을 당한 요한과의 관계는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과 증거로 인하여 압박을 당하는 하나님의 백성과의 관계와 동일할 것이다. … 이들은 핍박의 폭풍으로 말미암아 바위틈으로 쫓긴 바 되었으나 만세반석 안에 감추인 바 되었다. 또한 구주께서는 산간 벽지와 굴 가운데서 당신의 임재 하심과 그의 영광을 나타내신다. 그러나 잠시 후에 오실 이가 오실 것이요 지체하지 않을 것이다. 그분의 눈은 불꽃과 같이 굳게 닫힌 감옥을 뚫을 것이며 숨겨져 있는 자들을 찾아내실 것이다. 그들의 이름이 어린양의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기 때문이다. 구주의 눈은 우리 위에, 우리 주위에 머물러 있으며, 모든 어려움을 주시하고 모든 위험을 알아내신다. 그분의 눈이 꿰뚫어 보지 않는 곳은 없으며, 그분의 백성의 슬픔과 고통이 있는 곳에 그리스도의 동정이 미치지 않을 수도 없다. … 하나님의 자녀가 처음에 예수 그리스도의 위엄을 바라볼 때에 두려움에 싸여 그 거룩하신 분 앞에서 살 수 없는 것 같이 생각할 것이나 요한에게처럼 “두려워하지 말라”는 말씀이 주어진다. 예수님은 당신의 오른손을 요한에게 대시고 엎드린 자세를 하고 있는 그를 일으키셨다. 그분께서는 당신을 신뢰하는 충성된 자들에게 그와 같이 하실 것이다. (원고, 56, 1886)

## 그의 완전하심을 옷 입음

“자녀들아 이제 그 안에 거하라 이는 주께서 나타내신 바 되면 그의 강림하실 때에 우리로 담대함을 얻어 그 앞에서 부끄럽지 않게 하려 함이라”(요일 2:28).

예수께서는 죄인들을 그들의 죄 가운데서가 아니요 그들의 죄로부터 구원하시고 진리를 통하여 성결케 하기 위하여 이 세상에 오셨는데 그가 우리에게 있어서 완전한 구주가 되시기 위하여는 우리가 개인적인 믿음의 행위로 말미암아 그와 더불어 연합해야만 한다. 그리스도께서는 우리를 선택하셨으며 우리는 그를 선택하였다. 이러한 선택으로 말미암아 그와 더불어 연합하였으므로 이제부터는 우리 자신을 위하여 생애할 것이 아니요 우리를 위하여 돌아가신 그분을 위하여 생애 해야만 한다. 그러나 이 연합은 우리가 시험에 빠져 다른 선택을 하지 않도록 하기 위하여 계속적으로 깨어 있음으로써만 유지될 수 있다. 왜냐하면 우리는 원하기만 한다면 언제나 또 다른 주인을 선택할 수 있는 자유를 가진 까닭이다. 그리스도와의 연합은 모든 행동과 사상에 있어서 주님을 반드시 선택할 것을 의미한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가족으로 생각하고 그의 사랑하는 자녀들로서 당신을 따라가야 한다. 하나님의 권속의 양자된 자들로서 우리는 우리의 아버지와 친척들을 높이지 않을 것인가? 우리는 우리의 영혼과 우리의 원수 사이에 굴복되지 않는 적대감을 형성해야 한다. 그러나 우리는 성령의 능력과 감화에 우리의 마음을 열지 않으면 안된다. 우리는 사단의 어두움은 단쳐지고 하늘의 빛이 들어오기를 원한다. 우리는 예수님의 가장 작은 속삭임이라 할지라도 우리의 심령에 감동을 일으킬 수 있도록 거룩한 감화에 대하여 매우 민감해지기를 원하는 바이다. … 그 때에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것이 기쁘게 될 것이며 그리스도께서는 그분 안에 거하는 자들로서 우리를 하나님 앞과 거룩한 천사들 앞에서 소유하게 되실 것이다. … 그러나 우리는 우리의 거룩함을 자랑하지 말 것이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흠 없으심과 무한한 순결을 더욱 확실하게 인식할 때 우리는 다니엘이 느낀 것처럼 느끼게 될 것이다. 그는 주님의 영광을 보았을 때 “나의 아름다운 빛이 변하여 썩은 듯 하였”다고 말하였다.

이 천한 몸이 그분의 영광스러운 몸의 형체와 같이 변하기까지는 우리는 “나는 죄가 없다”고 말할 수 없다. 그러나 우리가 계속하여 예수를 따른다면 티나 주름잡힌 것이나 이런 것들이 없이 그리스도 안에서 온전하고 그분의 의와 완전의 옷을 입고 하나님의 보좌 앞에서는 복스러운 소망이 우리의 것이 될 것이다. (영문시조, 1888.3.23)

## 영원의 문 어귀에서

“이 썩을 것이 썩지 아니함을 입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을 때에는 사망이 이김의 삼킨 바 되리라고 기록된 말씀이 응하리라”(고전 15:54).

이 세상에서 사랑하는 자들을 잃어버린 자들에게 그들 앞에 미래의 썩지 않을 생명을 나타내는 하나님의 허락들에 관한 믿음과 소망이야말로 얼마나 귀중한 것이 되겠는가! 그들의 소망은 미래의 세상에 대한 보이지 않는 실체 위에 얽어매 수 있다. 그리스도께서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첫 열매로서 부활하시었다. 소망과 믿음은 영혼으로 하여금 부활의 아침에 썩지 않을 생명을 가지고 나오리라는 충만한 신념으로써 무덤의 어두운 그림자들을 통과해 나가도록 힘을 준다. 하나님의 낙원, 이것이야말로 축복을 받은 자들의 본향이다. 거기서 모든 눈물은 그들의 얼굴에서 씻긴 바 될 것이다. 예수께서 두 번째 오실 때에는 “모든 믿는 자에게서 기이히 여김을 얻으시리라”(살후 1:10). 사망은 이김의 삼킨 바 될 것이다. 다시는 병도 없고 슬픔도 없고 사망도 없을 것이다. 다음과 같은 풍성한 허락이 우리에게 주어 진 바 되었다.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들은 복이 있으니 이는 저희가 생명 나무에 나아가며 문들을 통하여 성에 들어갈 권세를 얻으려 함이로다”(계 22:14). 이 허락이야말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에게 부요함과 위안을 주는 말씀이 아닌가? (리뷰 앤드 헤럴드, 1887.10.11).

예수님의 부활은 그분 안에서 잠자는 모든 자들의 최종적 부활의 견본이었다. 부활하신 구주의 몸과 그분의 모습과 그분의 말의 억양은 모두 다 그를 따르는 자들에게 닳익은 것들이었다. 이와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는 자들도 그런 닳익은 모습으로 다시 부활할 것이다. 제자들이 예수님을 알아보았던 것같이 우리도 우리의 친구들을 알아볼 것이다. 비록 그들이 이 세상의 생활 속에서 병들고, 불구가 되고, 모습이 보기 흉하게 일그러졌을지라도 몸은 영광스럽게 부활할 것이며, 그 중에서도 그들의 개인적 신원은 완전하게 보존될 것이다. 예수님의 얼굴에서 비쳐 나오는 빛으로 광채가 나는 얼굴을 한 우리의 사랑하는 사람들의 모습을 알아볼 것이다. (성경주석 6권, 1092).

생명을 베푸시는 주님께서는 당신의 피로 사신 소유물들을 첫째 부활에 불러내실 것이다. 승리의 개가를 부르게 될 그 순간, 마지막 나팔 소리가 나고 천만 천사가 영원한 승리를 거둘 때까지 모든 잠자는 성도들은 안전하게 보존될 것이며 하나님께서 각자의 이름을 아시는 저들을 마치 값진 보석처럼 보호하실 것이다. (성경주석 4권, 1143)

## 그대들의 거할 처소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요 14:1-3).

그리스도께서 무덤에 누워 계실 때에 그의 제자들은 이 말씀들을 생각하였다. 그들은 이 말씀들을 숙고하면서 그 말씀의 의미를 깨달을 수 없는 까닭에 크게 울부짖었다. 어떠한 믿음과 소망도 상심된 자들을 위로할 수 없었다. 그들은 다만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라는 말을 반복하는 것뿐이었다.

거룩한 율법을 순종하는 모든 사람을 위하여는 있을 곳이 예비되었다. 사단의 시험으로 인하여 인간이 평계할 수 없도록 하기 위하여 그리스도께서는 그들과 더불어 하나가 되시었다. 하나님과 더불어 한 분이신 그 분께서는 인성을 쓰시고 율법대로 생애 하셨으며 자신을 낮추사 평범한 일꾼으로 비천한 생애를 사시고 그분의 육신의 부모와 더불어 목공소에서 일하시었다. 그는 당신의 자녀가 되었다고 주장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요구하는 그러한 생애를 친히 사시었다. 이와 같이 함으로써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하나님 자신이 행하지 않는 극기와 복종을 요구하신다는 사단의 힘찬 변론을 제거해 버리셨다.

예수께서는 사람들에게 당신의 발자취를 따라오는 것 그 이상을 요구하지 않으신다. 그는 하늘의 존엄자이시며 영광의 왕이시었다. 그러나 우리가 그의 가난함으로 인하여 부요하게 되도록 하시기 위하여 그는 우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셨다. 우리를 향한 그분의 거의 마지막 말씀은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는 것이었다. 슬퍼하는 장소에서 마음이 괴로울지라도 그대는 기뻐할 것이다. 나는 그대를 위하여 이 세상에 왔다. 장래에도 나는 그대를 위하여 더욱 중요한 일에 몸바쳐 종사할 것이다. 나는 그대를 구원하기 위하여 이 세상에 왔다. 나는 나의 아버지의 나라에서 그대의 거할 처소를 예비하러 간다.

이 얼마나 우리에게 있어야 할 위로의 말씀인가! 지금 하늘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당신의 자녀들을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고 계신 그리스도의 일을 생각해 보라. 주께서는 우리가 이 처소에 거하기 위하여 준비하기를 원하신다. (서신, 121, 1897)

## 우리가 그의 얼굴을 볼 터이요

“그의 얼굴을 볼 터이요 그의 이름도 저희 이마에 있으리라”(계 22:4).

우리는 지금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없다. 그러나 이 세상에서 그를 받아들임으로써만 우리는 점점 그의 얼굴을 대면하여 볼 수 있을 것이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이 세상의 사물들로부터 시선을 돌이키도록 하기 위하여 우리의 눈을 당신에게 고정시키기를 원하신다. 우리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얼굴을 볼 수 있게 하는 그 준비를 지연시키게 할 만한 시간이 전혀 없다. … 하나님의 어린양 되신 예수님을 바라보고 그의 발자취를 따라감으로써만 그대는 하나님을 만나도록 준비할 수 있다. 그를 따라서. 그리하면 그대는 장차 하나님의 도성의 금 거리를 거닐게 될 것이다. 그대는 왕의 의복과 왕관을 벗으시고 자신을 인성으로 가리우신 그분께서 우리를 높이시고 당신의 영광과 존엄하심에 대한 계시를 주시기를 위하여 이 세상에 오셔서 우리 죄를 담당하셨음을 보게 될 것이다. 만일 우리가 지금 당신으로 말미암아 형성되고 빛어지도록 우리 자신을 맡긴다면 또한 하늘 왕국의 한 자리를 위하여 준비한다면 우리는 그분의 얼굴을 대면하여 보게 될 것이다.

하나님을 섬기기 위하여 생애를 바친 자들은 영원한 세월 동안 그분과 더불어 살게 될 것이다. “하나님이 저희와 함께 거하시리니… 하나님은 친히 저희와 함께 계셔서”(계 21:3). … 이 세상에서 그들은 마음을 하나님께 바치었다. 그들은 마음과 지성을 가지고 그분을 섬겼다. 지금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이름을 그들의 이마에 새기실 수 있으시다. “다시 밤이 없겠고… 이는 주 하나님이 저희에게 비취심이라 저희가 세세토록 왕노릇하리로다”(계 22:5). 그들은 거기서 한 장소를 구걸하는 자들로서 들어가는 것이 아니다. 이는 그리스도께서 그들에게 “내 아버지께 복 받을 자들이여 나아와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하라”(계 22:5)고 말씀하시기 때문이다. 주께서는 그들을 당신의 자녀로 받으시고 “네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 지어다”고 말씀하신다. 그들은 먼류관을 벗어 예수님의 발 앞에 던질 것이며 금거문고를 타면서 어린양에 대한 감사에 넘친 음악과 노래로 온 하늘을 가득 채울 것이다. 그때에 “그의 얼굴을 볼 터이요 그의 이름도 저희 이마에 있으리라”(계 22:4) (청년 지도자, 1896.8.20)

## 아직도 공개되지 않은 비밀들

“영원부터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속에 감취었던 비밀의 경륜이 어떠한 것을 드러내게 하려 하심이라”(엡 3:9).

많은 사람들은 여기에 바울이 언급한 바 그 비밀을 설명하기 위하여 노력해 왔다. 그러나 그것은 많은 것을 포괄하고 있으며 또한 하나님의 사랑과 선하심과 동정심에 관한 우리의 생각은 이상스럽게도 제한되었다. 영적 사물에 대한 우리의 지식이 그처럼 위축되고 쇠약해진 까닭에 우리는 빛으로부터 보다 더 큰 빛으로 전진하지 못하였다. 이 때문에 주님께서 귀중한 많은 것들을 이해하도록 우리의 마음을 여실 수 없으셨다. 세속적이고도 평범한 행동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실패하였음을 생각할 때에 우리는 자신을 겸비케 할 만한 것들을 가지게 된다. … 에덴에서 그 약속이 주어진 이래 하나님께서는 선지자들을 통해서 당신의 비밀들을 나타내셨다. … 그러나 많은 신비들이 아직도 드러나지 않은 채 남아 있다. 진리라고 인정을 받고 있는 것들에 참으로 많은 것들이 인간의 마음에는 오묘요, 불가해한 것들이 아닌가! 하나님의 섭리가 참으로 어둡게 보일 때가 있지 않은가! 하나님의 도덕적 정부에 대한 절대적 신뢰와 믿음이 얼마나 필요한가! …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부요함이여 그의 판단은 측량치 못할 것이며 그의 길은 찾지 못할 것이로다.” 지금 우리는 하나님의 오묘를 능히 깨달을 수 있을 만한 영적 진보를 이루지 못하였다. 그러나 우리가 하늘 가족을 이루게 될 때 이 오묘들은 우리 앞에 공개될 것이다. …

그 다음 영원한 신비에 속한 것들 중에서도 알려져 있는 것을 우리가 그 재료를 수집하지 못하였거나 올바르게 평가하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지금 침묵을 지키고 계신 문제들 중 많은 것들이 하나님의 설명 중에 밝혀질 것이다. 섭리의 길이 분명하게 밝혀질 것이며, 그리스도를 통한 은혜의 신비가 공개될 것이다. 지금은 이해하기가 곤란하기 때문에 우리의 마음이 붙잡을 수 없는 것이 설명될 것이다. 설명할 수 없는 것같이 보이는 것 가운데서 질서를 볼 것이며, 보류해 둔 모든 것 중에서는 지혜를, 또한 나누어주신 모든 것들 중에서는 그분의 선하심과 은혜로운 자비를 깨달을 것이다. 애매모호함이 사라지고 마음에 진리가 뚜렷이 나타날 것이며, 그 밝은 깨달음은 오래오래 남아있을 것이며, 마음은 기뻐서 노래하게 될 것이다. 논쟁들은 영원히 끝날 것이며, 모든 어려운 문제들은 다 풀릴 것이다. (영문시조, 1987.3.25)

## 하나님의 사랑의 승리

“여호와께서 통치하시나니 땅은 즐거워하며 허다한 섬은 기뻐할지어다 구름과 흑암이 그에게 돌렸고 의와 공평이 그 보좌의 기초로다”(시 97:1,2).

사랑의 율법은 하나님의 정부의 기초이며 사랑의 봉사만이 하늘에 가납되는 유일한 봉사이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에게 의지의 자유를 허락하셨고 당신의 품성을 깨달을 수 있는 능력과 당신을 사랑하고 봉사하도록 선택할 수 있는 능력을 부여하셨다. 모든 피조물들이 하나님을 경배하는 동안 그들은 온 우주를 통하여 조화되었다. 하나님께 대한 사랑이 지극히 클 때에는 다른 사람에 대한 사랑이 충만하였다. 하나님의 품성에 대한 사랑이 충만하였다. 하나님의 품성의 사본인 법을 범하는 일이 없었으므로 부조화의 음률은 하늘의 조화를 깨뜨리지 못하였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모든 업적이 다 알려진 바 되었으며 영원한 시대로부터 은혜의 언약(분에 넘친 은총)은 하나님의 마음에 존재하였다. 그것은 영원한 언약으로서 불리워지는 바 이는 구속의 경륜이 사람이 타락한 후에 고안된 것이 아니요 “영세 전부터 감취었다가 이제는 나타내신 바 되었으며… 모든 민족으로… 알게”(롬 16:25,26)하신 바 되었다.… 하늘을 다스리는 그분 앞에는 과거와 미래의 비밀들이 똑 같이 전개된다. 하나님께서는 죄가 가져온 비애와 어두움과 파멸 저편을 바라보시며 또한 당신이 뜻하신 바 사랑과 축복의 역사 하심을 바라보신다. 비록 구름과 어두움이 그의 주위에 있다 할지라도 의와 공의가 주님의 보좌의 기초이다.… 구원의 경륜을 통하여 사람의 구원과 땅의 구속보다도 더욱 큰 목적이 이루어져야만 한다.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품성을 나타냄으로 말미암아 거룩한 정부의 선행이 온 우주 앞에 나타나며 사단의 송사는 반박을 당하고 죄의 성질과 결과는 명백해지며 율법의 불변성은 충분히 드러날 것이다.

그 때에 죄가 근절됨으로 인하여 당신의 뜻을 행하기를 즐거워하고 저희 마음속에 당신의 율법이 있는 우주의 거민들 앞에서 하나님의 사랑이 옹호되고 그분의 영광이 확립될 것이다. (영문시조, 1893.2.13)

## 하나님의 목적의 성취

“이는 이제 교회로 말미암아 하늘에서 정사와 권세 들에게 하나님의 각종 지혜를 알게 하려 하심이니 곧 영원부터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예정하신 뜻대로 하신 것이라”(엡 3:10,11).

그리스도께서는 단순히 인간의 구원을 성취하며 또한 이 작은 세상의 주민들이 하나님의 율법을 마땅히 존경해야 하리만큼 존경하도록 하기 위하여 이 세상에 오신 것뿐 아니라 하나님의 율법은 변할 수 없으며 죄의 삶은 사망이라는 것을 우리는 생각해야만 한다.

우리가 언뜻 보아 생각할 수 있는 것보다 이 문제에는 더욱 많은 것이 포함되었다. 오! 모든 사람이 성경을 주의 깊이 연구하여야 할 중요성을 깨달았으면 얼마나 좋겠는가! 많은 사람들은 이 세상과 하늘의 집들이 하나님의 세계를 구성하고 있다고 생각하는 듯 싶다. 그러나 그렇지 않다. 구속받은 우리들은 이 세계로부터 저 세계에 다니면서 구원의 비밀들을 탐구하는데 저들의 대부분의 시간을 사용할 것이다. 영원한 세월을 통하여 이 주체는 끊임없이 그들의 마음에 공개될 것이다. 어린양의 피와 그들의 증거 하는 말로 인하여 승리한 자들의 특권은 가히 헤아릴 수 없다.

우리 각자들은 타락한 원수와 더불어 싸워야만 한다.… 자신에 대하여 승리함으로써 즉시 전투를 개시하라. 마귀에게 점령을 당하게 하지 말라.… 그대의 감화에 대한 모든 비증을 그리스도의 편에 두라.

그대가 갈바리의 십자가를 쳐다 볼 때에 그대는 인류를 구원코자 하는 하나님의 사랑과 그의 자원 하는 마음에 관하여 의심할 수 없게 된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에게 하늘의 영광을 돌린 모든 세계 위에 또한 모든 세계를 갖고 계시다. 그리고 하늘과 전 우주세계는 이 세계가 만일 멸망하게 내버려두어도 또한 기쁨이 있었을지도 모르지만 그러나 그분의 사랑은 이 타락한 인류가 영원한 죽음으로부터 구원받게 하기 위하여 당신 자신의 사랑하는 독생자를 내어주실 만큼 큰 것이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하여 갖고 계신 애착과 사랑을 볼 때, 그에 응하지 않으면 안된다. 여호와와 싸움을 용감하게 싸우기 위하여 우리의 모든 힘을 예수님께 두지 않으면 안된다. 우리는 우리의 영혼을 헛되이 잃어버려서는 안된다. 우리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죄의 편에 설 수 없다. 영생 곧 영광의 왕국에서의 영생은 모든 것보다 가치가 있다. (리뷰 앤드 헤럴드, 3886.3.9)

## 그 앞에 있는 즐거움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 보자 저는 그 앞에 있는 즐거움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히 12:2).

지상에 있어서의 그리스도의 사업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는 것이었다. 비록 피의 침례를 먼저 받으셔야만 하고 세상 죄의 무거움이 그분의 무죄한 심령에 놓여져야만 하며 말할 수 없는 비애의 그림자가 항상 그분 위에 머물렀다 할지라도 그분은 언제나 당신의 사명의 결과를 보셨던 것이다. 그러나 당신 앞에 놓인 즐거움을 인하여 그분은 십자가를 견디시고 부끄러움을 개의치 않으셨다. 그분은 죄 많은 사람이 구원함을 받고 높임을 받으며 고상해져서 당신의 보좌에서 당신과 함께 앉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이 모든 것을 참으셨다.

그리스도께서는 거룩한 진리의 창시자이시다. 그분은 죽을 인간이 알 수 없을지라도 거룩하신 사랑의 연민에 대한 높이와 깊이와 길이와 넓이와 충만함을 아시었다. 그분은 죄인들이 거룩한 빛을 거절할 때에 그들이 어떠한 축복을 거절하는지를 아셨으며 하늘의 진리를 거절하는 영혼에게 두려움이 임할 것을 아셨다. 그리스도만이 하나님을 반역한 자들이 받아들이기를 거절하는 지극히 아름다운 영광이 무엇을 뜻하는지를 아셨다. 사람들은 죄에 오염되어 그들이 마음에 품고 있는 악의 무서운 성격에 관하여 올바른 개념을 가질 수 없다. 죄로 인하여 하늘의 존엄자께서는 하나님께로부터 매를 맞고 징계를 받았으며 고난을 당하셨다. 우리가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기 위하여 우리의 거룩한 대치물로서 주님께서 자원하여 당신의 영혼을 공의의 검 앞에 내어 놓으셨다. 그리스도께서는 “내가 다시 목숨을 얻기 위하여 목숨을 버림이라 이를 내게서 빼앗는 자가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스스로 버리노라...”(요 10:17,18)고 말씀하셨다. 이 세상의 어떤 인간이나 하늘의 천사라도 죄값을 갚을 수는 없었다. 예수님만이 반역한 인간을 구원할 수 있는 유일한 분이셨다.(리뷰 앤드 헤럴드, 1892.12.20)

예수님 앞에 놓인 즐거움은 당신의 영광과 존경과 부와 당신 자신의 생명을 희생시킴으로써 영혼들이 구속받는 것을 보는 그것이었다. 인간을 구원하는 것이 그의 기쁨이셨다. 구원받은 모든 이들이 하나님의 나라에 모일 때에 예수님은 당신의 영혼의 수고하신 것을 보고 만족히 여기실 것이다.(교회증언 2권, 686)

## 그리스도의 수고의 결과

“가라사대 그가 자기 영혼의 수고한 것을 보고 만족히 여길 것이라 나의 의로운 종이 자기 지식으로 많은 사람을 의롭게 하며 또 그들의 죄악을 친히 담당하리라”(사 53:11).

하나님의 아들은 당신의 영혼의 수고의 결과를 보시고 만족히 여기셨다. 영원을 내다보신 그분은 당신의 굴욕을 통하여 용서와 영생을 얻을 사람들의 행복을 바라보셨다. 그분은 구속받은 자들의 환호성을 들으셨다. 그분은 구속받은 자들이 모세와 어린양의 노래를 부르는 것을 들으셨다.(사도행적, 601)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그리스도께서 이 세상에 사시던 때 순간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선물을 계속 주셨다. 죄가 없으신 그리스도께서는 죄인들이 구원받도록 하시기 위하여 무한한 희생을 하시고 계셨다. 그분은 슬픔의 사람이요 질고를 아는 사람으로서 이 땅에 오셨으며 또한 당신이 구원하러 온 그들은 예수님이야말로 하나님에게서 징계를 받고 채찍에 맞아 고난 당하시는 자로서 바라보았다. 마치 죄인인 것처럼 고난의 잔이 그분의 손에 놓인 바 되었으며 그분은 그 잔을 남김없이 마시었다. 그분은 최후까지 세상 죄를 담당하시었다. 갈바리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나타난바 된 사랑은 줄로 측량할 수 없고 자로도 셀 수 없다. 당하신 고통의 하나 하나에서 우리는 하늘 아버지의 사랑의 진통을 본다. 하늘 아버지 자신이 죄로 멸망당하는 세상을 위하여 당신의 전능하신 크신 사랑으로 진통을 겪으셨다. 이루어진 희생으로 말미암아 영생의 선물이 아담의 모든 아들과 딸이 붙잡을 수 있는 곳에 놓여졌다.(서신, 100, 1911)

그리스도의 속량함을 받은 자들은 그분의 보석이며, 그분의 귀중하고 특별한 보물들이다. 그들은 “면류관의 보석”(슌 9:16) 곧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엡 1:18)함이다. 그리스도는 그들 가운데서 “자기 영혼의 수고한 것을 보고 만족히 여길”(사 53:11) 것이다. 그리스도께서는 당신의 모든 고난과 겸비의 보상으로, 또한 당신의 사랑과 당신의 영광을 보충하는 것으로서, 정결하고 완전함 가운데 있는 당신의 백성들을 주목하신다. 그리스도, 그분은 모든 영광을 발산하는 대 중심이시다.(리뷰 앤드 헤럴드, 1908.10.22)

## 우리 앞에 영원한 세상이 있음

“저희는 힘을 얻고 더 얻어 나아가 시온에서 하나님 앞에 각기 나타나리이다” (시 84:7).

온 하늘은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백성이라고 주장하는 자들을 큰 흥미를 가지고 바라보고 있다. 여기에 하나님의 모든 허락들을 마땅히 주장할 수 있는 자들이 있으며 영광에서 영광으로, 힘에서 힘을 더하여 나아가야 할 자들이 있으며 또한 그들이 하는 일에 있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할 위치 가운데 놓여져야 할 자들이 있다. 우리는 하나님의 풍성한 축복을 받아왔다. 그러나 우리가 여기서 중지해서는 안된다. 우리는 하늘에서 거룩한 빛 줄기를 점점 더 많이 붙잡아야 한다. 우리는 빛을 받아 그 빛의 영광을 다른 사람의 길에 반사할 수 있는 바로 그 곳에 서야만 한다. 우리는 생명의 샘으로부터 점점 더 깊이 마실 필요가 있다. 그대는 “주께서 내 영혼을 위하여 어떤 일을 하셨는가 들어 보라”는 산 증언을 할 수 있을 것이다. 주께서는 아직도 보다 더 큰 축복들을 나누어주시기 위하여 준비하고 계시다. 그분은 당신의 모든 선하심이 모세 앞에 지나가도록 허락하셨다. 그분은 당신의 품성을 자비가 충만한 하나님으로서 선포하셨는데 곧 오래 참으시고 자비롭고 악과 과실과 죄를 용서하시는 분으로서 선포하시었다.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품성을 나타내어 선포 하였는데 우리도 그와 동일한 일을 하여야만 한다. 우리는 하나님의 선하심을 선포하기 위하여 나아가야만 하며 사람들 앞에 그분의 참된 품성을 명백히 드러내야 한다. 우리는 그분의 영광을 반사해야만 한다. 우리는 모세가 정신과 생애로써 이스라엘 백성에게 행한 것처럼 하나님의 품성을 백성들에게 선포하자. 우리는 주님의 얼굴빛을 붙잡아야 하며 동정과 사랑의 충만함을 붙잡고 그것을 멸망당하는 영혼들에게 비취어야 한다.

나는 그대들에게 하나님을 따라 행하며 생명수의 샘으로부터 마시기를 권한다. 그대들은 잎사귀가 시들지 않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와 같이 될 것이다. 그대들은 수액이 충만하여 다른 이들을 시원하게 해 주고 은혜와 위로를 줄 수 있게 될 것이다. 나는 지금 예수님을 사랑하며 그분을 더욱 더 알기를 원한다. 나는 주님을 알기 시작한 것에 불과하며 더욱이 우리 앞에는 영원히 있고 또한 주님의 영광이 나타나려고 한다. 이제 우리는 우리의 거룩하신 주님과 더욱 친숙해질 것이다. (리뷰 앤드 헤럴드, 1889, 2, 26)

## 드디어 분향에!

“아버지여 내게 주신 자도 나 있는 곳에 나와 함께 있어” (요 17:24).

하나님의 사랑은 측량할 수 없고 비교할 수 없다. 그것은 무한하다. ... 우리가 그리스도의 위엄과 영광을 명상할 때에 잃어버린 세상을 구속하기 위하여 갈바리의 십자가상에서 희생을 당하시도록 한 그 사랑이야말로 얼마나 위대한지를 깨닫게 된다. 이 주제는 영원한 시대를 통하여 경이와 놀라움으로써 성도들의 마음을 채울 것인데 그렇다면 우리가 어찌하여 지금 이 세상에서 이것을 명상하지 않겠는가? ... 하나님께서 육체로 나타나신 바 된 그 경건의 비밀이야말로 얼마나 신기한가! 이 비밀은 우리가 그것을 이해하려고 노력할 때마다 증가될 것이다. 그것은 능히 이해할 수 없다. 그러나 인간은 죽을 수밖에 없는 자신들이 예수님과 그의 무한한 사랑에 대하여 가질 수 있는 미약한 견해까지도 방해 당하도록 세상 사물들을 허용한다. ... 우리가 세속적이고도 평범한 사물에 대하여는 것처럼 열을 낼 수 있으면서 이 장면 곧 하나님의 사랑하시는 아들이 죽으심으로써 나타내신 바 된 그 사랑 즉 갈바리의 십자가에 관하여는 어찌하여 마음이 격동되지 아니하는가? ... 방탕하고 죄가 많으며 감사할 줄 모르는 자들을 아버지의 집으로 도로 데려가시기 위하여 이 모든 비애와 고통이 치러진 바 되었다. 오! 축복을 받은 자들의 그 분향! 나는 가히 그것을 잃어버릴 수 없다. 내가 하나님의 나라에 가면 구원의 경륜에 관한 새로운 깊이를 더욱 이해하기 위하여 계속 연구할 것이다. 구속받은 모든 성도들을 일찍이 볼 수 없었던 아버지와 아들의 사랑을 깨달아 감사할 것이며 불멸의 입술에서는 찬양의 노래가 터져 나올 것이다. 그분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셨으며 우리를 위해 당신의 생명을 바치셨다. 우리는 영광스러운 몸, 증진될 능력, 순수한 마음, 더럽혀지지 않은 입술로 구속의 사랑의 풍성함을 노래할 것이다. 하늘 나라에는 고통 당하는 사람들도, 우리가 영원한 사물의 실재를 확신시키기 위해 애써야 할 불신자들도, 또한 뿌리 뽑아야 할 편견도 없을 것이며 모든 사람이 지식에 넘치는 사랑을 깨달아 알게 될 것이다. 예수님께서 우리 하나님의 도성을 즐겁게 하는 생명수 강가의 푸른 초장으로 구원받은 자들을 인도하실 곳에 하나님의 백성들이 쉴 곳이 있으니 그곳에서 쉬며 하나님께 감사드리도록 하자. 그때에 주님께서 당신의 아버지께 드린 기도, “아버지여 내게 주신 자도 나 있는 곳에 나와 함께 있”(요 17:24)게 해 달라고 간원하신 주님의 기도는 응답 받게 될 것이다. (서신, 27, 1890)

## 그리스도의 영광에 참여함

“이는 우리의 하나님이사라 우리가 그를 기다렸으니 그가 우리를 구원하시리로다. 이는 여호와시라 우리가 그를 기다렸으니 우리는 그 구원을 기뻐하며 즐거워 하리라” (사 25 :9).

그리스도께서 오신다! 인간이 당한 재난에 관한 소식에는 귀를 기울이지 말고, 죄인이 범한 죄를 고백하는 말들을 들으며 그분께 용서를 구하라. 죄 속에 살고 있는 자들은 영영토록 죄인으로 남아 있을 것이다. 성소에서 자기 죄를 예수님께 고백하고 그분을 자기 친구로 삼고 그분의 나타나심을 사모해 온 자들은, 자신들의 기록된 죄 전부를 용서받게 된 것이다. 그리고 “진리를 순종함으로” 영혼이 정결케 된 그들은 영원히 순결하고 거룩한 채로 있을 것이다.

예수님께서서는 승천하실 때의 그 모습 그대로 재림하시는데, 거기에 영광이 더해지실 것이다. 그분께서는 하나님 아버지의 영광과 함께 오시며 거룩한 천사들이 모두 그분과 함께 그분 가시는 길을 호위한다. 그분의 거룩한 이마에는 찌르는 잔혹한 가시관 대신에 영광으로 빛나는 면류관이 그분의 거룩한 이마위에 얹혀 있다. 그 때 그분께서는 슬픔의 사람, 인간의 비애를 아는 사람으로 나타나시는 것이 아니다. 그분의 용모는 대낮의 태양빛보다 더 밝게 빛날 것이다. 그분께서는 평범한 외투를 입고 나타나시지 않고 눈부시게 밝을 뿐 아니라, 눈보다 흰 의복을 입으실 것이다.

예수님께서 오신다! 그분께서는 죽은 자 중 의로운 자들을 일으키시고 살아 있는 성도들을 영광스런 불멸의 몸으로 변화시킨다. 그리고 성도들과 함께 모든 하늘 아래의 왕국들을 손에 넣으신다. 이 왕국에는 끝이 없다. 그 때에 그리스도를 꾸준히 기다려온 사람들은 그리스도를 닮게 될 것이다.

만일 하늘에서 온 한 천사가 로마 군인을 죽은 자와 같이 넘어지게 하였다면, 그분과 함께오는 천만 천사들과 그의 아버지의 영광 가운데 계신 예수님을, 준비되지 못하고 부정한 자들이 어떻게 그분의 영광을 보고 견디어 살 수 있을까? 오! 죄인들이 이 광경을 어떻게 견딜 수 있을까? 저들은 산과 바위에 게 이르되 ‘우리위에 떨어져 보좌에 앉으신 이의 낮에서와 어린양의 진노에서 우리를 가리우라’고 부르짖을 것이다. ...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 철저히 준비하라. 그분이 나타나시면 그 때는 기뻐서 ‘보라 이분이 우리의 하나님이다. 우리가 그분을 기다렸고 그분께서는 우리를 구원하시리라’ 고 외칠 것이다. 영원한 생명은 그대의 것이다. 그리고 그대는 그리스도와 함께 그분의 영광에 참여하는 자가 될 것이며, 그분께서 승인 하시는 영광의 음성까지도 들을 것이다. 그리고 사랑으로 충만한 그분의 형상도 볼 것이다. (칭년 지도자, 1854. 4. 1.)

여호와와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누이시며 쉼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데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데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베푸시고 기름으로 내 머리에 바르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나의 평생에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정녕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거하리로다

시편 23 장

# 그리스도를 나타내자

발바라 몬트로우즈

우리는 두 돌비의 계명들을 말한다,  
그들이 따라야 할 삶의 지침으로 말이다.  
얼마나 자주 첫 번째 돌비의 사상에서  
연약한 우리가 보지 못하는 부분이 있는지

우리는 10계명에 의해 심판을 받는다,  
첫째에서 넷째뿐이 아니고  
우리는 5번째에서 10번째까지 유의해야  
한다,  
우리의 교만을 낮추는 것이  
우리가 필요로 하는 것 중 가장 위대한 것  
이다.

죽임당한 어린 양을 따라가는 사람들을 사  
랑하는 것은  
바다만큼 넓은 이론이다,  
그럼에도 우리는 그의 창에 찢린 옆구리를  
보면서  
아무런 감정도 없다니

순종은 활력이며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만  
이 아니다,  
바리새인들은 어떻게 그것을 묵살하는지를  
보여 주었다,  
우리가 예수님의 실제 밭으신 길을 간과 할  
때,  
다른 이들에 대한 그분의 진정한 사랑을 무  
시하는 것이다.

표면을 넘어서 깊은 의미를 찾아보자,  
그리스도인 일꾼들의 믿음과 열심으로!  
사랑하는 영혼들이 이제 죽어가고 있다, 아  
무런 희망도 없이!  
이제는 게으른 자가 되지 말자고 호소하십  
니다.

우리는 사명을 받았고 더 빨리 활동할 것을  
촉구한다,  
초조해하거나 불안해 할 시간이 없다,  
천사들은 함께 봉사하기를 기다리고 있고  
우리를 힘주시고 인도하시는 주님이 계시  
니까!

영혼들이 우리를 보고 그들이 보는 것을 볼  
때,  
그리고 우리 목소리의 모든 음색을 듣고,  
그들은 곧 그것이 "나"가 아니라는 것을 알  
게 될 것이다,  
누구의 임재로 인하여 기뻐하게 하는가?

높여야 할 분은 십자가에 달리신 그분이시  
다,  
심한 어둠에서 영혼을 이끌어내시는 분  
그래서 우리는 자존심을 기꺼이 바라 볼 수  
있지만 손실은 있다,  
우리만 그분을 반영한다면!

지금 시간은 짧고 성령은 준비되었다,  
위로부터 값없이 부어지는 것  
위대한 능력은 확신과 확고함을 약속한다,  
놀라운 큰 외침은 고조되고 있다!

이 영광스러운 기회는 죄인들에게까지 확  
대된다,  
곧 우리는 위대한 상을 얻을 것이다,  
하나님은 씻어서 깨끗하게 하시며 우리로  
이기에 하신다,  
그분은 우리가 현명해질 때까지 가르치고  
계시다.

우리의 주요 목표는 단지 나누는 것이다,  
아무도 구원은 잃어버리지 말아야 한다!  
인생의 목적은 "저기에 있는" 사람들을 돕  
는 것  
그래서 그들이 좋은 소식을 받아들일 수 있  
도록!

우리는 새해를 맞을 때에 우리의 길을 숙고  
하여  
우리의 마음이 하늘에 초점을 두도록 하자,  
하나님을 경외하는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말을 지침으로  
다른 사람들로 하나님은 사랑이시라는 것  
을 알도록!